

이만민문학자료총서 ⑧

지송사고

遲松私稿

김석환
지음
金錫煥

일러두기

- 본서는 함평 김해김씨 지송정사 자료를 저본으로 하였다.
- 본서는 김석환의 문집 초고본을 문체별로 분류하여 편집한 것이다.
- 시문 수록 순서는 대체로 문집 초고본의 순서를 따랐다.
- 저자가 ‘刪’이라고 표기한 것은 대부분 수록하였다.
- 저자가 ‘重出’이라고 표기한 것은 대부분 삭제하였다.
- 원본은 현재 (재)한국학호남진흥원에 소장되어 있다.



지송(遲松) 김석환(金錫煥) 선생 진영



華秋園相在表類
上居名狀壯園名秋園多自其在天
機目是而海茫茫意相與島忘性
難學今備痛把持為喜以人

遲松私稿
有非花護林池仙處逢一翠半遲松掛標文久負名詩
而面而仁天賦難言朝氣各守安美蔭善鏡煙生在
實山保不遲松安相字兩佳也
遲松齋講會韻 丁酉九月
萬事意為難得當時意氣為流快活竟竟四時晚運者言
萬頃美畫前川陸柳其清上被篇詩一語一語奇志萬萬年
皆此進
又
丁酉九月
遲松齋講會韻
古人者賦秋名俊心何壯大詩多實言六二運用志同舞
甚名從與備

丁亥九月三十日
遲松齋詩合

遲松齋講會韻
萬事思量抱展揚當
時不遇苦名流吟詩不
覺花中吻對鏡 還為
雲滿頭午霽前川隨
柳岸波清上已祇蘭柳
一編一示陸音告莫向東
風借此遊 遲松金錫使

遲松齋講會韻

遲松時序歌
丁酉閏四月二十日 甲

依
東
做濟陽黃花雜詩
遊秋榴州頭

長文稿
家中寶鑑

遲松私稿
松原稿
卷一
卷二
卷三
卷四
卷五
卷六
卷七
卷八
卷九
卷十
卷十一
卷十二
卷十三
卷十四
卷十五
卷十六
卷十七
卷十八
卷十九
卷二十

4 지송사고(遲松私稿)

해 제

1. 김석환의 가계와 생애

김석환(金錫煥, 1868~1939)의 자는 장숙(章叔), 호는 지송(遲松), 본관은 김해(金海)이다. 삼현파(三賢派) 탁영 김일손(金駟孫)의 후손으로, 할아버지는 동몽교관 김종후(金宗厚)이고, 아버지는 불온당(不慍堂) 김학규(金鶴奎, 1851~1907)이며, 어머니는 영광정씨(靈光丁氏)이다.

선조인 탁영 김일손(金駟孫, 1464~1498)은 김극일(金克一)의 손자이자, 김맹(金孟)의 아들로, 점필재 김종직의 문하생이 되어 김굉필·정여창·남효온 등과 함께 성리학을 배웠고, 세조의 계유정난에 대한 부당성을 풍자하여 스승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弔義帝文)을 사초에 실은 것으로 인해 무오사화가 일어나고 이때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다.

김석환이 태어난 곳은 함평군 손불면 대전리 저전(楮田) 마을인데, 이 마을은 1750년경 5대조인 김광재(金光載)가 입향하여 김해김씨가 터전으로 삼은 곳이다. 원래 은곡(隱谷)과 저전(楮田) 마을로 분리되었으나 마을이 연결되어 있어 한마을이 되었으며, 지금은 ‘수문’이라 부른다.

김석환은 태어나면서부터 천자가 수려하고 재기가 초매(超邁) 하였으며, 문사(文詞)를 일찍 성취하고 끝내는 대가가 되었다. 여러 차례 향시에 합격했지만 끝내 회시에는 합격을 하지 못하여 사람들이 애석하게 여겼다.

김석환의 아버지 김학규는 동해(東海) 김훈(金勳)의 문하에서 종유하였는데, 김석환도 고모부인 동해 김훈의 문하에서 수학한 것으로 보인다. 김훈(金勳, 1836~1910)은 광산인으로, 아버지는 김광련(金光鍊)이며, 함평에서 살았다. 26세(1861) 때 금산의 금곡(鎬谷) 송래희(宋來熙) 문하에 들어가 수학하고, 31세(1866) 겨울에는 장성 하사리의 노사선생 문하에서 노닐었으며, 1880년 정월에는 노사선생의 부음을 듣고 3개월간 가마(加麻)를 하였다.

김석환은 또한 면암 최익현(崔益鉉)을 스승으로 섬겼는데, 깊이 장후(獎誦)함을 입었고, 선생이 순창에서 거의할 때 달려가서 도운 것이 실로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경술년 국권피탈 이후에는 임천에 자취를 감추고 사문(斯文)을 일으키는 것으로 자기의 임무로 삼고 후진들을 교육하며 생을 마쳤다.

김석환의 배는 진주정씨로, 4남 2녀를 두었는데, 충영(忠永), 호영(昊永), 지영(芝永), 우영(佑永), 최귀대, 문경필이 그들이다. 그 중 막내아들 김우영(金佑永)은 작은아버지 김석우(金錫愚)의 계자(系子)가 되었지만, 김석환의 사업을 주로 이어간 사람이다.

김석환은 시대가 전환되는 큰 변동기에 살다가 간 사람이다. 과거공부에 매진하던 젊은 시절을 보냈으며, 그러다가 과거제도가 폐지되자 희망을 접어야 했고, 결국 나라가 망한 세상에 살게 된 것이다. 김석환과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개화사상을 몸소 받아들여서 변화의 물결 속에 뛰어든 부류와 전통을 고수하며 향촌에서 후학을 가르치던 부류로, 김석환은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김석환의 생애는 크게 초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초년기는 주로 과거시험에 매진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으며, 이때 그의 저작물로는 그가 만들어놓은 문집초고 「1. 遲

松稿(風月集)」이 있다. 이때 교유하던 사람은 대체로 산속의 승려 정도밖에 없었고, 장소도 대체로 사찰이 많다.

김석환의 중년기는 자의든 타의든 과거시험에 대한 뜻을 접고 후학을 교육하고, 은둔처이자 교육공간인 누정을 경영하기도 한 때이다. 그의 문집을 보면 그 자신이 직접 경영한 누정 이름이 2개 나온다. 즉 지송정사(遲松精舍)와 태행정(太行亭)이다.

지송정사에 대해서는 1910년 9월에 지은 <지송정사상량문(遲松精舍上樑文)>과 1910년 12월에 지은 <지송정사기(遲松精舍記)>가 남아있어서 대략을 살필 수 있다. 원래 문집 초고본에는 들어있지 않고 낱장문서로 남아있던 것을 본서에 편차하여 넣었다.

즉 지송정사는 1910년에 월명산 아래에 초가집으로 지은 것으로, 이름을 ‘지송(遲松)’이라고 한 것은 송나라의 재상 범질(范質)이 자손을 경계한 시에 “곱디고운 정원의 꽃은 일찍 폼다 시들지만, 더디고 더딘 냇가 솔은 늦도록 푸르름을 머금네.[灼灼園中花, 早發還先萎, 遲遲澗畔松, 鬱鬱含晚翠]”라고 한 데에서 따온 것이다. 즉 소나무가 오래도록 무성하게 푸른 것을 본받기를 바라서 그리 지은 것이다.

건물 크기는 초가 3칸으로, 2칸은 방으로 1칸은 당으로 사용하였는데, 매우 협소하여 열 사람이 겨우 앉을 정도였다. 그리고 ‘지송’이란 호는 동해 김훈이 지어준 것이고, 석촌 윤용구(尹用求)가 제액을 써준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고문서 중에는 1924년 박한풍(朴漢豊)의 <지송재기(遲松齋記)>도 남아있다.

이때 주인 김석환이 지은 지송정사 원운시는 다음과 같다.

有松爲護我林泉 소나무 심어두고 나의 임천을 보호케 하니,
偏愛遲遲翠共連 유독 더딤을 사랑하여 푸른 빛 함께 이어지네.

敢擬棟樑支大廈 동량되어 감히 대하를 버티고자 하며,
 思沾雨露自仁天 우로 적실 생각은 저절로 어진 하늘이네.
 疎枝落落朝擎雪 성긴 가지는 축축 늘어져 아침마다 눈을 떠받
 들고 있고,
 密葉陰陰暮鎖煙 뻘뻘한 나뭇잎은 어둑어둑 저물녘 연기에
 잠겨있네.
 生在窮山俱不遇 궁산에서 살다보니 모두 때를 못만났고,
 歲寒相守兩悽然 세한을 지키다보니 둘 다 처량하여라.

위 원운시도 1910년에 지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는 바로 경술 국치가 있던 때인지라, 그의 시에서 서글픔과 함께 푸르름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인다.

1910년경에 지은 지송정사에서는 거의 모임을 갖거나 시회를 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위 시에 대해 차운시라고는 다만 영사(潁史) 김두삼(金斗三)과 채헌(蔡軒) 조병만(曹秉萬), 금강(錦岡) 김규현(金奎鉉)이 지은 시 3수만 있을 뿐이다.

또한 김석환이 호를 ‘지송(遲松)’이라고 한 것도 지송정사를 지은 시기와 동떨어진 것 같진 않다. 고문서 속에는 1913년 정동근(鄭東根)의 <지송실기(遲松實記)>, 1915년 김두삼의 <지송기(遲松記)>, 1917년 오준선(吳駿善)의 <지송기(遲松記)>, 1918년 이계화(李啓華)의 <지송기(遲松記)>, 1935년 김병래(金秉來)의 <지송기(遲松記)> 등이 남아있다.

지송정사는 김석환이 살던 마을에서 그리 떨어지지 않은 대밭 속에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김석환은 1918년에 태행정(太行亭)을 지어서 그곳에서 한동안 지낸 것으로 보인다. 시에 의하면 태행정은 산의 높은 곳에 자리하고, 서해바다가 바라보이는 곳이었다는 것 같다. 그렇다면 살던 마을과는 조금 떨어져 있

지 않았을까 싶다. 풍수(風樹)의 시어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부모 묘소를 지키고자 한 것으로 추정된다.

태행정 원운시는 다음과 같다.

白雲長在太行秋 흰구름 속에 파묻힌 태행산에 가을 되자,
爲我思親未肯收 나의 어버이 생각은 견히지 않네.
多日心懸風下樹 허구한 날 마음은 풍수의 한에 맺혀,
有時夢入月中洲 때때로 꿈속에서 달속 섬에 드네.
四隣絃誦吾堪樂 사방의 현송소리는 내가 즐기는 것인데,
一逕漁樵孰與儔 한 길로 고기잡고 나무하니 누구와 더불어 짝할꼬.
煙夕露朝來往震 연기 낀 저녁과 이슬 내린 아침으로 왕래하며,
不辭故舊便休休 옛 친구들 사양 않고 편하게 받아들이네.

위 시에 차운한 사람은 영사(穎史) 김두삼(金斗三), 유계(柳溪) 홍우준(洪祐竣), 쌍오(雙梧) 김봉수(金鳳洙)가 있다. 위 시 외에도 태행정 관련시는 상당히 많이 실려 있는 편이다. 여러 편 중에서 그가 이곳을 경영한 시기를 알 수 있는 시를 한 수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五十今年悟昨非 오십인 금년은 지난날이 잘못임을 깨닫거니,
此心竟與世相違 이 마음이 끝내는 세상과 어긋났음이라.
暮春風浴猶爲快 모춘에 풍욕하니 오히려 상쾌하고,
陋巷簞瓢可使肥 누항에서 단포로도 풍성하게 살만하네.
天時易感逢寒食 천시를 쉽게 느껴 한식을 만나고,
聖訓猶餘戒煖衣 성훈이 아직 남아 따뜻한 옷 경계하네.
一片柴扉終日掩 한 짝의 사립문은 온종일 닫혀 있고,
讀聲高處客來稀 독서소리 높은 곳에 손님은 드무네.

저자는 50살을 맞이하여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며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속진세상을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가난을 즐기며 살고자 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김석환의 노년기는 그리 길지 않은 편이다. 노년에는 주로 강학 활동과 저술활동을 활발히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문장의 저술은 대체로 노년기에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문집초고본에 실리지 못한 문장도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또한 제자들이나 벗이 많아지고, 아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지송정사를 새롭게 중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생전에 작성한 「遲松齋講會韻」이 2권 있는데, 모두 1937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하나는 3월 3일, 하나는 9월 20일의 강회에서 나온 시이다. 이때 강회원운시에 대해 차운시를 낸 사람이 상당히 많으니, 3월 3일에는 115명이나 참여를 하였다. 이렇게 1년에 2차례의 강회를 행함으로써 함평지역 학문 부흥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김석환의 교유활동

김석환의 교유인물은 중년기와 노년기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함평지역 사람이나 인근의 영광지역 사람 등에 한정되어 그리 넓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행을 하면서 활동지가 조금 넓어졌을 뿐 대체로 함평에서 자정하면서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석환의 중년기에 가장 친한 벗은 영사(穎史) 김두삼(金斗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역시 손불면 죽장리 장동마을 발봉산(鉢峰山) 아래 영빈정사(穎濱精舍)를 짓고 강학을 한 사람이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김두삼은 고종이 승하했을 때 유생들과 함께

발봉산에 올라 통곡을 하였다고 한다.

노년기에 친한 사람으로는 월파(月坡) 김병래(金秉來)가 있는데, 그는 광산인으로, 병자년(1936)에 손불면 죽암리 석령(石嶺)에 소산정(小山亭)을 경영한 사람이다. 김석환의 문집초고에 그의 시가 몇 수 붙어있다. 이 두 사람은 고종의 인산일에 서울에 올라가 인산 행렬을 보고 온 것으로 보인다. 그의 시중에서 기미년 2월에 지은 <광무황제인산유감(光武皇帝因山有感)>과 <인산후 귀가유감(因山後歸家有感)>이 있는데, 밑에 월파(月坡)의 시가 붙어있는 것으로 보아 서울행은 월파 김병래(金秉來)와 함께 했음을 알 수 있다. 위 두 사람은 내려오는 길에 계룡(鷄龍)을 들렀는데, 역시 두 사람이 시를 남겼다.

<光武皇帝因山有感> 광무황제 인산을 보고 느낌이 있어
大漢門深鎖翠微 대한문은 청산 속에 깊이 잠겨있는데,
天顏胡乃與時違 임금께선 어찌하여 시운과 어긋났나.
臣民痛哭蒼梧淚 신민들 창오의 눈물 흘리며 통곡하니,
龍鳳交爭白日暉 용과 봉이 태양 빛 아래 서로 다투네.
景福宮前朝早發 경복궁 앞에서 아침 일찍 출발하시어,
淸涼里外暮同歸 청량리 밖에서 저물녘 함께 돌아가시네.
嗚呼五百餘年事 아, 오백여 년의 일이며,
金谷春風鳥自飛 금곡의 춘풍에 새들 절로 날아오르네.

고종의 승하는 국가 회복에 대한 꿈을 저버리게 하는 대사건이었다. 그리하여 전통을 고수하던 초야의 선비들은 한 곳에 모여 통곡을 하고, 인산일에는 서울에 올라가 참여했던 것이다. 위 시를 통해서 고종의 인산행렬은 경복궁 앞에서 출발하여 청량리 밖에서 끝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밖에 교유인물로 문집초고를 통해 드러난 사람으로는 유계(柳溪) 홍우준(洪祐竣), 쌍오(雙梧) 김봉수(金鳳洙), 만성(晩惺) 김병규(金秉圭), 연사(蓮史) 이계인(李啓仁) 등이 더 있었다.

김석환은 많은 곳에서 시를 남겼지만 특히 자주 나오는 곳은 벽류동(碧柳洞)이다. 현재의 함평 신광면 유천리 벽유마을에 해당하는 곳으로, 이곳에는 역시 쌍오(雙梧) 김봉수(金鳳洙)가 경영한 귀래정(歸來亭)과 의두정(依斗亭)이 있어서 자주 찾았다. 그는 이곳에서 1917년 6월에 우리가 잘 아는 남종화가 미산(米山) 허준(許準, 허형)을 만나 시를 남겼다. 칠언율시 2수가 있는데, 그중 그림에 대한 김석환의 심미안을 볼 수 있는 대목만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庭樹蟬吟秋髣髴 마당의 나무에서 매미 우니 가을이 방불하고,
海天燕舞雨分明 바다 위에서 제비 춤추니 비올 것이 분명하네.
知君筆下多名畫 그대의 붓끝에서 나온 명화가 많음을 알겠거니,
梅竹松蘭各有聲 매화 난초 소나무 대나무 그림에 모두 명성 있어라.

雲水渺然分手路 구름과 물은 아득하게 손길에서 나뉘고,
門前楊柳使人愁 문앞의 버드나무는 사람을 근심스럽게 하네.

미산(米山) 허형(許滢, 1861~1938)은 호남 남종화의 실질적 종조(宗祖)라 일컬어지는 소치(小癡) 허련(許鍊)의 넷째 아들로, 가업(家業)인 화가의 길을 걸었다. 진도, 강진, 목포 등지에서 활동하였고, 근현대 호남화단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 아들 남농 허건(許健)과 족손 허백련(許百鍊)에게 그림을 가르쳤다. 그림으로 생계를 이어가느라 진도에서 강진 병영(兵營)으로 이사하였으며, 1921년에는 목포로 다시 이사하여 생활하였다. 1923년에 개최된

제2회 조선미술전람회 동양화부에 허준(許準)이라는 이름으로 <하경산수(夏景山水)>를 출품하여 입선하였고, 1928년 6월 광주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80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허련의 화법을 본받은 산수화·사군자·괴석 등을 수묵화로 그려냈다. 1917년경에 허형은 이미 화가로 이름이 났고, 김석환은 그의 실력을 알아보았으며, 연배도 비슷하여 쉽게 친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석환의 시 중에는 누정 이름이 많이 나온다. 즉 누정시가 많다는 뜻이다. 대부분 함평에 소재한 누정인데, 이 시기 선비들은 각 누정을 돌아다니면서 차운시를 남기는 것이 유행이기도 하였다. 그가 시를 남긴 누정은 이외에도 경모재(景慕齋, 校村), 취석정(醉石亭, 李敦炯), 영효재(永孝齋, 碧柳洞), 한매당(寒梅堂, 丁學魯), 은구재(隱求齋), 연정(蓮亭, 箕陽 李萬頃), 기양정(岐陽亭), 오사재(五思齋, 崔南基), 관가정(觀稼亭), 춘파정(春坡亭), 부용루(芙蓉樓, 金仁善), 야은정(野隱亭, 河君), 심양정사(溇陽精舍, 金後翠), 은곡재(隱谷齋), 망운재(望雲齋), 영월정(迎月亭), 초심정(草心亭), 쌍간정(雙澗亭, 牟斯文), 구곡정(九曲亭, 大洞 龜山 李敦吉), 죽계정(竹溪亭, 張珉會), 귀은정(龜隱亭, 羅山面), 관란재(觀瀾齋), 문강정(聞江亭, 米山), 미산정사(米山精舍), 백운정사(白雲精舍), 죽림정(竹林亭) 등이 있다. 물론 위 중에는 함평에 소재하지 않은 누정도 들어갔을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타지역의 누정에도 시를 남겼으니, 영광 겸산서실(謙山書室), 남원 광한루(廣寒樓), 고창 용오정(龍塢亭, 鄭坊奎), 목포 초심정(草心亭, 金星圭), 진주 축석루(矗石樓), 담양 월산재(月山齋, 密陽朴氏), 영광 침수정(枕水亭, 金奎鉉), 동북 애련정(愛蓮亭, 吳亨南), 광주 운림당(雲林堂), 장성 송오정(松塢亭), 장성 영천정(鈴泉亭), 광주 오산정(梧山亭) 등이 있다.

이 시기 또 다른 특징으로 시사(詩社)가 많이 결성된 것을 들 수

있다. 지역마다 시사가 몇 개씩 만들어진 것이다. 문집초고에 들어있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은 기영시사(箕穎詩社)라고 할 수 있는데, 함평의 대표 시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기영시사에서 지은 시는 문집초고에서 뿐만 아니라 고문서 속에도 많이 들어있다. 이 밖에도 문집초고에는 ‘매산시사(梅山詩社), 노장동(老藏洞) 시회, 귀래정(歸來亭) 기로회(耆老會), 구로회(九老會), 여수군 종산시사(鍾山詩社), 유천재(柳川齋) 시회, 기성계회(箕城禊會), 일신계(一信契), 나주 반양시사(潘陽詩社), 미산기로회(米山耆老會), 신광면 백운리시사(白雲里詩社), 설천운사(雪天雲社), 발봉산(鉢峯山) 시회, 나주 용산시사(龍山詩社)’ 등의 이름이 나온다. 김석환은 많은 시사나 시회에 참석하여 행사시를 지었던 것이다.

김석환의 재주는 아들 중 우영이 이어받은 것으로 보이며, 지송정사도 이 아들이 이어갔다. 김우영(金佑永, 1902~?)은 자가 윤약(潤若), 호가 소송(小松)이다. 김석환은 아들을 오준선(吳駿善)에게 보내어 수학하게 하고, 자신도 오준선과 중유하였다. 그는 재주가 뛰어나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고 전해지며, 손불면 면장이나 수리조합장을 역임하기도 하는 등 일찍부터 관직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석환의 사후에 사람들이 우러르며 영정을 지송재에 봉안하고 춘추로 향사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지송정사가 대밭 속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춘추 향사의 일도 일찍 그친 것으로 보인다.

3. 지송사과의 구성

함평 김해김씨 지송정사에서 한국학호남진흥원에 기탁해온 자

료 중 문집초고는 모두 13권이다. 그중 8권은 김석환의 원고에 해당하고, 나머지 5권은 부록에 해당한다. 8권중 6권이 시 모음집이고, 1권은 간찰, 1권은 문장 모음집이다. 시고의 이름은 ‘지송고, 지송운고, 지송사고, 지송본고’ 등으로 붙이고 있다. 부록으로 분류한 것은 다른사람의 차운시를 모아놓은 것으로, 차운시(수연시 포함), 강희운 등이 그것이다.

지송사고에 들어있는 시 중에는 저자가 직접 표시를 한 경우가 많은데, ‘산(刪)’이나 ‘중출(重出)’ 등을 표시하여 빼버리라는 의미로 보이지만, 본서에서는 ‘중출(重出)’의 경우에 실재를 확인하여 삭제하고, ‘산(刪)’의 경우에는 대부분을 책자에 넣었다.

그의 작품은 1890년에 한 차례 모아 정리를 하고, 이후로도 이러한 작업을 가끔 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그의 작품활동은 일찍부터 시작하여 타계하기 직전까지 계속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문집초고는 그때그때 책자로 만들다보니, 문체별로 분류가 된 것이 아니라 뒤섞여 있고, 시간순으로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1. 遲松稿(風月集)」는 ‘庚寅(1890)三月’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그가 남긴 문집초고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책자는 그동안 지은 것을 1890년 3월에 처음으로 모아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冬夜與故人吟>이라는 시부터 <觀魚> 시까지 76수가 실려 있다. 이 작품에는 시기 기록이 전혀 없어서 언제 지은 것인지 전혀 알 수 없고, 시간순으로 기록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모두 칠언율시이다.

「2. 遲松稿」는 ‘己亥(1899)春’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己亥寒食>부터 시작하여 모두 279수의 시가 실려 있는데, 이중 1수는 타인의 시이고, 53수는 칠언절구이며, 나머지는 모두 칠언율시

다. 이 책자에서도 연도표기는 극히 몇 수에 한정되어 있는데, 기해년(1899), 계묘년(1903), 병오년(1906), 신해년(1911)이 전부이다. 이것으로 보아 1899년부터 1911년경까지 작성한 시를 모은 것이 아닌가 한다. 특히 이 책자에서는 ‘刪’으로 표기된 곳이 많아서 39수에 해당되는데, 저자가 생전에 문집을 만들려 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빼버리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3. 遲松韻稿」는 작성연대 표기가 없다. 원래는 <太行亭記>가 앞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찢겨 있어서 <太行亭原韻>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앞의 26수가 모두 태행정 관련시이다. 시기는 무오년(1918)에 태행정에서 읊은 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1918년경에 태행정을 경영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밖의 시에 연도가 표기된 경우에는 을묘년(1915), 병진년(1916), 정사년(1917), 기미년(1919), 신유년(1921), 경신년(1920), 임술년(1922)의 표기가 있는데, 뒤섞여 있다. 이 책자에는 모두 175수가 실려 있는데, 다른 사람의 시가 제법 많이 실려 있어서 14수가 된다. ‘刪’자가 표기된 것도 22수나 된다. 175수 중 14수가 칠언절구이고, 1수는 오언율시이며, 나머지는 칠언율시이다.

「4. 遲松私稿」는 신미년(1931)에 만든 것이다. 여기에는 기사년(1929)에 작성한 <六十二歲正朝有感>부터 시작하여 병인년(1926), 무진년(1928), 기사년(1929), 경오년(1930), 병인년(1926), 을축년(1925)에 지은 시가 뒤섞여 있다. 그리하여 모두 203수의 시가 들어있는데, 이 중 7수가 타인의 시이다. 203수가운데 27수가 칠언절구이고, 1수는 오언절구이며, 배율시도 2수 들어있다. 이 책자에서는 ‘刪’자 표시가 없다. 그리고 끝에 붙인 ‘<黃金萬籊不如教子一經【詩】>, <倚杖觀魚【賦】>, <四月南風大麥黃【古風】>’ 3편은 원래 「8. 遲松原韻詩」 뒤에 붙어있던 것을 편의상 이곳으로 옮긴 것이다.

「5. 遲松稿(가제)」는 제목이 없이 엮여져 있는데, 여기에는 <遲松精舍原韻>이나 <遲松精舍講會韻(丁丑三月三日)>, <晬宴原韻(戊辰四月二十一日)> 등의 원운시, <箕穎詩社> 시 등에서 지은 시가 많이 실려 있어서 행사시 위주로 모은 책자임을 알 수 있다. 작성시기는 섞여있지만 병자년(1936)에 지은 시가 많고, 모두 97수가 들어있다. 또한 이번 항에서는 결락본인 시문집에서 시만을 가려서 이곳에 붙였는데, <蔡牧園相龜原韻>부터 <竹林亭原韻>까지 18수가 해당된다. 모두 115수가 실려 있는데. 그중에서 3수가 칠언절구이고 나머지는 칠언율시이다. 타시가 1수 포함되어 있다. 이 책에서도 ‘刪’표시가 많은 데 모두 12수가 된다.

「6. 遲松原稿 簡札」은 ‘壬申(1932)七月上澣」에 작성한 것으로, 김석환이 보낸 간찰만을 모아 만든 책자이다. 여기에는 면암선생에게 올린 편지부터 시작하여 주로 간찰이 실려 있지만, 사이사이 다른 문체의 문장이 들어있어서 이번 항에서는 간찰만을 뽑아서 새롭게 편집하고, 나머지는 다음 7항에 합쳐 편차하였다. 간찰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수신자는 후석 오준선인데, 김석환과 종유한 사이이고, 그의 아들 김우영의 스승이기도 하다. 그래서 낱장 고문서 중에도 오준선이 보낸 편지가 상당수 남아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실린 간찰은 모두 34편이고, 그중 1편은 타서, 즉 오준선의 간찰이다.

「7. 遲松本稿 長文稿」는 문장만을 모은 책자이다. 원래는 <金海金氏世葬碑實記>를 시작으로 하여 여러 문체의 글이 섞여 있는데, 본서에서는 편집을 새롭게 하고, 앞서 살핀 「5. 遲松稿(가제)」중에서 <蔡牧園相龜原韻>장에 붙어있던 ‘竹林亭記, 竹史記, 蘆軒記, 龔村記, 愚石記, 新月堂記, 石溪堂記’ 등의 문장들을 이곳으로 옮겨서 편차를 하였다. 또한 문집초고본에는 실려있지 않은 지송정사 기문과 상량문을 낱장고문서에서 발췌하여 이곳에 함께 넣

었다. 그리하여 7번항에 실린 글은 모두 37편이다.

이밖에도 낱장 고문서 중에는 ‘1934년 효자강재김공실기(孝子剛齊金公實記), 1936년 발운재기(鉢雲齋記), 1937년 삼역재소기(三亦齋小記), 1937년 백포기(栢圃記), 1937년 죽과정기(竹坡亭記), 1937년 청강재기(晴江齋記), 1937년 소조계서(小組契序), 1938년 월촌재기(月村齋記), 1938년 손불면사무실상량문(孫佛面事務室上樑文), 1939년 비음기(碑陰記)’ 등이 더 있지만 본서에는 지면 부족으로 넣지 않았다.

다음으로 차운시를 모은 시모음집은 「부록」으로 편하였다. 여기에는 「차운시집」과 「지송재강회운」 3권이 해당된다. 「8. 차운시집」에는 경신년(1920) 9월 9일에 향산의 백련암 고사에 의거하여 국화 꽃 아래에서 놀며 지은 시를 모은 <遲松原韻詩>와 그에 대한 차운시, 그리고 무진년(1928) 윤4월 21일에 회갑을 맞이하여 지은 「遲松晬宴韻」을 합친 것이다. <遲松原韻詩>는 운자가 ‘遊, 秋, 留, 州, 頭’인 것으로, ‘遲松, 萬林, 在福, 柳溪, 竹軒, 正淑, 痴齋, 雙梧齋, 穎史, 在勗, 彦永, 晚愚, 小湖, 遲松’ 등 14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遲松晬宴韻」은 김석환의 非자 원운시에 대해 穎溪 金斗三, 小湖 李桓榮 2수, 石溪 金鳳海, 忍齋 金坤, 荷堂 李滋馨, 鉢下 金昌璿, 悔齋 林鍾彩, 金華洙, 荷洞 李芳彦 등이 차운한 시 10수와 같은 해 11월 1일에 金斗三과 蔡軒 曹秉萬이 지은 <和遲松原韻> 2수가 더 실려있는데, 모두 칠언율시이다.

「9. 遲松齋講會韻」은 책자에 연도표기가 되어있지 않지만, 김석환의 원운시는 앞의 「5. 지송고(가제)」 두 번째에 실려 있는 <遲松精舍講會韻(丁丑三月三日)>과 같은 시인 것으로 보아 이 책자는 1937년 3월에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운자는 ‘樓, 流, 頭, 洲, 遊’자이다. 여기에 차운한 사람은 ‘松友 金錫休, 月蕉 金箕三, 月巖 文士玄, 瑟山 李東憲, 金采憲, 金大永, 海保城山 尹相采, 金錫

七, 月川 李日範, 子 金佑永, 鶴橋面上玉里 崔基弘, 大洞面德山里 金在祿, 金錫午, 孫 金相春, 金河永, 金壽永, 月川 退窩 金永瑞, 光水井里 金奇範, 月川 鄭鍾南, 金永煥, 張良基, 月溪 尹晃錫, 竹坡 牟昌基, 柳川 牟鍾寬, 石南 李明準, 弦堂 尹滋善, 金甲永, 金準永, 後翠 金東昕, 月史 魯福相, 金基炳, 孫 金相天, 金彥永, 金康永, 老峰 羅汝辰, 蓮坡 金在乙, 冬岩里 蘭圃 李京有, 蘭圃 李東昶, 朴成俊, 申星宦, 全京垂, 金在翊, 雲岩 鄭濟郁, 立菴 李星鎭, 李永三, 金明西, 素安 全良先, 朴成圭, 李鎭燧, 南浦 高光述, 李成範, 月亭 鄭二民, 芝隱 金錫浩, 竹史 張道植, 芝谷 金永務, 申良三, 李鍾云, 芝山 李中燮, 芝軒 金在璜, 桂岡 金昌璿, 杞泉 金禹鉉, 全圭相, 林敦澤, 竹坡 朴明春, 松亭 全元叔, 林成萬, 李玟彥, 金吉鉉, 白允五, 鄭長汝, 鄭正植, 白南基, 後止 宋文化, 張大均, 金判根, 桂隱 金大甫, 綾岩 金正炫, 裴善會, 裴良辰, 裴良辰, 月川 崔相元, 竹坡 鄭元植, 醉石 徐建鎬, 李京仁, 金在喆, 朴乃西, 裴永俊, 李玟旭, 菊圃 鄭萬林, 雲谷 鄭文錫, 樂堂 李光昊, 晚翠 朴景來, 忠南黃澗郡西東里 嶺樵 宋鍾煥, 栢圃 鄭泰錫, 雲坡 金鍾廈, 姜麟馨, 芝谷 丁永宅, 牟營台, 白坡 安相燮, 雲坡 趙琪衡, 魯鎭佑, 後松 朴仁培, 梅亭 金炳亮, 靈光丑東里 文勤泰, 靈光郡弘農面七谷里 金亨五, 羅山 安仁煥, 月波 李機淳, 後松 沈棋洪, 鴛山 盧奎海, 靈光白岫面良城里 農隱 金炯善, 白蓮洞 金仁善, 白蓮洞 金稅允, 高敞 晚松 金相洽, 錦岡 金奎鉉, 藥軒 魯淵鎬, 錦岡 金奎鉉’ 등 115명으로 모두 116수이다. 다만 끝에 있는 김규현은 앞서사람들과 달리 지송정사 차운시인 ‘연(然)’자 시이다.

「10. 遲松齋講會韻」은 ‘丁丑(1937)九月二十日’이라고 작성연대가 표기되어 있다. 이때 운자는 ‘廬, 初, 書, 踈, 餘’자이다. 즉 1년에 봄과 가을에 강회를 열고 시회를 열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차운한 사람으로, ‘於田里 金明西, 尹滋慶, 金錫休, 金錫午, 柳川

牟鐘寬, 瑟山 李東憲, 子 金佑永, 金采憲, 後翠 金東昕, 後止 宋文化, 金稅允, 菊軒 金在璜, 白坡 安相燮, 菊圃 鄭萬林, 雲坡 鄭文錫, 竹坡 鄭元植, 龍隱 李載烈, 後溪 金鳳海, 金洪玄, 立菴 李聖珍, 松隱 尹鎔炳, 杞泉 金會一, 松溪 崔炳休, 月川 全圭相, 雲山 金士林, 晚翠 朴景來, 芝山 白南植, 玄初 金宗洙, 九曲 李敦佶, 南浦 高光述, 李載官, 牟鍾洙, 李明準, 趙南衡, 朴成俊, 李玟彥, 朴璣圭, 金錫南, 姜仁行, 箕隱 陳東範, 渴龜里 止一 魯正基, 文岩 文士玄, 冬岩 李京有, 李鍾云, 鄭二民, 翠亭 趙炳翁, 梅坡 金在福, 鶴山 金甲守, 高敞 晚松 金相洽, 後松 朴仁培, 晚松 沈又澤’ 등 51명이 있다.

「11. 遲松齋詩會韻」은 작성연도가 ‘丁亥(1947)九月三十日’로서 김석환의 사후에 그의 아들 김우영(金佑永)이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 시회를 열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책자에 기록해 놓은 글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재사(齋舍)는 살아계실 때 이루어진 것이지만 갑자기 돌아가신 후로는 한 번의 모임을 할 겨를이 없었는데, 이에 1947년 9월 30일에 군현(群賢)을 초청하여 술자리를 마련하고 옛사람이 축실하고 작시한 뜻을 모방하여 시 한 수를 짓고 군현들에게 화운시를 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때는 칠언절구로, 운자는 ‘秋, 遊, 收’자이며, 여기에 차운한 사람은 61명으로 모두 63수의 차운시가 실려 있다. 또한 이어서 김봉현(金鳳鉉)이 지은 <遲松齋落成宴韻>이 실려 있는데 칠언절구로 운자는 앞과 같으며, 여기에는 김봉현 시부터 시작하여 80명의 시가 실려 있다.

이상에서 지송사고에 실린 시문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에 실려 있는 시는 모두 850수가량인데, 이중 타인의 시는 23수이다. 간찰은 모두 33통이 실려 있고, 문장은 서·발·기 등 모두 합쳐 37편이며, 아직 실리지 않은 것도 있음을 밝혔다. 또한 차운시로는 지송원운시와 지송수연시에 대해 차운한 것이 27수, 2회의 지송

강회 때 차운한 것이 167수, 그리고 김석환의 사후 지송강회시가 63수, 지송재낙성운시가 80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송사고에 실린 시의 특징을 보면, 제목만을 보아서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는 시가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자면, ‘與友吟, 會吟, 戲題, 賡吟, 逢友吟, 偶吟, 書懷, 卽事, 偶敘, 絕句’ 등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또한 제목을 표시하지 않고, ‘又’로 표기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는데, 본서에서는 지면 관계상 이를 생략하고 대신 목차에서 제목 옆에 ‘○수’ 표시를 해주었다.

지송사고는 지금처럼 초고본만 몇 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자가 살아있을 때 한 책으로 정리를 하여 아들에게 물려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도중에 불에 타버려서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김석환의 손자이자 김우영의 아들 김남균(金南均) 선생이 조부의 유적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깝이 여겨서 남은 자료를 2018년에 한국학호남진흥원에 기탁하면서 학술연구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이번에 지면을 빌어 그의 숭고한 뜻에 깊은 감사 인사 올린다.

2023년 9월

책임연구위원 권수용

목차

해제(解題)	5
--------------	---

卷一 遲松稿(風月集)

冬夜與故人吟	53
初雪	53
雪梅	53
宿鳥	53
客裡與故人吟	54
冬至吟	54
逢友吟	54
續吟	55
屏	55
七山歸帆	55
甲山暮鐘	55
老松	56
白鷗	56
與友吟	56
晚菊	57
會吟	57
睡鶴	57
會吟	57
戲題	58

春日書懷	58
賡吟	58
逢友吟	59
春城逢友吟	59
鞦韆娘	59
會吟	59
春日偶成	60
閒居書事	60
春日偶成	60
戲題	61
冬夜吟	61
鱗吟	61
逢友吟	61
初雪	62
燈火	62
石磨	62
火爐	63
彈琴	63
錢	63
圍棋	63
爨竹	64
吹簫	64
鬪鷄	64
巢鶴	65
碧梧	65
枕	65
返照	65
涓滴	66
村	66

過九岫尾	66
遊屯田	67
過鴈巖【見尤菴手書感吟】	67
與丁鎬卿詠月	67
遊法聖浦	67
遊仙津	68
再遊屯田	68
次	68
過霧隱菴	69
遊九水山內	69
與金友吟	69
又吟	69
登九水九峯巖	70
下九峰巖	70
續吟	70
霽月	71
與友吟	71
登山逢雨吟	71
下山吟	71
眼鏡	72
吹簫【庚寅冬】	72
雪裏釣翁	72
觀海	73
冰	73
冬至	73
聽溪	73
初秋吟	74
觀魚	74

卷二 遲松稿

己亥春

己亥寒食	77
書懷 二首	77
杜鵑花 刪	77
己亥三月三日	78
偶吟 二首	78
春懷 二首	78
雨後看花	79
春日書懷	79
逢友吟 刪	79
暮春逢友 刪	80
書懷	80
春雨	80
春雨 刪	81
春懷	81
登月明山	81
遊月角山	81
春懷	82
巢燕	82
春日書懷	82
逢梅村舊友	83
垂楊	83
玉池叙懷	83
月齋新話 七首	83
奉贈穎史 二首	85
自錦城歸	85
月社春話	86

惜花	86
偶吟 刪	86
餞春	86
香社新話 二首	87
牧童	87
聽鶯	88
養蠶	88
前江漁翁	88
待雨	88
前江眊鷗	89
聽蛙	89
畫梅	89
登山	90
美人	90
書樓逢友	90
觀魚	90
遊錦湖	91
登石塢山	91
別友人	91
過扶寧蓬萊山【九秋】二首	92
蓬萊山	92
秋夜吟	92
遊扶寧蛇山	93
春日逢晚松	93
早春和蓬山社老冊史	93
春雪	93
人日	94
蓬社早春	94
懷人不見	94

見梅懷人	95
居接韻	95
春日梅山詩社 三首	95
梅山詩話	96
春日卽事	96
桃花	96
杜鵑	97
小兒	97
三月三日	97
新燕	98
杏花	98
老翁	98
逢漢陽友	98
春雨	99
寒食	99
聽鶯	99
清和卽事 二首	100
四月題烟興菴	100
逢話燕南友 二首	100
穉桐	101
夕陽樵笛 刪	101
麥浪 刪	102
南草	102
觀海歸路宿月明庵 刪	102
奉和吳竹坡	102
癸卯秋, 桂陽逢友	103
桂陽秋夜 刪	103
老葺洞詩會【秋九月二十日】	103
自詩會至竹山夜吟 刪	104

讀孟子	104
偶叙 刪	104
贈登山友	104
餞春 二首	105
遠眺	105
偶題 二首	106
卽事 刪 三首	106
觀燈	107
偶敘 刪	107
麥浪	107
稚鷄	107
養蠶	108
遠浦歸帆 刪	108
對鏡	108
彈琴	109
春夢	109
登山	109
與梅岩吟	109
竹纓	110
綠陰	110
偶	110
早夏卽事	111
絕句 二首	111
贈人回甲韻	111
偶敘	112
竹床	112
與吳竹坡吟	112
偶	113
端午	113

鞦韆	114
芳草	114
絕句 四首	114
夏日卽事	115
絕句 二首	115
團扇	115
榴花	116
蜀葵花 刪	116
蛛網	116
題本倅萬人屏【朴侯準承氏】	116
秋懷	117
秋興	117
逢吳城李東蓮	117
逢箕城友	118
重陽後逢友 五絕	118
聽溪	119
走馬	119
細雨聲 刪	119
竹影 刪	120
漁翁 刪	120
聞	120
逢友	120
古木	121
雙鷺	121
逢友	121
言志	122
偶	122
秋晚	122
黃花	122

楓林	122
秋晚	123
老梧	123
燈花	123
圍	123
涓滴	124
初雪 刪 二首	124
秋懷	124
贈友	124
江上睡鷗	125
白魚	125
木磨	125
搗衣 三首	125
老僧 刪 二首	126
黃橘 二首	126
甘露	127
紡績	127
褙子	127
遊築洞	127
烈女	128
吹簫	128
歎世	128
忠臣	128
養士齋居接韻 二首	129
寶劔	129
冬至	129
宿鳥	130
酒	130
蹇驢	130

恠石 刪	130
瀑布 刪	131
木	131
鳴泉	131
雪上月 刪	132
雪中梅 刪	132
直氷	132
鷄卵	132
鶯	133
丙午春, 與箕城錦城兩友吟	133
過柳川, 待主人不至	133
和友人	134
滯雨山村 二首	134
箕城餞春	134
惜春 刪	135
圍	135
逢連山金上舍 三首	135
贖別	136
野塘亂蛙	136
晴沙眠鷺	136
五秀齋卽事 六首	137
櫻桃	138
登五秀山 二首 刪	138
藏頭吟	139
苞汀【他詩】	139
又川	139
蓮實	140
武城滯雨	140
武城秋夜 二首	140

箕城贈徐友	141
又夜 刪	141
丙午冬十一月, 自瑞石至五秀齋 刪	141
雪上鳥	142
石角松	142
雪江獨釣【丁未正月始】	142
咸豐八景	143
昆峰落照 三首	143
冰峴牧笛	143
潁水霽月 刪	143
防橋落鴈 刪	144
慶川漁火 刪	144
竹洞逢瀛洲才子	144
桂陽奉和梅岳先生	144
逢綾城魯友 六首	145
登山餞春	146
題虹見齋智山後甌島	146
辛亥春日卽事 刪 三首	146

卷三 遲松韻稿

太行亭原韻 二首	151
太行亭與客吟 二首	151
太行亭與潁史晚愚柳溪吟 二首	152
次太行亭韻【潁史 金斗三, 柳溪 洪祐煥, 雙梧 金鳳洙	152
戊午春吟于太行亭 二首	153
四月初八日, 觀燈時與友吟 二首	154
遊太行亭 二首	154
他詩【月坡】 三首	155

沿海歸路, 與故人吟	155
還樓夜作	156
戊午八月既望日, 與柳溪登太行亭	156
自太行亭觀西海	156
翌日臨別口呼	156
他詩【月坡】	157
太行亭有感	157
次太行亭韻【金進士秉圭, 號晚惺】	157
次太行亭韻【李啓仁, 號蓮史】	157
戊午秋七月會于永孝齋, 與潁史晚愚柳溪雙梧韋齋吟 三首	158
柳洞秋夜 四首	158
別章 刪	159
秋懷	159
牧牛	160
花塢睡鷄 刪	160
秋夜書燈 刪	160
秋夜搗衣 刪	161
蕉庭馴鹿 刪	161
贈崔松雪堂	161
遊靈光築洞文謙山書室【乙卯五月】 二首	161
和碧柳金雙梧迴甲韻【乙卯五月】	162
丙辰九月, 遊塩山野庄 二首	162
輓箕山李老人 二首 刪	163
校村景慕齋	163
鷄山韓氏孝烈閣	163
丁巳六月日, 塩山逢辛水亭	164
丁巳六月, 遊依斗亭	164
野稻 刪	164
蚊	164

丁巳六月念後, 碧柳洞逢名畫師許米山準 二首	165
題李敦炯醉石亭	165
冬至吟【乙卯十一月】	166
和申瑢熙廻甲韻【乙卯十二月十一日】	166
景慕齋	166
和李紗峯望月韻	166
燕子 絕句	167
【附】日人詩	167
寒食	167
再和金雙梧廻甲韻	168
謹次明倫堂落成韻	168
和金東振生辰韻	168
碧柳洞霖雨留吟	168
贈丁學魯寒梅堂	169
燕南逢李紗峯【丙辰六月日】	169
鏡	169
扇	170
碧柳洞永孝齋感舊	170
乙卯六月望, 與穎史雙梧柳溪三老, 遊永孝齋	170
依斗亭書懷	170
永孝齋七夕【乙卯秋七月七夕】	171
七夕後一日贈別	172
搗衣	172
燕南七月 二首	173
詠鼠	173
燕南八月 二首	173
自敍上明府蔡洙康 刪	174
奉答蔡明府	174
和燕川李主事小湖回甲韻	174

和玄進士鶴坡回甲韻	175
奉和後石先生	175
菊花	175
己未二月日, 與柳溪過建金峙	176
光武皇帝因山有感【己未二月日】	176
過鷄龍有感	176
他詩【月坡】	176
己未三月三日, 九老會叙懷	177
過箕城逢吳南圃永常	177
因山後歸家有感【己未二月日】	177
他詩【月坡】	177
遊依斗亭	178
贈崔松雪堂	178
武靈初夏吟	178
武城四月八日	179
觀燈	179
遊武靈 刪	179
箕城贈徐友 刪	179
烟菴詩會	180
輓柳洞李老丈	180
和鐵城山永慕齋韻	180
滯雨內洞 二首	181
過隱求齋	181
次隱求齋原韻	181
代草 晬宴韻 刪	182
雪天逢柳溪 二首	182
他詩【柳溪】	182
江上睡鷗	183
聽鷄	183

蟬	183
牛	183
觀市	184
烈女	184
蟬	184
梅花 三首	184
辛酉六月日, 遊箕穎李萬頃精舍	185
張子房	185
遊燕川	186
扇 六首	186
庚申十月初六日, 趙炳熙氏晬宴兼賀加禮	187
輓李老 二首	187
冬夜與柳溪吟	188
次牟壽潤回甲韻	188
辛酉九月九日, 碧柳洞歸來亭耆老會 二首	188
辛酉秋七月既望, 遊箕陽李萬頃蓮亭 四首	189
永平大臣李書九氏詩【他詩】	190
校宮講會韻 二首	190
庚申九月九日九老會	191
辛酉三月三日, 會于永孝齋 二首	191
綠陰 四首	191
庚申晚秋, 過潁陽 二首	192
壬戌七月七日歸來亭	193
稻花	193
駿馬 刪	193
桑	194
壬戌秋七月既望, 麗水郡鍾山詩社, 續赤壁遊 三首 刪	194

卷四 遲松私稿

六十二歲正朝有感【己巳】	197
丙寅正月，遊華洞後溪魯泳駿五思齋。鄭菊史熙冕，… 二首	197
潁陽訪張箕隱滯雨【丙寅二月初吉】並六首	197
詠博	199
謹拜太上皇帝崇慕壇	199
贈李竹軒敦曼【字寬淳，潭陽水北面羅山里】	199
次南齋金敬愚	199
次蘭坡金在祚【戊辰】	200
丙寅元月望後，與鄭菊史李農隱吟 二首	200
過龍村朴準鳳書塾	201
岐陽亭【丙寅】	201
冬至後夜吟【戊辰】	201
鷺	201
鷺	202
贈朴蘭窩	202
秋陽	202
五思齋【崔南基】【戊辰】	203
霽梧	203
愁	203
儒達山【木浦】三首	204
木浦秋夜，喜逢李梧泉文復氏【字聖圭，戊辰秋九念間】【他詩】	204
他詩【梧泉】	204
次丁鶴汀鶴城樓韻【務安，戊辰流火念二日】	205
次鶴汀南溪永慕齋韻	205
與鶴汀同往春暉齋	205
謹賀丁鶴汀曾孫之慶【戊辰】	205
藥圃原韻【戊辰】	206

輓趙炳熙【戊辰八月念】	206
菊花	206
小湖精舍詩話	207
過苧洞【戊辰】	207
又【丁卯】	207
觀稼亭【丁卯】	208
春坡亭【己巳】	208
柳川齋詩會【己巳清和】二首	208
次崔松圃韻【己巳】	209
次金箕隱韻【己巳】	209
靈光鄭休堂迴甲韻【己巳】	209
次李萬頃東範迴甲韻【己巳】	209
己巳三月三日	210
奉和	210
餞春	210
春日偶成	211
鞦韆【五月】二首	211
中秋月【他詩】	211
白鷺	212
金仁善芙蓉樓韻【己巳】	212
和金忍齋	212
奉吟【他詩】	212
清和逢友吟	213
冬至【己巳】	213
聽蟬【庚午】二首	213
賀權柳隱晬宴韻【庚午】	214
次心史辛東旭迴甲韻【庚午】	214
次晚圃曹德初【庚午】	214
次野隱亭【河君】【庚午】	215

春日偶成【庚午】	215
孝烈婦【庚午】	215
謹步曹孝子松溪原韻【庚午】	215
輓後溪魯泳駿【庚午】	216
輓後溪	216
贈清川裴在浩【庚午】	216
暮春【庚午】	216
次泰仁金進士箕坤親堂廻婚日韻【庚午】	217
暮春偶成【庚午】	217
箕城餞春【庚午】	217
餞春【庚午】	218
南原廣寒樓【庚午】	218
廣寒樓【庚午】	218
聽蟬【庚午】二首	218
與柳龍岡會于金後翠潯陽精舍	219
鰲【己巳】	219
鰲【五言】	219
新燕【丁卯】	220
對裴少年吟【庚午】	220
駿馬【庚午】	220
聽鶯【庚午】	221
蟬【丙寅】	221
逢友吟【丙寅】	221
逢友偶成【丙寅】	221
黃鶯【乙丑】	222
登小湖亭夜吟【乙丑】	222
輓金學瑞【乙丑】	222
台湖亭【丙寅】二首	222
密陽嶺南樓【他詩】	223

駿馬【庚午】二首	223
挽韓參奉鳳燮【庚午】	224
慕先齋【庚午】	224
京城李承旨詩【他詩】	224
輓南監察廷燁	225
代人岳長輓【己巳】	225
寒食【乙丑】	225
綠陰【乙丑】	225
螢火【乙丑】	226
贈姜歧雲振玉 三首【癸亥秋八月】	226
冬夜書懷【乙丑冬】	227
至後書齋吟【乙丑冬】	227
月明亭冬夜吟【乙丑】	227
祝全良先迴甲韻【庚午】	228
次金雲菴昌滄原韻【金昌滄字文局, 號雲菴, 南原郡…】	228
次李地山京相原韻【丙寅】	228
觀稼亭【丙寅】	228
丙寅秋七月下澣, 月明亭罷接時別章 二首	229
他詩【蘭坡】二首	229
箕城禊會【庚午】二首	229
次龍塢亭韻【鄭中軍坊奎氏號龍塢, 高敞郡】【庚午】	230
田家老翁【戊辰】	230
謹和金公澤堂原韻【戊辰】	230
九老會吟【歸來亭】	230
哭斑後一日, 奉酬草齋諸益【丙寅】	231
謹賀李石菴晬宴韻【癸亥】	231
偶吟	231
穎上贈李秀才仁行	232
夢	232

初月【癸亥】	232
癸亥秋九老會韻	232
謹和草亭居士草心亭原韻【木浦金星圭】【甲子正月】	233
草心亭四景【孝子不泊之至, 痛爲主眼】	233
東山洞四景【以高人之棄世, 孤往爲主眼】	234
謹和草亭居士回甲記哀詩【甲子上付下】	235
癸亥冬齋宮會話	236
奉和曹孝子松溪澤承氏【癸亥】	236
東京懷古【慶州】【己巳】	236
詠木綿【己巳】	237
半月城【己巳】	237
瞻星臺	237
鮑石亭	237
鳳凰臺	238
豫讓	238
崇惠殿	238
鷄林	238
釜山港	239
除夜	239
達城公園	239
東萊溫泉	239
謹和小湖先生原韻	240
過四宜亭吟【春宜聽溪, 夏宜避暑, 秋宜玩月, 冬宜咏雪主目。金在璫】二首	240
太行亭端陽	240
己未七月一日中伏, 會于燕川李小湖精舍 二首	241
己未七月, 過靈光香潭齋有感	241
閏七月日, 過碧柳洞	241
閏七月望翌日, 會于隱谷齋 二首	242
大明梅【傳心梅】【己未】二首	242

謹輓後溪	243
己未重陽日, 會于望雲齋 三首	243
詠犬【己未】	243
謹次李希齋原韻【己未】	244
露蛩【己巳秋】	244
謹賀松塢李鍾麟氏廻甲韻【庚午】二首	244
悼亡妻【庚午】	245
老鰥述懷【庚午八月秋夕】	245
晉州矗石樓	245
謹輓小湖李先生 二首	246
忠賢閣壇享時有感【羅州本良面新村里, 文化柳自湄號…】	246
李松塢回甲韻【庚午秋】	247
柳川與諸益吟	247
偶吟	247
冬至【大同詩壇】【庚午】二首	247
偶吟	248
偶吟	248
偶吟	249
偶吟	249
偶吟	249
偶吟【庚午】	249
至後謾吟【庚午冬】	250
白鷺 二首	250
若考作室其子肯堂之詩【解見書傳大誥篇】	251
黃金萬籊不如教子一經【詩】	251
倚杖觀魚【賦】【諸葛亮, 三國誌】	253
四月南風大麥黃【古風】	255

卷五 遲松稿

遲松精舍原韻 重出	259
遲松精舍講會韻【丁丑三月三日】	259
遲松精舍講會韻【丁丑九月二十日】	259
晬宴原韻【戊辰四月二十一日】	259
謹次金秉來小山亭落成韻【丙子十月十七日, 孫佛面石嶺】	260
謹次錦岡金奎鉉枕水亭韻【丙子三月日, 靈光郡郡南面…】	260
謹次鄭先生栢圃願韻【丙子三月日】	260
麥雨【丙子三月二十八日, 箕穎詩社】二首	261
一信契韻【丙子三月十日】二首	261
羅州鄭安民回甲韻【丙子三月】	262
矗石樓	262
再建旌閭【牟截江諱恂, 中宗朝, 命旌於嶺南晉州, …】二首	262
遊新光面三德里, 與南堂牟大赫同吟【丙子閏三月二十七日】	263
四月清和, 會米山金後翠齋	263
謹次錦城祠【鄭海南忠肅公】	263
丙子四月望, 與諸益登碧草後山月明山	264
謹次同福吳亨南愛蓮亭【壬申六月】	264
古木	264
謹次迎月亭	264
聞鴈【丙子十月日】	265
草心亭韻【丙子】	265
謹次牟斯文雙澗亭 刪	265
箕穎詩社韻	266
鈴泉亭韻【甲戌】	266
和竹軒崔述煥【甲戌】刪	266
贈退窩金永瑞【乙亥】	266
明倫堂重修後講會韻	267

米山聞江亭夏日敘懷【甲戌六月二十八日】	267
長霖【甲戌】	267
暴風雨大作	268
四皓	268
向日花 刪	268
觀楓【甲戌九月】	268
謹次陳龜山晬宴【丙子】	269
小山亭九老會【丙子九月】	269
羅州潘陽詩社【乙亥四月望】	269
新月【靈光箕城詩社】	269
謹次三窩朴斯文復圭	270
密陽朴氏潭陽月山齋韻	270
新月	270
箕穎詩社餞春韻【乙亥】 刪	271
甲戌二月初四日, 與心史辛東旭後翠金東旻止山李敏煥,	271
早鶯	271
謹次大洞龜山李敦吉九曲亭	271
務安郡石谷面九山里, 張珉會先親孝友堂韻【甲戌三月】	272
竹溪亭韻【張珉會】【甲戌三月】	272
咸平箕穎詩社【惜春韻】	272
內藏山觀楓 二首 刪	273
龜隱亭韻【羅山面】	273
老將	273
謹和昇仙洞私塾罷接韻 刪	274
米山耆老會	274
田家禦冬	274
謹次觀瀾齋韻	274
枕水亭	275
米山精舍, 與辛心史東旭金後翠東旻敘懷【乙亥正月】	275

白雲精舍, 與辛心史東旭金石溪鳳海叙懷	275
謹次李松菴時中氏齋韻【乙亥二月】	276
松菴齋會吟	276
白雲雪夜, 偶成花樹會	276
續吟葉韻	276
滯雪	277
臘月叙懷 二首	277
戊寅六月, 新光面白雲里詩社, 與主人後溪金鳳海對吟	278
戊寅十月, 白雲社, 與後溪金鳳海樵山尹佑燮弦堂尹滋善吟	278
戊寅至月, 雪天雲社, 與主人後溪金鳳浩翰雲吟 刪	278
己卯三月, 鉢峯山詩會	278
過燕川, 與晴雲愚石綱齋吟	279
乙卯四月晦日, 箕穎詩社會吟【柳絮】	279
四月初十日, 羅州龍山詩社, 移會于柳川歸來亭	279
三月晦日, 九老會餞春詩	280
雪山	280
題光州崔氏雲林堂	280
謹和張蘭坡東烈回甲韻	280
朴耕山迴甲韻【務安石谷面, 菊隱朴綵和】	281
孝烈婦朴氏【山南里, 全伯鍾慈親】	281
寒食 二首	281
聞鴈	282
歸鴈	282
隱士	282
謹輓尹永淑	283
謹次庾參書松塢亭韻【長城郡森溪面綾城里】	283
謹次務安郡麥浦里李敦星先府君孝閭落成韻	283
謹次光州梧峙李參事啓翼先府君梧山亭韻	284
秋聲【壬申九月】	284

隱士 二首	284
蟬【壬申秋】刪	285
謹次月也松汀張允文氏先大人效軒韻	285
扇葉韻	285
蔡牧園相龜原韻	285
謹次牧園原韻	286
謹次尹斯文月谷原韻	286
至後清遊【務安望雲面奈里, 鄭斯文晴江齋】五首	286
聽鴈	287
雪中梅	288
謹并次竹林亭	288
謹次晴江齋 二首	288
雪景	289
雪竹	289
無題	289
臘天風雪, 務安望雲柰花江上送別	290
竹林亭原韻	290

卷六 遲松原稿 簡札

上勉庵崔先生	293
乙卯九月廿九日, 送子讀書上後石書【吳後石答書, …】	293
後石答下(附)	294
上後石吳先生書	294
上後石先生吳駿善氏	295
上後石吳先生	295
上後石先生	296
上後石	296
上後石吳先生	297

上後石吳先生	297
上後石吳先生【替孫兒】	297
答地山李景相	298
答地山	299
與草亭金令	299
答東溪金泳奎	300
答南原族從奕斗	300
與吳公述	301
與吳公述	301
寄族從	302
答族從	302
與錦城鄭安民	303
與務安吳彰善【務安郡清溪面上馬里】	303
答張查佑植氏	304
寄宗人東昕	304
答宗人金東昕	305
寄 刪	305
答海州石潭李校理種文	306
答文東善	306
答曹喜暲棣華亭 刪	307
答完山德川金玉汝	307
寄李進士醒湖	308
寄宗人【咸平郡守金】	308
失題 刪	309

卷七 遲松本稿 長文稿

得天下英才而教育之三樂【論】	313
石門回甲序 刪	314

謹次瞻雲臺原韻 并小序	314
天安全氏族譜跋 代草	315
遲松精舍記	315
竹林亭記	316
竹史記	316
蘆軒記	317
聾村記	317
愚石記	318
新月堂記	319
石溪堂記	319
晚悔齋記【靈光局碁, 金鎮燮】.....	320
南原日記	320
清和西遊錄 刪	323
代人 清和西遊記	324
烈婦周氏實記【長城郡森西面斗月里, 李集奎之妻...】	324
金海金氏世葬碑實記	325
金寧金氏世葬碑陰實記	326
達城裴氏世葬碑實記	327
興武王誓軍橋實記	327
全敬洙孝狀	328
鄭孝婦道薦狀	329
白永順孝狀	330
光山金氏孝烈狀	330
故孝子曹公澤承孝行狀	331
白奉熙孝狀	332
金應大孝行單	332
遲松精舍上樑文	333
嘉善金公墓碣銘【贈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 ...】.....	334
祭柳溪洪處士	335

祭亡室【父在母喪, 丁日祭文, 卽小祥】	336
祭亡室【父在母喪, 大祥】	337
譜單文【代作】	338
代人草輓章 刪	339
成造開基祭祝文 刪	339
祝中國統一國慶	340

卷八 附錄 一：次韻詩集

遲松原韻詩	343
遲松晬宴韻	346

卷九 附錄 二：遲松齋講會韻

遲松齋講會韻	351
次遲松齋原韻	372

卷十 附錄 三：遲松齋講會韻

遲松齋講會韻	375
--------------	-----

卷十一 附錄 四：遲松齋詩會韻

遲松齋詩會	387
遲松齋落成宴韻	395

卷一 遲松稿(風月集)

庚寅三月 肇輯數年所作

遲松齋

冬夜與故人吟

雪落風高夜半幽，二更纔度漏聲收。
茶湯欲暖詳知味，梧枕生寒任轉頭。
空山有語聞啼鳥，大海無塵洗片舟。
數幅長屏環戶立，金陵絕勝坐中求。

初雪

朔風駢雪向天南，冷壁疎燈正不堪。
五更雲砌梅花發，十里烟塘柳絮含。
釣叟喚鷗江上屋，眠僧失鶴月中菴。
欲使登年均四海，莫如占得臘前三。

雪梅

日已黃昏雪滿簷，有花無影更回瞻。
過牆橫壓三分出，對月閒眠一色添。
寒士題詩心淡淡，美人裁服手纖纖。
誰云灞上歸程晚，蹇馬遲行故不嫌。

宿鳥

宜巢林木立叢叢，露浥煙霞寂寞中。

百舌如緘山返啞，一群皆夢夜全空。
莫使涼風生老竹，易驚明月入疎桐。
何須斂得飛鳴力，却與閒翁醉意同。

客裡與故人吟

入戶看書出戶峰，強隨幽靜撫孤松。
南去寒鴻家信息，東來瘦鶴客形容。
溪端有石蒼苔滑，雪際無風白屋封。
愧吾懶散尤難合，忍說明年任意從。

冬至吟

萬戶雷鳴子半時，始陽自此更何遲。
春心堤柳烟凝樹，臘意窗梅雪滿枝。
律協黃鍾吹一管，味生玄酒舉三卮。
那敢今宵無事了，呼兒覓紙喜題詩。

逢友吟

二年婚結百年交，幾度風前雨後郊。
江到千尋龍護宅，松高十尺鶴還巢。
銀竹常燃平壤艸，玉盤每憶洞庭肴。
月光似識幽人意，故遣姮娥返解嘲。

續吟

夜未新晴月已高，偶升得杖步江臯。
遙遙白雁霜前客，蹇蹇青驢背上豪。
荷葉拿舟成亂藕，蘆花撲袖點飛毛。
鏡裡煙霞如許味，不如醉到一盃醪。

屏

八間各列丈夫歌，怪石奇花太多。
向路依依雲外釋，舉盃歷歷月中娥。
野鳥難啼含夕雨，江舟返繫任風波。
若畫春秋應不老，此非天上仙人何。

七山歸帆

數片平浮海上家，無風歸住更無涯。
楚南迷影蕭蕭雨，巴兆輕險落落霞。
蘆渚難孤秋去雁，楓橋任打暮啼鴉。
擊棹聲聲驚眊起，俄然在耳漸生遐。

甲山暮鐘

菴壁如虛待夕陽，更從風便數聲長。

歷歷澎湖千丈石，依依豐畝九秋霜。
老釋頻驚頭上白，樂官誤協律中黃。
清閒若此尤難記，晚向西樓玩月光。

老松

背山秀立與山崔，繞樹盤旋十步迴。
四時風雨尤難記，百世春秋更不催。
舞鶴還巢透白玉，屈龍偃水點蒼苔。
至於晚翠非云老，坐拾香花又一盃。

白鷗

兩岸明沙十里濱，低飛迴合自相親。
荷葉千重烟霽夕，蘆花一色露清晨。
閒欲偷閒頻喚夢，潔尤思潔更翻身。
有誰若問忘機意，雨笠風絲海上人。

與友吟

石爲反老竹爲君，每日相思述以文。
滿岸蘆花江欲暮，飄空桂子月生芬。
鶴眠非晚秋邀客，雁陣多寒夜縱軍。
何辭勝地先謀醉，手到三盃意十分。

晚菊

晚步歸來澗上原，散枝相伴到黃昏。
將含細露看鋪葉，獨耐嚴霜認固根。
香襲人衣心欲醉，影斜客枕夢還翻。
殷勤餘在相思約，九月明年月下盆。

會吟

霽天如海夜如年，不意相逢謝偶然。
十里斜程那外到，一般別緒此中連。
谷泉轉戶恒來雨，野樹圍村住去烟。
看君詩格非凡語，疑是江南謫下仙。

睡鶴

松楸正靜起微寒，未睡睡耶暗暗看。
千重霽露自偷白，一點明花頂表丹。
隻影僧依雲下塔，夢痕仙降月中壇。
故停竹戶烹茶手，摸得斯間興別般。

會吟

藜筇乘暮向疎林，轉入秋光滿目森。

七里溪聲山隱隱，一天雨色海陰陰。
竹戶微醒孤鶴夢，棊床抱立老梧心。
居然此夜難成句，歷歷江村亂搗砧。

戲題

一曲烏橋抱鳳山，纔依書屋二三間。
玉穗霜燈窗外暈，金絲烟竹手中斑。
君子以琴論素志，少年於酒對紅顏。
洛上青雲知不遠，明時花笛伴春還。

春日書懷

午眠如蔓夢如絲，未覺東城日影遲。
燕子家家三月雨，鶉兒處處百花時。
欲得酒謀方往這，強將詩慮復留茲。
一筆擾擾難盡記，相逢他夜月中宜。

賡吟

曉來啼鳥細相言，淺步無塵下小園。
向窗對卷心尤靜，看野知農事已煩。
風際擺紅花了片，雨餘垂碧柳千門。
朦朧醉眼難透得，惟有前春病酒痕。

逢友吟

盡日從遊水石間，折花相笑強紅顏。
院靜尤宜啼衆鳥，籬疎偏愛得青山。
野麥漸生春雨下，村醪將熟故人還。
以後相思中夜月，戀君美質玉如刪。

春城逢友吟

春城鞋屐客相呼，細艸如茵滿地鋪。
雙雙語燕花間屋，一一眠鷗海上蘆。
牧童西夕紛紛雨，杜宇東風片片圖。
溪山不老詩人在，第是湖南絕勝區。

鞦韆娘

柳裡娘娘喚友來，十尋綵縷兩邊開。
輕輕綾襪穿雲出，艷艷羅裙拂地迴。
飛去瓊樓三月燕，洛來玉砌一枝梅。
好是今年端午節，蹴花相笑競誇才。

會吟

數片茅廬海上浮，文章居住最南州。

泉石鳴來漂母手，夕陽戴去牧人頭。
出洞桃花流水逝，入山叢桂白雲留。
病枕支離知幾日，惜春壺酒與君謀。

春日偶成

硯池深凹筆峰尖，寫盡幽懷墨露沾。
院竹多涼風際聽，山花生色雨餘瞻。
綠楊岸岸鷺兒幕，白日家家燕子簾。
春來非不風流好，水石清閒又是兼。

閒居書事

芳陰細艸翠相環，鎮日優遊水石間。
小園晝靜幽鷺出，大海風微去棹閒。
道莫擴充從義路，工能格致透誠關。
安得青驢千里力，金剛第一好江山。

春日偶成

茅棟篁扉一小廬，春來不掃艸將蕪。
獨奈深憂今世事，莫如歸讀古人書。
鷺窺芳樹朝陰密，燕繞空樑晝箔疎。
孤舟盡日誰能濟，江際群山看有無。

戲題

江樹江雲遠更濃，長堤十里艸茸茸。
人人惜老烟霞外，物物知生雨露中。
野鷺飛經山愈碧，村鷄唱斷日將紅。
花落花開緣底事，善啼兒女怨東風。

冬夜吟

談叢似縷了詩枰，隔戶疎籬數里城。
墾野終當優事業，讀書容易慕功名。
鶴撓松樓棲遠客，鴈托雲陣縱疑兵。
願作東方高手段，故耽佳句使人驚。

鱗吟

此身生晚海之東，誰把冰臺掛太空。
一郊遠樹烟將翠，萬戶疎燈夜自紅。
山局看棋仙老至，野家謀酒友人逢。
靜中都了塵間事，靡不有初鮮克終。

逢友吟

客筇乘暮訪山家，海路微連潁水涯。

谷雲歸宿千層樹，夜火寒生一片花。
青衿有誼詩然作，白面無塵酒以加。
莫恨楓林時正晚，如何今日暫停車。

初雪

剛寒天氣屆初冬，亂雪連空一色濃。
富老謀珍疑白玉，樂官協候奏黃鍾。
片片梨花春萬戶，遲遲松樹月千峰。
故使書童憐不掃，明窓半夜好相從。

燈火

外環小郭內緣江，一炷潛龍瀉寸腔。
獨樹花開看撲蝶，空天月出吠疑獐。
橫懸壁上光穿四，流入鏡中影作雙。
莫道西湖風物好，只宜夜半讀書窗。

石磨

石工瑳琢昔何時，體得方圓妙理知。
斗杓運前看磨蟻，洛柱居中驗食龜。
握粟投來盈一匊，立林撓去併三枝。
雷作須臾時雨降，循環天道代推移。

火爐

日照香爐轉翠微，烈炎捲入亂灰飛。
夜寒最好詩人榻，雲濕尤宜織女機。
可使銷金成利器，寧嫌乞火掩疎扉。
点雪能消顏子道，沂濱何日詠而歸。

彈琴

尺棊獨抱訪幽谷，寥亮江天冷似虛。
響透浮雲驚眊鶴，調同綠水聽游魚。
庭梧向月亭亭立，館竹因風淡淡嘯。
自此知音林下在，與君相答志何如。

錢

誰使錢塘擅潁湖，不貪夜氣映冰壺。
万帶仙緣乘老鶴，三增士價顧良駒。
小郭剪成風下葉，誰家付送月中梧。
自古文章兼貨殖，請看周白與陶朱。

圍棋

二老欣逢竹裡棲，路分黑白不相迷。

蝸懸明月千層樹，鴈落平沙十里溪。
謝氏羅香常戒侄，杜家紙局更謀妻。
樓台如舊文章去，以後何人敵手題。

爰竹

每從食味漸生佳，胸裡消磨盍盍懷。
親朋對處連前榻，長老逢時置後階。
手弄銀粧長頸鶴，口吹烟液短聲蛙。
若此於身無用物，兒生慎勿與之偕。

吹簫

寥亮江山手裡恢，人間誰是善吹才。
琴心并雜鳴幽竹，笛孔相通和落梅。
舞壑潛蛟雲似縷，繞台栖鶴月無埃。
令渠願奏昇平曲，請看煙花次第開。

鬪鷄

達乎四境也相聞，俠小爭雄各出群。
舉爪不知頽絳幘，忿身返似醉紅裙。
一場始定輸贏局，十里并行進退軍。
自是章台多勝事，東天風雨也紛紛。

巢鶴

尋巢縞鶴辭能言，莫使庭梧露更翻。
羽飄一夜登仙老，胎化千年養子孫。
橘壚妙舞傾樽蟻，蕙帳殘愁伴曉猿。
報下斜陽如有意，是何客到主人門。

碧梧

同於竹翠異楓丹，莫向秋風井上看。
疎枝落落風鳴瑟，密葉團團月滿盤。
一朝聖主將栖鳳，百世賢孫返峙鸞。
爲誰憑送今宵價，偶得閒人是亦難。

枕

每日相從几席間，與頭轉合更回顏。
漆叟憑時隨化蝶，陶潛起處放飛鷗。
月笛依如思古夜，天衾返似臥空山。
美人留我春風約，千里江南數步還。

返照

願得光陰若少年，盡西落日返東懸。

影帶衡陽驚陣鴈，色偷錦館染花鶻。
緣江出沒還三四，與霧吐吞更萬千。
須臾仰見明半月，照入清歌妙舞筵。

涓滴

轉入文房永暮朝，參看高士被詩謠。
形同秋夜初圓月，口吐春江漸進潮。
硯池暫許唐仙李，筆匣常隨漢吏蕭。
那謂人間無用物，駟車他日共題橋。

村

杵臼之間妙理真，農家使用器維新。
枝各東西春後木，弦連上下月初輪。
晝閒影帶千重郭，夜久夢驚萬里賓。
數曲春歌樽有酒，村人自此也相親。

過九畝尾

攬彼津梁浩浩然，一聲撓棹係門前。
九曲合流山下水，七峯分擲鏡中天。
霽月西欄迎好客，隱菴東壁學閒仙。
樽酒盤肴須得醉，歸來詩戶說風烟。

遊屯田

四月青山晚更奇，濃陰軟艸映湖眉。
撓樹涼風聲似瑟，隔簾晴月影如絲。
野霧重封千萬嶂，岩花合得兩三枝。
看君胸眼如斯大，到處扶人任所之。

過鴈巖【見尤菴手書感吟】

水到鴈岩轉益清，至今不忘宋先生。
石穴風迴撞似鼓，澗心雨洗嘯如笙。
地以名聲銘艸木，天將義氣動霜星。
此外儒人爭摹刻，願令萬世永無傾。

與丁鎬卿詠月

照益無私明益暮，藏來不盡妙天工。
光搖籬竹層層畫，影轉庭梧淡淡籠。
鏡擲三分看舞妓，燈懸一點抱書童。
謫仙去後江南夜，壺酒清遊與子同。

遊法聖浦

湖上清遊稱海珍，行人漁子每相隣。

自古文章猶有恨，至今風月更無塵。
隱仙菴裡層層樹，玉女峰前曲曲濱。
登舟始見山河大，疑却前時四塞秦。

遊仙津

同遊詩伴又同年，慣識津名不遠仙。
芳艸有情相曳杖，斜陽無價自登船。
兩岸青山浮沒裡，一群白鳥去來前。
漁歌唱斷詩歌起，江樹江雲曲曲連。

再遊屯田

燕來消息月三初，酒戶詩欄興不疎。
古渡午天隨柳際，今年巳日浴蘭餘。
萬峰南走雲邊馬，百島西遊海上魚。
一枕清涼朝雨裡，絲絲春夢正何如。

次

燕南湖上又鵲西，坐看風煙遠遠低。
春心長育青山少，天道旋平白日棲。
萬樹浮雲分作雨，四郊流水合成溪。
不可花時無一醉，呼兒覓紙戲相題。

過霧隱菴

霧隱菴前霽色多，冠三童一夕陽過。
樵人墻屋層層石，漁子源流曲曲波。
浴看四支心灑落，靜思萬物理森羅。
入山易得春消息，杜宇如啼又似歌。

遊九水山內

半年交契喜相逢，槲上峨洋子是鍾。
葱醬登盤酸客味，槐泉當戶潔兒踵。
一天西闕雲歸海，萬樹東高月隱峰。
寒食佳辰花事晚，煎春詩傑不從容。

與金友吟

艸屋烟深倚半窓，南來消息燕雙雙。
樹色繁華春似市，月痕蕩漾夜如江。
居巷深知君子味，讀書詳見聖人腔。
自坐箕壇千載後，大明文物我東邦。

又吟

聖道元來備禮威，威作機權禮作衣。

靜時運似山川氣，觸處明如日月輝。
惠卜家居人愛柳，夷彰國義世知薇。
書生恒讀尤難曉，盡日空庭自掩扉。

登九水九峯巖

抱巖未覺兩三迴，叢木斜連一路開。
詩步太疎難着屐，酒喉頻渴強思盃。
老將披登金甲冑，群仙舞立玉樓台。
歸來更把東流水，快洗胸中累累埃。

下九峰巖

一雨初晴萬倍春，藕草萌花共作隣。
禪心杏社白居易，俗味桃源黃道真。
岩形撲撲將飛翼，樹色森森互接鱗。
夕陽沽酒來何晚，應是山廚漉以巾。

續吟

一場詩右讓夫君，谷鳥林花所共聞。
近水去留人似月，入山來宿客如雲。
智愚有路誠難合，富貴無門摠易分。
融和臭味芝蘭席，何幸今年會以文。

霽月

月色偏多霽後軒，玲瓏花樹默無言。
鏡中天地恢恢海，玉下江山歷歷村。
詩友還生千里思，塵人新破六朝昏。
清涼今夜眠孤鶴，莫向梧桐上上翻。

與友吟

春枕支離日尺高，睡痕猶帶未醒醪。
花間露滴朝看雨，松畔風迴夜聽濤。
門僻知詳元亮柳，洞深學種武陵桃。
累牘殘篇難盡記，茫茫天地幾雄豪。

登山逢雨吟

人來靈境雨偏多，快洗胸衿放浩歌。
西歸雲影搖搖棹，北極天光泛泛波。
一路危斜匍伏可，千山回立拜辭何。
自去詩郎無好韻，杜鵑花下鳥相過。

下山吟

履艸隨花共入嘉，夕陽來宿雨中家。

玉未成章方韞石，金能知氣可淘沙。
雲邊山色叢叢楚，天際江流字字巴。
詩人不勝東風醉，一穗青燈影下斜。

眼鏡

此鏡難求世葛藤，或稱風眼可圖鵬。
兩輪似月懸銀漢，一色如波佩玉滕。
鬢畔橫過垂膝鶴，眉端添得見毫鷹。
愛惜時時藏匣裡，祇今猶恐誤青蠅。

吹簫【庚寅冬】

一尺清簫玉兩端，却疑天上降仙官。
王子埕空來鶴舞，楚山葉落散猴冠。
月中老釋從容坐，雲外行人指點看。
縷縷餘音如不絕，願登韶鳳入長安。

雪裏釣翁

黃昏雪滿子陵埕，霜鬢風絲一色栽。
澗綿江女寒初去，沽酒舟人凍不來。
蓑衣半壓橫支竹，石面難分掃坐苔。
白鷗飛盡回頭立，霽後湖山鏡裡開。

觀海

萬里平洪繞寓畿，蒼波如練白鷗飛。
天外三桑渠亦變，人間一粟我猶微。
烏頭片島遙遙立，鴈昔孤帆往往歸。
半吐半吞誰所使，龍宮深處闢彤圍。

水

水腹水心淨絕埃，瀑流停滯若花栽。
家家明月金盤錯，野野寒沙玉井開。
疑人便作狸聽去，老子方看鯉出來。
如令豪富爭論價，盡入長安第一垓。

冬至

玉衡星錘一高低，子夜群陰半入西。
伏雷北極圖驢馬，聽朔南方貢象犀。
萬國頒奠陽月晉，千家煮豆暮烟霽。
岸柳山梅春有意，少陵端坐浣花溪。

聽溪

山際有聲倚晚風，也應水道盡歸東。

石頭飛落涿涿出，沙口平過隱隱通。
愁老獨聽秋髮皓，聞人難寐夜燈紅。
此流終作汪洋海，方外神仙臥聽蓬。

初秋吟

九月西風雨正寒，逢君今夜問平安。
古木江城秋欲暮，黃花籬落酒相看。
詩債經年難了半，農功連日始生端。
包得箇中無限意，斂容危坐曲欄干。

觀魚

夕陽塘水自成波，魚子前程萬里河。
石面比鱗雲影合，沙頭吹鬢雨聲多。
一勺流邊生鯉鱉，千尋深處戲黿鼉。
自在閒翁收釣立，生生樂意正如何。

卷二 遲松稿

己亥春

己亥寒食

艷陽物色滿城東，把筆相看意思同。
遊子牽情楊柳綠，美人壓酒杏花紅。
千門冷節殘煙外，二月春光暖靄中。
綿上忠魂誰復酌，數聲啼鳥一曲空。

書懷

花明柳暗兩相濃，昨日送君今又逢。
種果幾時朝灌圃，看書餘暇夜談農。
短簷雲捲山呈髻，曲沼風迴水斂容。
片石如人堪可語，教兒先掃碧苔封。

春來我有惜春詩，寒食清明又此時。
經雨桃花紅正濕，引風楊柳綠初垂。
閒庭石立無言玉，別墅山多未賭棋。
應有隣家新釀味，此心要與故人知。

杜鵑花 刪

杜鵑飛入碧山居，花下芳樽花外車。
萬樹生香寒食雨，千年如夢舊宮墟。
遊人共惜春光暮，怨女爭啼月影疎。
楚魂爾亦無情鳥，祇有江南草色初。

己亥三月三日

藹然倩氣滿晴堤，酒熟誰家共我提。
野渡草深朝放犢，牆陰花暖午眠鷄。
適因兒病方調藥，却有朋來晚策藜。
老屋如新今日後，一雙嬌燕自東西。

偶吟

瑞陽結社境清佳，暮往朝來數里街。
江閣風微巢舊燕，野塘水暖產羣蛙。
青雲渺渺空勞夢，白日遲遲謾惹懷。
睡起床書多散帙，好教童子更安排。

海上蒼嵐吹遠埃，下山樵笛夕陽催。
方塘引水暖掀鬣，曲砌松深鶴解胎。
白酒逢人談稼穡，青雲問路望蓬萊。
呼童準備明朝事，腰佩詩囊陟彼嵬。

春懷

蘭亭古事又今春，更把流觴誰與隣。
不幸晚生箕子國，無聊終作葛天民。
琴書吾外多知己，花柳人間又此辰。
一任漁樵真活計，潁陽風俗也相親。

午天飲到夕陽醺，行度庭園細挹芬。
每夜紅鶻遙憶蜀，何年玄鳥始生殷。
樵兒卷葉能吹笛，菜女牽花欲染裙。
數尺清琴蓬海遠，願同明日故人聞。

雨後看花

春天霽色滿青山，懶屐行尋樹樹間。
杜宇夜啼口訴恨，太真午醉不勝閒。
垂垂玉露晴猶溫，冉冉香魂去復還。
壽域昇平知在此，遽然更作舜華顏。

春日書懷

午醉朦朧一夢圓，覺來自在艷陽天。
桃花宿雨垂紅露，楊柳層陰結翠烟。
三月登臨無此外，百年逆旅在何邊。
如今海內知音少，壁上枯桐故不絃。

逢友吟 刪

香社詩遊趁暮朝，西來仙屐正遙遙。
花開夜雨移栽樹，魚逐春江未漲潮。

今我逢迎三月暮，故人娛樂百年饒。
問渠最好誰家酒，短笛斜陽下牧樵。

暮春逢友 刪

雨歇江堤艸色交，午天雙屐度南郊。
鴉翻古壁兒塗墨，燕繞橫樑客定巢。
一別年光全若夢，三巡醉力却相嘲。
短驢暫駐垂楊外，半幅瓊瑤爲我拋。

書懷

潁陽團聚摠詩豪，一見無期又此遭。
風力絲絲搖碧柳，露痕點點濕紅桃。
百年逆旅都歸夢，萬事商量更舉醪。
江閣人間春晝永，任他窗外燕飛高。

春雨

東風盡日雨聲多，艸色長堤綠映羅。
萬縷柳纖顛劇舞，兩岐麥秀太平歌。
細生簷面垂垂玉，圓滴江心歷歷波。
花圃主翁清不寐，明朝把酒正如何。

春雨 刪

昨雨未晴今又多，陰霏山色遠森羅。
農翁荷鋤朝看圃，漁子維舟夜聽波。
萬樹皆眠春欲夢，百花如染鳥爲歌。
莫令連日鈴鈴下，正是愁人枕畔何。

春懷

遠山濃靄墨爲圖，霽後登臨我忘吾。
五柳風情陶令里，一帆水色范公湖。
鷄爭庭粒時相逐，蝶趁牆花不待呼。
未必埋頭書卷裏，存心養性是工夫。

登月明山

月山有約我懷長，趁午登臨坐夕陽。
沿路苔紋雙屐滑，滿園花氣一家香。
白茅村落依依樹，碧玉江流遠遠檣。
叔世風流多此日，共君連日倒壺觴。

遊月角山

上山有靄下山晴，好鳥逢人又一鳴。

簇簇紅衫花外逕，萋萋芳艸雨餘城。
半塘貯水任蛙產，數頃添田爲鶴冊。
樵笛聲聲歸已晚，小車滿載故人情。

春懷

屐底群山未了青，夕陽無限在空庭。
江南柳色和烟見，石上溪流帶雨聽。
古社論詩多老宿，舊窓塗墨幾髫齡。
我身如在香轎裏，昨醉搖搖不盡醒。

巢燕

萬里江樓遠客登，喃喃何語爾多能。
花樑棲息宜三吉，芹土經營又一層。
自去無情辭舊主，同來有信見新朋。
莫言風雨人間事，幸賴蒼生古屋乘。

春日書懷

暮春起我上江樓，遠嶂叢叢不盡頭。
滿地桃花紅正溫，連天芳艸翠如流。
山翁遠客朝馴鹿，野老明農午飯牛。
捲箔喜看新燕至，幾年白屋共淹留。

逢梅村舊友

東來高屐此相尋，護我平生一段心。
墟落風微吹野馬，階庭晝寂下山禽。
梅村舊契人如玉，麥壠新謠雨似金。
袖裡仙書看不厭，寧隨世態共浮沈。

垂楊

絲絲春暖水東南，黃鳥分明見兩三。
軟青密葉烟生岸，輕白飛花雪滿潭。
蕩子何心無語折，佳人妙舞有情含。
一策許同驢上友，夕陽回首蔚如藍。

玉池叙懷

玉山無價素清廉，三十琴書又此兼。
春酒送人容易醉，午眠攪我不多添。
門前細草牛毛短，海上群峰馬耳尖。
種柳陰陰誰復號，知君不讓古陶潛。

月齋新話

君家春酒我春衫，爲說登臨手共摻。

天遠東迴簾外嶂，江清西指鏡中帆。
綠楊風拂牆頭揖，芳艸烟平野口緘。
誰教輸納林端屋，一筆奇談摠不凡。

近山當戶遠山崇，我友不來書已通。
三月東風來燕子，一帆南浦下漁翁。
落花浮水春容暮，大麥連天野色豐。
醉裡牋書猶在手，臥看今古幾英雄。

自號遲松已見冬，願因雕琢玉如攻。
烟枝芳艸猶能織，風簸垂楊也自春。
世險於山雲矗矗，交清如水月溶溶。
杜鵑啼去春將暮，一把江樽更滌曾。

我筆千斤任意扛，晚催款段度長杠。
遠山半滴騷人几，短夜中分續如釭。
三日香醪開舊甕，十年寶價見新珰。
漁翁不識沙鷗夢，撓櫓聲聲下碧江。

石上蒼溪老蘇皮，沿流欲坐忽生疑。
逢人誰是知人鑑，遯世君非處世錐。
春水方生新理釣，夕烟層合晚成炊。
經宿甕醪猶未熟，小兒來說似甘飴。

禮樂東歸硯墨西，小樓客散夕陽低。
雨浥石苔斑點點，烟棲江草綠萋萋。
山鵑啼罷猶餘血，野馬吹過不見蹄。

麈尾清狂今自在，竹林新語爲君題。

東風吹雨上花堦，坐見香泥細細埋。
萬里山開治水禹，千年石老補天媧。
春光隱隱鶡啼樹，夜氣遙遙犬吠柴。
一枕圓眠誰復覺，笑持華筆與君偕。

奉贈穎史

惜花風雨不將摧，誰使春光半是催。
縞鶴老仙今又到，墨鴉小子昔能培。
嶽巖遠嶂層層樹，淨溜圓塘點點苔。
三角清遊消息好，願教眼力放恢恢。

穎上春光已下旬，巢翁去後與誰親。
青山重見非生面，白酒相逢又入唇。
萬樹如眠烟正薄，百花未褪雨初均。
謫仙不厭人間在，雲月孤菴淨掃塵。

自錦城歸

錦東幾日好留連，並轡歸來兩少年。
屐齒牽春微露潤，笻頭指日暮雲穿。
野牟半熟黃雲穗，江柳分飛白雪綿。
近嶂常多晴意思，天然輸納此樓前。

月社春話

山日亭亭野靄消，晚花遶砌小兒嬌。
江上漁樵吾自樂，世間富貴爾何驕。
羣蛙出水爭吹鼓，好鳥啼園巧學簫。
一任南風知不遠，蒼生安得見慮韶。

惜花

風風雨雨夜相交，萬鍾茂花有幾梢。
山行我屐宜牽燭，野酌朋樽又舉匏。
垂垂石面斑黏蘇，泛泛波頭紫潤泡。
可惜春光留不得，王孫芳艸滿長郊。

偶吟 刪

酒國相逢意氣豪，數巡未醉短瓢操。
穎上落花春似水，江南大麥雨初膏。
晚生鱗域三分土，誰把龍泉一尺刀。
穩夢不來詩已晚，踈灯爭與永宵挑。

餞春

暮春離別惱人多，杜宇如啼又似歌。

四月明朝芳艸雨，百年今日落花波。
東君不惜紅顏者，公道難饒白髮何。
從此吾生須貴醉，當壚喚客有佳娥。

香社新話

春光減却我懷加，把酒歸來小逕斜。
門外客無題去鳳，窓間兒有畫來鴉。
四月湖山將有約，十年詞賦更無誇。
遲遲征馬爲君挽，猶有庭前晚種花。

山日遲遲燕繞堂，看書未了午眠長。
綠綠垂柳千行碧，點點飛花一院香。
穎上如今無隱逸，江南從古有文章。
醉來枉做青雲夢，不識遊魂在洛陽。

牧童

杏花時節近清明，酒熟江樽送客情。
芳艸短鞭驅偃犢，綠楊長笛打流鶯。
數村斜日烟生竈，十里東風雨晚城。
齊戚秦奚人不識，樵歌何日樂昇平。

聽鶯

黃鸝啼入碧山邱，伐木丁丁我自求。
一斗香柑春酒熟，千行垂柳夕陽流。
莫打伊州征歸夢，更招剡曲故人舟。
從此王孫歌舞罷，江南日日久淹留。

養蠶

養汝由來歲月深，馬娘靈魄禱桑林。
三眠紡績憐黃腹，五色經綸飽綠心。
莫說今朝常臥箔，應知他夜亂鳴砧。
玉纈更繡山川畫，大禹神功何處尋。

前江漁翁

楊柳橋邊春酒甘，醉來把釣下江南。
姜翁白髮非窮八，張叟青山不換三。
沙頭輕笠閑眠鷺，波面游絲暗吐蚕。
數聲漁笛回扁艇，楚色崢嶸繞夕嵐。

待雨

天際雲霓日日瞻，主人遲下艸堂簾。

蟻封古埵誰先覺，魚夢今宵我自占。
烟暗然疑江上樹，露晞爲惜水中葦。
世間猶有鳴泉枕，慰說蒼生且莫嫌。

前江眇鷗

釣埕如坐白頭翁，萬事人間總是聾。
輕輕蓼葉寒烟鎖，隱隱蘆花霽月籠。
杜子相親同老友，姜翁何事作元戎。
自來橫篴驚春夢，一舉青真任我躬。

聽蛙

羣蛙未學口容恭，爭入池塘草色濃。
夕陽蹴水輕如鷺，春雨吹衙亂似蜂。
世事華林麋可食，人情晉寵繭初縫。
縱然閣閣多今夜，自此踈灯客夢慵。

畫梅

我畫江梅未畫江，選鋒誰使百花降。
月暈懸梢看睡鶴，雪痕滿地聽疑獐。
娟娟嬌女三分色，歷歷良工一寸腔。
歲歲送春春自在，不關古寺曉鍾撞。

登山

雨餘山屐坐危微，亂石潺流面面圍。
遠樹搖風坐翠靄，晚花含露落紅霏。
一江霽色孤帆出，四月新聲好鳥飛。
我友同來無意去，不須歸路帶西暉。

美人

畫樓生長錦屏樓，一笑天然萬國迷。
翠眉呈態嬌搖扇，紅頰含羞懶入圍。
夜夜相思明月苦，年年爲惜落花啼。
世間雲雨能成夢，晚覺仙緣在此兮。

書樓逢友

錦湖匹馬晚逡巡，初見依稀更整巾。
紅綃唐扇一童子，白苧周衣三故人。
南渡文章今自在，西遊山水忽相親。
休道山盤無供客，笋蔬滋味勝於珍。

觀魚

碧沼清無底，坐看箇箇行。

好生多此外，萬物摠含情。

遊錦湖

四月今行已錦湖，誰教水墨鑑中圖。
遠山霧罷看猶在，大海潮收聽若無。
久別依稀初不記，數書珍重忽相呼。
晚花未褪垂楊碧，到此人生不樂乎。

登石塢山

君有香醪我有歌，世間此日不應多。
青山獨立因為島，大海平流不見波。
一別恨無消息又，相逢知有別離何。
此來壯觀湖山勝，擬到吾鄉盛說誇。

別友人

兩岸青山十里濱，依依午夢覺來新。
忽然臨別難言別，白馬翩翩任去人。

過扶寧蓬萊山【九秋】

蓬萊爲客不知秋，始覺仙香爽氣流。
百里離懷多我夢，一朝清分又斯樓。
蒼葭向晚霜初結，碧樹生涼雨已收。
自古群賢林下在，主人何恨卜居幽。

蓬島尋眞已太遲，旅鄉秋色滿雙眉。
老羊喫艸深塗墨，衆鳥啼林亂引絲。
我與赤松重見日，誰知黃菊未開時。
曾聞彩石多明月，片棹何如夜共隨。

蓬萊山

聞道蓬萊好，今來見此山。
偃然臨海上，飄若出人間。
秋色蟬初歇，仙書鶴未還。
迢迢南渡客，爲得半生閒。

秋夜吟

秋色爭高夜氣天，笑開吟硯坐燈前。
蛩吟古砌微微露，螢下疎林黯黯烟。
棋法專心連勝百，酒謀過量復沽千。
君家寶樹雙株好，種德何時不記年。

遊扶寧蛇山

午天來自郡西樓，一上蛇山又遣愁。
野有帆檣知別浦，海無島嶼見中州。
蛩吟不斷寒窓雨，鴈信先驚故國秋。
宿釀已甘香稻熟，豐年盡在與君遊。

春日逢晚松

客來消息燕飛高，莫向東風惜羽毛。
吾北人皆能用夏，汝南誰復敢評曹。
百花雨氣晴還好，萬樹春心爛不勞。
暮抵雲菴仙老宅，那知此日好相遭。

早春和蓬山社老冊史

蓬萊尺雪玉爲樓，不獨仙緣海上浮。
初來山色如曾見，一見交情似舊遊。
顧今天下無青眼，從古人間有白頭。
待得剡溪乘興夜，扁舟載月使吾求。

春雪

早春三雪下，隱士臥南岡。

輕薄柳先絮，鮮明梅與芳。
地難分玉石，天欲合陰陽。
送妓誰厨傳，香山道路長。

人日

人皆吾日正遲遲，始覺年華惜艷姿。
栢葉山樽初熟後，梅花江雪未消時。
仙緣獨喜丹邱入，公道誰能白髮移。
寸暄餘在書生背，願俟清朝獻玉墀。

蓬社早春

風高雪落夕陰陰，佩酒東來路轉深。
獨樂何傷君子志，羣居爲說故人心。
神龍有眼宜獲合，仙鶴無眠又一吟。
老少同參蓬下契，自言三十四年今。

懷人不見

早春風雪不知春，君去迢迢潁水濱。
白石當前能記我，青山依舊不欺人。
梅花冷篆難成畫，蕉葉軒觴又洗塵。
半壁踈燈今夜夢，幾時重再好相親。

見梅懷人

雪滿空山月滿川，寒梅消息到君邊。
十分精魄霏霏玉，千里情書漠漠烟。
處士相交春似水，美人不寐夜如年。
何時載酒青驢背，緩緩相隨孟浩然。

居接韻

我侯何暮我先聞，齊會衣冠老少分。
世皆鄒魯多稱士，誰復唐吳更致君。
天寒尚有明朝雪，雨久猶含昨日雲。
長使吾鄉能教育，安知野鶴出鷄羣。

春日梅山詩社

甘雨濛濛麥秀歌，離家是日我懷多。
二月東風新草木，一帆南國舊山河。
畫亦知心文與可，射能學道尹之佗。
君家應有看花酒，霽後明朝醉若何。

東來信宿海山西，杏漠雲烟樹樹低。
入春有事晨治圃，滯雨無眠夜聽溪。
花氣蒸紅吹野馬，麥芽軟綠下山鷄。
故人多得芝蘭室，回首君遊路不迷。

暖風爲雨又輕風，萬物生生得氣同。
處士門深楊柳綠，佳人酒熟杏花紅。
看書倚枕春眠苦，把筆挑灯夜色空。
當戶梅山相不厭，深情自在淡然中。

梅山詩話

海上雲烟任意濃，開門多得雪梅峯。
含雨桃花能解笑，啼春杜宇未從容。
少年君是同司馬，隱士誰知又臥龍。
來時護種門前柳，一夜東風翠幾重。

春日卽事

鎮日陰風雨滿江，霏霏亂灑竹間窓。
杏花開盡桃花半，黃鳥來遲白鳥雙。
雅望誰如山北斗，文明猶在海東邦。
明朝理我看山屐，百種春懷滿寸腔。

桃花

春城雨色故遲遲，正是桃花爛發時。
面面胭脂難着面，絲絲錦繡不成絲。

玄都有客相思否，紅國無人更問之。
敢爲洛陽兒女惜，狂風且莫夜來吹。

杜鵑

蜀帝深宮鎖翠微，自來休歎不如歸。
他鄉明月歸何益，故國青山事已非。
遠苦相聞愁攪夢，孤臣一拜淚沾衣。
遽然染得花千樹，寒食春城故故飛。

小兒

人生孰不爾生初，稟賦于天性本虛。
能語能啼花下鳥，相親相戲水中魚。
擇隣今日三遷舍，入學何時五遍車。
白髮老翁爭抱送，海棠春樹滿庭除。

三月三日

東風遊客近西湖，羈思鄉懷半有無。
三月曾營今日醉，一觴爲謝故人呼。
家家燕子如貴客，岸岸桃花似畫圖。
數粒金丹消息暮，蒼生安得更回蘇。

新燕

花間樓閣任東西，一渡江南路轉迷。
已識每年尋舊主，更從何處定新棲。
三三此日誠難越，兩兩于飛各不齊。
卵育終知長遠計，芹塘流水正含泥。

杏花

寒食城東花正開，時看蜂蝶趁香來。
午風馥馥薰庭艸，夜雨斑斑印逕苔。
遠客踟躕江上路，美人持點月中臺。
數聲羯鼓春長在，却把芳樽又一盃。

老翁

老大因居生長村，天時人事幾迴繁。
纔出戶庭筇與伴，欲看書字鏡相論。
檢稼每休芳艸岸，戲孫仍睡海棠園。
獨有隣翁知我意，時時來說夢中魂。

逢漢陽友

起坐山齋雨晚晴，時聞幽鳥隔花鳴。

驀地逢如初見面，隔年忘却舊知名。
漢陽垂柳家何在，湖上浮萍客未行。
臨別休言無贈我，瓊琚一幅萬金輕。

春雨

暮春春雨可占年，除是洪恩降自天。
物物勻沾甘勝露，絲絲不斷細和烟。
亂翻水面銀初躍，點滴花心玉自懸。
明日江南多好事，晴看萬里鷺來邊。

寒食

江南春色動初寒，認得忠臣去復還。
杜宇東風花滿樹，牧童西日草連山。
千家有雨清明後，萬戶無煙冷源間。
適有南隣新熟瓮，不勞巾屐喜開顏。

聽鶯

我家住得水陽村，上有新鶯巧學言。
五柳方濃陶令宅，雙村應熟戴翁樽。
砭針俗耳能知止，消滌愁腸不見痕。
誰復如君求友切，嚶嚶終日到黃昏。

清和卽事

清和四月與人來，一扇蓬門也自開。
江柳多絲風不定，野牟半穗雨相催。
山果鹿食蕉歸逕，日晚鷗眠釣罷臺。
緬憶烏公難可作，洛涯誰復石生媒。

早花春盡晚花春，着得心花春自新。
竹下看書披鶴氅，山中種藥脫烏巾。
三盃酒不論賢聖，八道無窮到聖神。
相彼綠楊求友鳥，嚶嚶終日却相親。

四月題烟興菴

草行半日陟商顏，慣見烟菴在此間。
佛國千年流水去，禪家四月白雲閒。
落花人掃堦邊石，綠樹禽啼戶外山。
曉磬一聲驚我夢，遲遲沽酒却忘還。

逢話燕南友

雙驢催發一筇登，修欲留連竟未能。
耿耿無眠推夜枕，津津有話點晨燈。
小堦宜竹皆三友，古社同蓮少一僧。
四月將成春酒會，江城花價近還增。

湖海先生已白頭，昔年相別薰南樓。
花時釀酒香生齒，草際看山翠映眸。
北學十年甘菜咬，西遊千里任萍浮。
穉桐猶有琴心在，却恨知音未易求。

午天麥氣動于今，却使踈涼襲我襟。
野塘苔合蛙吹雨，山院花稀鳥下林。
陶公早種門前柳，范老非謀海上金。
想是薰南清水石，更將漁釣好相尋。

穉桐

穉年生長尺餘三，一樹東高一樹南。
枝欲干雲虛似竹，葉初迎月碧於藍。
鳳知棲處朝飛切，魚學琴心夜聽潭。
終來不羨龍門大，幾飽人間雨露甘。

夕陽樵笛 刪

晚來樵笛兩相兼，亂帶平川雨下纖。
露初立立山光遠，烟際行行夕氣沾。
征客未歸芳艸渡，美人遲下杏花簾。
叢叢迴落黃牛背，一角將低一角尖。

麥浪 刪

怒濤激石轉如巖，午霽輕寒劫我衫。
兩歧撓雨漁翁笛，一葉乘風賈客帆。
白能懸鏡江心練，翠欲成紋海口緘。
四月黃河知不遠，聖朝豐穰摠非凡。

南草

南來靈艸播吾東，氣味須令萬口同。
數畝林間春雨種，一絲竹裏暮烟通。
旅人夜爇愁安在，詞客朝含句已工。
喫得仙茶能若此，世間應不老英雄。

觀海歸路宿月明庵 刪

醉來那必啜糟糠，海上青山已夕陽。
三壁是非誰有卞，一椎輕重世無良。
鷓鴣草碧行吟路，蝴蝶花殘夢度場。
萬國腥塵迷遠燭，後生落落望餘光。

奉和吳竹坡

晚來結此海山齋，缺界偷閒少我儕。

花時向暖春爲夢，麥氣生寒午入懷。
詞客先雄稱老杜，世人多徑愧高柴。
莫道無絃知己少，穉桐數葉蔭前階。

癸卯秋，桂陽逢友

行行午抵桂陽秋，幾度山回又水流。
晚稻經霜將有事，寒花爲酒却無愁。
荒途世態雲歸海，樂歲人情月滿樓。
莫把委蘭深致恨，恐教白髮不饒頭。【尹魯下有喪明故云】

桂陽秋夜 刪

星斗傾西月在東，悠悠秋思此宵同。
山村路細蕭蕭葉，海國霜高落落鴻。
竹陰近檻圖書碧，燈影撓窓枕簟紅。
於世安知招隱操，主人長在桂山中。

老藏洞詩會【秋九月二十日】

龍山詩酒禮爲先，政合蘭亭說旧緣。
地氣鍾人多水石，世紛寒路半雲烟。
繞籬秋色黃花九，近戶風聲翠竹千。
自是南州傳好事，不關老少喜同筵。

自詩會至竹山夜吟 刪

山雨鳴窓夜氣寒，煖爐相對酒盃寬。
四翁鬢髮蕭蕭皓，九月形容葉葉丹。
也應東到春秋易，獨自西行道路難。【春三秋九契會故云】
遽然二十年前事，竹裏詩床試又看。【接會處也】

讀孟子

開卷瞭然孟子時，過存二字即無疑。
醫國興亡爲藥石，筮人得失亦蓍龜。
斥夫楊墨功能述，稱必唐虞性可知。
淵源自在傳心法，一部中庸是我師。

偶叙 刪

簾隣山光轉不虧，却從霽後故低宅。
和烟嫋碧絲絲柳，向日傾丹寸寸葵。
門外二賓將至某，人間三月復歸誰。
也應村釀明朝熟，佩送奚意緩緩隨。

贈登山友

抱病登高計已非，不如終日掩門扉。

流水青山堪可畫，落花啼鳥自然機。
晦跡漁樵人少識，平生文墨世多違。
祇應明日春歸盡，預拂輕輕白苧衣。

餞春 二首

春光長欲少年齊，一別如流下碧溪。
樽酒纔分門巷外，夕陽同去海天西。
花落無言山寂寂，人生有淚雨淒淒。
只信年年多此日，可憐杜宇向誰啼。

今春捨我好樓居，書亦迢迢離鯉魚。
不掃洛花人閉戶，無情流水客登車。
江上別離多楚楚，天涯行色得徐徐。
白髮紅顏留未得，世間公道沒親疎。

遠眺

海上青山使我棲，有時觴詠子同携。
釀花供蜜甘蜂嘴，襲草添香暖麝臍。
一年離別春先矣，四月清和雨又兮。
夕陽橫笛來牛背，誰識人間百里奚。

偶題 二首

漁樵江上卜名區，一自春歸獨醉吾。
惟有兩三花未落，子規何事憶魚鳧。

須從原道學昌黎，莫使談談參滑稽。
大宋文明千載下，五星何日復同奎。

卽事 刪

酒未三巡詩入爻，一堂優樂與君偕。
柳邊玉絮霏霏屑，花下金鸞落落釵。
貧欲爲仁思陋巷，行能由徑愧高柴。
暮春風浴今猶晚，讀處從容六七儕。

清和山色碧崔嵬，合把春遊使我催。
垂柳如眠烟纈眼，落花爲淚兩盈腮。
遠林夕照牛將下，一枕溪聲鳥共來。
更恨人間無砥柱，滔滔難定萬波頽。

白君一見卽相親，時爲人來整我巾。
芳草連空驕綠鬣，落花浮水弄紅鱗。
潯陽日月惟書甲，湘澤春秋自降寅。
却笑揚雄多底事，逐貧無處不憂貧。

觀燈

半空齊上破黃昏，點綴雲煙尚未痕。
十方清淨如僧舍，一界光明似佛門。
非望團團新月出，無風點點落花翻。
可恨人間吾道晦，書燈小屋對誰論。

偶敍 刪

悠悠雲日上欄干，天氣清和事事安。
槐潤拍衣皮肚冷，梅薰繞瓮齒牙酸。
樵笛兒騎雙峭角，錦囊人坐一層鞍。
古壁篔簹消息暮，誰令此世壽金丹。

麥浪

南風陣陣午清閑，觀麥觀濤若是班。
漲入人間連蟹市，激過山上失螺鬟。
翠紋細合烟初織，白練圓傾月乍彎。
農老簷衣猶不濕，如鷗浮沒夕陽灣。

稚鷄

卵生雛育兩相全，傍母爭蟲入草芊。

兄弟難分均友愛，雌雄欲決用兵權。
眠坐塔心松子落，走登籬角石榴懸。
邇來必唱扶桑曉，萬里東方化日宣。

養蠶

滿腹經綸生臆料，貧家富養易爲驕。
五畝齊牆當衣帛，九州禹土不乘橈。
平生食綠終身飽，老大治黃反口雕。
自此庇寒天下士，始知叢帝有來苗。

遠浦歸帆 刪

一帆斜懸海上巢，却疑歸鶴脫仙胞。
蘆諸風高翻白浪，桃源雨暮逐紅泡。
亂山缺處搖搖葉，獨鳥飛邊立立梢。
此行應載鷗夷子，身退名成世莫嘲。

對鏡

寶奩爲裏碧綾羅，水滿方塘月上柯。
晚窺花下紅粧女，獨喜人間白髮坡。
莫欺暗室珠同擲，不受纖塵玉自磨。
吾道光明長若此，在前忽後視瞻俄。

彈琴

珊珊香搗手生花，調入宮商玉不遐。
白雲江上叢叢楚，流水天涯字字巴。
聽若無人於出矣，棲將有月鳳來耶。
願使薰風歌舜德，漸于東海被西沙。

春夢

悠悠春日閉吾堂，忽被野人沽索郎。
晚烟有暈棲芳草，宿雨無痕壓海棠。
寂寂爲仙歸去遠，飄飄如客到來忙。
朦朧窗外誰先覺，啼鳥聲長午簾涼。

登山

雙袖清涼一屐輕，高吟四月坐昇平。
百花如霰山無價，萬樹爲風水有聲。
齒少青衫皆我友，拳多白石是誰兄。
却看天際斜陽下，千里歸雲繞玉京。

與梅岩吟

一樽相對不要醒，爲愛槐陰上我庭。

中國衣冠天日暮，外洋帆船海氛腥。
棲鳥山深啼古木，游於水暖動浮萍。
白首梅翁知不俗，多年風雨自安寧。

竹纓

竹之爲性退炎蒸，琥珀珊瑚不足稱。
上下雙紋斑淚女，中間一箇念珠僧。
啄能有穴曾棲鳳，獵且無瑕恐誤蠅。
橫掛蕭蕭山老鬢，滿天霜雪直垂冰。

綠陰

萬林紅疲綠初浮，日色來穿不自由。
秋外新涼何處至，人間大暑此應休。
庭槐鬱鬱思王相，城栢森森感武侯。
聽歌始覺黃鸝入，盡日相求是我儔。

偶

松筠繞籬自成林，却喜炎天坐綠陰。
蛛網罹花紅片片，燕泥濕草碧沈沈。
樽前白髮誰多少，門外青山自古今。
黃鳥一聲驚我夢，悠悠詩思正難禁。

早夏卽事

陣陣薰風始自南，淡濃暑氣有雲含。
梅子半黃春未熟，秧苗一碧雨初甘。
句能露膝堪愁鶴，字欲粧頭善畫蚕。
猶有深窓蝴蝶夢，白桐花下晚香探。

絕句

天地陶勻鑄我錢，如山如海積千千。
定知風月元無價，願買人間長少年。

笋爲斑篋竹爲扃，又得槐陰綠滿程。
四月不知天有暑，悠然負手曲欄行。

贈人回甲韻

兩恩至重憶君親，烏帽風斜白髮新。
屈指六旬回舊甲，介眉五月祝今辰。
詩名已重香山社，酒政偏寬錦水隣。
無數斑衣來獻壽，石榴花下一閒身。

偶紋

籬梢橫日度踈簷，椒瘴梅薰動早炎。
爲詩莫若令人解，當禮先知反己謙。
簞腹斑紋金剪鳳，硯凹香滴玉懸蟾。
漱石盪泉深滌暑，海山如鏡半開奩。

竹床

筠軒篁館我前監，乃伐爲床亦不凡。
綠生淇澳猗猗簣，斑自瀟湘遠遠帆。
主人偏愛能逃俗，君子同清豈畏讒。
斥暑納涼無此外，披襟不復入松杉。

與吳竹坡吟

初暑橫流漲遠空，榴花萼草自叢叢。
莫說離鄉如逆旅，也多沽酒卽新豐。
好語應無黃鳥外，細涼定在綠陰中。
一生不識風霜苦，甘老人間是竹翁。

隱在江村事事慵，只緣何事自窮蹤。
一床書字令兒讀，數頃田園足我農。
山欲辭尊相揖讓，海能容大獨朝宗。
小閒從此仙遊重，白髮坡翁又赤松。

人事在勤吾獨慵，不妨僻巷好潛蹤。
石面蒼苔成鳥篆，纈頭白雪了蠶農。
春夢難醒諸葛亮，雨巾誰效郭林宗。
歲寒易變遲遲翠，愧受先生號以松。

被暑沉眠不覺慵，始知窗外露仙蹤。
山老汲泉朝灌菜，野人沽酒夕談農。
一字敲椎詩可友，百家橫豎學爲宗。
盡日清涼來襲袂，滿庭疲竹滿簷松。

偶

疎簾清簟夜相宜，十暑一涼於我私。
櫻桃結子聯紅帳，楊柳牽人動碧絲。
立志萬牛難奪力，展才六驥不容馳。
蓬海神仙今已老，世間猶有橘中棋。

端午

江北江南樹四圍，忠臣一渡渚禽飛。
美人陌上招招扇，遊子城中去去衣。
菖酒碧濃朝嗅甕，榴炎紅漲午開幃。
半強悲喜端陽日，柳絮飄飄草色菲。

鞦韆

綠楊樹下是吾居，陣陣香風拂袂噓。
羅襪一雙菰子也，繡裙六幅海棠如。
暗暗輕浮青草外，飄飄佇立白雲餘。
知君摘取天涯月，散作人間半玉梳。

芳草

雀橋春色夕陽烏，臍麝餘香勝腋狐。
數點棲黃朝放犢，一雙繫白午眠駒。
長州雨歇迷鸚鵡，古國烟深上鷓鴣。
日日愁生緣底事，杜翁空老蜀魚鳧。

絕句

樹裏森星亂罩烟，醉來不覺在何邊。
搖搖未定階前步，却似西湖上釣船。

石榴結子送花飛，欲點蒼苔下太遲。
偶到樽筵憐不掃，斑斑繡得醉時衣。

楊柳陰陰絮自飛，有絲不斷下遲遲。
輕烟細雨來相織，好鳥平生一錦衣。

啄蟲多日鷺雛飛，
佞坐籬梢語正遲。
欲作江南歸去夢，
夕陽山色滿烏衣。

夏日卽事

無酒借隣釀，無驢尋杖藜。
飛低知乳鷺，唱短聽健鷄。
雙袖薰風入，一簾午日躋。
都來炎熱氣，誰復送寒犀。

絕句

數椽斑簟暑天清，
汲水無妨用瓦瓶。
未到武夷將盡處，
棹歌閒聽兩三聲。

海天陰氣蟪蛄生，
留待雲消午日明。
滿盤雪鱠滿樽酒，
說盡人間今古情。

團扇

有扇團團出入懷，
買來何惜赤洪崖。
情人好贈涼生手，
酷吏安歸暑乞骸。
落落竹枝秋滿浦，
搖搖荷葉月籠淮。
如可裁爲天地大，
不須一一使人皆。

榴花

榴花不負主人栽，五月春光滿眼來。
千層畫角橫吹口，萬點香臙半醉腮。
却怕炎蒸薰碧艸，更憐斑駁印蒼苔。
自從結子還增價，一殼紅殊幾十枚。

蜀葵花 刪

寸忱猶在野居民，爲惜葵花似我身。
五月多情方潤蘂，一春何事自枯薪。
向陽中立能知午，垂露東傾好覺晨。
昨日嬋娟今已老，得錢沽酒不憂貧。

蛛網

欲掛蒼空網白雲，屋頭牆角此中分。
細於貝錦難縫女，巧若蚕絲未繡君。
因風縷縷橫銀色，和露鈴鈴亂玉筋。
自是謀生多所得，罹花罹蝶到西曛。

題本倅萬人屏【朴侯準承氏】

吾皇爲遺一干城，秋月冰壺獨尙清。

視民如子金丹壽，聽訟猶人印綠生。
三字同圈名姓重，萬家分力畫圖成。
潁流不盡箕山碧，寸寸相思去後情。

秋懷

世間無物不驚秋，獨見新蓮賴太柔。
葉似輕船花似月，却疑眞乙下汀洲。

秋興

秋來只恨讀書稀，爲道新涼襲我衣。
坐到黃昏無聊甚，衆蟬鳴斷數螢飛。

逢吳城李東蓮

誰道山行勝野行，故人來適雨初晴。
不是稀逢緣有事，已從深見愧無名。
籬落匏花知露氣，庭除梧葉覺秋聲。
臨歧爲說相思夢，夜夜吳州月滿城。

逢箕城友

西行應早出箕城，幾處逶迤上此亭。
初月纖纖今夜白，晚山落落舊時青。
病深寸草難爲報，辜負寒花獨自醒。
政喜高人來慰我，竹間小路半開扃。

重陽後逢友 五絕

晚山秋雨冷初深，正好高人對共吟。
已遣重陽無一醉，寧能不愧菊花心。

一雨斜飛動晚涼，滿園徧是菊花香。
幽人不識重陽盡，枉待江州使者忙。

亂山木葉任西風，欲下庭除倒上空。
瑟瑟蕭蕭來撲耳，却疑窗隙夜吟虫。

秋燈如海夜支離，有月遲遲欲雨時。
潁水東邊啼去鴈，知君家信忽相隨。

天晴木落動秋風，知有霜前渡海鳴。
恐有蘇郎消息至，吾王應待上林中。

聽溪

一灣流水繞山村，未雨淙淙覺有源。
經釋詩翁無寐夕，能知隨月入重門。

蕭蕭錦翼翠相齊，一見誰知是竹鷄。
無夜不驚征客夢，有時却向美人啼。
黃陵廟古花將盡，青草洲空月易低。
也帶年年亡國恨，越王臺上自東西。

走馬

蹴上雕鞍意氣多，如天大道向誰家。
千里江南雷劈柳，一朝洛北電翻花。
忽逢壯士行論酒，乍傍佳人立聽歌。
恨無腰下龍泉劍，萬國腥塵奈此何。

細雨聲 刪

海天多雨未全清，細若無聲聽易生。
亂過枕畔還愁苦，暗入棊傍却訝晴。
縷縷和烟波面落，鈴鈴催漏屋頭鳴。
我愛霏霏能玉語，早梅花上自分明。

竹影 刪

莫欺枝葉下纖纖，尾鳳腰龍又許兼。
滿逕斑紋平鋪簟，搖牕碧浪到垂簾。
密密那從風力減，脩脩自與月痕添。
覆我琴書猶不改，一涼可使備長炎。

漁翁 刪

此翁不喜老人間，家在汀南第幾山。
蓼葉風邊孤棹遠，荻花雪裏一簑閒。
游魚慣面如相見，盟鳥知心却未還。
盡日纔供沽酒債，數聲款乃動江關。

聞

數聲飛渡大江流，舊國霜前已白頭。
幸使中郎終出窖，不關征婦急登樓。
怨深霜浦瑤絃月，聲斷衡陽落木秋。
自是人生驚歲晚，翔南徂北未曾留。

逢友

茅屋深深竹落低，感君時自訪幽棲。

北望涓埃星斗遠，西來氛祲海山迷。
燈前亂暈浮烟篆，硯隙微香潤墨泥。
五更長倚看書枕，中酒餘痕一夢齊。

古木

一枝東顧一枝西，瘠立黃昏鳥雀啼。
指天屈曲龍懸角，抱石嵌空麝失臍。
數葉春秋形影苦，半生風雨夢魂迷。
自恨不如芳草色，年來年去綠萋萋。

雙鷺

雙鷺飛來玉點池，毛衣濯盡淨垂絲。
頸行芳草魚先見，拳立蘆花鶴未知。
野遠蕭蕭秋雨色，江空漠漠夕陽時。
也應漁子歸家後，步上虛舟夢亦宜。

逢友

秋風一見未能期，有雨牽情下太遲。
落落徘徊山水杖，門前橫立兩三枝。

言志

世事層層道路難，秋聲獵獵布衣寒。
回首天涯雲日暮，不知何處望長安。

偶

山雨如絲未見痕，黃花紅葉浥相分。
定知晴後多秋事，坐看西南落落雲。

秋晚

晚來豐穰祝于天，場圃家家幾十千。
爲問野橋新釀味，菊花秋色勝春妍。

黃花

言採其花莫採根，纔成一菊日黃昏。
不憂明日重陽酒，家在潯江處士村。

楓林

秋霜一夜葉爲華，倍得光明日正斜。

疑是天孫雲錦色，忽然蒸作萬山霞。

秋晚

九月秋城醉菊花，菊花凋盡向誰家。
且將紅葉題新句，莫使江風亂打鴉。

老梧

種來不記百年前，雨雪風霜摠渺然。
莫言老大還無用，一板琴心直萬錢。

燈花

春光爭與夜光還，一樹花開不怕寒。
萬古詩書紅遍照，燧人種得鏡中山。

圍

玉子微溫手自柔，竹間消夏橘中秋。
樵客爛柯非誕說，不知歲月水同流。

涓滴

老蟾飲水玉團團，墨友毛生共一欄。
自此硯田無惡歲，何人不欲愛相看。

初雪 刪

雪落風高動海雲，寒衣處處憶思君。
遙知此夕山陰月，安道平安也自聞。

北風吹雪下西雲，疑是梅花忽到君。
永夜看書燈影畔，亂窗碎玉靜宜聞。

秋懷

楓林非晚菊花殘，儘覺秋光在此間。
醉起詳言今古事，英雄賢達一青山。

贈友

寒來猶自着秋衣，穎上思家人未歸。
不覺今宵天有雪，隔江疑是荻花飛。

江上睡鷗

夕陽白立荻花前，水態山光共一筵。
已經風雨應無事，相對雌雄各有緣。
不知身外侵魚子，只願生來化鶴仙。
忽然驚起江南夢，潮打空汀動石鞭。

白魚

霜天十月已中旬，最喜寒魚自凍津。
點點墨痕雙小眼，霏霏玉潔寸餘身。
自成細膾宜供老，易作乾脩合禮人。
雖然醫用安虫飲，味且非甘是苦辛。

木磨

碎破黃租亂似灰，陰陽動靜此中開。
上喉洞潤能吞吐，外體均圓卽往來。
半日晴雷紛作雪，三更細雨亂飄梅。
如山磨得隨人手，不費枯驢踏跡回。

搗衣

憶君秋夜洞房開，霜月如流寒自催。

未到五更停手立，却疑邊鴈送書來。

萬里關河路未開，天寒時入剪刀催。
莫言亂杵衣穿漏，欲搗深愁不復來。

玉顏羞向月中開，妾搗征衣君莫催。
此夜關山天易雪，如何未得早歸來。

老僧 刪

蒲團終日誦蓮花，圓寂形容太瘦何。
山暗猶眉秋後雪，道清珠眼霧中波。
莫說空空生佛少，始知落落列仙多。
自憶吾年如夢遠，觀音菩薩不言他。

獨看松坐好眠花，色色空空老且何。
三生渺遠蓮開塔，一念清真月動波。
鍊身無計丹應少，剃髮難禁白漸多。
用力儒家能若此，早年事業不歸他。

黃橘

秋風橘樹雨淒淒，轉渡江南路不迷。
陸績懷中能戀母，上堂應作小兒啼。

江城橘雨夜淒淒，味到甘酸眼忽迷。
轉轉分明黃鳥色，秋風蕭瑟未能啼。

甘露

金莖玉液不知寒，曉撲仙衣半濕單。
直下人間仁壽域，醴泉豐草帶相看。

紡績

織布治麻各一邊，家家燈火夜分眠。
不知終歲絲絲苦，欲補衣裳暗禱天。

褙子

背心暖若醉昏昏，狐腋羊皮價未分。
天下蒼生如可庇，呼寒呵凍豈曾聞。

遊築洞

海上烟霞動翠微，有詩有酒未言歸。
慣聽兒讀仍支枕，喜見人來不掩扉。
年荒野合平蕪遠，秋晚山多亂葉飛。

此遊知在腥塵外，縱道奔忙且莫違。

烈女

元元一理配陰陽，不欲平生各短長。
是故必從夫死日，可憐白骨獨荒涼。

吹簫

何人暗送白雲村，迥透深林自入門。
願將他夜鷄山月，吹斷西氛葉葉翻。

歎世

電繩輪舶四相連，不覺吾東渺入烟。
憂世人多林下屋，寒燈夜夜坐悠然。

忠臣

一言直使達天聽，輸了中心面抑庭。
死且比干猶不去，放何屈子獨爲醒。
葵藿傾陽千古赤，松筠傲雪四時青。
每因奸匪多深譴，誤作江南轉轉萍。

養士齋居接韻 二首

世間歧路各西東，獨喜英齋在此中。
儒儀不與先王異，民樂須從太守同。
冬至一陽初動日，箕山千古自清風。
望望天涯遲暮恨，蓬萊何處五雲紅。

一齋輸納西方來，入德門前正路開。
東國春秋夫子廟，南州山水醉翁盃。
蒼烟日暮天涯樹，白雪人寒嶺上梅。
安得英才重此會，爲看文運挽清迴。

寶劍

如霜劍氣獨春秋，陸象淵蛟日夜愁。
上射斗牛天欲裂，中分山岳海空流。
萬里平胡探虎穴，一朝爲國護龍樓。
自此東方難定價，悲詞數曲入皇州。

冬至

蒼山暮雪自崔嵬，雲物迢迢傍古臺。
萬戶雷聲人未靜，一陽春色子初來。
朔朝莫葉新頒曆，南國梅花暝引杯。
弱線猶能添白髮，只憐父老老將迴。

宿鳥

一群飛入夕陽西，啄啄清溪定舊棲。
寂寞樵歌迷古巷，朦朧林雨暗長堤。
醉翁亭遠人初去，倉頡臺空客未題。
忽然驚我六朝夢，爲被山行春酒攜。

酒

用於鄉禮斷於齋，濫亦傷精節亦佳。
蓮葉半傾邀月色，菊花初熟放秋懷。
鬼神宜饗供郊廟，賓主交酬上阼階。
不知家國終爲禍，長醉人多井底蛙。

蹇驢

玉蹀躞未得齊，蹇何爲病蹇爲稀。
雙臆同鳧愁獨下，一拳如鷺惜分飛。
危聽寒橋秋水遠，遲看華嶽夕陽迷。
萬鞭折盡梅花落，挽把奚囊却忘歸。

恠石 刪

主人好恠入山深，一片形容直萬金。

呼友庶同蘇子契，拜兄堪見米轉心。
枯木寒霜何太瘦，碧苔踈雨每相侵。
如鳳如龍多蠢蠢，不應終老臥雲林。

瀑布 刪

石龕林啞摠無知，方得此聲生絕奇。
銀橋百尺虹蜺射，水壁千層霹靂馳。
澗壑盡晴飛雨落，岩崖欲暮亂星垂。
廬山佛跡非東土，誰使愚公更此移。

木

視如朽木不知春，忽到泥行賴有神。
雙齒亭亭餘一尺，滑苔危壁自高人。

鳴泉

迥透雲林落晚空，淙淙瀲灩去無窮。
終成大海波濤壯，一碧洶洋萬里風。

雪上月 刪

雙清雙白又雙明，天地無由夜氣生。
數種梅花花下屋，南陽處士讀書聲。

雪中梅 刪

朔雪紛紛擊老條，臘天春色上寅杓。
淡若佳人開玉帳，疲同寒士立冰橋。
練身白鶴眠何苦，載酒青驢蹇亦驕。
早識孤山如此味，不妨林下伴漁樵。

直水

玉龍昨夜戰初酣，倒戟森然氣勢嚴。
却訝珠簾橫着戶，不妨銀箸亂垂簷。
朝暾正射鈴鈴泮，霽月相交色色添。
傍有吟梅驢上友，痴心較淨凍毫尖。

鷄卵

自在鴻濛象太清，天然聾啞一平生。
中欲淡黃金井暖，外能圓白玉峯晴。
莫使干城終見棄，縱逢風雨未堪鳴。

方度三旬慈母抱，雌雄色色各分明。

鶯

楊柳陰陰鎖碧窓，獨憐幽鳥自來雙。
欲針詩酒人間耳，力破千愁似鼎扛。

丙午春，與箕城錦城兩友吟

珍契驩然一仰低，箕城以北錦江西。
昔年訪我山中宿，是日看君海上棲。
風定杏花猶自落，月明杜宇不休啼。
窓前時有飛來鳥，恰似壺觴勸我提。

過柳川，待主人不至

主人何處採芝歌，伴坐踈燈夜自哦。
春晚花開紅杜宇，天晴山列翠夸娥。
幾年書劒遊城市，一境漁樵老澗阿。
薄暮歸來還不妨，小車載得月光多。

和友人

瑞陽春色正遲遲，一拭青眸是不期。
壯觀有名司馬史，平生無夢臥龍詩。
江村酒熟清明雨，山屋花開早晚枝。
亂代相逢多感慨，回看雲日未分時。

滯雨山村

遲遲雨色暗長林，爲把征衫一苦吟。
澗聲自與棋聲落，花氣偏從酒氣深。
玉局悲歌餘水調，蘭亭好事暮山陰。
此遊難得腥塵裏，興入東風更不禁。

春雨絲絲濺客衣，數宵山枕未能歸。
三月正中吟且晚，百花將半翠何稀。
澄潭易見魚兒戲，白屋能容燕子飛。
猶有一言分手贈，相思相勉莫相違。

箕城餞春

爲惜春光上暖坡，相分不顧舊情多。
此去有書消息否，平生無語別離何。
兒女啼紅停艷辭，英雄悲白發長歌。
落花應厭人間在，爭逐東流萬里波。

惜春 刪

古人解惜莫如唐，自得春情喜欲狂。
流水光陰朝入鏡，落花風雨夜侵床。
天地無端三月暮，君親在上萬年長。
壯士佳娥多下淚，忽然相對滿衣裳。

圍

一點居中象紫宸，玉班烏帽共朝寅。
老將潰圍南出甲，衆星布陣北環辰。
堯德畫圖先教子，武功交局可攻辛。
勝敗之間猶有喜，丁丁落處語申申。

逢連山金上舍

柳色依依草色齊，門前時復見輪蹄。
何事萍浮風轉海，却愁花落雨添溪。
今我無隣春以後，故人有路潁之西。
從容未到津津語，照得胸中一片犀。

春草芊芊野色蕃，數聲布穀爾何煩。
自我田園將有意，使他城市却無言。
沽酒兒歸江上屋，叱牛人入雨中邨。
不待調絃能合契，門前早種碧桐孫。

風俗猶傳晉永和，別天觴咏入無何。
山川漸覺湖中遠，風雨偏從客裏多。
一逕落花紅印屐，半塘垂柳綠增波。
小成未滿夫君賀，幾處相逢慷慨歌。

贖別

信宿居然雨在天，相分忽負此心堅。
芳草滿庭難係馬，綠楊拂水未迴船。
緣薄樽空花落後，情深書在鴈來前。
海山千疊知何處，渺渺餘音一兩絃。

野塘亂蛙

野塘春暖草離離，閣閣聲中欲雨時。
井底新聞猶可矣，晉陽舊產亦何爲。
水府笙歌非獨樂，田家水旱貴先知。
主人自得蟾蜍步，及到看看却復疑。

晴沙眠鷺

沙晴鳥白正斜陽，芳草如茵饒碧塘。
一足拳來菰葉冷，數群翔集蓼花香。

舟人捲席歸安在，漁子收絲去不妨。
西塞山空還太古，半江疎雨夢天皇。

五秀齋卽事

思量萬事也多勞，隱世何妨讀楚騷。
善詩無奈文章老，能酒猶堪壯士高。
遠嶂雲開新見髻，疎松風入暗聽濤。
倦睡終朝猶不起，雨聲蕉葉夜來豪。

牕外青山牆外松，石門雨歇白雲封。
澗流長短年如矢，草色高低野自春。
壯遊年少同司馬，大夢先生又臥龍。
誓看他宵鰲岬月，相思相見未從容。

數宵山枕雨鳴樓，近曙霏霏未盡收。
潁上居人應洗耳，詩中公道不饒頭。
林深路細纔通屐，水漲橋平可替舟。
泉石琴書都管領，居然畫得一滄洲。

麥涼和雨未全晴，五秀山前野水明。
自到青藜孤客子，最高白髮老先生。
茫茫草色牛將入，隱隱溪聲鳥又鳴。
時夜深深燈影畔，遣人沽酒使兒傾。

淡交珍重一生親，地限東西未卜隣。

勝會莫如今五秀，靈區何必舊三神。
別園黃鳥嚶嚶友，大野青山立立人。
自有漁翁來舉網，午帆載酒下龍津。

讀書已得故人多，慣面棲遲似我家。
野橋日晚爭吹葉，京國春歸未折花。
兩布衣寒猶有氣，一樽酒煖不平歌。
山枕數宵蝴蝶夢，其如明日別離何。

櫻桃

結子團團似琢磨，端陽節物足堪誇。
轉登野筐隣情厚，擊出宮盤罷渥加。
甘愈蜜房深有味，圓鋪珠帳淨無瑕。
美人含得嬌鶯口，更覺詩情已太奢。

登五秀山 刪

岳色川流萬折東，登登危步坐清風。
危巖有篆春秋古，大漠無雲日月同。
楚楚詞翁雙鬢皓，蔥蔥年少數衫紅。
極日斜陽看不厭，歸來移作畫圖中。

瘴海風塵少日晴，登臨自有故人情。
龍子渡深潛古跡，漁翁岩老釣何名。

一偏鈇鉞能褒貶，萬國于戈好戰爭。
天公不欲於人薄，獨向詩書白髮生。

藏頭吟

十載漁樵海上天，大洋輪舶杳雲烟。
因爲感物疎梧落，各未歸家細雨懸。
心如樂道居顏巷，已欲求治聽武絃。
玄禽將去邊鴻度，又是臨風我思千。

苜汀【他詩】

十里溪山洞裏天，大開詩肚吸風烟。
因時我欲爲伸屈，出世誰能解倒懸。
心欲壯遊觀漢誌，志無能識斷牙絃。
玄微一理閒中玩，元氣循環像萬千。

又川

十土推看一水天，大高平濶關人烟。
因分壇界衣冠異，共戴昭明日月懸。
心性仁綱非轉石，口工雅頌可登絃。
玄經抄罷青燈下，卜渡桑乾畫馬千。

蓮實

此實曾從玉井來，紅衣落盡錦房開。
畫角橫懸雲外堞，寶鬢低入月中臺。
仙人相贈鈴鈴玉，君子爲心寸寸灰。
清合靈丹甘比蜜，猶過葉上釀爲盃。

武城滯雨

武城滯雨不多愁，也勝相思白露洲。
堪憐落照迷牛峴，更喜清風滿鶴樓。
三子斑衫能課日，三翁華髮最驚秋。
也應長在絃歌裏，那識人間歲色流。

武城秋夜

玉露如絲直下垂，蕭條相見動秋儀。
燈因繼晷眠何在，簟易招涼坐更移。
差遲稻黍雲黃日，正乃蒹葭露白時。
別後重逢能幾度，海山脩路杳無期。

一雨纔晴海國寒，秋風蕭索旧衣冠。
蛩吟荳葉依依聽，魚蹴荷花細細看。
州俗猶存三者古，世情難備四之端。
主人爲客先謀醉，自此詩家境過寬。

箕城贈徐友

箕山不老碧千尋，莫使居人負此心。
讀書應見春秋大，論契方知歲月深。
妙少分工登學校，英雄傲世臥雲林。
鰲岬龍泉三十里，聯鞭明日正高吟。

又夜 刪

四隣寂寂一燈高，把筆相看意氣豪。
莫道深情秋後合，却將懶興醉餘挑。
紅添樹木霜敦葉，白滿池塘月戲濤。
誰令我國重於鼎，未見當時自薦毛。

丙午冬十一月，自瑞石至五秀齋 刪

羶雨腥風道路難，別天時事靜中看。
瑞石迷烟雙袖重，箕陽積雪一筇寒。
世耳相傾傳虎市，人心獨在飲牛灘。
林下讀書何所用，浮雲無處見長安。

勞勞三日到今休，爲惜文章已白頭。
遠岫雪晴渾似曙，長川冰合不知流。
未至猶能多白雪，先題那得似黃樓。
莫道中宵沽酒晚，梅花時節又江州。

主人慣讀積詩書，勝似于今潁水居。
已能強記通三篋，且復耽看遍五車。
天寒烏斷水初合，夜久雞鳴月自餘。
莫教漁子來垂釣，知有龍川變化魚。

雪上烏

墨痕印雪一分高，不怕天寒爾亦豪。
却憎相似蠅瑕玉，猶喜還同蟻泛醪。
亂入紙窓圖畫戲，翻成碁局戰爭挑。
到此雌雄難可辨，齊飛啞啞向江臯。

石角松

纔通石竇數根盤，縱不忘危強自寬。
欲從夏社相傾盖，獨謝秦封始免冠。
風雨多經凌節翠，春秋尚在護心丹。
安得他時支夏力，棟樑於國庇千官。

雪江獨釣【丁未正月始】

一蓑天地雪昏昏，白首相忘我夢魂。
人寒葦葉搖搖艇，家遠梅花淡淡村。

沙頭立鷺仍無語，水腹游魚自有痕。
姜老嚴翁緣底事，却教周漢致王孫。

咸豐八景

昆峰落照

悠悠紅日下流沙，一掛昆峯照愈多。
長使乾坤留此色，春來無處不開花。

潁陽歸客釣於沙，顧我昆山暮氣多。
欲使餘輝將繼夜，滿城樓閣上燈花。

忙忙西日走風沙，催我人生白髮多。
欲負餘暄無路獻，美人何處渺如花。

水峴牧笛

擊毬纔罷下山陽，數笛天空嫋嫋長。
亂入東風猶不斷，郡樓終日耳根涼。

潁水霽月 刪

水光如畫月光秋，陶書人間一種愁。
巢許心期相照見，至今懸在潁陽樓。

防橋落鴈 刪

倒飛齊落却忘還，刷盡毛衣野色寒。
一一中節消息字，不知何日度燕山。

慶川漁火 刪

慶川水暖夜如烟，珠樹銀花波上仙。
不識漁翁留近在，却疑星落曉光天。

竹洞逢瀛洲才子

夜天風雪使人寒，爲把新詩細細看。
畫中叢竹風生座，簾外梅花月上欄。
三山始見神仙易，百里何辭道路難。
此行應有南遊史，司馬文章未弱冠。

桂陽奉和梅岳先生

此行不偶桂之東，老少雖殊氣味同。
春寒細草遲遲綠，夜久踈燈冉冉紅。
遠夷海濶能吹霧，夫子壇深自動風。
數棟梅花岩下屋，淡然句在不言中。

逢綾城魯友

一春爛契不曾挑，爲得吾君破寂寥。
縱未寒沽謀醉午，且將艷語繼吟宵。
江柳勝絲鶯子亂，山花爭寵蝶兒驕。
沂水風儀看復在，應從師友學申夭。

江樽初熟供山肴，却使新交勝舊交。
花塢露甘蜂釀蜜，芹泥雨滑鷺爲巢。
苦思君應同瘦甫，不平誰復似寒郊。
此去綾城凡幾里，子規聲在未歸梢。

知子西遊意氣豪，一春吟到百花高。
杜鵑山暮鄉音遠，蝴蝶園深客夢勞。
尙志人間多水石，放蹤門外卽風濤。
至今竹樹琅玕在，爲喜翩翩見鳳毛。

百態春城耀綺羅，詩君行到語尤多。
黃鳥要人初熟瓮，白鷗爲友未歸蓑。
午天柳傍程夫子，曲水蘭同晉永和。
金丹自此無消息，亂代相逢不醉何。

百挽留君宿瑞陽，數宵清律聽新唐。
莫愁旅館當三月，可愛書帷度十霜。
鵑花雨重紅連麓，柳絮風輕白滿塘。
藥力無靈親有疾，西山薄日願言長。

客來慣識主人家，我說清貧君說佳。
情能脗合同膠漆，事或離分似飯沙。
隱世猶宜栽碧柳，拯民只願降黃麻。
袖裏爲看南土記，綾城自此不知遐。

登山餞春

暮春勸使上山城，歸亦無情告有情。
欲憑午枕相思夢，那待晨鍾未到聲。
壯士佳人今已老，落花流水自同清。
煮餅沽樽來送罷，明年爲慣訪吾名。

題虹見齋智山後甌島

虹始見如齋始經，巋然華額露西汀。
日夜絃謳趨遠近，春秋飲射注觀聽。
鏡廻海色天無際，屏合山容地有靈。
武夷消息橋猶在，水滿空潭月滿庭。

辛亥春日卽事 刪

紛紜歧路自西東，惟幸茲筵歲歲同。
爲志須當看老竹，知音那必撫梧桐。
花容帶雨山無損，麥氣和烟野有豐。

仍得近來閒養味，漁樵江畔自清風。

相分未幾又相逢，寒食清明花氣濃。
必欲求仙華表鶴，未直好士萬家龍。
遠靄翠凝江畔樹，早花紅遍雨餘峰。
惟恐窓鵝難得免，讀書聲裏坐從容。

晚春風日正清佳，時復看山下上街。
欲使姓名懸北斗，應知史記在南淮。
塘水溢溫魚汕汕，林花爭艷鳥皆皆。
深居卽是潯陽里，一枕無聊夢葛懷。

卷三 遲松韻稿

辛未春

太行亭原韻

白雲長在太行秋，爲我思親未肯收。
多日心懸風下樹，有時夢入月中洲。
四隣絃誦吾堪樂，一逕漁樵孰與儔。
煙夕露朝來往震，不辭故舊便休休。

回首太行經幾秋，白雲荏苒未全收。
狄公登後初生路，愚叟移時遠渡洲。
若似古人終有慕，不憂今世必無儔。
一枝王屋留何處，望美深懷竟莫休。

太行亭與客吟

客來生色艸堂顏，一片柴扉向暮關。
珠玉毫端方切琢，春秋皮裏或增刪。
願令四老多今日，不欲三公換此山。
瞻彼葛峰雲自在，行年五十淚衣斑。

白雲環繞太行亭，每憶吾親未見形。
世事傷心三變海，年光如夢五週星。
江上秀蓮浮太乙，潁東老鶴返華丁。
今來爲把春秋筆，菊未黃時柳獨青。

太行亭與穎史晚愚柳溪吟

三老東行遠訪吾，商冠甚偉楚形枯。
良珍待價長懷櫝，利刃容光自躍爐。
浮雲視富還如芥，喜雨沾農更欲蘇。
却憐泉石來相飲，此外應無大丈夫。

梅雨新晴草瘴薰，芳樽只可使人醺。
投筇莫信青藜力，把筆能成細草筋。
禹鑿山川行以夏，箕封禮樂鑑于殷。
采芝一曲歸來晚，落子圓枰未易分。

次太行亭韻

宜春佳賞亦宜秋，埭塹襟懷海色收。
緇帳絃歌松籟夕，布帆漁笛荻花洲。
白雲孝思同仁傑，華夏才名見泰儔。
迺老經綸開別地，王官不復買三休。 穎史 金斗三

特著名亭獨倚秋，超倫孝思苾芬收。
兩株翠栢環先隴，十丈紅蓮秀古洲。
登嶺還如蘇子伴，望雲同作狄公儔。
四時佳景留精采，天降賢人事事休。 柳溪 洪祐煊

望雲仁傑仰千秋，營一孤亭此意收。
三戶人家晴遠樹，數聲漁笛下長洲。

誠深反哺慈烏類，儀出凡羣瑞鳳儔。

棹楔高門旌表字，承承餘慶世彰休。 雙梧 金鳳洙

戊午春吟于太行亭

天以清明始自東，流行知在不言中。
時早未全楊柳綠，春寒強半杏花紅。
行人路遠魂應斷，杜宇山深恨不窮。
有雨紛紛緣底事，欲將此意問東風

一春和氣百花濃，正好明朝理短筇。
村落蕭森連白屋，庭除軒豁露青峰。
願同君子存三樂，且與兒孫習九容。
野舍沽樽猶未熟，無人終日坐談農。

一樓蕭灑四無籬，日把輕籤課小兒。
花惜春情紅苒苒，松知歲色翠遲遲。
沂水流風吾點也，蘭亭會事孰羲之。
寒食清明都過了，偶然醉倒夕陽卮。

五十今年悟昨非，此心竟與世相違。
暮春風浴猶爲快，陋巷簞瓢可使肥。
天時易感逢寒食，聖訓猶餘戒煖衣。
一片柴扉終日掩，讀聲高處客來稀。

田廬分半作書窓，爲勉兒曹筆力扛。

深樹春寒花着幾，空階晝靜鳥來雙。
戀主丹忱懸北斗，誤人白首老東方。
有鷗不負忘機我，短笠斜陽雨滿江。

數椽茆竹是吾家，有客登臨日已斜。
遠地相思江上樹，暮年共歎霧中花。
秦金不識人爲恥，楚玉何多世所誇。
一讀瓊琚多受賜，清香馥馥漸生牙。

四月初八日，觀燈時與友吟

翩然仙屐晚來登，薄禮初筵愧未能。
正欲留連投井轄，那知邂逅值觀燈。
好鳥殷勤皆我友，禿山唐突彼何僧。
莫道牙絃今已繼，伽儂黛色遠層層。

懸燈如在百層樓，除此風流更不求。
暮春詞賦香生頰，半座衣冠雪滿頭。
山盟已熟朝馴鹿，田事方殷午飯牛。
如今結得詩壇好，一滌人間萬種愁。

遊太行亭

吾行後長不妨遲，皓首衣冠老鶴姿。
杜宇山空春去後，太行亭好雨晴時。

詩從九曲吟初下，酒至三巡醉更移。
如滿已歸香社晚，欲將此意問徵之。

佳景踏來步步遲，入門山色盡芳姿。
錦軸華筵長樂日，輕衫白苧不寒時。
老鶴爭吟新酒滴，稚鷄晚唱午陰移。
此遊未了申申語，把手相看一問之。 月坡

淡交如水可論心，胡乃衣冠一處臨。
白首風流非復苦，蒼生疾苦莫如今。
山樽欲暖梅薰近，野笠將寒麥氣侵。
携手登高西日暮，林行草坐一高吟。

餘懷收取設清遊，春浚乾坤盡入幽。
深山永日聽黃鳥，細雨斜風趁白鷗。
筆簡全拋難可記，漁樵兼務更何求。
陋巷窮居須莫說，揚名他日振南州。 月坡

數日經營卜此遊，太行山色晚生幽。
詩能併敵先題鶴，機欲相忘更向鷗。
道在安貧方有得，名隨遯世必無求。
吾生第待河清日，願見齊烟滿九州。

沿海歸路，與故人吟

羽若行裝自動風，滄桑浩劫未全空。

帆迴極浦茫茫外，路入平沙隱隱中。
已識鷗盟今已熟，祇要鴈信永相通。
臨歧怊悵重回首，遠樹蒼蒼返照紅。

還棲夜作

燈花亂若霧中天，詩思令人醉未眠。
聽鳥同携芳草杖，觀魚晚渡夕陽船。
多時苦憶應相似，此日重逢不偶然。
雨後田園吾有事，桑麻深處一平川。

戊午八月既望日，與柳溪登太行亭

與君更賞太行秋，此會勝於前日遊。
早熟黃花非不愛，只憐吾輩雪盈頭。

自太行亭觀西海

自亭至海路衛長，却怕遲遲帶夕陽。
一曲滄浪歌濯足，歸來月下好傾觴。

翌日臨別口呼

欲將離別訴于天，自古人生老此邊。

白首重逢應有地，菖蒲楊柳一長川。

野色未黃已半秋，菊醪松餅故人留。
如斯佳節何虛送，短律長題節軸頭。 月坡

太行亭有感

萬事相忘一見新，便同花柳喜逢春。
皓白衣冠三四老，太行亭上去年人。

次太行亭韻【金進士秉圭，號晚惺】

聞道太行結幾秋，晚來風物未全收。
憶親遙望雲歸岵，邀友同歡月滿洲。
道在安貧身自樂，工深學古世無儔。
名亭何在年將暮，以孝傳家餘慶休。

次太行亭韻【李啓仁，號蓮史】

太行亭上有春秋，雲影徘徊尚不收。
一般高士留心處，多少行人指點洲。
庭前衆卉非無愛，檻外遲松孰與儔。
溯仰秋公千載後，斯翁孝思永言休。

戊午秋七月會于永孝齋，與穎史晚愚柳溪雙梧韋齋吟

玉宇秋晴復欲磨，涼蟬有語下庭柯。
青山落落經秦斧，白日遲遲見魯戈。
萬樹環牆圍鐵瓮，雙星指夕渡銀河。
登臨自有油然孝，莫使行人浪一過。

皓首吟詩勝碧紗，天然癯鶴立梅楂。
一生不俗居多竹，七月爲期似及瓜。
管葛並時知者少，喬松在座望之遐。
桃源不在人間外，定使漁郎再入耶。

風浴最宜山水鄉，歸來不下魯之狂。
莫將朝鏡同悲白，可使仙源再入黃。
擬見穉梧千廈棟，推知新稻萬邦糧。
要人使作清涼館，花下琴書竹下床。

柳洞秋夜

主翁自是掌詩衡，重重輕輕莫敢爭。
一日無君誰與友，十年長我事之兄。
黃花鶴洞秋當馥，碧樹牛山夜復萌。
數曲采芝人已去，燈前自有未圓桴。

踈燈相對蕪蘭膏，白首今秋又一搔。
句語香添紅錦繡，樽心波溢碧葡萄。

明珠轉轉雙龍頷，寶彩翩翩一鳳毛。
庭蕉葉大圓如扇，不必題名老相濤。

秋霖如洗鏡波澄，古渡行人莫涉凌。
衆岳接天難蜀道，一湖滿地勝巴陵。
洛園茶酒來司馬，江國尊鱸下季鷹。
柳色陰陰門外路，願言白日繫長繩。

古今損益坐來斟，事事相須各有箴。
待價不須三抱玉，鍊工必似十磨針。
庭蕉捧露青羅潤，門柳和烟碧縷深。
也識田園秋事急，恩恩歸思正難禁。

別章 刪

壽德秋星斗以南，居然一雨夜之三。
人間富貴應無路，江上漁樵自有菴。
不可贈鞭煩五柳，且宜把袖勸雙柑。
白頭耆老俱無恙，雲樹深情半各含。

秋懷

南極明星始見丁，天使耆英地亦靈。
竹樹鳴金風瑟瑟，荷花碎玉雨鈴鈴。
醉何多夢槐安蟻，讀亦無憂孺子螢。

渭上漁竿誰更把，夕陽白鷺立虛汀。

牧牛

桃林一放我文修，莫入秦時爲後羞。
角帶甯歌花欲遠，口含奚飯草生柔。
耕雲休處看騎鵠，驅雨歸時聽喚鳩。
自此農家多食力，買刀何必佩吳鉤。

花塢睡鷄 刪

白粒投空散作鹽，一群啄盡向茅簷。
蝶心爲夢花皆醉，鷺足相拳水至廉。
莫使漏壺催玉箭，定愁書幌打牙籤。
朱朱數語因鷺立，山日沈西野雨纖。

秋夜書燈 刪

秋夜焚膏與子咸，不知塩薤太辛鹹。
半輪月上如懷鑑，一樹花明似背巖。
莫歎昏衢初失路，須令師道復開函。
小童先覺垂頭睡，郊外新涼入檜杉。

秋夜搗衣 刪

忽覺秋來薄楚衫，剪刀風冷使催芟。
蕭蕭瘦葉霜侵樹，落落征鴻兩過帆。
萬戶聲皆如我練，一封書亦爲君緘。
明朝繡得雙雙鳳，矚彼梧桐獨出凡。

蕉庭馴鹿 刪

靈垵濯濯化曾沾，移入蕉陰避酷炎。
眠草將醒因臥石，咬花欲盡暗窺簾。
幽香遠襲山中麝，懶步還爭月下蟾。
養爾應多賢者樂，不將得失使人占。

贈崔松雪堂

雪裡孤松崔氏堂，超然應不伍群芳。
蒼鱗屈曲龍蛇氣，素節低昂日月光。
已經風雨遲遲老，獨抱春秋落落長。
棟樑自合邦家用，下庇生民上答皇。

遊靈光築洞文謙山書室【乙卯五月】

君居自是勝吾居，野氣山光接太虛。

對人不與論今世，教子先須讀古書。
莫歎郢門歌寡和，不愁薛館出無輿。
笑道前程誇鬢雪，公然半百未多餘。

世事關心易斷腸，胡然桑海自滄茫。
已知門柳堪成號，又見庭蘭互接芳。
魚爲忘形如故友，溪山慣面似吾鄉。
獨醒忠魂如可酌，蒲看明日是端陽。

和碧柳金雙梧迴甲韻【乙卯五月】

擘樽爲賀壽山青，同樂風流任醉醒。
僚友華簪春滿座，兒孫彩舞玉趨庭。
六旬白髮光天甲，五月黃梅此日丁。
一曲南飛誰復進，飄然仙鶴下蒼冥。

丙辰九月，遊塩山野庄

天際茫茫是玉京，悵然無路答升平。
二水灣迴分入海，四山屏立合爲城。
催人白髮詩宜廢，留客黃花酒又行。
已識塩庄多別業，輞川未必獨專名。

九月風高海上臺，書窓蕭洒向陽開。
依山覓路多紅葉，編石橫橋半綠苔。

隱世臥龍應是夢，驚人孤鶩不凡才。
詩家多事黃花節，采采相看又一盃。

輓箕山李老人 二首 刪

五福兼全九十秋，世間自與赤松遊。
恐或腥塵來到耳，一朝洗盡潁波流。

拜將華祝哭吾私，甘老唐虞比屋時。
百世清風猶不死，至今長在掛瓢枝。

校村景慕齋

大義爭高矗石樓，偉功壯蹟老龜頭。
雨過睢陽三百戰，月生關塞一千秋。
漆室深憂懸北斗，景忠華額耀南洲。
天恩特重尊賢地，不必人材向外求。

鷄山韓氏孝烈閣

一門孝烈兩相遵，始到鷄山乃見真。
根以三從能立義，源於百行獨超倫。
孤節有光寒後歲，聖恩罔極雨餘春。
移可事君忠亦在，蘭枝芝葉滿芳隣。

丁巳六月日，塩山逢辛水亭

隱湖無事勝於山，衰境何如對舊顏。
漁艇往來峯缺外，人家左右浦廻間。
長霖已歇黃梅熟，半日相盟白鷗閒。
一片桃源知在此，遲遲遠策未能還。

丁巳六月，遊依斗亭

斗南亭子冠吾州，猶帶江湖遠處憂。
分外青雲還似夢，世間白髮不饒頭。
風來竹塢涼先動，水到蓮塘穩不流。
一帶潁波清自在，夕陽濯足飲吾牛。

野稻 刪

一色平郊四望遙，天然如睡露餘朝。
生於蕙月幽吹鼓，長以薰風舜作簫。
荷鋤耦出青山屋，灌水翁歸白石橋。
魚欲肥時鸚鵡啄，不須秋興老漁樵。

蚊

玉膚花生點點春，何須炎夏苦侵人。

不用疾驅刀有利，寧能醉寐酒無巡。
雷欲初成驚萬戶，山如必負馱三神。
擊破先知烟火計，抱薪歸去夕吹唇。

丁巳六月念後，碧柳洞逢名畫師許米山準

客鞭早發潁陽城，笑道萍鄉坐計程。
斗遠蓬萊憂聖主，門深楊柳號先生。
庭樹蟬吟秋髣髴，海天燕舞雨分明。
知君筆下多名畫，梅竹松蘭各有聲。

一帆來自錦南州，詩酒風情老不休。
世降黃梁都付夢，秋來白髮更添籌。
墨精只可圖三虎，筆力猶能拗萬牛。
雲水渺然分手路，門前楊柳使人愁。

題李敦炯醉石亭

日醉淵明已昔年，此翁此號得何邊。
雪裏寒標同竹友，山中高枕與松眠。
三朝卞淚曾懷璞，五彩娼功可補天。
一石一花須勿毀，李公遺業亦平泉。

冬至吟【乙卯十一月】

自從添線搗寒衣，有月家家夜掩扉。
子半陽春今又至，天涯遠客未言歸。
已知葭管浮灰動，却看梅花亂雪飛。
暖機先驗魚潛躍，回首江南舊釣磯。

和申瑢熙廻甲韻【乙卯十二月十一日】

此會耆英勝率真，松形鶴骨有斯人。
須令六十今申老，願似三千古甲新。
歲暮山榛歌望美，天寒風樹淚思親。
子孫拜獻斑衣舞，至後梅花總是春。

景慕齋

景慕爲心起此樓，巋然獨立月山頭。
報君風雨斬龍劍，遯世園庄飲犢洲。
大義猶餘尊華夏，後生不廢讀春秋。
壇享長隣夫子廟，昭然忠孝更何求。

和李紗峯望月韻

人人爭覩月初生，始到今年我且耕。

已辦豐凶離遠海，應知早晚上孤城。
天寒不問牛將喘，山靜何驚鳥自鳴。
一破黃昏懸似鏡，踏橋歸路耀珠纓。

燕子 絕句

江南萬里泛如舟，好作雌雄渡女牛。
不是尋常觀此物，卵生爲帝頷爲侯。

【附】日人詩

齊飛江浦疾如舟，高出天衢近斗牛。
若使人人猶爾頷，班生何必獨封侯。

寒食

古人寒食賦城東，始覺茲辰今乃同。
綿上無心芳草綠，汶陽有淚落花紅。
杜宇五更山影外，牧童一路雨聲中。
自此詩家多感慨，江樽野蔌醉春風。

再和金雙梧迴甲韻

在昔眞緣自海西，碧桃花下路高低。
孝切慕親斑戲彩，恩深憂國紫封泥。
仙鶴南飛江上羽，老牛東出畫中蹄。
壽樽不覺斜陽晚，五柳門深數里堤。

謹次明倫堂落成韻

再造倫堂適此時，可云禮樂可言詩。
一壇翠杏風吹慕，五月黃梅雨過枝。
文必尚周有郁郁，道曾在魯亦遲遲。
至今復覩絃歌日，不覺湖山夕影移。

和金東振生辰韻

雙親偕老遇生辰，最喜甘供自入眞。
黃梅久雨勞行旅，翠竹深陰穩可人。
一樽酒爛相論舊，五彩衣斑漸覺新。
到此莫催詩令急，八叉那必似庭筠。

碧柳洞霖雨留吟

一醉支離到晚天，強隨吟硯好相連。

仙緣不易漁郎再，世事何多鳥道千。
繞籬新笋亭亭玉，畫野長霖曲曲川。
遠星數點聽蛙夕，久坐踈燈耿耿然。

贈丁學魯寒梅堂

寒梅正好傍寒門，不厭相看暗返魂。
最喜淡然來素服，却疑隱若立黃昏。
自此聞知天下士，知君生長雪中村。
對君爲問春消息，詩滿奚囊酒滿樽。

燕南逢李紗峯【丙辰六月日】

燕南快覩老人星，天以垂祥地亦靈。
沿溪露石全身白，種樹齊牆半面青。
深林始入疑無路，久雨初晴喜有亭。
消夏經營知在此，某翁詩伴各忘形。

鏡

昨買成都聽蜀鶻，壽光自此學神仙。
圓同有月誰摧桂，靜若無風我采蓮。
悲白應知添鶴髮，窺紅可愛續鸞絃。
澄徹天淵齊上下，坐看終日察魚鳶。

扇

枕扇須同反哺烏，孔明撓羽出魚鳧。
大暑更歸將渡虎，清秋人立却疑狐。
斑竹踈涼啼楚鴈，素紈輕薄練吳驅。
山月江風都在手，蘇舟那必憶松鱸。

碧柳洞永孝齋感舊

陶翁白髮太蕭蕭，楊柳繁陰坐寂寥。
憶昔黃花同采采，至今碧柳尚搖搖。
八旬猶可能知足，五斗何須更折腰。
比屋願成甘老計，薰風是月舜簫韶。

乙卯六月望，與穎史雙梧柳溪三老，遊永孝齋

釣磯數尺下絲綸，渭獵迢迢少鞅輪。
老鶴相招松與友，臥龍安在柳爲隣。
湖眉翠色嘖西子，亭額丹忱拱北辰。
詩中此會知誰健，願得紗籠不上塵。

依斗亭書懷

水滿池塘月滿軒，澹然相對却無言。

露深細草田間路，烟沒垂楊澗畔村。
南挹湖山稱地勝，北依星斗答天恩。
多少知音詩自在，明朝何必抱桐孫。

臨溪臺榭露層壇，暑氣多涼夜氣寒。
舉世皆傾傳虎市，何人獨坐飲牛灘。
雉竹偏憐修衛學，老松猶喜謝秦官。
穎上歸田將有計，白頭憔悴布衣寬。

永孝齋七夕【乙卯秋七月七夕】

老少人間我會先，不同牛女隔葦年。
梧葉今朝秋已七，稻花何日雨方千。
圓局午晴商雉鳳，短貂風定漢宮蟬。
也知林下多真味，肯許王孫錦繡筵。

年年此日送牛郎，天地蕭然動晚涼。
詞賦當秋鳴以楚，儀文用夏鑑于商。
鶴洞有仙乘夜放，鷹峰無將待時揚。
斜抱素琴深托契，支離西去海山長。

北斗迢迢白帝城，世間公道易秋聲。
田園粟里歸元亮，風雨茅廬臥孔明。
三旬爲旱愁眉久，一夕生涼病骨輕。
吾人自在忘形外，莫遣禽魚浪自驚。

晚卜幽居學考亭，琴書泉石自安寧。
老蟬啁哳涼生樹，靈鷲徘徊雨滿汀。
深巷漁樵甘遯跡，古家詩禮愛髫齡。
四座稱翁年又取，還漸白髮已星星。

梧涼乍動却椒蒸，不遠相逢是悅朋。
楚客尚清朝飲露，韓兒好讀夜親燈。
山綿早白花千片，野稻初青穗一層。
此世巉巖多棧道，登登危步似攀藤。

七夕後一日贈別

十里相分半道邊，此遊曾不暇於旬。
江樹有情筵纈眼，庭花無語半開唇。
搖搖遠影孤帆楚，落落深懷一榻陳。
牛郎亦有今朝別，秋雨銀河淚滿巾。

搗衣

一別蒼茫不記年，爲君秋月淚潺湲。
暗裏鴛衾愁獨臥，寒邊鴈字喜相傳。
手懸落落相思杵，心似搖搖不繫船。
嫦娥搗藥應如我，料得今宵亦不眠。

燕南七月

一灣流水繞山郭，不問猶知處士家。
早登野色丹鸚稻，晚綻堦心白鳳花。
人如醫俗當居竹，貴亦安貧可饅瓜。
沽酒穿魚誠不偶，朝來詩思更咨嗟。

曉來沽酒使奴星，有醉無醒獨自銘。
西風入戶虫吟壁，萬樹齊牆鳥下庭。
公道不曾饒白髮，仙方何必誤黃經。
如在武夷精舍裏，一灣曲曲繞蒼屏。

詠鼠

爾鬚我筆戲如圭，春化爲鴛尚可啼。
墉牙莫謂詩風召，河腹無過物論齊。
竊自入關終失鹿，穢何墜地未升鷄。
卑微獨有南炎布，浣火尋常月下溪。

燕南八月

晚樽相對動荷香，燕遠蟬高草樹涼。
黃稻秋深田上下，蒼葭人在水中央。
劒閣蕭條吟杜甫，釣臺岑寂老巖光。
卽看庭畔梧桐葉，隱隱琴心又一張。

秋燕辭巢語數雙，主翁無事酒盈缸。
露滋叢菊開三逕，霜打征鴻渡九江。
已卜烟霞營素志，更將詩籍養丹腔。
白石蒼苔窗外水，淙淙日夜下奔瀧。

自敘上明府蔡洙康 刪

早事文章學遠遊，江南江北幾春秋。
樵山有意招黃鶴，釣水無妨問白鷗。
浮生渺渺太倉粒，處世搖搖滄海舟。
楚華漢栢還如夢，今古蒼涼蜃一樓。

奉答蔡明府

郡齋無事飲清泉，自守公廉不愧天。
琴鶴西行思抃吏，烏鳧南出望喬仙。
一心如水民皆化，萬口爲碑世與傳。
明年此會知何處，沙鳥風帆雨渺然。

和燕川李主事小湖回甲韻

壽樽歌管動頻頻，先甲如流後甲新。
自有星垂南極老，那無圖進五湖人。

六旬白髮回初度，十月黃花適小春。
爲賀仙班多聖渥，滿堂冠珮爛金銀。

和玄進士鶴坡回甲韻

此翁甘老鶴山陽，一笛南飛倍有光。
壽合麻籌三變海，心懸蓬矢四遊方。
遙知白髮先天甲，且與黃花晚節香。
縱無當日樽前賀，心祝岡陵萬壽長。

奉和後石先生

碧山如洗白雲心，自愛寒花抱膝吟。
未葉春秋渾不記，無絃知是一松琴。

菊花

我非愛菊愛其香，每到重陽也自黃。
楚夕可滄霜落賦，晉朝宜醉露和觴。
不與衆開三月暖，胡然獨在九秋涼。
若使衰翁甘飲水，人間壽考百年長。

己未二月日，與柳溪過建金峙

折竹爲筇轉入東，春寒猶有早花紅。
有詩未可從容去，雙袖翩翩道路中。

光武皇帝因山有感【己未二月日】

大漢門深鎖翠微，天顏胡乃與時違。
臣民痛哭蒼梧淚，龍鳳交爭白日暉。
景福宮前朝早發，清涼里外暮同歸。
嗚呼五百餘年事，金谷春風鳥自飛。

過鷄龍有感

瞻彼鷄龍碧萬尋，滿空烟雨晝常陰。
屏廻百里山相迓，鏡合雙川水不深。
風物猶佳新見眼，主人還似舊知心。
箇中欲得經營計，厥土于今寸寸金。

鷄龍古道再來尋，谷鳥投林下夕陰。
客宿丁庄明月在，僧歸甲寺白雲深。
鐘突峰巒開局勢，玲瓏花木結春心。
到今詳問名聲大，抱卵弄珠片片金。 月坡

己未三月三日，九老會叙懷

布衣轉轉哭神京，猶有蒼梧未盡情。
柳巷相尋陶靖節，石潭方見李先生。
四圍山立牛眠處，萬里春深燕賀聲。
九九三三長不負，莫將花甲問容成。

過箕城逢吳南圃永常

仙鶴南飛向晚天，主人亭榭即飄然。
今宵剩得昆峰月，舊路相尋潁水烟。
世事茫茫歸夢裡，詩心脉脉坐燈前。
莫使時鍾催我會，偶成一會亦清緣。

因山後歸家有感【己未二月日】

北望蒼梧赴漢陽，萬方淚雨度清涼。
鷄龍宿約因尋路，鷗鷺深盟更反鄉。
白首相逢蘭契重，青春如夢柳絲長。
臨歧屈指三三日，燕子來時一草堂。

十年耕讀潁之陽，興趣不過清且涼。
國葬陪從留北洛，家荒難忘下南鄉。
花木殷勤春氣動，溪源活潑水聲長。
三四衣冠新把酒，和風二月始登堂。 月坡

遊依斗亭

烏巾白髮任風斜，無限春光萬萬葩。
洛中不晚同君實，渭上安知又子牙。
自愧曾年遊翰墨，却緣今日醉烟霞。
澄潭更有流觴處，依斗亭前字字巴。

香山故事善鳴唐，却喜移來自遠方。
隱隱洞門深五柳，滔滔海國渺三桑。
會若蘭朋書逸少，儼如石丈拜元章。
欲訴天公將有語，百花深處此時長。

贈崔松雪堂

此會耆英勝率真，松形鶴骨壽於人。
須令六十今申老，願似三千古甲新。
歲暮山榛歌望美，天寒風樹淚思親。
子孫拜獻斑衣舞，至後梅花總是春。

武靈初夏吟

花時未與上牛山，却趁清和到此間。
海國風塵都渺漠，城樓詩酒自安閒。
萬林齊碧禽交語，一雨遲晴客未還。
洛社青雲看已遠，蘧然相對布衣寒。

武城四月八日

晚霏纔歇暝初生，湖上風流遠世情。
嬌鳥聲長春夢遠，遊人衣潔午陽明。
十尋燈燭懸紅樹，一隊竿旗撓碧城。
也識今雪多壯觀，踈星落月任縱橫。

觀燈

此俗何年入我東，謾教佛界自成鳳。
一一連環芳艸外，雙雙懸玉落花中。
不容片月臨寒水，欲集群星綴曉空。
睡回頻拭朦朧眼，却訝朝暎已射紅。

遊武靈 刪

夏天昨夜水同清，何事霏霏雨未輕。
遠客城南芳草色，暮春江上落花情。
樽蒲對局点三擲，樽酒開筵喜數傾。
回首桑麻連野碧，人間此樂答昇平。

箕城贈徐友 刪

梧葉驚秋菊喜秋，秋來萬事認前頭。

老樹生涼蟬語靜，齊天如水鴈聲流。
大酒相論三國史，踈燈久坐一層樓。
看君美玉多真語，不覺雪光轉到幽。

烟菴詩會

烟菴此會莫相移，逢處壺觴別處詩。
玉笛數聲鶴安在，海天秋日正遲遲。

輓柳洞李老丈

雪嶽重輕出去來，德門永爲子孫開。
九旬遐壽星還極，百世令名月滿臺。
白髮曾歸耆老社，黃花相別故人盃。
頌恩亭下秋光晚，誓答天綸首更回。

和鐵城山永慕齋韻

孝事經營乃得成，始知勝地得人鳴。
瞻掃惟勤非易事，著存不忘是真誠。
箕裘世世承先業，俎豆年年繼後生。
嗣葺千秋應不朽，鐵城山碧指爲盟。

滯雨內洞

阻餘相看更多情，縱是忘顏尚記名。
乍憑醉夢遽爲蝶，更敲詩腸勝似鶯。
庭葉舞風難見定，野苗病雨欲祈晴。
商量後會知何處，十里東行是鐵城。

不妨知舊雨中尋，爲被淋漓自晦陰。
數宵返似離家久，一榻何曾待客深。
裊裊煙長垂柳力，團團露轉碧蕉心。
迴思野外桑麻事，霽後神功直萬金。

過隱求齋

隱居不與世同流，閉戶看書已白頭。
秧未及時纔出水，麥猶經早晚成秋。
百年康樂因其地，五月清涼又此樓。
渭釣莘耕皆有志，主人真樂更何求。

次隱求齋原韻

隱求之志結爲廬，反在於吾不在居。
戶外無關今世事，燈前有味古人書。
種樹成陰深聽鳥，鑿池引水靜觀魚。
如此方知耕釣樂，便同伊呂固窮初。

代草 醉宴韻 刪

醉筵圖畫寫清真，壽富康寧是可人。
窓前雪月紅梅好，鏡裏光陰白髮新。
快靚明星南極老，倍思今日北堂親。
寶樹芝蘭和氣爛，却從至後一陽春。

雪天逢柳溪

窮巷漁樵學邵南，年今五十又加三。
蒼山欲暮烟鋪野，白雪初晴月滿潭。
百粒已知農者苦，一瓢還覺飲之甘。
幸因柳下來卯友，百世清風可與談。

一陽初動日之南，益者相逢我友三。
野色渺茫烟際屋，冰痕滢徹雪餘潭。
書灰冷落知奏苦，酒禍層生驗禹甘。
自古聖門多正路，晉儒何事老清談。

北天行屐復廻南，忽憶明朝客笑三。
日夜論心經苦海，夕陽濯足汲清潭。
簾侵素影新梅好，盤轉黃香旧橘甘。
一點孤燈因不寐，酒餘世事雜農談。 柳溪

江上睡鷗

江國清緣使我多，世間榮辱未曾過。
蒼烟縹緲江兒笛，白雪繽紛野老簑。
兩岸山空雲已矣，一帆秋迥夜如何。
早向要津辭富貴，枕安不必夢南柯。

聽鷄

臙晨一唱喜逢韶，萬里扶桑曙色遙。
戀國忠臣升降膝，省親孝子屈伸腰。
鳴能達境齊遊孟，善且爲徒舜繼堯。
五季昏衢初覺夢，世間風雨也知饒。

蟬

高樹吟蟬響太空，非絲非管妙無窮。
愧余未蛻塵中殼，佇立斜陽嘯晚風。

牛

在豳耕野在燕攻，兩力胡爲與爾同。
潁水歸來多隱逸，飲清臥草可論功。

觀市

市門如水近清溪，盡日諠譁似鳥啼。
妙理推來觀噬嗑，羲天驪馬已過蹄。

烈女

元元一理配陰陽，不欲平生各短長。
是故必從夫死日，可憐白骨獨荒涼。

蟬

非絲非管列東西，一曲纔高一曲低。
先殼浮遊塵外楚，女魂怊悵夢中齊。
咯停驟雨鳴深壑，嘶過潺流下淺溪。
莫道雙貂秋翼薄，要津風浪夕陽迷。

梅花

春容正在晦於根，暗淡相尋夜入門。
冒雪先知傳臘信，和羹可使答天恩。
堪憐處士能言賦，爲惜佳人更把樽。
獨有香名天下白，古人那必說黃昏。

梅兄梅弟是同根，寒暖相分自入門。
萬木爲霜撕殺氣，一花如雪養生恩。
夜深猶有佳人夢，歲暮還傾處士樽。
最愛大明餘舊種，五衢風雨破昏昏。

月中花發雪中根，奇怪橫斜各一門。
暮境風霜將有苦，早春雨露豈無恩。
依依瘦影堪隨筆，暗暗清香可泛樽。
飲水相看徧卉譜，如何獨漏楚黃昏。

辛酉六月日，遊箕穎李萬頃精舍

穎清箕碧是君家，今昔風標未減加。
賓客臨門多向竹，兒孫滿座恰看花。
南風捲雨晴還濕，西日沉雲遠更斜。
爲賀良珎長待價，玉音自此不相遐。

張子房

五世生韓恨未逢，沛天風雨喜從龍。
已知圯上師黃石，更願人間友赤松。
千里雄籌搖楚勢，萬侯榮貴讓齊封。
錦花長帶春消息，萬古天然白玉容。

遊燕川

林泉行樂可於人，却似桃源路入真。
樓靜須同黃鳥語，江清聊與白鷗親。
一旬風雨長爲客，十里溪山未卜隣。
細削青苴仍把酒，驩然話到舊情新。

扇

紙爲使面竹爲心，皎潔清涼轉處尋。
雨滴葵花紅正濕，露滋蕉葉碧初深。
撓將消暑嘲司馬，拂亦閒風情展禽。
大暑人間無可畏，何須遠避向於林。

自有清風萬古心，客來無處不相尋。
却疑大暑三秋近，莫待寒江五月深。
美玉何須揮晉塵，孤篁悅似畫齊禽。
一枚飛口如增德，庶望吾君御上林。

枯藤瘦竹互知心，我友清風動輒尋。
若使掃除天下熱，豈能藏在篋中深。
碧蕉露展亭亭葉，白羽秋晴鬻鬻禽。
願把五明歌聖德，舜天圓月滿宮林。

圓面相逢輒許心，枯篁明月影千尋。
篋中莫道恩情薄，枕上猶餘孝意深。

酷暑誰家驅如虎，清風我友喚似禽。
草堂自此醒春夢，白羽何辭掃緇林。

削竹裁爲造化心，清風明月却來尋。
已從天地同開闔，自與炎涼較涉深。
六角新書黃是繭，一毛輕羽白於禽。
賢公若寫芭蕉面，海內群材會似林。

懷中出入動秋心，明月懸空梧十尋。
天上雙星銀浦遠，人間五月鑑湖深。
素紈輕練裁吳馬，翠竹斑痕染蜀禽。
一羽撓來三國暮，南陽自此鎖雲林。

庚申十日月初六日，趙炳熙氏晬宴兼賀加禮

德門盛事筮庚申，五福相須萃一身。
總角緇冠三舉祝，華筵白髮四招隣。
桑榆暮境非云晚，梧竹深園漸覺新。
人世悲歡分半在，也應今日倍思親。

輓李老

今行正與赤松遊，謫下人間七十秋。
老鶴披雲辭北斗，冥鴻印雪度南洲。
居家孝友能專美，隱世耕樵孰與儔。

數曲哀些招不得，黃花九月淚空流。

靈臺山下老，人莫此丹青。
優渥登三呂，遐期享八齡。
箕裘傳後世，蘭蕙滿前庭。
醉盡黃花酒，夕陽戾雨零。

冬夜與柳溪吟

雪落窮山扣我門，九鍾餘響至今存。
幸因元白同爲社，不必陳朱古有村。
渺渺三桑愁變海，深深五柳喜歸園。
種桃莫借漁郎路，只恐人間漏秘源。

次牟壽潤回甲韻

白髮蒼顏老潁陽，遙瞻南極耀星光。
至今湛樂三聯枕，憶昔劬勞兩在堂。
彩舞環庭蘭共茁，壽樽釀海菊初香。
一門五福爲兼有，無復人間較短長。

辛酉九月九日，碧柳洞歸來亭耆老會

布衣藜杖喜相扶，俱是人間老丈夫。

天迴閒龍遊洛水，秋晴癯鶴下雲衢。
縱然白髮蕭蕭在，可是黃花采采無。
此日年年宜一醉，小亭盡美穎之偶。

素愛無絃不用琴，峨洋知在故人心。
洛中結社稱司馬，柳下占隣學展禽。
露冷於霜秋已暮，燈寒如水夜將深。
有亭莫道歸來晚，九九三三是古今。

辛酉秋七月既望，遊箕陽李萬頃蓮亭

却問平安不問年，願將此會日相連。
早辭彭澤應栽柳，晚學濂溪獨愛蓮。
幽闋清閑無此外，憂愁思慮在誰邊。
也知赤壁今宵月，豈許坡仙與客先。

吾道元來斥異端，人間出處兩奚難。
世交多與黃金薄，秋氣先教白髮寒。
暮境相知論契重，髻齡可見立心完。
田家自有豐年樂，擊壤歌中社酒寬。

圓塘曲砌小橋橫，樵弟漁兄各盡情。
文物猶餘箕子國，田園自在穎陽城。
秋來壯氣吟難遣，老去悲詞醉易生。
從此青雲如夢薄，誰能有友送之京。

早憂如海溢眉端，休退江湖一老官。
蓮井洗心如對鏡，柳陰露預不勝冠。
鳳將覽德千尋下，驥欲登程萬里看。
萬事荒唐渾如夢，世間無處不槐安。

永平大臣李書九氏詩【他詩】

居鄉士業二其端，於讀於耕廢一難。
全把犁鋤味識見，徒探書籍奈飢寒。
斯間莫道分工濶，這處方看立志完。
古有斯人胡不學，唐之董子漢兒寬。

校宮講會韻

拜瞻聖廟慕皇明，不必興亡管世情。
一片箕山依旧碧，千年璧水至今清。
莫言文獻曾無考，猶喜絃歌復有聲。
數仞宮牆門不閉，暮春春服好相迎。

入門初學講明明，茲會非徒各叙情。
白日戰爭春欲暮，黃河消息世云清。
燕臺士價金無脛，魯泮文風玉有聲。
有鳥飛飛時習篆，隔林上下喜相迎。

庚申九月九日九老會

一歲中分再卜遊，三三九九記春秋。
如蘭已結同人會，爲菊何辭此日留。
莫使空樽傾北海，更將懸榻下南州。
光陰不共風流在，可惜浮生易白頭。

辛酉三月三日，會于永孝齋

主翁喜着老萊斑，永孝齋前霽後山。
少長忘年眞可會，春秋暇日自爲閒。
沂服初成將與點，巷瓢堪樂孰如顏。
依依柳色淵明里，倦鳥流雲却忘還。

早朝理屐喚樵青，爲報春光滿我庭。
三月天功晴易雨，百年人事醉難醒。
山枰久坐談巴橘，海國相逢感楚萍。
明日桃花無數落，門前那惜小車停。

綠陰

綠陰人在畫圖中，覆盡原南拂水東。
午日行天難透白，晚花落地未誇紅。
繡茵羅列千門靜，遠黛參差一色濃。
無復世間炎熱苦，願言分此四方同。

綠陰始自太陽中，萬木欣欣日出東。
老仙碁局雙眉皓，妙妓鞦韆一點紅。
莫道人間炎熱苦，却從地上水雲濃。
社樽夢入槐安國，富貴浮榮各不同。

綠陰如市日之中，交易隨陽西復東。
且向樽前傾太白，不須樹底覓殘紅。
仙翁倚枕琴書潤，畫客登樓水墨濃。
忽地炎涼分一界，人間此樂與誰同。

大夏陰陰綠樹中，百花愁殺洛城東。
波紋滿地難爲白，火傘垂天不敢紅。
甘棠勿剪仁風洽，老栢無移瑞氣濃。
却憐深處黃鸝坐，求友聲聲我亦同。

庚申晚秋，過潁陽

潁陽山水一筇豪，秋色崢嶸月色高。
白首浮生愁披鏡，黃花晚節喜傾醪。
枯篁半壁看齊畫，落木踈燈讀楚騷。
世事朦朧渾不記，桑田漠漠碧波濤。

秋來詩思別層加，一境悠悠漸入佳。
大俠應多都會市，荒年又在野人家。
莫辭今夕題紅葉，猶勝他時耀碧紗。

富貴人間還似夢，半天明月上南柯。

壬戌七月七日歸來亭

數巡秋酌向誰配，只在斯亭不在他。
樹陰蟬合高低管，蓮沼魚分出沒梭。
帝女稀逢河漢遠，仙翁相見海山峨。
世間今夕知何夕，乃作中堂七七詞。

稻花

夏天辛苦度炎庚，覆盡東南大野平。
幽土涼風吹玉穗，春陵甘露下金莖。
三耘化孕同夫婦，一發成行似弟兄。
色樣白於三臈雪，豐年自在老農評。

駿馬 刪

坐唱落梅勝玉簫，北風且莫下蕭蕭。
碧翻古塞朝揮策，咬繫空山夜食苗。
老去作詩猶恐墮，愁來載酒與同消。
疾馳何日平胡虜，斗大黃金任我腰。

桑

扶桑數本降于天，移植人間見一川。
惠及湯林千里雨，功成禹土九州煙。
麻姑變海金籥落，蚕婦供春玉繭懸。
不怕祁寒能衣帛，行年五十坐如仙。

壬戌秋七月既望，麗水郡鍾山詩社，續赤壁遊 卅

沙棠一葉下長洲，收拾當年未盡遊。
三國寒烟如昨夜，平地明月又今秋。
應須有客携簫至，不可無仙化羽浮。
望美謠終誰復續，鍾山霜落好相求。

月滿長天水滿洲，片帆載酒任吾遊。
今辰豈偶重廻夕，古甲猶餘不老秋。
三國戰爭桑海邊，一坡安在管灰浮。
涉逢登閭非難事，莫使神仙此外求。

赤壁橫空白露洲，縱舟何似縱待遊。
英雄不復三分國，壬戌曾經幾度秋。
孤客南來萍水濶，美人北望玉樓浮。
洞簫中斷山鍾應，今古相尋與月求。

卷四 遲松私稿

辛未春二月望

六十二歲正朝有感【己巳】

六旬添二感尤深，矧使水淵却履臨。
庭下斑衫還似昨，鏡中白髮倍傷今。
疾風勁草猶餘氣，傲雪孤松不變心。
忠孝未酬吾已老，撫躬嗟歎淚難禁。

丙寅正月，遊華洞後溪魯泳駿五思齋。鄭菊史熙冕，李農隱景燮，遊亦在座

華表仙庄視古今，鶴兮安在喜相尋。
春來作伴如留約，老去論文可見心。
貯水更憐明月滿，買山尤好白雲深。
短屏花墨淵冰戒，戰戰兢兢似履臨。

四友光陰共白頭，坐論今古不關愁。
春光要我梅邊路，雨事留人竹裏樓。
觴詠差爲忘俗累，絃詞非是供風流。
嗟今億兆誰能問，緬憶殷宗用作舟。

潁陽訪張箕隱滯雨【丙寅二月初吉】並六首

生憎鬢髮老文詞，雲樹西南幾夢思。
世耳皆傾傳虎市，翁心獨在飲牛池。
千門柳色春情好，一路萍蹤雨事遲。

墨壘筆鋒年亦妙，喜看習鳥上花枝。

白首吾生不遇歌，雨餘春色入庭柯。
莫嫌山水琴中少，始覺風雲筆下多。
花氣暖蒸紅映砌，柳絲晴拂綠紋波。
臨歧爲謝新書贈，穎樹箕雲此奈何。

門庭瀟灑整衣巾，却悔從前未結隣。
客裏三宵如昨日，人間二月又初旬。
已知桑海多經劫，且莫桃源更覓眞。
年少西遊書劍在，明朝汽笛上飛輪。

東風吹雨布衣寒，白首樽前帶淚看。
立節當如山屹屹，持心長欲月團團。
老龍屈曲葡萄架，香麝縱橫芍藥欄。
此去吾園三十里，臨分何說路漫漫。

平生艷仰范希文，近則憂民遠則君。
麟筆有常扶一統，龍籌無計割三分。
如今後世污青史，何似深山管白雲。
清穎古今流不盡，縱然洗耳未堪聞。

四翁如鶴上華橋，玉笛聲中楚色遙。
分手知應楊柳底，不如盡意醉今宵。

詠博

漢王楚將兩堂堂，進退中間一戰場。
馬象縱橫分衛隊，車包衝突失齊行。
將追後陣風先陣，欲破東方電北方。
乃決雌雄疾呼捷，寡之於衆弱於強。

謹拜太上皇帝崇慕壇

願祝吾皇壽萬年，寸忱未報九重筵。
封疆始大三韓後，文物猶加百世前。
麥秀遺墟呼白日，黍離古國訴蒼天。
臣民何處非崇慕，壇享春秋誓久傳。

贈李竹軒敦曼【字寬淳，潭陽水北面羅山里】

竹賢不與世相求，種得幽軒度幾秋。
直節干霄常槭槭，清陰滿地自悠悠。
春秋獨守東來義，雲日猶懸北望愁。
已識君家多種德，半生心事便休休。

次南齋金敬愚

齋匾分明揭以南，看君猶恨未曾諳。

接人溫潤春生座，持已澄清月滿潭。
暇日抱經探聖旨，有時載酒聽農談。
源源孝思多餘地，休歎平生兩未堪。

次蘭坡金在祚【戊辰】

幽谷無人一境真，眞蘭不負此芳隣。
免同親友金其利，芽茁兒孫玉不塵。
自許蕙芝如入室，肯隨桃李與爭看。
猗然善學吾夫子，樂道于今獨守貧。

丙寅元月望後，與鄭菊史李農隱吟

白首高歌海上春，曾年俱是讀書人。
六旬將至逢知己，一舍相居負接隣。
舊國山河多感舊，新年風物倍增新。
滄桑互換風潮急，何處菟裘更覓眞。

世事商星蜃一樓，況今苦海與沈浮。
兩鄉明月前宵夢，幾處行雲舊日遊。
春來易得花生眼，歲去難禁雪滿頭。
尚有虎溪三笑畫，何如數日便休休。

過龍村朴準鳳書塾

幾擬逢君始入門，讀書聲裏喜相論。
世交不厭黃金奩，公道誰除白髮根。
流水偏清牽犢渚，青山長繞臥龍村。
此行非是先謀醉，爲被沽樽日已昏。

岐陽亭【丙寅】

岐上風烟入我床，鳳鳴千載耳根涼。
山從鰲背叢叢立，水抱龍頭曲曲長。
只可蘭亭修一禊，何憂菊逕就三荒。
理園知在看書暇，灌菜移花事事忙。

冬至後夜吟【戊辰】

醉裏悲懷易放歌，商量萬事悔尤多。
同文雪積人如玉，野渡冰堅水未波。
如夢青年遊洛社，還愁白髮老數阿。
自有梅花春氣動，也應至後一陽過。

鷺

自去自來秋復春，朱簾畫棟好爲隣。

不知今古興亡事，王謝堂前訪主人。

鷺

燕燕于飛江上春，幾家簷幕舊時人。
竿頭巧坐千般語，草際輕迴百轉身。
杜子堂前仍自去，淵明村外莫爲隣。
引雛自有啾啾樂，更說年年不負貧。

贈朴蘭窩

昔吾夫子誦猗蘭，想像千秋有意看。
香播遠方風未定，葉長空谷露初乾。
已知杞菊同爲賦，且有簞瓢可自安。
百劫滄桑能獨保，不關世事鬧多般。

秋陽

杏壇一曝卽秋陽，師道東來孰與長。
莫使蒼葭翻玉露，偏憐黃菊碎金霜。
山人屋上番椒氣，江女籬邊淨練光。
鶴髮鶉衣爭煮背，安知野外老忠良。

五思齋【崔南基】【戊辰】

孝思惟勤祀事明，五思隨感自然生。
羹牆有寓終身慕，堂構如新不日成。
克守箕裘基世業，爰瞻桑梓樹風聲。
百源不外扁齊義，追慕雲仍不盡情。

霽梧

霽後梧陰一艸廬，悠然獨坐好看書。
十尋明月將棲鳳，三尺清琴必聽魚。
灑落胸中持有實，榆楊名下護無虛。
樂窩之夕濂堂曉，爲說吾君乃復初。

愁

一落人間去太遲，不期而至若相期。
梧桐秋月思君夜，楊柳春城送客時。
病枕添生霜後鬢，嬾閨轉入鏡中眉。
憑誰爲問窮愁日，天地茫茫摠不知。

漏殘鍾落夜遲遲，忽謾相逢不與期。
戀國孤臣雲去處，離鄉遠客月來時。
燈前恍惚難成夢，鏡裏徘徊使上眉。
杜老韓公從此老，古今人事爾應知。

儒達山【木浦】

叢石巖巖上至顛，雄州一鎮好相連。
俯臨鯨海南無地，仰接牛墟北有天。
玉女洗粧秋雨裏，胡僧倚塔暮雲邊。
黃花不負重陽會，風帽飄飄孟萬年。

木浦秋夜，喜逢李梧泉文復氏【字聖圭，戊辰秋九念間】【他詩】

山高儒達可容身，四集風潮逐日新。
貨積何多爭利客，智長必見涉難人。
活泉由本能寄石，落葉歸根更有春。
松老信聽酬寸說，前程垣垣晚來親。 梧泉

自愧書中老此身，秋風吹拂布衣新。
幾年如夢逢儕友，數月無緣見主人。
葉下霜林還有雨，花懸燈市復迴春。
剡溪之棹西湖酒，何似歸鄉日日親。

木港相逢楚水萍，西風剪剪送吾行。
黃花猶帶重陽色，白雁能知舊國情。
冷觸遠從雙綠入，亂帆爭似一毛輕。
看君書劍多慷慨，幾度星霜老漢城。

光陰如水我浮萍，不覺重陽有此行。
白地用人難稱念，黃金運世最多情。
殘禾散壘鷄來慣，落葉亂空燕蹴輕。

四顧平生何事在，晚逢知己向南城。 梧泉

次丁鶴汀鶴城樓韻【務安，戊辰流火念二日】

天教華萼下南州，泉石雲林轉入幽。
隱隱古松疑白觀，依依芳草認黃樓。
蓮峯霧罷開屏幃，佛沼春深下釣鉤。
裕後承先知在此，何須遠訪赤松遊。

次鶴汀南溪永慕齋韻

衆巒縈北小溪東，福地禎祥感自通。
孝思秋霜春有露，景光山月海無風。
仰瞻桑梓垂前蔭，篤守箕裘繼後功。
爲賀公家多厚慶，蘭芽茁綠鐵花紅。

與鶴汀同往春暉齋

宿雨初過喜晚晴，台峰依舊自分明。
此行不是尋常事，只管仙翁才草情。

謹賀丁鶴汀曾孫之慶【戊辰】

丁令甘老鶴城東，毓德鍾雲也自通。

早抱曾孫方有慶，深知先世不無功。
驪擎珠額歌明月，鳳刷金毛舞晚風。
一郡衣冠同攢賀，滿庭寶樹筭花紅。

藥圃原韻【戊辰】

隱床爲卜錦城東，醫俗神方愧未通。
拙局敢當經濟策，庸才難說善治功。
深園採草時編綠，短砌栽花日課紅。
自愛菟裘甘作老，風塵不入此山中。

輓趙炳熙【戊辰八月念】

七十於公不謂多，瑟琴珍重奈其何。
青氈繼世安基址，素履違時老礪河。
三鳳呼天朝晦日，一龍離海雨鳴波。
西風八月聊相望，鼓露懷添薤露歌。

菊花

一花招出百花濃，自得秋風淡淡容。
飲水猶能禁白髮，釀金可使對黃封。
東岡固守相憐杞，荒逕猶存不負松。
晚節於人難可保，微微誰復起疎慵。

小湖精舍詩話

瘦策飄然盡日來，隔年談笑一樽開。
對人還愧頭成雪，憂世徒勞念似灰。
閱歲形容看庭竹，放春消息問寒梅。
他時珍重西湖約，花滿青山月滿臺。

寒食東風客自來，閨餘行參喜顏開。
故人聲價千丈石，逆旅光陰萬念灰。
忘味心通瀟灑竹，覓詩魂返淡粧梅。
相思此夜因無寐，初月偏憐連水臺。 小湖

過苧洞【戊辰】

逢秋義氣與爭高，對酒論詩老更豪。
晚節君今居栗里，獨清誰復步蘭皋。
菊香遍作家家醉，稻熟旋忘野野勞。
百尺梧桐多種德，斑斑摠是鳳之毛。

又【丁卯】

翠壁丹崖海上秋，大洋風物在前頭。
人來人去家家市，江北江南處處樓。
落木數聲孤雁度，疎燈萬點亂螢流。
儒山共結儒林社，剩得吾生暇日遊。

觀稼亭【丁卯】

暇日觀風上稼亭，社樽如海醉難醒。
鶴擎篋樓秋月白，鳥聲滌岫晚林青。
四郊稔黍經恩雨，百里衣冠聚德星。
州民爲愛甘棠樹，南國歌謠坐可聽。

春坡亭【己巳】

數畝田園海上山，肯堂知在孝之間。
移花種德春生塢，引水觀心同入灣。
雙屐乘閒誰比耐，一瓢堪飲子希顏。
使人爲感羹牆慕，日把吟樽却忘還。

柳川齋詩會【己巳清和】

柳川流水鏡無塵，不擇妍媸日日新。
雙屐晚穿芳草色，一樽空負落花春。
先生栗里應爲宅，客子桃源又問津。
幸賴小湖仙駕至，茅堂自此更精神。

五柳參差綠未齊，隱居行義似君稀。
雙川水暖閒龍臥，四月山深倦鳥飛。
交道黃金須莫說，世情白髮與相違。
詩似山堆樽似海，好散遠客未言歸。

次崔松圃韻【己巳】

蒼松挺立倚巖巒，別圃移來得所安。
獨抱春秋將至老，屢經風雪不知寒。
子孫將茂能垂後，孝友爲根善造端。
誰把棟樑扶大廈，盤桓終日寸心寬。

次金箕隱韻【己巳】

箕陽山水可尋眞，隱此無求自潔身。
飲犢波清如對鏡，掛瓢樹老幾經春。
琴書歲久渾忘世，猿鳥春閒好結隣。
巢許清風猶不盡，悅如今日見之親。

靈光鄭休堂廻甲韻【己巳】

不可尋常此日過，君家福祿世無多。
壽親堂上斑衣舞，邀友樽前白首歌。
南極瞻星垂夜彩，五湖放棹動春波。
華筵縱未同參末，均是人情感亦何。

次李萬頃東範廻甲韻【己巳】

南極星光始啓明，思親當日感應生。

庭麟獻壽斑衣舞，海鶴呈祥玉笛聲。
六一是年春又至，十三今夜月將盈。
滿堂景祝無他語，黃耇遐齡享太平。

己巳三月三日

燕燕飛飛訪我居，賞春今日理巾車。
綠楊含雨新門巷，杜宇啼花舊國墟。
不恨青雲名利遠，只羞白髮世情疎。
閒來時檢兒孫讀，正路先開入德初。

奉和

忽逢知己似調琴，蓬海風烟滿素襟。
遠道萍緣如一夢，暮春花價抵千金。
如山立志難輕重，於水論交與淺深。
衰境喜成花樹會，世間名利不關心。

餞春

春光謝我閉門深，強把吟樽澗上臨。
自謂繁華長在此，那知怊悵又如今。
落花露濺相思淚，垂柳風牽未整心。
無乃歸魂終化雪，催人白髮正難禁。

春日偶成

大道由來慕孔顏，誰能好讀掩柴關。
春藏餘酒閒酬酌，老檢前詩更筆刪。
從古光陰皆逝水，如今故舊半歸山。
強攜烏竹扶吾力，疑是湘江血淚斑。

鞦韆【五月】

早學鞦韆下上天，良辰風物渺無前。
如花如月誰家女，非鬼非神半日仙。
只恐寶釵輕墮地，更將繡襪遠衝烟。
歸來笑入風流陣，妙舞清謀各一邊。

玉娘曾自降于天，善學鞦韆莫與前。
平地雙雙來作伴，半空一一去成仙。
花間亂蹴紅添雨，柳外輕浮碧破烟。
恰似昏昏無力醉，不知身在夕陽邊。

中秋月【他詩】

中秋秋月倍生光，宛轉時來任清涼。
水涵千江如玉印，雲開萬里以金揚。
空天懸貌紅於燭，遍地照輝白訝霜。
最向今宵多皎潔，人間行客遠思鄉。 相春

白鷺

白頭湖海老平生，已識人間遠客情。
萬里順風如可遇，一空飛雪未能晴。
飛飛鶴柱爭秋色，啄啄魚梁踏水聲。
今古悠悠亡國恨，西籬有客淚縱橫。

金仁善芙蓉樓韻【己巳】

別庄卜築二層樓，恰似芙蓉水上浮。
葉覆千江帆外雨，花開八月鏡中秋。
主人愛惜情難盡，客子登臨興未收。
太乙真仙如可遇，臥看玉字孰爲優。

和金忍齋

超超燕雁各西東，書旣相通路又通。
世變先天還似夢，年豐晚雨自成功。
禿頭歲去無非雪，病骨秋來不可風。
慷慨深懷多此夜，布衣相對一燈紅。

奉吟【他詩】

君居箕北我箕東，聲氣相求信息通。

五畝桑麻將有事，十年書劍愧無功。
歲旱安知今日雨，士窮猶有古人風。
夜久相論天下事，孤燈一點照心紅。 忍齋

清和逢友吟

懶拙常漸學未成，如今況復鬢華明。
閉戶頓忘塵世事，通家相見故人情。
山邑尚帶殘春色，野麥初醒小雨聲。
若使有朋兼有酒，餘生何必慕浮名。

冬至【己巳】

何須造曆問容成，子半天心夜共清。
萬戶無眠看雪下，一陽有脈聽雷鳴。
臘心自與梅魂返，春意初湜柳眼生。
從此光陰容易去，令人空歎鬢華明。

聽蟬【庚午】

萬木陰陰一雨晴，主翁獨坐感交生。
如針如砭驚吾耳，非管非絃怪爾聲。
却訝官中齊女艷，乃知塵外楚臣清。
夕陽漸薄須臾息，四面山含太古情。

吸露歸來際晚晴，樹巔終日語平生。
半空如化飄飄殼，五月寒多嘒嘒聲。
齊女香魂金鬢細，漢官儀表玉貂清。
伊今始覺歐翁賦，白耳風流似我清。

賀權柳隱晬宴韻【庚午】

知君今日落人間，追憶親堂等問安。
四集衣冠爭與賀，誰教鶴筴共飛還。

次心史辛東旭廻甲韻【庚午】

松栢陰陰一艸堂，爲君祝賀日初長。
雙親不在應悲感，五福相兼益健康。
南極星躔垂夜彩，東風花筭耀韻光。
弟兄和勸兒孫舞，壽限多於萬萬觴。

次晚圃曹德初【庚午】

晚圃爲家卜隱居，一生心事淡如虛。
安貧不在簞瓢外，好讀方知孝悌餘。
處世猶能觀動靜，接人那必辨親疏。
栽花種柳還多暇，灌溉深功雨過初。

次野隱亭【河君】【庚午】

隱山隱海幾多亭，野隱亭宿眼忽醒。
今世潛機魚在沼，昔時荒篆鳥過庭。
行藏用舍由諸己，興廢安危見未形。
斜抱牙絃歌不遇，夕陽佇立數峰青。

春日偶成【庚午】

窮巷漁樵卜隱居，閉門終日整襟裾。
孫愚每見塗爲墨，妻病難爲挽鹿車。
江柳牽情風定後，野牟增色雨過餘。
春來黃鳥能知止，自歎吾生反不如。

孝烈婦【庚午】

欲將此說上經筵，移事吾君忠益堅。
大節堂堂松耐雪，寸心縷縷艸和烟。
善推百行多餘地，篤守三從不愧天。
國有褒彰鄉有薦，也應不朽幾千年。

謹步曹孝子松溪原韻【庚午】

子職當然善事親，自孩知愛老尤新。

安豐耕讀能行義，陋巷簞瓢更樂貧。
餘恨悠悠風在樹，寸心隱隱艸生春。
憂君一念江湖遠，北望時時淚滿巾。

輓後溪魯泳駿【庚午】

維天挺我後溪翁，千載師門大有功。
氣像滄溟揚素月，儀文洙泗講遺風。
兒孫時習趨過下，昆季相隣湛樂中。
可惜云亡今日淚，南州士友恨無窮。

輓後溪

箕穎東南鍾此賢，無疆福祿降于天。
承先裕後當然地，猶有清風萬古傳。

贈清川裴在浩【庚午】

春城風物轉生佳，最好看花上碧崖。
來自清川人似玉，也應出入讀書齋。

暮春【庚午】

暮春春色使人隨，心事悠悠不自知。

風雨不饒花片片，光陰難繫柳枝枝。
交情每與黃金盡，公道誰將白髮遲。
家有穉孫能識字，在傍絃誦亦爲奇。

次泰仁金進士箕坤親堂廻婚日韻【庚午】

三世廻婚禮此堂，詩山從古是仙鄉。
東床明月重生魄，南國夭桃再襲香。
不愧紅粧成老婦，更誇白髮作新郎。
德門慶祝多餘蔭，子子孫孫此壽長。

暮春偶成【庚午】

餞春時節又今年，麗景悠悠近午天。
有客相尋憐水石，無人不道好風烟。
山花半褪新裁錦，野麥中分早種綿。
富貴必從勤苦仰，真工可見已能千。

箕城餞春【庚午】

花事離披雨色寒，正當今日厭相看。
浮雲影子過層壁，流水光陰下急灘。
社士心摧昏夢裏，美人淚濕瘦眉端。
世間白髮多今後，去亦難堪送亦難。

餞春【庚午】

春光謝我夢之中，此別無緣訴太空。
猶有相思千里月，莫教爲恨五更風。
漸知江柳爭舒綠，忍見山花半褪紅。
樽酒易傾人易散，潁川暮雨各西東。

南原廣寒樓【庚午】

迢迢河漢廣寒樓，移在湖南地盡頭。
烏鵲橋橫流水去，蛟龍山碧暮雲收。
人間未盡春娘淚，天上猶餘織女秋。
壽世金丹消息渺，瀛洲歸客不勝愁。

廣寒樓【庚午】

春風一上廣寒樓，樓在銀河最上頭。
烏鵲橋梁星駕渡，蛟龍城壘海烽收。
山川歷歷多依舊，雲物悠悠度幾秋。
上帝如臨歌望美，天涯日暮使人愁。

聽蟬【庚午】

數聲轉出樹西東，長短難齊聽不同。

令我假名歐老賦，爲誰使仰呂公風。
宮園古木新晴後，驛路秋山落照中。
蛻殼仙方仍有路，清緣自與上天通。

一聲西過一聲東，盡日高吟與我同。
幾處荒山經驟雨，數株古木立清風。
寒聞髣髴青袍後，雨息從容白耳中。
蛻殼去天知不遠，玉樓仙子語相通。

與柳龍岡會于金後翠潯陽精舍

相逢相別摠詩筵，柳友來時是柳川。
潯上誰能牽犢去，潯陽復有臥龍眠。
春秋大義藏皮裡，城市囂塵斷耳邊。
晚雨霏霏三夜洽，乃知豐穰在于天。

鰲【己巳】

負石穿沙自作家，進前退後足偏多。
寒泉一曲生涯足，不問江湖水幾何。

鰲【五言】

清溪依石冷，不大去年魚。

得雨須南下，滄溟爾祖居。

新燕【丁卯】

舊國東風燕語新，新情勝似去年春。
三三之日花間屋，兩兩于飛柳外隣。
供賀方知相見好，借棲還忘自來頻。
至今猶有興亡事，王謝堂前幾主人。

對裘少年吟【庚午】

心如片櫂泛滄江，白首慚吾困一邦。
廐有藁人春飼犢，門無租吏夜眠獐。
桐過屋上尋應十，花拂池中影自雙。
爰爾髫齡文墨妙，幾年辛苦喫書窗。

駿馬【庚午】

千里飛騰卽片時，人稱其德又稱奇。
孫陽去後誰增價，造文當前不失馳。
錦幃應愁臨古渡，瑚鞭何必借餘枝。
夕陽三秣金臺草，燕市悲歌爾亦知。

聽鶯【庚午】

聽之勝似細論文，不覺山樽盡日醺。
只信笙鸞遊碧落，却疑簫鳳下彤雲。
花間好友心相許，柳外行人手未分。
非獨嚶嚶針我耳，遍身富貴錦成紋。

蟬【丙寅】

秋來凡物易驚秋，獨有鳴蟬破寂幽。
誰識神僊游濁穢，却疑絲管列風流。
數聲疎雨人歸郭，幾處斜陽客倚樓。
玉貂金鬢恩情薄，堪歎浮生已白頭。

逢友吟【丙寅】

喜逢吾友不成眠，況乃霏霏雨滿天。
不見長安惟白日，相思舊國幾青年。
仙游共對商山四，世險多經蜀道千。
莫說春歸花柳晚，翩翩携手下前川。

逢友偶成【丙寅】

海上群山一草堂，故人不憚道途長。

蒼梧暮日相揮淚，白首衰年又把觴。
已見榴花當苦熟，安知麥穗稍生涼。
莫言四皓曾多事，數曲芝歌老且香。

黃鶯【乙丑】

爲聽黃鸝向碧城，數聲針砭耳根清。
吾生不是伊州婦，猶喜艸堂春夢驚。

登小湖亭夜吟【乙丑】

自家渾是一團春，白首西來釣渭濱。
酒禮何多先爲客，詩酬曾不後於人。
梅花待臘初開未，萸葉催陽可用寅。
滿祝今年多壽福，小湖亭上月尤新。

輓金學瑞【乙丑】

瑞山淑氣降斯賢，五福人間享七旬。
最是西河無限痛，黃花歸路淚沾巾。

台湖亭【丙寅】

聞道台湖湖上亭，六星照耀九峯青。

滁人同樂誰能醉，楚老相思子獨醒。
馴鹿同眠春艸塢，觀魚獨立夕陽汀。
晚來棲息非無事，靜聽兒孫講五經。

晚卜台湖構此亭，九皇峰下一灣青。
菟裘安在吾將老，蘭契相尋客未醒。
盡日看花春滿屋，有時把釣雨過汀。
豈侵偏養閒中味，又有床頭教子經。

密陽嶺南樓【他詩】

西風人倚嶺南樓，水國青山散不收。
萬戶笙歌明月夜，一江漁笛白笛秋。
老僧院裏疎鍾到，烈女祠前落葉流。
滿眼蘆花三十里，雁鴻無數下汀洲。

駿馬【庚午】

駟星精氣應天時，鼻臆蘭筋雙絕奇。
價倍燕台三者買，群空瑤海八之馳。
玉鞍兼侈桃花色，金策不煩楊柳枝。
相士元來如相馬，世無伯樂孰能知。

逸氣稜稜上馬時，第觀大將立功奇。
雖無伯樂三增價，只願王良一範馳。

破敵暮施荒塞草，報君朝繫建章枝。
居然伏櫪思千里，汗出之勞恐未知。

挽韓參奉鳳燮【庚午】

今日淚辭韓寢郎，悵然五十八星霜。
長時車馬門無俗，依舊琴書坐有香。
鴻爪向天猶印雪，鳳毛遺地復鳴陽。
蘭孩遊戲荆妻膝，應是靈魂日返鄉。

慕先齋【庚午】

慕先當以孝爲先，春露秋霜定幾年。
種德能合門戶大，貽謀可見子孫賢。
誠無遺憾風生樹，福有長源月滿川。
百世羹牆瞻在此，綿綿餘地讓誰邊。

京城李承旨詩【他詩】

塊我生爲男子身，謾將絲穀惱心神。
十年陞六虛求仕，一日如三苦喫貧。
眼下錢荒當地盡，胸中甕算變天真。
彌縫室責還多事，歷數先窮後達人。

輓南監察廷燁

壽星一夜隕江城，忽報凶音使我驚。
先哲云亡傷世道，後昆相繼振家聲。
姻親猶有相思淚，孝友能傳不朽名。
黃鶴上天難復往，人間其奈此離情。

代人岳長輓【己巳】

望岳雲深轉盼空，曾偕斑錦舞輕風。
敢嗟葭冷綠霜勁，獨念冰清向日融。
棣院深懷雲影裏，荊床悽淚雨聲中。
前驅執紼無由至，一來生芻寄遠鴻。

寒食【乙丑】

綿山消息潁之東，曠感使人今古同。
楊柳和烟千眼碧，桃花含雨半心紅。
餘閒尚在奔忙外，宿約相尋寂寞中。
廣武汶陽應若此，曾無人不醉春風。

綠陰【乙丑】

四月清和雨晚晴，綠陰處處更多情。

垂天盖影雲常蜜，滿地簾紋水自橫。
富貴相忘醒蟻夢，風流不斷泛鶯聲。
王孫暇日來相醉，肯與花時較重輕。

螢火【乙丑】

露下烟晴夜氣涼，疎螢數点替燈光。
微微穿出荒林逕，暗暗飛過腐草塘。
却訝遠烽簾外亂，還然流火鏡中忙。
陳平一去無人拾，獨自徘徊感歎長。

贈姜歧雲振玉 三首【癸亥秋八月】

天欲爲常伯髮寒，岐躑瘦骨笑相看。
津頭水漲孤帆出，野口沙明一路寬。
古渡蒼葭人在沚，仲秋皓月客登欄。
主翁兼得西湖美，九岫晴光亦喜歡。

遠訪姜翁宅，西來釣渭濱。
聞風能下士，見月更留人。
契重符相合，禮勤榻未塵。
于今誰養老，日與白鷗親。

一見欣然勝十聞，君何知我我知君。
三宵宿宿心相合，一路悠悠手各分。

至今渭水那無月，依舊岐山更有雲。
主人已就菟裘計，耕讀漁樵老益勤。

冬夜書懷【乙丑冬】

窮巷人稀訪我居，何關門外出無車。
松經寒後風猶在，梅及春來雪自餘。
且可掃除今世事，不如歸讀古人書。
乃知冬至應來復，一線微陽夜子初。

至後書齋吟【乙丑冬】

冬至陽生雪又晴，數間斗屋一身輕。
對人不可論長短，處世何妨隱姓名。
樵巷天寒冰合路，梅窓夜久月橫城。
商量萬事還無寐，臥聽兒孫誦讀聲。

月明亭冬夜吟【乙丑】

晚來買得輞川圖，泉石居然不負吾。
莫歎樨兒鴉戲墨，第看高士鳳鳴梧。
雪餘月色誰多少，烟際山容自有無。
小屋梅花春意在，請君試見邵堯夫。

祝全良先廻甲韻【庚午】

六旬孝養九旬親，壽富康寧子是眞。
賓客登筵樽酒好，兒孫滿室彩衣新。
西風節候當流火，南極星光見老人。
門外如天湖水碧，願言作酒壽今辰。

次金雲菴昌涖原韻【金昌涖字文局，號雲菴，南原郡雲峯面獐洞里】【乙丑】

碧山環立白雲深，數棟茅庵傍桂林。
去作商霖將有事，歸來晉岫豈無心。
耕樵古逕容吾在，猿鶴清晨與爾吟。
門外桃花春水暝，却嫌漁子日相尋。

次李地山京相原韻【丙寅】

箕陽朝日碧梧生，迭唱壘簾鳳始鳴。
重且含章坤是德，靜能知止良爲情。
菟裘已就將營老，竹帛應傳不朽名。
自愛謙謙終受益，來儀必見舜韶成。

觀稼亭【丙寅】

我侯觀稼適爲亭，佩酒登臨任醉醒。

遠水鏡迴連檻白，亂山屏合隔簾青。
豐占已驗經三雪，奎運將期聚五星。
賴得南州多喜雨，商歌農杵使觀聽。

丙寅秋七月下澣，月明亭罷接時別章

別離何事使人驚，白首西風送客情。
他夜相思應有夢，月亭碁局自分明。 遲松

海國秋生客夢驚，西風吹送古園情。
遲松亭上相思月，夜夜清光兩地明。 蘭坡

自春阻夏與君遊，減却胸中一段愁。
今日翻成鷺鴻別，秋山無伴獨相求。 遲松

春樽夏局賦閒遊，忽有秋聲動客愁。
怊悵城東分手去，江雲渭樹兩相求。 蘭坡

箕城禊會【庚午】

積雨初晴潁水頭，清和今日盡情遊。
一春垂暮花皆霰，大野生涼麥欲秋。
方外飄飄俱是鶴，世間泛泛孰非鷗。
若將此會傳圖畫，香社蘭亭亦一流。

次龍塢亭韻【鄭中軍坊奎氏號龍塢, 高敞郡】【庚午】

有龍閒臥草堂春, 雲雨施行又此辰。
勝地菟裘仍繼舊, 平泉花石漸生新。
放鵬歸路園成趣, 招鶴來時境入真。
活水游魚多變化, 一登聲價幾賢人。

田家老翁【戊辰】

山雨初過晝掩扉, 數盃社酒故人稀。
霧中花眩新添病, 壁上蓑橫舊着衣。
自愛夕陽梳鶴髮, 每思春草飲牛馳。
須與毋死唐虞世, 第待康衢擊壤歸。

謹和金公澤堂原韻【戊辰】

於家孝悌世文名, 閉戶多年已講明。
天地非難鳴以義, 鬼神猶易感于誠。
青山東望綾城遠, 白首西來潁水清。
後昆善繼先人志, 莫恨當時未表旌。

九老會吟【歸來亭】

此日年年我送春, 風流還作苦吟身。

潯陽渡口和烟碧，杜宇山花得雨新。
三九菊蘭曾結社，一雙梧柳孰爲隣。
樽前唱罷驟驅曲，悵悵應均去住人。

哭斑後一日，奉酬草齋諸益【丙寅】

蒼梧收淚更回看，萬事人間道路難。
歲色徧從湖上暮，客心正在雨中關。
江梅壓雪紅浸屐，野菜供春綠上盤。
飲水讀書非不樂，其如世味太辛酸。

謹賀李石菴晬宴韻【癸亥】

壽富多男萃此堂，至今無愧郭汾陽。
一般戀國蒼山遠，百倍思親白日長。
蘭艸庭除環彩舞，梅花時節溢霞觴。
八門先唱南飛鶴，耆老清班座上香。

偶吟

冬雨初過暖若春，梅花小屋穩精神。
天心方欲分虛實，世道胡爲混假真。
湖上丹忱憂國士，林間白髮讀書人。
漁樵巷路歸家晚，爲被黃昏勸酒頻。

穎上贈李秀才仁行

英年花筆大於椽，滿紙雲烟繞眼前。
細逕懸崖登似棧，孤亭臨水坐如船。
好讀詩書常在側，爲仁福祿永無邊。
白頭俱是忘機老，鷗鷺相隨到穎川。

夢

枕上相尋似有期，醉鄉消息夜遲遲。
依依細草池邊雨，淡淡寒梅雪後枝。
與我逢迎難記我，爲誰問答不知誰。
覺來仍作荒唐說，又是黃梁未熟時。

初月【癸亥】

月初方見月初生，縱未團圓本色清。
半秋巴峽金輪色，片夜長安玉杵聲。
儘覺東懸將有約，莫言西缺却無情。
既望應照山陰雪，乘興歸來小棹輕。

癸亥秋九老會韻

聞道黃花滿舊園，重陽是月又中元。
真情共吐蘭生臭，佳境相尋蔗有根。

詩瘦與爭秋淡淡，酒甘不覺日昏昏。
鳩筇鶴髮尙無恙，謝却門前車馬喧。

謹和草亭居士草心亭原韻【木浦金星圭】【甲子正月】

石壁東南一草亭，思親之淚雨冥冥。
有時登眺浮雲白，無處攀呼老栢青。
流水龍川心獨往，寒燈香巷夢還醒。
縱然報得慈烏哺，且喜兒孫讀孝經。

草心亭四景【孝子不泊之至，痛爲主眼】

石壁晴雲

石上孤亭枕白雲，儼然如復見家君。
太行一菊梁公淚，不覺西峰日已曛。

竹梢高烟

世人皆謂竹生烟，直突圓筒架壁懸。
瞻彼叢林烏反哺，主翁獨坐夕陽邊。

階端釣艇

碧玉寒流繞石端，四時釣艇下前灘。
平生願得王公鯉，萬事無心我一竿。

屋頭樵笛

如絲樵路走亭頭，橫笛聲中萬古愁。
射的山空人不見，朝南暮北鶴風流。

東山洞四景【以高人之棄世，孤往爲主眼】

鳳岡朝嵐

數覺晴嵐繞古岡，鳳兮棲處又朝陽。
左松右檜先塋下，一片菟裘百世長。

鴉山夜月

白鴉飛盡一青山，有月來時喜對顏。
獨坐彈琴知者少，林間猶待故人還。

龍渚樹色

寒流曲曲是黃龍，枕岸長林架壑松。
城市風塵飛不到，主人心事自從容。

鹿野農歌

老農爭唱太平歌，別業何曾鹿野多。
滿洞風烟都管鎖，夕陽佇立一孤蓑。

謹和草亭居士回甲記哀詩【甲子上付下】

欲報親恩老不休，光陰不與我淹留。
蕭蕭之樹風不靜，蓼蓼者莪淚堪流。
生我育我昔何日，白首風霜六十秋。
如君可謂終身藜，在昔兒時寡與儔。
左柿右栗奉二盤，怡愉足解雙親憂。
春水稍解浮雲溪，也應雙鯉上釣鉤。
歸來采采雲嶺樵，八廚作羹供甘柔。
上堂拜獻父母壽，鶴髮龜齡心上籌。
榟櫨古樹春風暖，鳳凰高岡朝日悠。
髻齡早襲家庭訓，學詩學禮餘力優。
立身揚名亦爲孝，讀書那必名利求。
平生不作阿諛色，當路猶餘匡濟謀。
英名藉藉冠者世，幾載離親作遠遊。
初度蓬桑四方志，滄波風雨萬里舟。
乙臘戊秋無限率，呼天叩地誰怨尤。
桑榆暮境西日薄，松柏窮山北風愁。
丹旌素車千里外，玉輿峰寒雪滿邱。
憂君一念江湖遠，草心亭上淚未收。
奉檄胡爲喜毛義，負米徒然悲仲由。
在昔趨庭斑爛衣，如何今日成白頭。
瞻望猶有陟岵齋，太行白雲騁雙眸。
若使堂上備三樂，不顧人間封萬侯。
頷下三龍抱如意，四時雲雨滿汀洲。
晬辰卽是劬勞日，同吾婦子拜先楸。
齋傍古木夜相感，哺烏聲聲鳴咽喉。

乃知孝者百行源，以孝傳孝誰敢侔。
國恩如天猶未報，五雲何處望玉樓。
忠君孝親皆一致，嗟我世人知也不。

癸亥冬齋宮會話

冬至一陽春又生，同包物物各含情。
新亭縱有山河異，剡曲猶餘雪月明。
慕聖仰瞻夫子廟，憂君遙憶漢陽城。
至今難副梢工手，誰使孤舟盡日橫。

奉和曹孝子松溪澤承氏【癸亥】

人生誰不孝於親，愛日微忱老益新。
可使趨庭宜學禮，如能負米豈憂貧。
哺烏聲在窮林夕，舐犢情深寸草春。
回憶吾君庶無病，遠將芹曝淚盈巾。

東京懷古【慶州】【己巳】

新羅追憶昔王遊，萬事蒼茫水自流。
三姓山河芳艸限，千年風雨落花愁。
磬樓笛丸聲猶在，月堞星臺影未收。
一劫滄桑須莫問，鷄林黃葉四時秋。

詠木綿【己巳】

我欲評花弄彩豪，胡爲獨漏楚人騷。
桃房浥露紅將斂，柳絮翻風白漸高。
纜出千絲蚕共業，織成五色鳳兮毛。
九州大被如能庇，雨雪祈寒不與遭。

半月城【己巳】

至今有月月城空，淚見宮花寂寞紅。
古國蒼茫春一夢，杜鵑何事怨春風。

瞻星臺

萬象森羅合復開，瞻星自是一高臺。
吉凶顯晦無人管，銀漢西東夜已迴。

鮑石亭

石面魚鱗印綠苔，流觴當日爲誰開。
醉中難記興亡事，一到黃河不復迴。

鳳凰臺

鳳凰臺古一蘧廬，二水三山興有餘。
日下長安人不見，玉樓何處五雲車。

豫讓

炭添孤舟死乃休，故人何事淚堪流。
心懸白日先知義，頭戴青天不共仇。
衣血斑斑三擊雨，劍霜凜凜十磨秋。
藍笁石立忠臣墓，萬古綱倫一未羞。

崇惠殿

愀然入殿見三王，依舊青山繞汝陽。
麥秀悲歌歌望美，太平何日坐垂裳。

鷄林

鷄林黃葉不知春，稷契初生異衆人。
元氣所鍾推往蹟，也應天上送麒麟。

釜山港

釜山枕臥大江頭，輪舶輪車電氣秋。
極目風煙非復昔，新亭今日涕堪流。

除夜

秋來把酒攢雙眉，窓前無心亂雪飛。
一歲天功仍替舊，五旬人事始知非。
遠山疎磬春將至，古館寒燈客未歸。
自是浮生多白髮，願從華鶴學丁威。

達城公園

臥龍屈曲向東廻，中有靈區半面開。
使此一城天下達，遊人時自遠方來。

東萊溫泉

四時和氣瀉溫泉，一濯精神漸覺圓。
自此尋真知不遠，蓬萊深處可言仙。

謹和小湖先生原韻

嶠南寶派又湖南，裕後承先百世覃。
八月芙蓉清水出，五株楊柳暮煙含。
家聲不絕詩書禮，天祿兼傳壽貴男。
遠處憂君然後事，願將小酌日相酣。

過四宜亭吟【春宜聽溪，夏宜避暑，秋宜玩月，冬宜咏雪主目。金在疇】

六宜後有四宜亭，脩竹清端似舊停。
一來荔駒來客子，千年華嶼返仙丁。
門臨潁水心將洗，軒挹弄垵意獨醒。
不讓輞川多別景，佛庭花艸合丹青。

似此翁宜有此亭，四時長欲我車停。
一生活潑魚知丙，千齋翱翔鶴返丁。
天下皆秦人必利，世間獨楚子何醒。
竹樓二助誰能減，自有靈垵未了青。

太行亭端陽

端陽正是雨之餘，忽地相逢似我居。
夏令猶能鳴以鳥，楚魂尚在葬於魚。
采樵微路時登麓，濯稼孱流午決渠。
門外水淵臨咫尺，恐他持戒不如初。

己未七月一日中伏，會于燕川李小湖精舍

主翁爲卜客來時，喜事人間雨亦知。
椒瘴亘天庚熱久，梧陰滿地午暉遲。
萬愁拋却無如酒，一樂交爭可與棋。
自是遊筇歸未得，海山縹緲夕雲移。

南極星明接少微，世間無是亦無非。
青雲淡薄烏紗帽，白髮蕭涼鶴氅衣。
可使百年心共評，莫言七月面相稀。
三農慰盡須臾雨，數片晴嵐繞檻飛。

己未七月，過靈光香潭齋有感

三日甘霖適此時，烟花如畫太平枝。
世交皆與黃金盡，公道猶餘白髮垂。
菊叢露浥將爲浮，梧葉風鳴可以詩。
屹彼香潭長不老，千秋孝思使人知。

閏七月日，過碧柳洞

隔隣梧柳自成林，一則扶陽一斥陰。
秋水臥龍應有夢，暮雲倦鳥豈無心。
必須當事爭先後，不使論文計淺深。
七月漸多霜意思，豐山隱隱九鍾音。

閏七月望翌日，會于隱谷齋

霽天如水夜如年，暮境悲歡分兩邊。
萬木秋聲人易老，一樓月色客難眠。
危程返似關中蜀，怪說何多海上燕。
自此豐穰均飽德，稻花雨露見平川。

詩境風流孰有司，相逢相別又相思。
黃華要客亭亭立，白髮欺人暗暗窺。
德且有襄歌以鳳，遊能無逸鎖於龜。
門前一帶滄浪水，清濁之間任所爲。

大明梅【傳心梅】【己未】

淚吾先帝賦吾梅，不識曾年渡海來。
小夏山川無處種，大明雨露有誰培。
却從四老手中落，且向百花頭上開。
夜夜相思歌望美，汴京雪月滿高臺。

傍梅欲問汴陽城，義士忠臣不盡情。
白雪多添鮫女淚，黃昏暗動玉人聲。
可憐旅夢離中夏，不忘皇恩號大明。
瘦骨稜稜依舊立，滄桑萬里說前生。

謹輓後溪

箕穎東南鍾此賢，無疆福祿降于天。
承先裕後當然地，猶有清風萬古傳。

己未重陽日，會于望雲齋 三首

登亭老少不同庚，莫把心田使歇耕。
傲世青雲蟬已薄，驚人白髮鶴初鳴。
霜花要客秋當馥，風樹思親日復萌。
爲賀太行山一片，座無人傑誰能爭。

薄言相別又相邀，九九爲期不待招。
紅葉詩成吾自愛，黃花酒熟爾同消。
田園也好開三逕，文物猶餘講八條。
孝思油然而不覺，白雲明月任逍遙。

玉宇初晴曉色寒，漁樵舊路下江干。
亂峰雲合叢叢白，老樹霜侵葉葉丹。
道且未明千以後，性能已落四其端。
一杯甘飲黃花露，晉末春秋寫亦難。

詠犬【己未】

犬韜風雨動龍蛇，臥睡花陰曲似蝦。

丹忱有主同稱馬，白屋無人各識蝸。
秦地功爭天下鹿，蜀山影射日中鴉。
一聲群吠柴門客，恰似池塘鼓吹蛙。

謹次李希齋原韻【己未】

志在希賢號此齋，居然泉石極清佳。
晚年卜宅隣陶謝，上古稱民夢葛懷。
繼世猶傳三不朽，安貧自足一生涯。
嚼華踐實多餘力，長使兒孫孝友諧。

露蛩【己巳秋】

切切吟蛩露與寒，蕪園深處試回看。
短身隱草愁全濕，微語穿林惜未乾。
懶織婦驚風入戶，思鄉客坐月橫欄。
秋聲較爾知多少，易感人間白髮殘。

謹賀松塢李鍾麟氏廻甲韻【庚午】

餘慶綿綿老此翁，芝蘭交翠棣華紅。
鶴山爲壽爭相似，松塢於人莫與同。
碑口風騰千里外，樽眉春溢一陽中。
願令好事傳圖盡，半是神仙半是雄。

三尊全備六旬翁，慈母高堂愛日紅。
不與汾陽前後異，乃知范老古今同。
雀衫一一趨花外，鶴笛雙雙弄月中。
數句猶能供祝賀，不須當日共爭雄。

悼亡妻【庚午】

同居三十二年秋，生子治家雪滿頭。
可惜斷絃傷與斷，却隣流水淚添流。
有誰偕老恩情重，無我相尋夢寐求。
一臥窮山春草宿，鄉鄉應記此鰥愁。

老鰥述懷【庚午八月秋夕】

兩親不在又喪妻，踽踽涼涼莫與齊。
秋去無書愁塞雁，夜來不寐限晨鷄。
當頭婚嫁誰相議，滿膝兒孫獨自携。
踰甲風霜吾亦老，忍看落日下山西。

晉州矗石樓

今古傷心涕泗流，晉陽城外一長洲。
美人情似南江水，壯士高於矗石樓。

義與生生常有氣，事當死死更無愁。
輝光非特青邱止，萬國行人作遠遊。

謹輓小湖李先生

五福無疆萃一身，忘年相合好爲隣。
恩添白髮深憂國，事在玄亭善孝親。
滄海連天鴻爪遠，梧陰滿地鳳毛新。
秋風痛哭紗峰路，白露蒼葭淚我中。

壽福康寧八十秋，綿綿餘慶滿前頭。
聲名南斗山同立，心事西川水自流。
天上神仙應是伴，世間富貴更何求。
黃花酌罷玄亭外，秋薰翩翩謝舊樓。

忠賢閣壇享時有感【羅州本良面新村里，文化柳自湄號西山父子
配享】【庚午秋】

忠翁賢胤共垂名，廟貌如新太肅清。
誠寓羹牆輸遠慕，禮陳俎豆格神明。
丹忱報國無遺憾，素履安貧見實情。
數郡衣冠來助祭，定知餘蔭子孫榮。

李松塢回甲韻【庚午秋】

鶴山不老賀松翁，彩舞翩翩耀日紅。
孝友特於今世罕，仁慈亦與古人同。
功名一葦江湖上，德蔭雙蘭雨露中。
閣外清川流移海，何須專美甲雌雄。

柳川與諸益吟

隱居無事掩柴扉，着意東來路轉微。
一炷書燈違舊約，數莖白髮帶斜暉。
天寒猶喜庭梅瘦，歲熟方知野稻肥。
中始風雨今將暮，誰識南州有岳飛。

偶吟

群陰剝盡一陽新，至後春心不厭貧。
世事分岐多險路，人情難測摠危津。
已知太極元無極，乃擇芳隣必有隣。
憂國每多林下屋，如今勿負老成人。

冬至【大同詩壇】【庚午】

天時人事莫相催，剝往年年復又來。

赤粥穰除門外鬼，黃鍾吹動管中灰。
朔朝暖候新占莢，凍裏疎香早見梅。
一線陽和從此布，花開時節送迎杯。

一線微陽子半催，地雷動處送春來。
書雲古觀朝頒曆，貢襪深燈夜剪灰。
暖律乘時鳴嶰竹，暗香受氣放江梅。
復長喜有邦家慶，日晏滿山萬壽杯。

偶吟

古今不遇摠悲歌，況此人間白髮多。
虛閣梅花春入曉，寒沙蘆荻雪增波。
國憂深切江湖遠，鯨夢翻驚歲月過。
忽地錢荒租稅急，門前徵吏此將何。

偶吟

愧余松老獨亭亭，誰道平生不改青。
局上人情翻易覆，樽前世事醉難醒。
烏知哺母爭棲巷，鷺學漁翁巧立汀。
明春風浴應多事，己與冠童共對局。

偶吟

家本清貧守孝廉，隱庄卜築歲將淹。
春來風浴誰同點，老去田園可學潛。
梅塢寒衝香入戶，茅堂冰結玉爲簷。
書生事業多辛苦，淡食無妨半蠶鹽。

偶吟

一生苦樂與誰同，白髮來時自號翁。
天際江流巴字字，雪餘山色楚叢叢。
世途危險羊腸外，人事奔忙蟻夢中。
梅下陽春消息至，詩家題品未全空。

偶吟

倚樓終日對清江，又見梅花到雪牕。
赤悃有懷依北斗，白頭無計老東邦。
寒禽啄粒來三四，遠雁驚秋度幾雙。
萬事虛涼成一夢，願將春酒滌吾腔。

偶吟【庚午】

柴門一關卽通衢，數尺書童不待呼。

安使丹忱依北斗，羞將白髮老西湖。
思親每切風鳴樹，買屋先看月上梧。
已斷絃琴難復續，百年憂樂與誰俱。

至後謾吟【庚午冬】

世味嘗來似飲沙，依巖小屋向陽斜。
纔經冬至灰飛管，故擬春光雪作花。
感慨曾多論劔市，貧寒不厭讀書家。
高吟望美無人見，北斗滄茫水一涯。

白鷺

屬玉飛來秋水生，荻花明月幾多情。
鷗班共點朝烟濕，鷗友相尋暮雨晴。
雙翻飄空垂雪影，一拳依岸立江聲。
規魚暗與漁翁近，西塞山青數篔橫。

黃花江國老平生，已識人間遠害情。
御史車前霜欲墜，釣翁蓑外雨初晴。
羽毛傍鶴爭秋色，拳爪窺魚踏水聲。
今古猶餘亡國恨，振振我客淚縱橫。

若考作室其子肯堂之詩【解見書傳大誥篇】

穆考營臺民子來，鳴鳳復聞岐之陽。
梓材可使塗丹雘，武成必見筐玄黃。
循其規矩善繼述，國祚無窮于有光。
沖予小子繼考翼，作室相傳王者堂。
方其相宅卜豐鎬，肇以爲基監夏商。
東山風雨大禾偃，恐或中邦摧棟樑。
堂堂大義諸天下，胡乃三監侵我疆。
邠都舊業狄何侵，牧野前塵鷹乃揚。
胡爲王室復如燬，洛水東南愁赤魴。
吾親在堂子焉往，經始營之心不忘。
翬飛制度日麗天，燕翼規模星聚房。
寧王穆穆在天靈，峻宇雕鳴無內荒。
堂前進退負辰肯，曰汝東方弓矢張。
玄龜協吉卜洛墟，白雉呈祥來越裳。
嗟乎婦子室家宜，萬邦豐年天降康。
堯塔三等舜回門，景慕心中羹與牆。
陰崖草木格苗禹，旱天雲霓征葛湯。
明王從諫木從繩，於萬斯年姬籙長。

辛未二月望 抄畢

黃金萬籩不如教子一經【詩】

金玉非寶惟賢寶，學優可仕今朝廷。
先生莫說燕臺馬，孺子先拾陽武螢。

輕如萬鎰重一字，台閣珠衡高下星。
賢家父子繼爲相，不惜贏金先教經。
鄒鄉產業戒清白，石渠榮名垂汗青。
秦金銷盡燒書爐，古爲苾花秋泣砵。
金人未緘魯人口，萬不爲多言可聽。
銅山暮雲聚亦散，錢樹春花開且零。
三遷可接孟氏隣，何物人間生此馨。
扶陽古家教子力，一經春秋餘典型。
功名已遂變鴟海，詩禮猶存趨鯉庭。
金雖謂萬不如一，勤苦青燈今十齡。
黃河聖運一千載，濁兮清兮分渭涇。
三增駿價北過冀，萬里鵬程南徙溟。
金梧朝日鳳將雛，一出東方天下寧。
書中自有萬鍾祿，守口無言瓜子瓶。
麟編自在魯二酉，牛糞何煩巴五丁。
良田莫如教一藝，日新工夫盤有銘。
帶經而鋤鋤不顧，台躔夜傍文昌星。
三千書散蠹出海，二南爲學鯉趨庭。
春絃夏誦玉汝成，鄒魯遺風今始聽。
明時須用讀書人，萬金非難難一經。
芸香古閣積五庫，瓜子誰家藏十瓶。
非民則璜繼爲相，願致唐虞時午亭。
于時一出魯人諺，積金家家春夢醒。
王孫門外鐵山紫，寡婦臺前錢樹青。
平生自大富家翁，畫閣珠簾環玉屏。
潭潭相府水如清，一部明經今可銘。
潘溪月隱太公釣，陽武秋懸孺子螢。

黃籊不如對黃卷，一點燈花猶未零。
千金不惜一顧價，牡馬駟駟瞻在垞。
良材可使用衛杞，長價何須論薛萍。
韋編三絕寶惟賢，吉士思皇生此廷。
三遷舊向學俎豆，黍稷非馨明德馨。
千斤銷盡蕝入窟，萬里扶搖鵬徙溟。
箕裘舊業善繼述，大儒家風鍾地靈。

倚杖觀魚【賦】【諸葛亮。三國誌】

周果獲於西釣，趙不敢於東漁。
若依水而相忘，非緣木而所求。
潛雖伏而孔明，非觀漁而觀吳。
既自我之出矣，安知爾之樂乎。
杖安危於蜀漢，自先帝而魚水。
嘆王室於潁鮐，哀民生於涸鮒。
鳶飛天而上察，人莫測其變化。
龍云亡於永安，兵鱣鱣於五路。
南自蠻而搖尾，西至川而集鱗。
鼎峙亦其釜中，室憂切於宵旰。
藏萬甲於胸裏，倚小杖而何之。
將謀責於先覘，兵機密於暗圖。
魚亦我之所欲，一路盡於小池。
非周王之在沼，異莊老之立濠。
不在此而在彼，日盍往而觀乎。
某從路而某至，或潛淵而或躍。

意在北而圖南, 布茶局於魚腹。
不如退而結網, 解三面而改祝。
頭綸巾而偃仰, 手羽扇而指麾。
持一柄而生殺, 後必求於枯肆。
常山陣而首尾, 膽一身於子龍。
占丙穴於南方, 整甲兵於北征。
從此逝而活潑, 明日出於魚鳧。
西城琴而却懿, 魚出水而聽之。
魚貫進而兵仙, 漢方興其亦蜀。
鱗於水而開陣, 腹爲浦而布石。
盡符策於小池, 使彼魚而縱觀。
某從某至之霽, 或潛或躍于淵。
設香餌於漢川, 取魏如其取魚。
潛雖伏而孔明, 沛如縱而後主。
手持扇而指麾, 一羽毛於雲霄。
龍賓天於永安, 兵鱗接於五路。
招蜂轉於東吳, 起梟雄於南蠻。
以百官之魚目, 上難測於合變。
兵機密於潛圖, 倚我杖而何地。
醒老鶴於草堂, 騎小驢於梅橋。
從某處而某至, 分四路於池邊。
曰有術而必觀, 魚何負於小臣。
丹釣瑾而齊封, 白登舟而周誓。
寧風雨而臥龍, 我知魚之樂乎。
朝宗海而爲漢, 魏不敢於西漁。
晉陽蛙而脣齒, 常山蛇而首尾。
意在此而圖南, 看變茶於魚腹。

圉圉然而悠然，運一柄於生殺。
哀民生於鮒涸，嘆王室於魴頰。
開將韜於八陣，渾軍令於三國。
西仗威於午谷，南有嘉於丙穴。
觀於此而有術，先我憂而後樂。

四月南風大麥黃【古風】

帝垂黃裳先薦麥，四方風動南薰殿。
一盃雨浥渭城柳，兩歧秋入漁陽穗。
山深始聞伐木聲，麥熟時兼黃鳥啼。
江南昔日我逢君，八月西風秋種麥。
春薰始占一雨青，臘根曾經三雪白。
蕭蕭匹馬向北風，我白君黃爭食苗。
離懷欲寫麥光紙，四月清和風自南。
邠郊日暖秀此萋，待野天晴吹彼棘。
峨洋一曲少知音，試看庭前桐葉長。
天時人事若相待，大野來牟秋意思。
連天遠穗漲碧波，落地輕花搖白雲。
黃冠野老失黃犢，一色東南何處尋。
今生粟里幾叢菊，却似江陵千樹橘。
迢迢一鴈遠送南，滿地黃雲人不掃。
三登天下可占豐，六來宮中能按節。
雙南秋色載我車，之子歸程方贖金。
齊牆桑樹已成繭，出水秧苗方聽蛙。
知風之自受厥明，明日田家觀鉶刈。

卷五 遲松稿

遲松精舍原韻 重出

有松爲護我林泉，偏愛遲遲翠共連。
敢擬棟樑支大廈，思沾雨露自仁天。
疎枝落落朝擎雪，密葉陰陰暮鎖煙。
生在窮山俱不遇，歲寒相守兩悽然。

遲松精舍講會韻【丁丑三月三日】

萬事思量揔廬樓，當時不遇幾名流。
吟詩不覺花生吻，對鏡還羞雪滿頭。
午霽前川隨柳岸，波清上巳祓蘭洲。
一觴一咏惟吾志，莫向東風惜此遊。

遲松精舍講會韻【丁丑九月二十日】

遲遲松畔結吾廬，七十年來恐負初。
笑殺謾憂今世事，平生浪讀古人書。
悲秋白髮心何壯，失路青雲夢亦疎。
同志同聲多惠顧，黃花泛酒興猶餘。

醉宴原韻【戊辰四月二十一日】

每憶青年侍兩幃，遠遊爲罪似儂稀。

古人已有傷風樹，今日難忘戲彩衣。
門外蓬桑違素志，庭前梧竹動新輝。
壽樽絲管爭相賀，自愧心中六十非。

謹次金秉來小山亭落成韻【丙子十月十七日，孫佛面石嶺】

小山落宴筮初冬，爲被招勤到此逢。
正路書中師退栗，遐齡物外伴喬松。
新潮風雨龍深臥，舊國門閭駟可容。
又重琴瑟祝偕老，雪後盃盤春氣濃。

謹次錦岡金奎鉉枕水亭韻【丙子三月日，靈光郡南面玉瑟里】

枕水亭宜臥看山，也應他日雨人間。
雲開島嶼沙頭出，風急柁檣堰口還。
戀闕北望雙鳳遠，移家西渡一龍閒。
夕陽濯足仙書讀，門外奔忙摠不關。

謹次鄭先生栢圃願韻【丙子三月日】

山深冬栢幾經春，所過惟賢精彩新。
晚卜菟裘緣綠野，早辭軒冕絕紅塵。
漁樵爲伴將營老，松竹成隣是可人。
不獨幽居長若此，歲寒然後始知真。

麥雨【丙子三月二十八日，箕穎詩社】

麥雨箕陽歲在春，旱餘枯槁霽天新。
不爲破塊均施澤，可使添根細浥塵。
五穀有功先熟者，一朝無病快蘇人。
灌花種樹皆餘事，自此豐年辨假真。

麥氣乘春雨亦春，田家生活却添新。
相公老圃三登望，太守名亭一掃塵。
施澤相交丁甲日，呼飢莫歎癸庚人。
老農曉說豐年夢，壽城烟花遍是真。

一信契韻【丙子三月十日】

春天爲卜日清明，不必逢場說重輕。
野迥蒼烟芳草色，山深白晝杜鵑聲。
立馬看花風掃逕，聽鶯隨柳雨過城。
信若四時堅似石，願言不負一平生。

地隔東西時景明，衣巾飄拂午風輕。
群芳不伍知蘭臭，衆樂同參辨玉聲。
當世英雄遊海郡，是時花鳥滿山城。
知應他日耆英會，白面青襟洛下生。

羅州鄭安民回甲韻【丙子三月】

憶昔劬勞感自生，莫將舊甲問容成。
乙浮玉井紅蓮藕，丁返華橋白鶴聲。
百世清風先種德，四隣無日不稱情。
滿庭彩舞猶堪賞，門外蹄輪喜送迎。

臺石樓

雙節爭高一臺樓，晉陽城外大江頭。
義娘巖上花如雨，烈士祠前月亦秋。
爲國空懷天欲暮，何人不淚水添流。
白沙翠竹長林遠，今古風烟未盡收。

再建旌閭【牟截江諱恂，中宗朝，命旌於嶺南晉州，去甲戌春，再建于全北長水郡山西面乾芝里眞田，故去再建旌閭】

顯晦興亡揔是天，魯陵春草綠年年。
禮存必式追前聖，功告重修繼後賢。
泣筍不忘供子職，傾葵聊憶侍經筵。
截江流水鳴今古，一片羹牆永世傳。

旌忠旌孝莫非天，首建何時又此年。
駟馬能容門戶大，鳳鸞相集子孫賢。
恩添棟宇瞻望處，慕切羹牆陟降筵。

若使後孫遵此意，山平海竭乃應傳。

遊新光面三德里，與南堂牟大赫同吟【丙子閏三月二十七日】

雲樹蒼茫海上樓，幾時分手又迴頭。
晚花多得三旬潤，大麥將占四月秋。
詩酒論今真勝會，衣冠尙古盡清流。
看君架屋皆參朮，醫俗經綸任意收。

四月清和，會米山金後翠齋

生增燕鴈各西東，幾度相逢此日同。
立志便宜看瘦竹，知音何必撫孤桐。
海天淡蕩搖空翠，春夢支離惜晚紅。
罷釣歸來樽酒煖，浣花江水夕陽中。

謹次錦城祠【鄭海南忠肅公】

錦城下馬拜先生，有志經營事竟成。
將略非凡鍾嶽氣，君恩至重樹風聲。
名垂宇宙瞻遺像，禮享春秋感舊情。
自是武侯同一體，黃鸝碧草好相迎。

丙子四月望，與諸益登碧草後山月明山

送春餘興又登臺，四月風烟一路開。
黃鳥啼時求友去，白羊歸處問童來。
誰云大麥先登歲，只愧甘霖已乏才。
山是月明多得月，莫辭醉倒夕陽盃。

謹次同福吳亨南愛蓮亭【壬申六月】

愛蓮本自我方塘，每喜秋來一味涼。
霽月泉寒通活脉，凌波橋臥踏清香。
鏡中如入搖搖舫，花下宜行曲曲觴。
日學濂翁觀太極，不同凡世與爭長。

古木

早得生生天木三，數枝東北一枝南。
將營大厦干霄漢，返作橫橋架石潭。
老去全皮烏似漆，春來餘葉碧於藍。
莫言枯槁還無用，已飽先皇雨露甘。

謹次迎月亭

門對滄溟水至清，悅然如見魯先生。

須臾打破千門暗，頃刻榆揚萬國明。
暮落黃樓辭夕影，簫過赤壁答秋聲。
下階再拜停盃問，何幸名亭適此成。

聞鴈【丙子十月日】

夜土高樓不掩扉，數聲新鴈向人飛。
湘靈鼓瑟秋生竹，漢使傳書曉監薇。
奈此月明河淡泊，又重木落雨霏微。
催吾白髮多緣汝，居在江鄉計已非。

草心亭韻【丙子】

寸草思親始構成，少年峯下老先生。
山迴蘆嶺叢叢色，水抱茅川曲曲情。
古巷無人雲自悅，方塘有鑑月猶明。
憑欄不覺蓬瀛遠，風便如聞玉笛聲。

謹次牟斯文雙澗亭 刪

澗亭奇賞遍春秋，數尺橫橋架碧流。
不是蓬瀛方外在，更從箕穎此中留。
半松半檜層層面，間塔間巖曲曲頭。
莫使桃花爭逐水，恐他漁子再來求。

箕穎詩社韻

箕風穎月載於詩，詩不宜乎社亦宜。
牽釣然疑牽犢渚，掛弓指點掛瓢枝。
酒湖西濶浮齊遠，文廟東臨去魯遲。
到此浮生多曠感，泡花浮沒古今卮。

鈴泉亭韻【甲戌】

世耳鈴鈴我謂靈，醴溫酒冷摠難形。
一條灌野甘時雨，萬顆噴珠散曉星。
朝日浴毛巢鳳紫，夕陽倒影老梧青。
莫道名泉無定主，翼然臨者是誰亭。

和竹軒崔述煥【甲戌】 刪

孤竹清風繞此堂，堂堂大義首之陽。
青寧自愛隣山水，素操多經耐雪霜。
松友盤桓陶靖節，石老拱揖米元章。
深林明月彈琴夕，誰識峨洋引與長。

贈退窩金永瑞【乙亥】

萬事思量獨掩扉，晚年勇退似君稀。

林泉隔戶仍高臥，茶酒登筵未易歸。
公道難禁雙鬢雪，世塵不染一蘿衣。
潁流洗耳無今古，莫與時人定是非。

明倫堂重修後講會韻

鳳鳴衰世傷朝陽，多士踴躍會此堂。
文杏古壇甘化雨，猗蘭空谷襲餘香。
暮春言志宜風浴，永日舒懷足咏觴。
萬口咸豐歌且頌，碧箕清潁與爭長。

米山聞江亭夏日敘懷【甲戌六月二十八日】

聞道浣花江水長，上流知有小潯陽。
飛蟬啁晰鳴山郭，倦鷺徘徊度野塘。
大夢難醒誰似亮，獨園口成子非光。
算來無物消炎熱，半日詩歌半日觴。

長霖【甲戌】

長霖不斷水橫流，多日茅堂破寂幽。
松逕潦添愁老鶴，花江波漲上新鷗。
厭聞古圃風搖箒，忍見今霄月隱鉤。
自此田疇天降寅，生民豐樂更何求。

暴風雨大作

初謂甘霖歲乃登，兼旬連日害還增。
變爲桑海籌多錯，亂入荷塘鑑未澄。
家屋沒江漂萬戶，橋樑隔岸落千層。
生民失所濱於死，欲訴蒼天恨未能。

四皓

鳳漢鴻秦各有時，一含蘆葉一鳴枝。
定儲歸路還無事，坐討圓枰下子遲。

向日葵 刪

東向西傾日在天，負暄全施不勝眠。
守紅太液蓮相似，天子呼來一上船。

觀楓【甲戌九月】

秋氣西橫路指東，楓林深處坐生風。
曉來受變初霜白，老去爭光返照紅。
地坼金剛千里外，逢廻玉女百花中。
世間皓髮如能染，多有天翁不計功。

謹次陳龜山晬宴【丙子】

龜翁壽福莫非天，立雪清儀似昔年。
黃菊樽前秋已九，碧桃海上歲將千。
追思父母劬勞日，端坐兒孫彩舞筵。
且有門生修契好，斯文進就不期然。

小山亭九老會【丙子九月】

春秋契義也堂堂，三九追從卽一陽。
白髮苦吟何太瘦，黃花多醉不知香。
吾生難得英雄路，故友多逢竹馬鄉。
餘興爲歌歌隱操，嶺雲叢桂與爭長。

羅州潘陽詩社【乙亥四月望】

青山玉立紫薇天，老境登臨又此年。
簞瓢俱是貧居巷，花柳猶餘午過川。
句拙難期濃同格，樽深何惜醉成眠。
夕陽將盡須臾月，疑是滄溟魯仲連。

新月【靈光築城詩社】

珠簾捲盡玉峯東，如在唐虞上世風。

千里相思孤帆外，萬家爭得搗衣中。
遙憐塞卒吹孤竹，無怪山翁撫尺桐。
最是重新夫子廟，寒潭秋色滿晴空。

謹次三窩朴斯文復圭

風雨昏衢未易晴，滄浪數曲一縷清。
青雲失路兼無夢，白首窮經自有情。
只可當時磨不玷，須令後世振爲聲。
問余誰愛蓮花說，鐵瓮巖巖防意城。

密陽朴氏潭陽月山齋韻

月山依舊白雲深，肯構堂中萬古心。
祥鳳遺毛仍在樹，慈烏反哺却忘林。
誠陳俎豆瞻儀貌，慕切羹牆聽咳音。
報國孤忠今不變，莊陵松柏立千尋。

新月

天地澄清月滿空，世間瞻仰古今同。
六塵非洗初過雨，萬籟俱虛不動風。
宛若羣山遊漢上，却疑高士出齊東。
下階那惜終宵拜，夫子門前道貫通。

箕穎詩社餞春韻【乙亥】 刪

送君一上穎陽樓，伊昔紅顏今白頭。
三月不多明日晦，百年如許大江流。
子規啼罷花含淚，蝴蝶飛過草喚愁。
別路無言折楊柳，誰憐苦海此生浮。

甲戌二月初四日，與心史辛東旭後翠金東昕止山李敏
煥，會于米山齋仲春述懷

雪中二月不知春，五柳門前境亦真。
寂寂深燈山屋夜，悠悠歸路海門晨。
青眸已慣重來地，白首元非一見親。
爲被主人多款曲，投車設榻古今陳。

早鶯

早管春風我亦鶯，千門萬戶假先鳴。
却憐全體金爲色，更喜嬌言玉以聲。
莫使打鶯征婦夢，自然求得故人情。
歲且如流山酌晚，任他白髮共誰爭。

謹次大洞龜山李敦吉九曲亭

舉世瀉泥子獨清，小亭遠挹武夷清。

方塘寶鑑與相照，爲俟黃河千一清。

務安郡石谷面九山里，張珉會先親孝友堂韻【甲戌三月】

公家孝友已多年，餘慶綿綿摠是天。
恩偏蓼莪三復涕，情深棠棣一根連。
繞庭和氣花交樹，縷世長源月滿川。
仰見華扁名義重，遊人何事說風烟。

竹溪亭韻【張珉會】【甲戌三月】

晚卜菟裘乃築成，竹青溪白兩宜名。
千竿傲雪仍交翠，九曲鳴灘獨自清。
錦浦帆晴輸遠影，牧菴鍾曉區寒聲。
緬思六逸今安在，移入君家世世榮。

咸平箕穎詩社【惜春韻】

今春惜別倍前春，誰把長繩繫此辰。
乍雨鳴窓流水急，晚風拂地落花新。
擲籌恨少紅顏女，把鏡知多白髮人。
伊後遲遲重到日，一樽石榻掃荒塵。

內藏山觀楓 刪

夕照西流楓樹東，誰教濯錦曬高風。
任他鬢髮秋增白，憐爾形容老亦紅。
猩染叢叢雲影外，鴉翻葉葉澗聲中。
筭來移作金剛勝，知是乾坤造化功。

內藏秋色遍西東，疑是金剛落晚風。
老去渾忘雙鬢皓，夕陽晚照五臟紅。
詩人吟冷吳江外，病客難醒楚峽中。
却似武陵桃水遍，莫教漁子坐臨功。

龜隱亭韻【羅山面】

肯堂一念孝根天，不敗龜山太古年。
石逕草生春履露，墓廬樹老夕和烟。
門前垂柳同元亮，月下疎篁想仲連。
書舫浮如芳沼葉，登欄不覺自油然。

老將

自吾爲將善防秋，白首蹉跎歲月流。
羌笛夜寒千里塞，捷書天達九重樓。
樽前寶劍花含淚，馬上戎袍草換愁。
田舍老農多識面，不如歸臥野功收。

謹和昇仙洞私塾罷接韻 刪

草塾從容對瑞山，靜中絃誦自安閒。
耕漁舊業遵伊呂，詩禮遺風學孔顏。
琴古無絃魚出聽，階空有篆鳥飛還。
明年此會知何處，瞻彼青峯放白鷗。

米山耆老會

潯陽真境再來尋，歸鳥翩翩却忘林。
酒海遠將孤帆出，米岑長在白雲深。
他宵雪月宜相訪，此世冰淵恐或臨。
自是江湖多故舊，憂民憂國一般心。

田家禦冬

勤在春秋戒在冬，劇寒之節易相逢。
拾花供絮多鳩聚，積草成囤小蟻封。
預算豈憂當此境，甚貧莫可善爲農。
妻孩僅免啼號歎，笑指門前雪滿峯。

謹次觀瀾齋韻

盈科一脈接滄溟，有術觀之地亦靈。

濯足何嫌清與濁，釀泉只可醉能醒。
先生東蹈秋瞻月，舊老西來夜現星。
望美歌終天日暮，鷄江澄白鶴山青。

枕水亭

一灣流水枕空山，晚卜菟裘老此間。
地坼湖平孤帆出，天晴木落白雲還。
鷺橫西塞飛何去，龍在南陽臥亦閒。
除是風烟多好客，柴門終日不須關。

米山精舍，與辛心史東旭金後翠東昕叙懷【乙亥正月】

偶來相見道源真，何事吾生摠不辰。
舊國衣冠非復舊，新年風物漸生新。
青雲失路功名薄，白首當樽義氣親。
問君幾日遊京社，雪後梅花漢水濱。

白雲精舍，與辛心史東旭金石溪鳳海叙懷

瘦策遲遲西復東，山猿吠我白雲中。
詩情淡泊江湖月，世說紛紜道路風。
雪片可憎雙鬢皓，太陽不負寸葵紅。
君家積德多餘慶，鸞鵠趨庭鶴下空。

謹次李松菴時中氏齋韻【乙亥二月】

猗彼蒼松護艸菴，春秋柯葉覆東南。
晚來隔水遲遲磣，老去依山落落巖。
不負藍田哦以二，獨存栗里逕之三。
頌恩餘澤多滋養，賴被先天雨露甘。

松菴齋會吟

白首悲譌不遇時，偶然一合似相期。
梅如玉瘦春猶早，麥有金肥雨奈遲。
舊國山川如復見，君家兄弟已前知。
松間老鶴曾栖處，毛羽翩翩月滿枝。

白雲雪夜，偶成花樹會

臘天風物漸清新，冬至陽生又見春。
明月來時高蹈士，白雲深處隱居人。
松沙故郡非遐土，花樹今宵卽我隣。
煖酒寒燈梅下屋，四翁相對各言真。

續吟葉韻

瑞山十里我東行，叙禮初筵酒數傾。

梅將衝雪初生意，松亦啣風遠轉聲。
白首憂深箕子國，青雲夢斷洛陽城。
門外滄桑多變幻，不如歸去故山耕。

滯雪

日暮天寒歲色窮，紛紛大雪下長空。
美人簾幙梨花月，處士庭園柳絮風。
三尺漸加門以外，一帆遙向剡之中。
灞橋清賞莫言滯，梅下鞭驢西復東。

臘月叙懷

雪滿庭除不掩扉，逐風穿樹作花飛。
孤舟剡曲人安在，小屋蒼山客未歸。
五夜自鍾催刻漏，一陽爲線禦寒衣。
桐煙渭月今千載，知是菟裘舊釣磯。

亂峯雪色四無邊，爲把吟觴幾日連。
三尋別離多此地，一生窮達莫非天。
疎鐘殘漏聽鷄後，險水危山立馬前。
此去相思雖有月，也應相憶不成眠。

戊寅六月，新光面白雲里詩社，與主人後溪金鳳海對吟

只願時豐老太平，長霖何事未能晴。
小堂已識龍深臥，衰世難聞鳳又鳴。
石上題詩堪可語，牆陰種菊不須耕。
白雲滿地青山暮，悵悵無由望帝鄉。

戊寅十月，白雲社，與後溪金鳳海樵山尹佑燮弦堂尹滋善吟

溪雲長在臥龍村，一逕新梅月未昏。
誰謂九分曾踏實，已知百事可咬根。
羞將白髮朝臨鏡，喜對黃花夕把樽。
處世莫如聾啞好，悵然逢別贈何言。

戊寅至月，雪天雲社，與主人後溪金鳳浩翰雲吟 刪

石竇鳴泉凍不流，天寒爲劫髮先秋。
詩壇故舊貧爲病，苦海人生半是浮。
月上思君堪北望，山中要我任東遊。
惟君最恨歸家晚，楚月瀛雲摠管愁。

己卯三月，鉢峯山詩會

老去逢春倍惜春，靜觀萬物我懷新。

英雄盡在黃金市，花鳥何愁白髮人。
縱有年年成此會，願言日日好爲隣。
鉢峯豈是僧家物，長使吾儒上可親。

過燕川，與晴雲愚石綱齋吟

燕里山色出笻頭，芳草垂楊遠近洲。
飲水讀書貧亦樂，對花酌酒老何憂。
那堪門外滄桑變，最惜人間歲月流。
門前流水清如許，入室依如入畫舟。

乙卯四月晦日，箕穎詩社會吟【柳絮】

江風駘蕩雨霏微，柳絮輕輕各自飛。
亂落空汀魚聽立，迥過別墅鷺含歸。
釣翁獨坐霜侵髮，浣女雙鳴雪打衣。
淵明去後無人拾，任意顛狂孰是非。

四月初十日，羅州龍山詩社，移會于柳川歸來亭

錦北箕陽一路開，醉翁亭上賦歸來。
論文不是尋常句，序齒將行次第盃。
竹館琴聲魚出聽，花塔篆跡鳥飛迴。
年年此會知誰健，只恨人間白髮催。

三月晦日，九老會餞春詩

餞春今日喜相逢，只恨年年減舊容。
流水東歸芳艸渚，夕陽西下落花峯。
餘懷且可聽黃鳥，去路應須伴赤松。
以力周旋如可挽，數千兵甲在吾胸。

雪山

數尺增高萬仞山，山光爭與白雲閒。
梅岡小屋龍深臥，松嶺危巢鶴未還。
老釋忘形寒有衲，夸娥掩面玉爲鬟。
處處素封多石廩，豐年知在我人間。

題光州崔氏雲林堂

雲林風物已多春，數棟亭亭泉石憐。
城市隱居名不市，世人知否號何人。
灌爲曲水觴如羽，涵得方塘鑑未塵。
進退難忘憂社稷，瑞山朝旭入鮮新。

謹和張蘭坡東烈回甲韻

南飛笙鶴下青城，認是仙鄉籍姓名。

子子能供千歲壽，鄉鄉偕老百年情。
親恩欲報多今日，家道安貧足此生。
鐵樹春風長在此，休將花甲向客成。

朴耕山迴甲韻【務安石谷面，菊隱朴綵和】

鐵花珠樹算餘年，五福相隨一理連。
黃菊東籬今隱逸，碧桃西海舊神仙。
已知種德長垂後，應見延齡卽在前。
舞彩兒孫能繼志，君家厚祿定由天。

孝烈婦朴氏【山南里，全伯鍾慈親】

兩全孝烈一平生，閨範貴開婦德明。
義以三從斯莫重，源於百行獨爲清。
孤松只可持寒節，春草猶能報寸情。
爲國求忠無此外，佇看門戶世光榮。

寒食

暮春寒食艷陽天，憂國懷鄉淚萬千。
江北江南芳草際，人來人去綠楊邊。
牧童村暗清明雨，杜宇山深寂寞煙。
綿上孤魂誰復酌，至今有塚謾相傳。

寒食東風二月天，家家近住綠楊邊。
落花有淚人歸汶，芳草無烟客過綿。
憐爾紅顏多此日，愧吾白髮又今年。
曲終望美誰能會，獨向青山拜杜鵑。

聞鴈

瀟湘明月洞庭烟，一路忙忙遠接天。
恐是旅窓孤夢罷，知應瀚海尺書傳。
爲兄爲弟難分齒，之北之南共比肩。
不識渠鄉何處在，水消木落記年年。

歸鴈

生長江湖不食烟，秋南春北任年年。
天晴木落家安在，夜久燈寒客未眠。
尺帛應懸雙足下，順風長在一毛前。
歸時莫近黃陵廟，竹淚斑斑廿七絃。

隱士

白茅斗屋鎖蒼煙，平地歸來好作僊。
遯世無心懷寶玉，讀書有味飲清泉。

漁樵暇日堪爲伴，猿鶴臨門共對眠。
莫使是非未到耳，松風蘿月不知年。

謹輓尹永淑

白頭甘老潁之陽，春睡遲遲一草堂。
安貧自在簞瓢巷，經濟猶餘蓼朮囊。
人琴古海蒼山遠，秋草荒原白露涼。
鳳有遺毛鴻印雪，林泉日暮淚滂滂。

謹次庾參書松塢亭韻【長城郡森溪面綾城里】

種松無異育英才，封築深園別業開。
把拱尺尋今老大，風霜雨雪幾經來。
神龍噴氣雲生壑，仙鶴尋巢月滿臺。
待得棟樑支厦日，與君共醉大平盃。

謹次務安郡麥浦里李敦星先府君孝閭落成韻

孝能傳孝立家門，自有三鄉生長村。
養志無違常踐實，持身有法不忘根。
春深寸草常思報，日落西山庾淚昏。
自是綿綿基業大，後來君子必相論。

謹次光州梧峙李參事啓翼先府君梧山亭韻

梧與山齋已昔時，平居誠正至修治。
老龍臥睡春猶足，雛鳳飛棲日亦遲。
琴料能容三尺大，簣功不貸一毫私。
偏向君家多霽日，濂翁灑落可前知。

秋聲【壬申九月】

此聲難禦鐵如城，一遍人間未易晴。
漠漠海天隨鴈渡，寥寥山屋伴蟲鳴。
黃花爲惜樽前暮，白髮難欺鏡裏明。
自是刑官多戰氣，春和何日答昇平。

隱士

渭濱有月傳巖烟，遯跡當時總是仙。
翠帶牽香蘭艸谷，黃冠飲壽菊花泉。
潯陽誰識神龍臥，湖上應同老鶴眠。
自古奇男多不遇，隱屠隱酒幾何年。

巖壑深深鎖暮烟，數間茅廬一間仙。
讀書百暇朝耕畝，樂道無妨夕飲泉。
石逕放猿青艸坐，松壇招鶴白雲眠。
自來甘作覺裘老，澗鳥林花不記年。

蟬【壬申秋】 刪

樹樹飛過西復東，淡然身勢似空空。
學仙非必求方外，鳴世安知悅酒中。
驛柳斜陽驚驟雨，宮槐高處御清風。
晚來側耳林間屋，感物吾心庶可通。

謹次月也松汀張允文氏先大人效軒韻

效以名軒已悟真，軒軒相對德爲隣。
繩其祖武多餘地，貽厥孫謀是可人。
潤物神功三日雨，御家和氣四時春。
親親不墜賢賢志，長使千秋日益新。

扇葉韻

入手飄揚似紙鳶，春風孤竹染花鵑。
枕頭可辟黃香暑，羽面曾揮赤壁烟。
星欲雙開天似水，秋能再熱日如年。
至今若得羲之筆，不惜吾家直萬千。

蔡牧園相龜原韻

卜居不厭牧園深，飲啄安貧是本心。

潛機自若魚游沼，樂意相關鳥忘林。
用藥難醫今俗病，把樽爲喜故人尋。
臥龍如昨春窓夢，何事牢籠費苦吟。

謹次牧園原韻

維賢所止海山深，耕牧田園不負心。
名合靈龜躋壽域，功多扁鵲臥醫林。
向風有意孤琴抱，乘雪無妨小棹尋。
入洞誰招招隱操，數叢秋桂一高吟。 丁丑至月日 遲松生 金錫煥

謹次尹斯文月谷原韻

谷烟初散月生樓，滌蕩塵愁卜勝遊。
夢外青雲辭富貴，書中白髮記春秋。
千江圓印遙相照，一鑑方塘穩不流。
吳質無眠修玉斧，天晴海闊夜悠悠。 丁丑至月下澣 遲松 金錫煥

至後清遊【務安望雲面奈里，鄭斯文晴江齋】

自從至後喜生陽，積雪胡然渺四方。
百里雲南爲遠客，一隅潁北卽吾鄉。
近川梅柳含春氣，各戶旌旗揭日光。
除是晴江亭上坐，白鷗相近若相忘。

短策離家隔數宵，箕雲潁月正遙遙。
一陽莫葉春生曆，十里梅花雪壓橋。
江上鷓鴣詩亦妙，畫中蝴蝶夢難消。
漏船在此誰能濟，副手梢工任意招。

歲暮相逢小大寒，鏡中白髮試回看。
門前風物輸千狀，至後陽春轉一團。
我欲盟鷗來蓼岸，世皆夢蝶入槐安。
竹林柰里多知舊，捨此名區去亦難。

一帶晴江萬古心，開門不厭客來尋。
牙琴各抱雲橫浦，剡棹初過雪滿岑。
脩竹爲隣相結好，疎松繞屋不嫌深。
聊識桃源何處在，江風吹送數聲砧。

望雲知在太行山，孝子思親老此間。
蘆葉潮聲鳴古耳，梅花春色帶新顏。
門深柰里蒼蒼樹，路入桃源曲曲灣。
留被主人多繾綣，天涯遠客不知還。

聽鴈

碧水連空白露橫，一天南北是前程。
旭朝爲贄夫迎婦，霜曉成行弟喚兄。
瀚海傳書蘆葉冷，湘江聞瑟竹枝清。

無端驚罷愁人夢，歸陣衡陽孰與爭。

雪中梅

賞花無處不爲多，白白添生月亦何。
翠羽頻驚寒士夢，黃昏暗動美人歌。
小橋載酒驢停立，遠水招帆鶴報過。
最喜陽春消息至，明珠點綴玉橫斜。

謹并次竹林亭

七賢似竹竹爲亭，屢閱風霜不改青。
難弟難兄登實地，宜風宜雨對虛汀。
春深古籜龍蟠屈，日晏蒼琅鳳峙停。
江左衣冠多酒隱，遙遙千載使人醒。

謹次晴江齋

聞道潯江四望晴，臥龍誰識是淵明。
有時沂浴能言志，多日蘭觴各敘情。
翠竹臨風君子老，白鷗立雪釣翁清。
行人指點桃源路，豈謂尋常隱姓名。

蘭契相逢小長咸，情如淡淡氣岩岩。

若將渡海鵬圖遠，不可題門鳳出凡。
未幾桃源紅水挾，小焉月岳白雲緘。
繁華木港知無遠，暮往朝來萬里帆。

雪景

臘天供雪下龍岡，海色陰陰野渺茫。
柳絮風飄征客袖，梅花月壓美人粧。
積如石廩家無事，淡若珠淵夜有光。
饒得民間三白瑞，呼兒呵凍煖椒觴。

雪竹

風搖雨打已多時，大雪相逢何太遲。
石勢參差鹽虎籜，冰光擾亂玉龍枝。
畫工下手堪爲畫，詩老當頭可與詩。
立節持身能若此，誰非後世大男兒。

無題

江齋有客不能容，何事浮生送且逢。
白髮添生雙鶴鬢，青藜無恙一鳩筇。
門前深置投車井，野外低迴戴雪峯。
春酒滿樽山有菜，願言他日好相從。

臘天風雪，務安望雲柰花江上送別

交深恐或不如初，何事中間面亦疎。
默計歸程纔百里，徒今那惜一封書。

竹林亭原韻

分爲七竹合爲亭，屢閱風霜不改青。
難弟難兄登實地，宜山宜水對虛汀。
春深古籟龍蟠屈，日晏蒼琅鳳山停。
江左衣冠多酒隱，遙遙千載使人醒。

卷六 遲松原稿 簡札

壬申七月上澣

上勉庵崔先生

錫煥，謹齋沐上書于勉庵先生道下。伏以天不喪文，道不墜地，邪說詖行，安敢容乎其間哉？竊惟我老先生，道學昭着，忠節挺特。關邪之正氣，凜若秋霜，接人之禮氣，渾如春風。青簡春秋之筆，赤葵太陽之忱。滿腔輪囷，愛君憂國，尊華攘夷，亘天地而不泯者。砥柱於頽波，松柏於大冬，焉能瘴海之毒浼乎？日星之輝哉！以若華陽大義，蘖溪真源，苕里清芬，襲乎八路之冠服。杏壇遺風，儼然萬古之鈇鉞。薰陶所及，何患不到聖人之域？小生，千里僻鄉，孤陋淺薄，內無家庭之教育，外無師友之訓導。甘於暴棄，而雖以瓦礫之質，尚有鼎鑪之耳，得聞老生之風者矣。茲敢甘憚悟上達，幸加垂憐，賜以一言，永爲服膺之訓。伏祝衛道保重。

我東勉老卽春秋，尊華攘夷已自頭。

有明日月青邱筆，無限風霜黑海舟。

仲連不復滄溟恥，顏氏何曾陋巷憂。

南望雲山千里外，師親一念共悠悠。

崇禎紀元後五丁酉仲冬。

乙卯九月廿九日，送子讀書上後石書【吳後石答書，本件有，付末草也】

黃花秋雨，羲熙蒼茫。伏未審，靜中氣體候萬安？伏湊區區。生，選棲依樣，而惟幸率下之無警耳。伏白，釋豚才質鈍薄，兼無教訓之方，今茲燈火稍親之際，只信讀書之好，預敢面稟，卽爲踵進，願供膝下灑掃之資矣。庶可無少損於牖後之道乎？卽當趨進，使長豚遞行，莫逃悚懼之罪。餘不備上。

後石答下(附)

向枉，出於積阻之餘，迨庸感慰。今又允玉，委顧袖致，千金惠字，投金對玉，喜可知也。仍審經體珍重，何等慰昂？駿善，病情日以益深，冉冉若下山之日，謂之何哉？惟此受書之托，甚有愧於東萊，左右亦何所取，而有此期待耶？只在當者之着意專課耳。餘眩甚手戰，姑閣，不備謝狀。

乙卯十月一日，病生 吳駿善 拜。

上後石吳先生書

自兒子執灑掃之後，承候有時矣。今茲離側，承候無路，其在好賢之誠，不無小缺，而於教子之方，亦有大欠也。辜負如山，敢言贖之有日耶？伏想，近來寒月，滿于石門矣。武侯之夢，杜老之憂，靡時不關於先生之心，而亦可往來於中夜不寐之枕畔矣。以是貢慮，實不淺渺。拜已踰時，書亦後人，只有東望太息而已。謹未審，茲辰，山中靜養氣體，衛道萬安，而玉抱專課，金聲可期？並伏溯區區，無任下忱之至。錫煥，姑依，率下亦無警。而塵白出沒，可謂層浪，那當有歇泊之時耶？向者下賜，二兒還家之際，其長結婚，故其次不可獨送者，拘於情私，豈可曰教子之誠乎？參以古禮，一則失二十加冠之禮，一則失十五就傅之道，不可不拘於流俗之致，而悚懼於心者，罔知攸達。襪子與酒肉，不知攸合於口體之一資，而忘陋伏上耳。山河非舊，歲月又新，仰祝氣體候茂膺萬祉。

乙卯十月日。

上後石先生吳駿善氏

一自石門拜退之後，已無一書之馳告，亦無一兒之之趨拜。伏想石門山水，不在於天上，而人之誠之不足，至於如此，罪辜如山，贖之無日。其於律身教子之方，萬無一取之微，自歸於暴棄，歎之何及？第當春和，風乎石門之山，浴乎石門之池，進退乎先生之門下者，業爲胸臆之笑，則漸覺鄙吝之消磨，而不覺苦海之浮沈者耳。薰陶之所及，尚能如此，況爲親炙者乎？目今山河非舊，歲月如新，伏未審，道體候，連衛萬安，仁庇勻慶，玉抱健茁而善課？並伏溱區區，不任下忱之至。錫煥，一入新歲，以寒感叫苦，而兒輩亦多不健，以是悶然，外無奉達者耳。餘在今春拜陳，姑使豚兒遞白。不備謹上。
丁巳元月。

上後石吳先生

臘雪白於三喜，可謂來年之豐，而尺於三，未敢立於先生之門，而以供灑掃之役者，其罪安在？積之如雪，以待太陽消去之日，庶可贖之歟。然且未果，使豚替白，赦之莫赦，已無可論。幸須勿置度外，將有萬一之望乎？悵然東望，聳珍蒼蒼。伏未審，寒沍，靜中氣體候，一向萬安？庇下勻福，玉抱侍側安課？並伏溯區區，不任下忱之至。生，身姑無頃，率亦無警，私分之幸。自以懶散之質，已作學究中營苟之物，歎如之何？再去月，有姪婦之喪，未幾有抱孫之喜。苦海風浪，順逆相翻，數也奈何？居然茅塞，將有用路之日耶？秋初所懇，已陳於調患之枕畔也。不置於忘域乎？伏望下賜耳。魚醢，就淡然無味者，而庶可合於山廚靜養之需，故茲敢伏呈。豈非所厚者薄耶？下燭如何？餘在新歲面拜，不備候上。
丁巳冬。

上後石先生

伏念，立雪未幾，遽已暮春矣也。珍山山水之風浴，政在乎此時，而
未得參於詠歸之列，悚懼罔渥。其在 撫愛薰陶之深，未可以一時離
乎先生之側。而已跨數朔，竊恐淺陋之質，卒無以承眷之致也。歎
如之何？茲敢替豚，俾供灑掃之役，庶可諒燭否？謹未審，此際，靜
中氣體候，衛道萬安？玉抱侍側安課，而婚慶未知利成？並伏溱區
區，不任願聞之至。小生，一樣畫葫，而率亦無警耳。近得數間斗
屋於不深不淺之處，而亦可謂沃州山也。於時人之易知，奈何？環
顧天地，滔滔皆是，則未知歇泊在於何處，痛哭者此也。先考墓銘，
已有所面命，而維可曰寸善，而至於闡衛之道，有何所虧乎？自顧不
肖，其在繼述，萬萬無似，而庶乎一經先生之筆，永不朽於覆載之間
矣。幽明之間，其所欣抃，如何可耳。細細錄呈，俯垂諒納如何？
庚申。

上後石

一自拜退，已踰數年。久曠灑掃之役，悚汗遍身，罔知攸達。伏未
審，秋涼，靜養氣體候萬晏？玉抱侍側安課？伏溯區區，不任之至。
生，家運衰薄，今春哭從弟喪，至秋又以孫兒之慘。痛悼之懷，去益
難堪，自憐奈何？伏白，先親墓所，已爲遷移，而尊藁中，山之坐原，
改正之意，茲以仰達，下燭伏望耳。卽當面拜，而替兒上書。謹不
備伏惟。

庚申秋八月廿七日。

上後石吳先生

惟國制，已過再朞，臣民之痛，益復如新。蒼梧暮雲，瞻望曷極。去歲九月，崑人上書矣，緣於厲疫之方熾，中道浮沉，而尚未供灑掃之役，伏悚何極？謹未審，靜中氣體候，迓新萬晏，玉抱侍側安課？並伏溯區區，無任下忱。生，家運不幸，哭子之淚未乾，又哭沒弟之喪。杜門漣如，痛迫奈何？惟幸眷率之無警耳。下賜先人墓表，何謂幽明無感，而今茲改葬于孫佛面虎尾山卯坐之原，則改書葬地然後，乃刻者也。尊稿中，亦以此書填，恐未知奈何？今春，當爲拜謁于珍山軒屏之下，而先使豚兒替告。辛酉正月五日。

上後石吳先生

春服既成，此正風浴之時也。舞雩沂水，只在湧珍山這裡，而積年灑掃之役，未遂下誠，況今暮春言志之日乎？伏未審，春寒尚峭，氣體候衛道萬晏，玉抱侍側安課，庇下勻慶？並伏溯區區，無任下忱之至。生，入新年，以輪感叫苦，至於大小眷率，僅免危境，幸何如之？來汝之教，屢違其時，安於暴棄者，其罪安在？自訟難逭。茲以替豚，願賜提飭之教，萬萬伏望。餘伏祝氣體候循序康旺。壬戌三月九日。

上後石吳先生【替孫兒】

昔者，先生之撰先考碣銘，有曰‘與余同庚，一路相左’之句，而蘊然十有餘載，侍立於先生病枕之側。悵然思之，師親所在，幽明隔

遠。感慕之心，倍他罔極。潸然下淚，悲不自憐。矧今一出山門，世故層浪，未知歇泊於人何處乎？伏惟，靜養氣體候，衛道調攝。春和方殷，敬祝無妄，區區不任之至。生，旋歸窮巷，緋緲於四窮之首，未知方春之樂，天地間自憐之物也。爲之奈何。唯幸率下之無警耳。今者講會，未參末席者，自甘暴棄，悚懼罔措。茲敢替孫兒，相春晉候，而本質駑鈍，聞見淺薄，且無家庭之教。幸須下賜辟咍之言，以作服膺之訓，千萬千萬。有一言而終身行之者，正在牖後生之方，想已諒燭矣。伏呈小壺，雖曰舊鮮之味，恐未合於山廚之旨，奉而且無佐飲之資何。餘在此孫口達，不備謹候上。

辛未三月初九日。

答地山李景相

溽暑逼人，塊坐空欄，終日瞻望者，只一太行山而已。有何一陣清風，帶一封新緘，颯然而至，乃潁水上，地山處士心畫也。盪薇圭復，滿幅琳琅，朗然觸目，何莫非誨人之鑑也哉？向書之浮沈，誠非石頭，必無洪喬之致而已。沈而遲者，反不愈於不沈而速者乎？如或有千金之重，則落地必有錚錚之聲矣。決無可沈之理，而以若一毛之輕，其於浮沈遲速之間，有何損益也？來喻太行亭云云，非湔陋者所敢當，而世孰有無親之人，而人孰非思親之子乎？偶以山名之相符於所居而扁亭焉。若以太行二字，比擬於狄公，而以天下桃李，安敢望於狄公乎？切念地山，宜乎先生之爲號也。先生之出處語默，重厚如地，靜止如山，無不昭合於謙謙，而昔賢之所無地山，今爲地山之地山者，無乃謙受益之天道耶？詳其詩意，菟裘營老之計也，青氈繼家之業也，素履晦身之意也。其餘修齊孝友，無非自謙謙中之來，則非獨謙於一家之內，而將使鳴謙於天下後世矣。豈

非遠大之望乎？來往之詩，兄必言覆瓿，弟亦言覆瓿，兩家之瓿，其將無他詩可覆之日也。伏呵伏呵。所謂太行原韻，一經長者斤正，揭壁之意，仰懇者。梁園白露，且有未至之右，而投桃報瓊，實非虛語也。諒納如何？貴邊潁水，古所謂洗耳之流也。未知近來清耶濁耶？濯纓濯足，惟意所適，豈可使漁郎更覓桃源之路乎？只信情地之相孚，不覺率爾而對耳。餘伏祝循序萬旺。辛酉年日。

答地山

玉宇澄清，太行涔寂，南飛一鴈，可以遲可以速者，想是秋風之早晚也。豈可使導聞之鴈苦爲問答耶？自今以後，案上之書，壁上之詩，俱是地山之筆也。小亭顏色，百倍於曩者，而鳴謙之餘，生之受益，亦不爲不多。使此駑駘，雖有孫陽之顧，而安敢望千里之致哉？示中附蠅續貂之語，其在責善，反不是太過之謙耶？向呈之韻，所構太拙，不覺疊字與錯對，故今茲敲推而呈，照亮如何？潁史先生韻，亦爲並呈，而向者言及于某君子之誨也。謹承審，茲者體候之欠攝，老境之常事，而此乃秋風，病欲蘇之時也。敬祝妄五之慶耳。餘便忙胡草，謹不備謝上。庚申秋。

與草亭金令

伏聞，孝爲百行之源，而天地神祇之所感，鳥獸蟲魚之所化。其在秉彝之人，豈無感化之理乎？弊居之於仙庄，地之相去，不過春聲之相應，便是洛鐘，而尙未晉拜于軒屏之下。其在瓦礫之質，敢望有玉成之日乎？春雪初消，山窓微明，一點郵履，自南而來，視之，乃敬告文也。盥

手再三，讀之未訖，滿幅細行，盡是思親之孝也。人非木石，豈無所感於此者乎？感之所發，不揆僭率，敢賀尊座之孝於記哀詩，并慰賢胤之孝於敬告文，恐無損於孝之全體乎？伏惟春寒，尊體候迓新萬旺，仁庇勻禧？並仰溱區區且祝。生，蟄伏窮巷，無聊度日，自作滾汨之物，苦海本色，奈何？識荆之願，是所甘心，而安敢質言耶？仰企諒納。
癸亥春正。

答東溪金泳奎

錫煥，省禮拜言。古有塞鴈繫書之足，今有郵鴈馱書之背，足可慰失侶之鴈，而況乃書中珍重之語？抑悲寬懷，實是先病之醫也。俗云寡知寡矣，此所謂鰥知鰥也。敢不副知舊之望，然而四窮之首，何時有方春之樂耶？先言私情，後及寒暄，甚悚甚悚。謹更審，靜養體候之欠攝。老境事，節食服藥，差可少病，而此非秋風病欲蘇之時耶？琴瑟在床，芝蘭滿庭，孟光之眉，汾陽之頷，其樂可知矣。以是貢賀滿萬。期服生，辛酸做去，而惟幸率下之別無他警者耳。就二束楮一冊子，內有而外無，恐是郵路之浮沈也。暗暗摩挲，不覺兩紙之生毛。此固出於情忼，而無乃過於優惠耶？悚先於感。外他滄桑滔滔，未知歇泊處，白首相望，能後幾日耶？悵然而已。
庚午八月望。

答南原族從奕斗

省禮拜言。花樹南北，秋風蕭瑟。白首相望，未知其日，悵然何極？承惠頗久，今茲修謝，甚悚甚悚。其時有楮先生偕枉之教，故額手

瞻望，而尙無消息，雖甚訝鬱。然而楮先生之來不來，有何關於敦族之理哉？謹更審，秋涼，靜體候連衛萬安？賢允善侍，覃儀勻禧？並仰溱區區且祝。葭服族從，家運不幸，去夏四月，奄遭室人之喪，悲悼辛酸。四窮之首，老境之事，難可形言，自憐奈何？知舊間猶可通訃，而況於族親間乎？然而心如亂麻，未知頭緒。且道塗脩遠，亦忘郵便迅速，似有近於情地之疎忽，豈可以一失而遽棄之耶？幸須恕諒，伏望伏望耳。窓紙合於秋用，而來歲豈無秋風耶？仰呵仰呵。外他世浪滔滔，未知何時促膝媿媿也。

庚午八月望翌。

與吳公述

黃花如夢，白雪滿山，居然歲暮。謹未審，侍中體候，連護萬旺？仁庇勻禧，令從昆季康福？並仰溱區區至祝。生狀，依劣，而率下無警，是幸是幸。向秋分手之際，猥言再晉之期者，至於不期，然而至今思之，難免輕率之罪也。苦海層浪，去就未分，未知何時歇泊耶？伏歎伏歎。學契講會之日，想必已過，而座末之未參者，敢言案末之參名，誠是悚懼。晚參，而又薄於物，奈何？俯垂諒納伏望。餘在豚兒口陳，不備謹上。

丁巳冬。

與吳公述

春初，晉于軒屏，未承清誨，雖不敢凡鳥之題，而未嘗無嚶禽之悵也。然而切陪老先生之杖履，講磨于道林，薰沐乎珍山，凡三日。

其修己之方，所得不爲不多，亦可謂不負此行。謹未審，春和，侍中體候，連衛萬重？令從氏昆季，並爲安康？仰溱區區願聞。生，一樣度了，而率亦無警，私分之幸耳。今春講舍，期欲參末，事與心違，竟失初圖。使豚替行，其罪難逭，姑爲諒燭如何？餘在豚兒口達。庚申暮春。

寄族從

去月郵便，修謝于感慕齋矣。適因尊駕還家之致，竟至反戾，悚懼罔涯。謹更審，靜體候，不以早憂有損，而仁庇勻禧？並仰溱區區且祝。族從，飲暑叫苦，自爲憐憐，而唯幸率下之無警者耳。就悚，今年旱毒，前古所罕，而鄙處可謂大無也。錢荒塞路，難可措手。所謂單處，尙無一分收合之方，而以秋爲期，此將奈何？設或送人分秩，無可奈何也。空手來往，有何所益乎？人之生命，溝壑在前，奚暇念及於爲先之道乎？百方說諭，反似隔靴爬癢矣。姑爲怨燭，徐觀來頭如何？此非誠之不足，錢政之不許也。來八月望內，期於躬晉，而年事之結末，亦未可知也。鄙之所農，未滿十斗落，而蝗亦爲災，許多眷率，以憂度了耳。事至如此，誠禮俱失，何日可贖耶？貴處形便，亦所願聞者也。庶可惠致否？

甲子七月十二日。

答族從

秋盡鴈來，拜承惠委，感是一邊，悚亦一邊也。謹未審，比寒，旅中體候之萬亨，尙如寄書時耶？遠外溱仰區區者摯。族從，依樣，而率

亦無警，是幸是幸。就，譜冊文集與義金，三件重大事，俱是紙上周旋者也。目今錢荒，尚未融通，此將奈何？然而今望享祀時，當爲躬參計矣。所關，都在於錢政之致與不致，此可謂無物不誠也。若不遂意，則當以晦內趨進計，姑爲怒諒如何？譜通，亦爲依到，而單事，何必多多而後益善乎？餘不備謹謝。

丁卯陽月三日。

與錦城鄭安民

慕藺有素，識荊無緣，自知固陋，徒切瞻誦。大抵孝親尊賢，敦族恤窮，莫非秉彝之性，而人鮮能之。惟高明從事於斯，上世之風，穆然如復聞于今。躬賀爲期者有年，而未果，徒爲健羨而已。謹未審，清和，靜體候，崇護萬旺，仁閣勻慶？並爲仰溱仰溱。生，暮年辛酸，遽作四窮之首，踽涼無比，自爲憐憐者已。貴第之落成，未知在於那日，而玉洞尹兄公弼氏，已有雅分，示之以韻。技癭所使，不揆僭越，茲敢搆呈。庶賜斤正，以守相愛之誼，未知如何？餘在早晏晉敘。

辛未四月十二日。

與務安吳彰善【務安郡清溪面上馬里】

地隔隣壤，一面無期。江雲江樹，情緒悵然。謹未審，清和，侍中棣候，怡愉湛樂，連護葆重，而五色斑衣，幾作老萊子之樣子耶？春堂還婚，人間稀慶，而此乃仁孝之家，必得壽考之報也。爲親求詩，亦一爲孝之道，同在秉彝之內，不無所感，而鄙近鄭萬林來言其實，茲敢忘陋，謹搆蕪語。庶收畫蛇之足，以充爲續貂之尾耶？生，蟄伏窮

巷，又作窮鰥，心如亂麻，未知歇泊。或爲聞人之善 見人之慶，有時展眉耳。率下無警，私幸也。

辛未四月十日。

答張查佑植氏

輪路電拜，于今伏悵矣。猥先承下，委感悚深悚深。謹更審，氣體候萬晏，而從妹之憂，當占勿藥之效。曾孫之慶，又食未艾之報，善家吉祥，推可以卜也。其非人世，庶可靜養安攝，以扶衰境之筋力，千萬仰祝之至。查生，月前見孫兒之慘，又遭岳翁之喪，可謂悲懼中無一點喜氣也。自憐之狀，何可盡達？

丙寅至月十五日。

寄宗人東旻

自我不見，幾乎數三朔，懷想曷已？潯陽五柳，將有歸去來之日矣。然而新移之初，諸般事務，果不至於惱神之境耶？貢慮萬萬。瑞石風物，想是眼前之奇賞，而所得者，不爲不多，奚不猶勝於箕穎之清風耶？直欲拂衣贖程，家累絆身，如綿入棘，此將奈何？自訟自憐。謹審，春暮，旅中令體候，崇護萬旺，仁庇勻禧，而玉抱善健耶？並仰溱區區勞祝。宗生，依樣葫蘆，而去益辛酸。老境事，萬不成說。不無溝壑之憂，實是無恒心所致，悔將何及？春南秋北，可謂失侶之鴈也。洞庭瀟湘，將在那裏耶否？餘在早晏躬晉于軒屏之下，以作花樹之舍。謹不備上。

壬申三月十三日。

答宗人金東昕

伏惟羸博西河之痛，於古有之，而比今知舊間，或有遭此之變，而慰之以寬抑者，豈不知反躬自責乎？然黯黯思之，未有如此生之尤中其酷者也。幾口之家，一朝遽作四窮之半，婦哭於寡，孫泣於孤，爲其父者，此何情境乎？此何情境耶？獨坐之時，不寐之時何？其於晝於夜，數數來相尋，而又有霧花於眼者，可知喪明之非虛語也。對人難爲欣然之面，而不覺潸然而淚，故所以杜門不出者，幾許日矣。猥蒙尊座寬謝之誨，其在悲慟之私，庶可少弛，而可知平日相愛之珍重者也。俗所謂歲月爲藥者，能醫此病也否？晉拜當有日，而姑未指定，怨燭如何？謹更審，侍中令體上，連護萬旺，仁庇勻福。終造之沒，何以注念否？並仰區區。不備謹謝上。

己未四月二十日。

寄 刪

秋天漠漠，郵鴈知時，猥先承惠，感於悚。謹更審，此際，僉體候，連護萬旺，並爲仰溱區區者摯。生狀，勞碌度了，無足奉浼者耳。就控，海隱先生實蹟，既爲朗然於史家之耳目，而俎豆之儀，今茲幸蒙貴鄉儒林之盛舉，喜何敢言？至於本宗，事甚無謂，當爲躬晉，而道路脩遠，未遂本志。過勿深誅如何？韻語，素是拙陋，而敢以仰答，庶可免於覆瓿之資耶？面敘之期，姑未指日，常在於嘿會中耳。餘姑閣，不備謹謝。

壬申。

答海州石潭李校理種文

錫煥伏白。西河之痛，於古有之，而至於德門，遭此慘變，可謂千萬夢想之外也。於面雖不可謂熟，而於書亦可謂熟也。千里一書，可敵專人之訃矣。驚怛之餘，不勝惶恐。卽當躬唁，而因循至此，豈可謂相愛之道乎？伏惟慈愛隆深，悲痛沈苦，何以堪居？庶可寬譬，以副區區之望如何？生，亦遭此不幸，次子夭逝，痛悼交至，罔知人事。所友者筆硯，投之門外者，幾朔矣。百爾思之，無幾之餘日，枉作無益之悲也。古人有言曰，‘人不履此境，不知此苦’，俱是衰境也。此何情境耶？白首相望，徒切瞻仰而已。伏白，全書，是先生之道德也，九曲，是先生之遺躅也。衰世之陽脈，大寒之松栢，擧在養同和氣之中，而百載之下，亦可以想像也。尙未供灑掃之役於石潭之門下者，豈可曰秉彝之內之人乎？悚惶交切，罔知攸言。九曲刊費幾圓金，便是投瓊報果，而兼涉遲緩之罪，悚惶殊深，諒納如何？己未。

答文東善

春枉失握，秋書尤勤。西望圭復，悚在感先。大抵富貴，義理之相去相嫌，不翅如霄壤冰灰，而吾兄未嘗不判決於胸中者也。提飭如是，庸玉之成，亦可厚於斷金之交也。然而半百平生，拘於生活，去益層浪，何時歇泊耶？弟亦不無意於二者之辦，而自今以後，益爲銘佩矣。庶可諒納否？早秋一枉之教，似或弟必先着耳。數兒伴學，以童蒙求我爲賀焉。大都寒暄，已悉於鄙從口傳，故不敢贅陳，而伏祝慈幃體候連爲旺康。定省甘旨，想必用極，而令慈堂邵齡，鄙先妣同庚，堂上與泉下，何其相遠耶？無處定省，風樹交感。每書於兄，此意層生，不可

久者，事親之謂也。兄勉弟勸，不必深咎，故尾陳焉。餘不備謝。
癸亥八月初二日。

答曹喜暉棣華亭 刪

古有棠棣詩，今有棣華亭。古人湛樂，與春風俱和，于今可觀，未到亭而屹然山斗。伏惟，棣華亭上棣體候，茂祐蔓祉。生，自顧湔劣，無足奉浼，而猥荷來汝之教，寒門榮耀，罔知攸渥。其在栢悅，敢不翼如，嘿會那日耳。餘不備謝上。

乙卯。

答完山德川金玉汝

正月三日，有人自外來，手持半尺餘華封以示。披玩再三，如讀盤銘日新又新，不覺與入於薰陶之境耳。何其得便，如春江風颿，幸無浮沈之勢而利抵耶？且莫一葉，猶可感惠，而況二乎？青紅葉葉，可記窮巷春秋，恐未免於奢耶？無物件去，不覺愧汗添背也。仰懇七書，已有去歲枉駕之教，故立俟面議矣，因承開春盃簪之音，伏不勝欣喜萬萬。伏承審，新令，尊體候迓新蔓祉。昔者家故，想必今愈，而令胤侍側勤課否？尋繹之樂，不待言而在心，貢賀萬萬。宗生，省事掬寧，私幸何達？昨春拜辭，還栖利成。豚兒之臘前婚淥丁，人賀而不知者，塵白浮沈，去益辛酸。梅屋雪燈，可謂肯綮之地，而拙爲質，而懶散又痼，歎如之何哉？生亦春間晉拜爲料矣。敢於坐屈，猶增漸懼。餘毫難可，伏希回示。何日枉顧？胡草，不省何語。

丁巳元月。

寄李進士醒湖

洛陽一別，如夢難記。昨春自德川，方向雙井而未果者，中途見家書，而致阻盍言難可盡。向接于黃嘉山者，固如是耶？伏未審，新元，侍中體候，迓新萬綏，覃節均休？素以高明之學，親炙於函丈之門，得於心者，想必冰壺秋月，定無些滓矣。願作光明中一物，健羨不已。然而自顧鹵質，蠅附未果，此非安於暴棄者乎？俯賜一言，能無遠不屆矣。海諒如何？生，省安幸耳。日事塵況，無足奉浼。餘早晏晉拜，伏希嘿會。

丁巳元月。

寄宗人【咸平郡守金】

雨之誌，喜於古扶風，而今咸豐，何恨乎無亭？潁水亭，亦一喜雨亭也。商歌農折，此莫非太守之力，而其在桃園之樂，曷容勝倍他攢賀之喙哉？此乃他日韓公做宰相之業也，是庸伏祝。謹未審，霖晴相交，氣體候萬安，令胤侍側玉溫？伏溱區區，不任之至。民，其在同樂之地，尚有一憂未解者，親齋添飭，私自焦慕耳。嚮者，有所可白而未白之事，囹圄吞棘，自訟悚懼之罪矣。退而思之，不如猥白之爲愈也。然而海觀先生，亦爲在傍，想必下燭矣。昔者，呂文穆公之薦夷簡者，非私於其姪，而公於其賢而薦之也。今此敢稟者，安敢比於此事哉？然而事無大小，隨其能而薦之者，此乃非私而公也。尊宗之莅，茲郡也，殘宗之遇，此時也者，不知幾百年來，莫稀莫幸之事也。忘陋自陳，罪所難逃矣。宗其宗而事其事，則何難之有哉？以生寒門，和氣爲被，花樹春風，而長在四時這裏矣。眉預展喜，口難容謝。餘在進面，不備謹上。

壬子。

失題 刪

日暮酒醒人已遠，似是曩者別離之時也。此時此懷，留在胸臆之間，而馳遣不去。將何以得那好便而消滌爲事耶？箕雲穎曰，靡時不往來於心者也。乘暮抵家，慈憂尙爾，藥石靡及，姑未知得秋風而爲蘇矣。然不孝之罪，擔負如山，而且層浪世故，亦未定歇泊者乎？自爲憐憐之物耳。謹更審，體候增福。鄉思羈懷，想必與日俱深，而其在視篆之側，其有補爲民之道者，實是貢慮貢愁。昔者，焦先生之客於文忠公所者，良有以也。屈而能伸者，當有驥展之日矣。是所望於高明也。促膝娓娓，談道古昔，靡不知倬倬然有餘地矣。僻隅山水，漁樵之計，懶惰暴棄，便是人間一野夫也。安敢齒於賢君子之列哉？愧悚愧悚。那事槩陳於梅堂書中，故不必贅告矣。幸須汲便，俾若合符，伏企伏企。餘不省作何語，而謹上。

癸丑。

卷七 遲松本稿 長文稿

得天下英才而教育之三樂【論】

禮曰，玉不琢不成器，人不學不知道，不琢而求其成器，不學而求其知道。是無異於隔靴而爬癢，而反鏡而索照也。孟子曰，得天下英才而教育之三樂。天下之英才雖多，不教不育，其樂安在？蓋教育之法，非選士造士之類也。人能克去己私，則洪爐點雪，自然消融，無一點渣滓。故仰而不愧於天，俯而不忤於人。以其不愧不忤，而所樂乎己者，得天下一世明睿之才，教而養之，則葉上之珠，無葉而不轉，川上之月，無川而不圓。斯道之傳得之者衆，而人皆可以爲聖矣，亦可謂家堯戶舜也。將使天下後世之匹夫匹婦，無不被其澤矣。其樂孰大於是？係天之樂未可必，係人之樂亦可必，惟不愧不忤而已。不愧不忤，卽克己之謂也。然則君子之樂，樂其天也。視王天下之事，如太虛浮雲，何難之有？嗚乎！人之病在好爲人師，而亦有以己之昏昏責人昭昭者。內懷愧忤之心，而欲人無愧忤之心，則雖得天下之英才，其可以教育乎？孔門有顏氏曾氏，而至於孟子之門，僅一樂正子，恐未足以當此夫。何戰國以來，邪說熾，師道晦，天地長夜，異端功利之說，紛紜於天下。不之楊則歸墨，不之墨則歸楊，不知有英才之教育，而以及五季之衰，壞亂極矣。何幸宋德隆盛，斯道之光明，若天中之日，斯道之流行，若地中之水。於是濂洛群賢輩出，披雲霧而覩青天，陶泥沙而得清泉，此乃英才教育之秋也。臨其家則樂其家之樂，及於天下則樂其天下之樂。英才之教育，卽斯道之傳統也。豈可以泛言英才教育之樂乎？玉可琢而後成器，人可學而後知道，得英才教育而後，可以享天下之樂矣。

石門回甲序 刪

曩者，春丈回甲之辰，猥蒙參末之盛諾，故敢忘固陋，而以賀之詩，當祝之矣，尙未盡其萬一之餘蘊耳。今茲復以書獻之，庶可以採納耶否？其日雖在隆冬劇寒之際，而此乃冬至陽復之後也。雪梅烟柳，自然有春和氣象，而清佳溫和，亦可謂孝子之愛日，而此天實佑之也。翩翩鳳凰，弄雛於碧梧之秋月，蜿蜿驪龍，弄珠於滄海之暮雲者，此乃翁之頷之也。兩兩斑衫，三五而趨庭，下堂而舞，上堂而拜。左手執爵，右手獻衣，口呼萬壽萬壽。瓊林珠樹，如在春風這裏，此乃子孫之壽祝也。[餘失]

謹次瞻雲臺原韻 并小序

雲嶽之東，芑里之上，有可臺而臺焉。主人卽雲齋也，臺以雲名，雲齋焉處於其中，以雲爲心者。蓋自忠孝中流出來，以芝峯爲太行，以三角爲蓬萊，一瞻一望，忠孝兩全。雲臺之爲義，豈不大矣哉！若夫春之際，鄉飲之賢，絃誦之士，逍遙于石逕之上，不絕乎松林之間。勵志篤行爲業，扶正斥邪爲義，雲之油然，忠孝之心亦油然，不在乎臺而在乎心。忠孝之心，與雲俱存，可謂亘千古不朽歟！自忘孤陋，略陳蕪語，書不盡言，詩以言志。

芝峯芑里自西東，合把雲臺在此中。

一點繞天工淡蕩，百妖盡地入消融。

巖扶落落先生氣，簣積層層小子功。

升降不無忠孝感，狄公杜老日相通。

天安全氏族譜跋 代草

收宗，惟是明譜系，作譜，所以辨氏族，此古昔先賢之遺語也。惟我全氏之貫天安者，均是歡城伯之裔孫，而萬枝而同根，萬派而同源者也。收其枝派之分，而歸於根源之合者，豈非作譜之義乎哉？觀於此譜，不至視如塗人，則孝悌之心油然，敦睦之誼瞭然。至於先世而忠節文學，各派之官啣狀蹟，前人之述，可謂備盡矣。既在修譜之役，無文贅陳，似是叨濫，故畧敘顛末，如龍山司馬氏，與眉山蘇氏之自序云。

乙卯春。

遲松精舍記

余在髫齡，嘗讀范魯公戒從子杲求遷秩詩中，‘灼灼園中花，早發還先萎，遲遲澗畔松，鬱鬱含晚翠’之句，心欣然如得面命耳提，常服膺而莊誦。及長，構一精舍於月明山下，扁以遲松，蓋憂末俗之躁進，而庸寓警省之義也。舍凡三間，室其二而堂其一。前兩楹間，僅坐十許人，制度狹小，朋友之講磨，兒孫之絃誦，難於并行。然亦未嘗以不能容不行焉。舍之外，僅容旋馬，栽花供石，略具形式，手種一松於舍之東，封築之灌溉之，或移時盤桓於其下，或終日吟哦於其間。誓不負歲寒之盟，而但念不佞之垂戒，既不及於范魯公之萬一，兒曹之躁進，又過於從子杲之倍蓰，則安知今日遲舍之晚翠者，不同歸於早發之先萎者乎？凡我子孫之登斯者，常顧名而思義，則庶此舍之不朽，長與此松并翠矣。

上章闡茂蜡月上澣，金錫煥 書。

竹林亭記

大抵，竹似賢，白樂天之所愛也。竹如椽，黃岡地之所產也。似賢之竹，以如椽之竹，構數間茅棟於柰花江上，扁之以竹林。作亭者誰？晉州人晴江鄭濬，光山人石溪金奉演，密陽人愚石朴泰淳，平山人竹史申日容，蘆軒申化容，羅州人豐村吳根佑，密陽人新月朴錫圭也。均是竹林，而古之七賢，隱於醉者也。今之七賢，隱於醒者也。然則一醉一醒，豈有古今之殊觀耶？諸君孝友慈善，文學材識，見推於當世，賢之於衆庶，猶竹之於草木也。一自結誼之後，寢同牀食同卓，遊衍於斯，嘯咏於斯，此今桃園之結義，而第待臥龍之出茅耶？目今世故層浪，韜名晦跡，高飛遠遊，不知老之將至，而以竹林之樂，樂其樂者耶？國內名宰鴻儒，往往濡筆，非特爲膾炙於當世，當爲照耀於後世矣。諸君勉旃勉旃。明天子在上，若有求賢之詔，必先於竹林矣。渭月莘月，肯讓於他人乎？余在隣壤，已所目觀也。春和秋涼，布衣幅巾，庶幾登臨乎竹林亭，俾供觴詠之一助云爾。

丁丑臘月日，金海 金錫煥 記。

竹史記

竹之於草木，猶賢之於衆庶也。申斯文日容氏，以竹爲號，隱居于務安郡望雲面院之洞，非以爲多竹之地而然，特取其性堅節直，寒天草木黃落盡，竹色四時也不移而然也。竹之爲義，豈不大矣哉！昔者夫子過淇園，聞竹而三月忘肉味，乘桴渡海，若有東來之日，庶幾有忘味之嘆矣。斯文亦學孔之徒也。恭陳灑掃之役耶？噫！古之竹史，恐有蠹蝕之患，故汗而用之，今之竹史，植物也。鳳來有清聲，

日出有清陰，蒼蒼不變，亭亭特立。東海之畫竹耶？西山之孤竹耶？清風於千古云爾。系之以詩，竹君最喜竹林亭，傲雪凌霜不變青。月下調琴龍吼壑，風前鳴籟鶴聽汀。香山特愛賢相似，與可爭摸畫莫停。義士忠臣當若此，終令後世幾人醒。

蘆軒記

蘆花曾是漁翁之物也，渭水之蘆花耶？桐江之蘆花耶？太公，遇文王而出，子陵，遇光武而屈，吾知其出處之正也。申公化容，構廬於務安郡望雲面柰花江上，扁之以蘆，蓋取其寧靜澹泊，潔己明志，遯世不悔之意也。清纓濯足，日唱孺子之歌，朝耕暮讀，時誦董生之傳。八月九月蘆花飛，南溪老人不爲儲皇，定是非之儔歟！人乎蘆乎，世人如有求仙招隱者，招鶴于蘆花軒。系之以詩，白蘆如雪月黃昏，宛在伊人淡夢魂。啣葉鴻賓歸水國，宿花漁子過江村。剡中片棹吾相訪，汶上單衣孰與論。放鶴誰招招隱操，竹林亭畔一高軒。丁丑臘月日，金海 金錫煥 記。

龔村記

昔者顏子，不愚而如愚，今之吳公，不龔而如龔。孟子曰顏何人也？有爲者若是，吳公可謂善學顏子，豈非有爲者耶？噫！吳公，自幼聰

明，及長孝友勤儉，文學材識，見推於當世，可謂聰明慧智之士也。顧今桑海變遷，蹄跡交馳，黑白同異之說，眩惑乎天下之耳，當此之時，聾乎不聾乎，不如聾之爲愈也。是以擇之于柰山之陽，淨潔之處，扁之以聾。山川不聾也，亭樹不聾也，主人亦一不聾而如聾者也。聾何病焉？非藥餌之所及。海內澄清，邪說詖行，一熄然後，必有良劑矣。昔者，巢父過潁川，聞堯言，而以天下爲污己而洗耳。當初以聾爲行，豈有洗耳之苦耶？主人曰諾。余以不聾之聾，遂爲之記。

誰道聰明却受貧，聾何爲病在於人。
有爲天下當迴日，無曆山中不記春。
飲犢已過身尚潔，臥龍不起夢如新。
竹林結誼同兄弟，江左衣冠好作隣。
丁丑臘月日，金海 金錫煥 記。

愚石記

夫愚莫如石，而以石之愚，尙有攻玉之美，如琢如磨，比之於道德自修，無乃如愚而不愚者耶？朴斯文泰淳，以莫堅之石，加不愚之愚，合而爲號，其意有在。請言石之爲物，砥柱於頽波，盤石於亂世，至於聖人之道，磨而不磷，涅而不緇。石之爲義，豈不大矣哉！奚戚之智愚，可及與不可及，姑舍，是以顏子之不愚如愚，與孟子泰山岩岩之氣象，觀之，則不愚而如愚，非石而似石，愚石之號，當有辭於後世矣。此竹林七賢者之流也。遂爲之記。

丁丑臘月日，金海 金錫煥 記。
有石如愚傍竹林，琢磨道學玉爲音。
岩岩氣象山同立，鑿鑿精神水與深。

流水太湖能記品，和風陋巷不違心。
白雲仙鶴知何處，猶有村名憶古今。

新月堂記

古人多以月之霽月之明爲號，而斯文以新月爲號者奚？書曰，‘滿招損謙受益’，是乃天道。新月，初月也，卽花未開之意也。今月，自朔而至望，漸圓而滿，後月亦然。然則雖千萬年之久，無夜不新月矣。新月之號，豈非長久之號乎？古語曰，仲秋夜月，見纖塵不起，如逢堯舜，世公可謂堯舜之人也。羲皇之清風，亦不在於斯歟！對月而把樽，迎月而吟詩，亦詩人常事，何足道哉！余亦有吳州相思之誼，故遂爲之記。

丁丑臘月日 金海 金錫煥 記。

蛾眉龍爪自初新，一遍宜同四海隣。
鏡面輜光將照日，花心蘊氣未開春。
猶喜樽前三對影，莫言窗外半成輪。
須臾圓滿堂如月，今古清遊也及身。

石溪堂記

有石不可無溪，有溪不可無石。石乎溪乎，宜乎金斯文奉演之爲號也。斯文卜居于咸平郡箕山潁水之陽，扁楣而石溪。巢許之清風，數千載下，遙遙相聞，此乃洗耳者之流耶？至於石粼粼鑿鑿，無乃七里桐江，一絲清風釣魚之處耶？飢可以飲瓢，清可以濯纓，斯文勉之勉之，顧號而思義焉，故遂爲之記。系之以詩。

月下長流石上溪，武夷九曲路高低。
洲邊巾屐多清楚，檻外山川似潔齊。
朝日飲瓢雙手掬，夕陽濯足一筇携。
林間幽趣誰能識，聽櫂歌終興不迷。
丁丑臘月日，遲松 金海 金錫煥 記。

晚悔齋記【靈光局碁，金鎮燮】

蘧伯玉云，行五十知四十九年之非。以衛之賢大夫，靡不早知其非，而以晚悔知其非，自居其責，況不及伯玉者乎？吾宗鎮燮，年踰五十，以晚悔扁其所居之齋者，實早知其悔者也。早而孝于父母，而猶恐孝之不盡其極，早而友于兄弟，而猶恐友之不盡其道。至於修齊亦然。晚悔之悔，是早悔而無悔之悔也。以晚悔，自爲擔負者，豈非自謙之辭耶？嗚乎！桑海須臾，巨浪漫天，陷溺其心，而不知其悔，滔滔皆是，獨一晚悔翁，內而盡孝友之心，外而致耕讀之業。數株門柳，可容係驢，一頃田園，僅供飼鶴，此乃晚年無悔翁也。出乎世，則可與伯玉之賢爲侍矣，隱乎世，則亦可與今是昨非之靖節同歸一轍也。花樹同契之誼，不可以無文，而孤其求，故遂書之如右。

乙卯春。

南原日記

甲子三月二十日。與晚雲金奕斗·金承斗·金鶴坤·金采憲·金宗坤同行，自南原感慕齋，踰求螺峙，數里谷口，逶迤石路，及到平野，長川

沙石，一望無際。自獐嶺，直向雲峯，時已暮春。暑氣遍身，坐於石上，掬流漱口，折花盪手。仍呼數句曰，
渡野臨水幾曲流，振衣漱濯便休休。
沂濱風浴能如是，一二青年兩白頭。
乃踰獐嶺有詩，
沿流直上嶺之獐，屈曲岩涯細路長。
三月暮春餘幾日，折花暗嗅手中香。
獐洞，乃金雲菴昌涇所居之地也。山水明朗，林木深邃，上有寺刹云，而未之目焉。白鳶峙大路，直至雲峯，此所謂山中雄邑也。行數里，有荒山碑閣，惟我康獻大王大捷之地也。四山榮合，一川橫流，佇立悵望，乃五百年前之事也。我太祖與青海伯李之蘭，鞭馬按弓，乃射阿只拔都。世云荒山大捷之所，而碑閣幾爲風雨頹敗，碑面如新，令人感慨。有詩曰，
怒龍蟠屈老龜頭，大捷雄風吹不休。
追思五百年前事，日夜長川淚共流。
休憩良久，將向引月市，日已夕陽。山水之縈紆，不可知名而盡記也。隨流曳杖，仍問智異之仙境，乃呼數句，
叢叢石原水淙淙，山幾層迴路幾重。
年少輕筇猶未及，二翁相後不從容。
乃投宿于實相店。實相寺，隱映于溪石林木之間，而山中平地也。未能抵見，此乃仙緣之不足歟！路懸山崖，溪鳴石角。行至幾許里，至堂興里，有標木所記者，皆名勝處也。一條橫橋，聚石架空兩崖。春浪桃花，差晚仙緣，安在漁艇數葉，只是穿魚之興而已。至雲鶴亭，巖面三字，半沒苔蝕。至花木亭，因問靈源寺，二十餘里也。須臾峯雲不散，林雨如注，始知仙境之厭俗客也。藥水無緣，客味太酸。滯雨半日，旅喫轉輾爲詩，
紛紛小雨濕征衣，此日尋真計已非。

遠岳叢叢環北立，長川瀟瀟向東歸。

雲深探藥林中逕，日暮栽花崖上飛。

不識靈源何處在，頭流山色轉霏微。

北去卽靈源寺前頭也。前車載酒，後車載妓，紛紛乎峽路之左右者，此何人斯，此何人也？一筇雙履，翩翩乎石逕之間者，亦何人也？世間榮辱，亦有分於山中之仙凡也哉！三亭里宗人金英坤，慇懃數話，山茶山樽，並爲甘酸，此是仙味耶？亦可謂花樹之一勝會也。盡日雨戲，仍宿山店。有詩曰，

沿溪攀壁路橫斜，深處仙菴淺俗家。

莫怪漁郎乘暮入，門前流水碧桃花。

家思茫茫，旅懷耿耿，此所謂農人之喜雨，旅人之愁雨也。入山數日，豈無吟哦之趣耶？

頭流真境問居僧，愧我曾年所未能。

南國千年名最着，東風三月價還增。

藥林供液山皆潤，漁艇占晴水自澄。

雲鶴不來亭已舊，靈源歸路與君登。

二十二日也。雨晴曉曙，石逕浥塵，礪水添流。山行六七里，漸聞淙淙瀟瀟者，反有勝於滁山之潺潺者矣。四友已向靈源寺去，而二翁留在三亭店，佇待金瑛坤之來，藥水消息，未知早晚也。但聞水聲，不辨人語也。日未午，與晚雲，直上靈源寺。四圍雄山，一條道路，橫貫乎松檜岩石之間。寸寸前進，步步顧後，車馬填門，妓樂載路，可謂山中一都會也。梓水之醫人，如有驗耶？有詩曰，

捫蘿攀壁到靈源，山與天齋不見尊。

曲覽水懸丹窰味，層崖路貫碧松根。

淡僧棲息知真境，遠客登臨憶故園。

苦海塵心猶未洗，數聲磬落日黃昏。

日已暮矣，投宿于三亭宗人金英坤之家，而已梓水下來，爛飲三回

椀，淡淡如冷茶之味，漸覺精神爽然。與主人談話支離，有聞靈源初月爲僧者，爲其主喪，懸其寫眞于壁，焚香默坐，齋戒克勤，可謂僧家居喪執禮者也。佛家猶能如此，而至於儒家，寂無其人，可勝歎哉！旅館一夢，不覺東窓之白，曉色催寒，回首視之，頭流上峰，盡是靈花之界也。古所謂廬山六月飛雪，反作頭流山三月飛雪耶？朴老和叔，贈我以馬加木一筇，謝之以詩，

馬加木杖勝於馬，主老情私更莫加。

自此登山多得力，不憂岩壁路欹斜。

又，回首靈源何處在，松風流水但聞聲。

(行到雲鶴亭) 雲鶴亭平安在，明年春又再來。

一筇流水，雙袖清風，翩翩乎石上橫橋，此乃昨日所經堂興里也。欲向碧松寺而未果，直向雲峯，望見頭流，半在雲中。溪邊叢石，羅列棧道，聚足利涉，卽實相寺也。寺在平地，花木玲瓏，松林鬱蒼，世所謂僧千年俗千年之地也。新羅古刹，距今千有餘年也。將有僧道復興之望耶？酒興陶陶，或歌或詩，不覺日之西爾。自荒山投宿于獐洞，踰嶺而至感慕齋。昨日分路四年少，尙未抵到。

甲子三月日。

清和西遊錄 刪

春夏之交，紅謝綠茂，鳥獸草木之物，各自以爲樂。其在人生，不無觸物感時之懷。去國孤臣，將有倚斗之憂，離鄉遠客，不禁望雲之淚。曠感之懷，奚有異於今昔哉！室如懸磬，野無青艸。窮民之歎，未有甚於此時者，而今春兩麥，將有有年之望。先憂後樂，孰有加於此哉！於是聽溪朴君泰述甫，得一閒於百忙之源，馳書左右將營一會，此乃有志者志也。登山臨水之興，訪花隨柳之樂，反不在於斯

歟! 風乎瑞陽, 浴乎飛川, 詠而歸者, 有能幾人乎? 以曾點之志爲志, 則將爲不朽之會矣。勉乎哉! 今日卽佛家觀燈之節, 而有何關於吾人秉燭之遊耶? 余亦向風艷仰, 健羨不已, 聊以一言而爲之記。

壬申四月八日。

代人 清和和西遊記

古語曰, 有入山而採玉者, 有入海而採珠者。今吾之登山臨水者, 不以採珠採玉爲寶, 而以山水之樂得之於心, 而寓之於酒者也。群賢咸集, 觥籌交錯, 醉能同樂, 此非所寶者惟賢歟! 於是去國而有憂國之臣焉, 離鄉而有思鄉之客焉。犬馬之微忱, 烏鳥之私情, 無地可紓, 而臨風把酒, 庶可以蕩滌紆鬱之懷者矣。今日之夕, 卽浴佛觀燈之節也。千門錦棚, 百竿彩繩, 都門如市, 夜光如晝。風流劇場, 左右羅列, 眞可謂一大壯觀也。嗚乎! 吾人之樂, 不於彼, 而反在於此。清和是日, 風乎君遊, 浴乎飛川, 詠而歸, 吝言其老者, 此非不朽之會也哉! 猥敢首倡, 不可含默, 故聊以一言而爲之記。

壬申四月八日。

烈婦周氏實記【長城郡森西面斗月里, 李集奎之妻鐵原周氏也】

夫三綱一也, 莫非秉彝之性, 而今茲特舉, 其烈之一行而言之。謹按學生李公集奎之妻, 卽鐵原周氏也。早自適人, 年方二十, 夫病孔飢, 必非例治之症也。乃割其右股, 注血於口, 和肉於米飲, 如是十數日, 宛然如天日如曙陰崖回春矣。纔三朔後, 病又添飢, 乃割其左股, 血與肉, 如前致誠, 以延五日之命, 竟至無奈。非左則右, 非一至再, 血

肉之誠，尙未格乎命也之天耶？卽欲下從，顧而思之，老親在堂，嬰兒在膝，莫非血淚之痛，而繼有亡夫臨終之託，其敢違越耶？晝則供親，夜則守殯，歸家不作憂色，以慰舅姑之心焉。嗚乎！夫在善養舅姑，夫死善事舅姑，此可謂孝中之烈也。二不更之烈，卽二不事之忠，亦可謂烈中之忠也。以一婦人，而三綱備盡，不可以烈之一行而言之也。非但爲李門之光榮，抑爲世道之贊揚，風教之扶植，不無萬一之補矣。豈可以錮復剡薦式靈之綱錄爲之少報之哉？

閭閻渺遠，國無良史，以俟後君子之如何耳。東珪，肖孫也。善述先美，懼夫泯滅無傳，故左右請求，以及於不佞。不以不文而辭之者，已有通家之誼，而反不有以人廢言之譏耶？兩家世德，家而乘之，國而史之，不敢贅陳焉。

壬申。

金海金氏世葬碑實記

夫石之立於墓立於隧者，示不忘一也。謹按吾金，系出駕洛國首露王，而新羅太大角千興武王諱庾信，麗朝版圖判書諱管之后也。入于我朝，有節孝·濯纓·三足堂三賢之盛，而道學文章，忠孝節義，冠冕一世矣。戊午史禍，巨浪滔天，子孫流落東南，尙忍言哉！惟我先祖處士公諱鉉，始入靈光，與子致回仍居，而墓在麻山面東現里。監正公世東·參議公善宅·府尹公萬碩，三世墓在咸平新光面渴馬洞之原。府尹公生諱允載·光載，允載居新光，墓在新光。諱光載，入于孫佛面隱谷里，配羅州林氏。字國章，文翰瞻敏，累捷鄉解，以壽職同樞。生卒景廟之辛丑，正廟之丙辰也。墓在月明山玉池洞亥坐之原，有碣，夫人墓在下。有八男，曰鎮守，墓在月明山內嶺亥坐，子貴弼參議，墓在建金峙癸坐。曰鎮宏，墓在龍養洞卯坐，子隆

弼掌樂院正，子陞弼參議孝旌，墓在考墓下卯坐·乙坐。曰鎮宇，墓在興林洞乾坐。曰鎮寬，墓在龍養卯坐。曰鎮案，墓在月明外嶺亥坐。三男無后。子孫仍居山下，乃營立世葬之儀。錫夏·錫休掌其財，錫晉·錫千董其役，準永·祉永幹其事。功訖，使錫煥記實，略敘顛末如右。嗚乎！月山巖巖，龍岑峨峨，與世不泯。虎溪之水，縈迴如洗，可以新後孫之耳目也。此非特爲行路之矜式，使子孫有所興起於孝之不忘也。

五世孫錫煥 謹書。 辛酉三月 日。

立碑所，咸平郡孫佛面隱谷里。

金寧金氏世葬碑陰實記

夫樹石於墓道者，所以表先祖妥靈之所，而且以寓後孫追遠之誠也。謹按金寧金氏，系出鷄林敬順王，八世至時興，高麗平章封金寧，仍貫金寧。八世至諱文起，卽白村先生也。景泰庚午吏判，丙子判書，六月八日與六臣殉節，肅廟丁酉伸雪，正廟戊戌贈議政大提學，賜諡忠毅，命配莊陵忠臣壇，蒙不祧典。先生之忠烈，不下六臣，而益見巨宇宙朗日月，天道常有顯晦，而豈無食報之理耶？不幸丙子之禍，五派飄散嶺湖殆三百年。十六世孫敬浩，始入靈光，生卒於此，墓在佛甲面才仁洞，子孫仍居。八世孫溶仁，孝親極至，贈通政。溶仁次子興權，痛悼先蹟之泯滅，乃議伐石以表墓道，使族孫啓奎，袖牒踵再三，不敢以不文而辭之，敢構蕪辭，撮其大概如右。噫！墓在兮，形以建武爲案，建武之水兮泱泱，建武之山兮巖巖，金寧之金兮，緜緜與不朽也哉！

庚午四月初九日，金海后人金 識。

立碑所，靈光佛甲面建武里。

達城裴氏世葬碑實記

夫樹石於墓道者，一以彰祖宗妥靈之地，一以表子孫世居之所，寔出於永慕之孝，曷勝欽仰哉！謹按達城裴氏，東方之大姓，遠祖諱天生，佐檀君朝爲南海長，有緋衣之祥。諱翼，爲箕朝開國太師。諱祗沱，入新羅爲文讓王太師。諱玄慶，入麗朝爲太祖太師，諡武烈，享祠於羅州草洞·務安清川·固城繡林·山清平川。至諱雲龍，封達城君，享綾州大谷壇。至諱乙瑞，早遊吉冶隱之門，入我朝，屢徵不就，號曰清靖。其餘圭簪蟬聯，節義烜爍，不可盡述，可謂鳳凰之遺毛也。屢傳至諱蓋賢，老職通政，墓咸平郡孫佛面石浦西山峙，有碣。配淑夫人咸平李氏，系配淑夫人金氏，墓完丁里毛乃岫同兆。子諱敬壽，參奉，配宜人朴氏，墓金谷嶝丁洞，合封有碣。子諱順佑，嘉善，配貞夫人韓氏，墓上同雙封，有碣。子諱德樞，配朴氏，墓合封。子載權，司憲府持平，墓海隱村左子坐，配淑人張氏，墓金谷嶝丁洞亥坐。子煥元，參判，配貞夫人金氏，墓嶝丁洞合窆寅坐。子應基，通政，相衡，墓石浦村西寅坐，配 墓嶝丁洞乾坐。系配淑夫人金氏，墓石浦村左麓卯坐之原。此乃先陳世德，而世葬之實記也。日褻君楨泰，袖其家乘，而詳言其實，此非永慕之孝歟！使人油然而不敢以不文辭之，略敘顛末，用謝其勤云爾。

強圉單闕陽月下澣，盆城金 謹記。

興武王誓軍橋實記

謹按興武王姓金氏，諱庾信，駕洛國首露王十三世孫仇衡王曾孫也。新羅眞平王時，以統合三韓功，封純忠壯烈興武王，東京人士，建院于西岳，與薛弘儒侯·崔文昌侯，并享而俎豆焉 黃景源神道碑

銘曰，“有唐奉常正卿平壤郡開國公，食邑二千戶，新羅上將軍”，舒拔翰太大角干，陵在慶州松花山。入我正廟朝，有致祭文。以王之古蹟考之，王山上有習射之臺，中嶽有祈天之窟，斷石山·咽薄山，俱是講劔之所也。至於湖南扶安縣，有來蘇寺·遇金巖，而唐將蘇定方，與王約伐百濟時，以白馬釣龍於白馬江，故因以名焉，甚奇蹟也。咸平新光之地，有誓軍橋，而沿革雖未詳，世傳以我王南征之時誓軍之地也。距十里許碧柳里，前參奉鳳壽，憂先蹟之泯滅，思後仍之觀惑，乃營立石之儀，獨爲擔當其力，若非追遠之誠蓄積于中者，能如是乎？幾千載滄桑之餘，愀然如復觀誓軍之日也。先王在天之靈，應感于後孫之孝矣。嗚乎！橋下之水不渴兮，當有如之誓也。橋上之石不磨兮，後世不忘之銘也。而且使行人不必墮淚於峴山之碑哉！

辛酉四月日，謹書。代人草。

全敬洙孝狀

謹陳。夫孝之至也，天必感之，物亦隨而感之。至於人而獨無所感哉！古人之冰鯉雪筍，不惟當世人所感，亦有感於後世者，乃秉彝之性，自無古今之異也。本面山南里全敬洙，故士人全象煥之子，其母趙氏，善事舅姑，得孝婦之名，已有大東斯文讚揚之文。究其本末，孝婦生孝子也。敬洙早失所怙，偏養趙氏，躬自漁樵以養志爲先。至於朝夕之甘旨，未嘗以貧窶或匱，王延之體，無全衣親極滋味者，豈獨專美也！趙氏行年七十，安於反哺，白首無恙。一日猝然得病，瀕於危歿，孝子之心，罔知悠措。左右供養，百方醫治，未見寸效。母思雉炙，默禱于天，心誠求之，而時則大冬風雪，山梁時哉之供，豈可得乎！慌惘憂悶之際，忽有一鷺，自空而飛，隨一物於庭

中，視之雉也，卽以供母，已而病差。後又得病，禱天嘗糞，靡不用極，而血指灌口，延得三日。竟至屬纊，命之所在，孝無及焉。攀擗摧裂，幾絕者累。初終之節，克遵禮制，人子之道，於斯盡矣。嗚乎！古人之冰鯁雪筍，亦可謂孝感，而未可與此雉之兼血指者同日論也。嚮所謂天心感之，物亦隨而感之者，非此也耶？古人云，“一夫懷恨，三年不雨，一女含冤，五月飛霜。”如此卓異之行，泯滅於草野，則難免後世含冤之責。故茲敢仰籲，伏願細細垂察，啓達孝理之下，俾此卓異之行，特蒙恩典，千萬幸甚。

鄭孝婦道薦狀

伏惟 人皆曰，“三綱爲忠孝烈，而人之鮮能者久矣。”近有一婦人能行之者，咸平郡新光面白雲里，金鳳海之長子元龍之妻鄭氏東萊舜謨之女也。一自歸金，舅姑之命不逆不怠，貞執婦道，晨昏甘旨，志體兼至，家門雍睦，一無間言，此可謂孝之無始也。不幸其姑海州吳氏，年已五十，以血漏宿患，將至五六個月。萬方藥餌，一未見效，此非難醫之症耶？於是與其夫元龍，夜出後園，神壇百拜，奉祝少延姑命矣。神其未格歟，誠其未及歟，病之爲勢，瀕於危殆，以藥治之而無效，以誠禱之而無靈，痛哭奈何？思之無策，暗抽利刀，乃斷一指，血亦孝之流也。直灌于吳氏，半噤之，口連呼姑，姑宛然有三答之音，此乃孝思感應之際歟！卽俟迴甦之漸矣。竟至乎屬纊，戊辰三月九日也。仰天呼姑，血棒搥胸，長號痛哭，幾乎氣絕，孝婦情狀，無可形言。斂殯裏虞，一遵家禮。嗚乎！蓋孝者，三綱之一也。以婦人而能之，是其良知良能，苟非素所蓄積於內者，豈能有此於倉猝急遽之際乎？然則其於贊揚風化，扶植民彝，豈曰小補之哉？鄙等不可無公論，茲以齊聲仰籲。伏願細細垂察焉，使一道知之，然

後使一國知之，特爲上申，俾蒙褒旌之地，千萬幸甚。
道內儒林座下。

白永順孝狀

嗚乎！舜大孝也，武王·周公達孝也。此帝王之孝，而著之於書，千載之後，雖愚夫愚婦，莫不感慕，興起爲者，莫非秉舜之性也。其在秉舜之性，豈有大小之別歟？近有湖南省咸平郡孫佛坊人士，以白永順之孝及其妻密陽朴氏之孝，雙薦之報，如是瞭然，此豈非列聖朝孝理之遺化歟？白永順，水原人，嘉善樂欽子，同知基麟孫，忠肅公莊后也。自兒時，克盡事親之道，可謂習與性成，定省志體之養，一無遺漏。不幸其父猝罹奇疾，湯藥嘗糞，靡不用極，而其妻密陽朴氏，壇於後園，每夜祝天，以身願代。竟至不起，哀毀逾禮，幾絕僅甦。送終之節，一遵家禮。墓在數里許，朝夕省掃，跪處石磨，淚處草枯。鄉里感歎，皆稱以孝子洞。孝養偏慈，亦爲如初，此可謂一家雙孝也。逢此不辰，尙未蒙褒，士林之齎恨，爲何如哉？鄙等亦秉舜中物，聞不可含嘿，故茲以仰通。惟願僉尊，廣布美行，使此根天之孝，有補於風化之地，幸甚。

光山金氏孝烈狀

古語曰，“一女含冤，五月飛霜。”使此凜凜之烈行，尙今未蒙褒揚者，非特士林齎鬱之恨也，抑亦天道下監，必有不時飛霜之驗矣。此非畏天之威耶！湖南省咸平郡孫佛面伏鶴里，故監察金海金喜鳳之妻，光山金氏基云之女也。年十七嫁于金喜鳳，孝養舅姑，甘

旨不匱。不幸舅先卒，以禮哀終，專事老姑，克盡志體之養，鄉人稱之孝婦焉。其夫喜鳳，不幸罹疾，百方治療，終未見效。築壇於園，每夜禱天，以身願代。終焉割股，能延五日，而竟至屬纊，其於大限何？即欲下從，掩淚思之，上有老姑，下有穉息，菽水之供，乳養之節，無人可托，不忍自裁。上以奉老姑之甘旨，下以育亡夫之血肉。孝固難行，而烈又兼之，烈固難行，奉育兼之者，今古罕有者也。似此卓異之行，尚未蒙褒，豈非五月飛霜之冤乎？鄙等其在秉彝好善之地，聞之不勝心寒骨冷，茲敢詢議發通。惟願僉尊，亟圖展佈，使此兩全之節，永樹百世之風，千萬幸甚。

故孝子曹公澤承孝行狀

自天子至於庶人，孝無大小，其贊襄風化扶植民彝，一也。日曹君秉夏袖狀，泣謂余曰，“此乃先親之孝行，而家運零替，又貧窶，聖明之世，未蒙天褒之典，幾乎泯滅于艸野，則豈非不肖徹天之恨乎？”余抱其狀而應之曰，“此真孝子也，孝門生孝，誠非虛語。”白首風霜袖裏之狀，金石與堅，至老彌篤。中心所慕，亦可知。顧余淺薄，安敢贅說？其於贊襄扶植之地，亦何敢辭也？謹按，公諱澤承，字景淑，號松溪，生卒純廟之丙子，光武之丁丑也。考諱錫佑，壽嘉善同樞，贈戶判。祖諱永振，以文學著世。曾祖諱，折衝僉樞。補祚功臣右贊成昌寧君諱九紱，靖國功臣禮曹判書昌山君諱繼殷，寔公之十二三世祖也。公自幼時，穎悟非凡，凡百事爲，無非孝中出來，養親之節，極盡滋味。三年母病，晝夜侍湯，號泣于天，竟未見甦。三期廬于家者，以其父在堂，晨昏菽水之節，必親供也。又值父病，侍湯之節，日益靡懈，至於嘗糞。竟至屬纊，攀號擗踊，令人感泣。送終之節，一遵禮制。每於親忌，前期齊沐，五思感發，靡極不到。若非天出之孝，豈能如是乎？每歲春秋，省掃之

行，雖祈寒風雨，不違晷刻，草爲之枯，石爲之磨。墓距十五里許，脚力疲困，其子秉夏，扶負抵家，眷眷教誨，老而靡懈。嗚乎！滄桑滔滔，冠履倒置，惟秉彝之性，垂天地而不泯，則聖世未蒙天褒者，惟人子之齎恨，抑亦士林之恥羞。余亦感其孝，而遂書之如右。

歲癸亥至月下澣，金海人金 謹記。

白奉熙孝狀

右敬告事。夫孝者，始於事親，中於事君，終於立身揚名。事親之一節，豈非事君立身之本源歟？然則孝無大小，可知也。本面芝湖里，故士人白奉熙，贈參議孝宅子，都事璿赫孫，參奉永栽曾孫，忠肅公諱莊后也。性賦於天，孝亦根天，自髫齡，能盡事親之方，定省怡愉，兼盡志體矣。猝當親癘孔劇，百方治療，刀圭無效，斷指血口，乃延數日之命，此非平素之誠發於急遽之際耶？大限天也，竟至屬纊，送終遵禮，三霜廬墓。老母在堂，定省之節，一如父在，非孝而能如是乎？若使此孝移於事君，則必至於立身揚名，而終始一孝擅不知也。世值滄桑，未及蒙褒，而本狀并入於己酉兵燹。不惟子孫之遺憾，亦爲士林嗟惜。鄙等亦不可泯默，故公論齊發，茲以仰達。特爲垂察，使此根天之孝，有補樹風之地，千萬幸甚。

金應大孝行單

孟子曰，“大孝，終身慕父母，吾於大舜見之矣。”又曰，“人皆可以爲堯舜。”此皆性善之謂也。至於終身慕父母，豈有大小之別歟！本面伏鶴里，故士人金應大，金海人，字琪瑞，贈通政同知完聲子，嘉

善處萬孫，兵使壽延后。自髫齡，天性純一，善事父母，自無全衣，親極滋味。養志養體，可謂兩全，鄉黨咸稱。不幸老慈猝然得病，數年侍湯，暫不離側，百方治療，刀圭無效。乃血指灌口，須臾回甦，以延數日之命，而竟至屬纊，其於大限何？喪葬之節，一遵朱文公家禮。且廬墓三霜，豈非終身慕父母者耶？亦可謂舜之徒也。孝之感人，如風動物，同居一坊，不可含嘿，故茲以齊聲仰陳。惟願亟圖闡揚，使此卓異之行，毋至泯滅之地，千萬幸甚。

遲松精舍上樑文

述夫！

歲寒然後始知松柏之凋 不與凡草木而爭茂，
日之方中乃營茅棟之役 可見我泉石而增輝。

鶴舞龍蟠，

翬飛鳥革。

惟余金錫煥字章叔號遲松，

駕洛遺裔，

箕穎逸民。

早趨家庭不違先考青臯之訓，

晚韜巖屋可謂處士白雲之棲。

遲遲晚翠金東海號焉尹石邨題焉，

落落夏寒吳後石記矣曹蔡軒詠矣。

花樹敦睦內有宗族之親捐，

道學淵源外有師友之義助。

蒼鱗赤甲能耐北風雨雪之寒，

碧瓦紅簷不絕西湖歌管之樂。

沂濱風浴各言暮春詠歸之心，
陋巷簞瓢自有和風安貧之志。
柵堂風雨常懷千萬間之大庇焉，
竹樓瓦陶豈懼二十稔之易朽也。

於是，

自西自東自南自北駿奔告功，
某年某月某日某時龜卜協吉。

兒郎偉拋樑東，萬里扶桑旭日紅。雙鳳來儀君子國，建金山色淡雲中。
拋樑西，海上青山望不迷。如今復覩文明運，百里明星聚紫奎。
拋樑南，老人星彩映澄潭。松翁自有無疆祝，世世吾家壽福男。
拋樑北，瑞祥山色環宸極。廟算誰能壽我民，金丹歲暮無消息。
拋樑上，營室瑤躔來像想。紫府星官次第迎，彩雲環繞仙人掌。
拋樑下，一木焉能支大廈。坦道如天在眼前，孫陽過後知良馬。
伏願上樑之後，龍虎擁護，燕雀賀成，一門和氣自在桑梓之鄉，百世清風不斷箕穎之郡。
上章闡茂菊月上浣，金錫煥 識。

嘉善金公墓碣銘【贈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金海金公麟奎之墓，甲坐，虎尾山麓】

謹按 公諱麟奎，字聖圉，號魯下，系出金海。遠祖管，高麗版圖書。入我朝，濯纓先生駟孫，以文章節行，冠冕一世，公其十一世孫也。高祖諱光載，壽職同樞。曾祖諱鎮宏，掌樂院正。祖諱陞弼，孝旌戶參。考諱宗烈，高宗辛卯贈嘉善戶判，妣貞夫人忠州池氏得洙之女也。公生於純廟甲午二月十二日，天資純粹，志操廉直。廣置田庄，克守箕裘之業，能盡孝悌之道。其祖龍谷公之立旌也，殫誠竭

力，罄盡家財，綽楔丹青，有光州閩。且於五仙洞妣位墓下，設立祭室，以供苾芬之所，豈非秉彝中流出者乎？高宗庚子三月八日卒，享年六十七，葬于咸平孫佛面虎尾嶺甲坐之原。配貞夫人清州韓氏尙祿之女也，柔順而慈，能紹內相。生二男二女，長錫燁，娶坡平尹氏季鎮之女，壽止五十二。次錫煦，娶光山金氏斗相之女。女適李啓昇，次適李炳吉，餘孫曾不可盡錄。嗣孫河永，追先懿蹟，將圖不朽，不避風雪，亟謀伐石。使余記實，余不敢以不文而辭之，故遂爲銘曰。

孝友傳家，出於秉彝。

內篤先業，外務實施。

虎尾之原，君子壽藏。

戒爾樵牧，勿伐勿傷。

一邱卜吉，百世流芳。

柔兆攝提格十二月下浣，從侄錫煥 再拜謹書。

祭柳溪洪處士

嗚乎哀哉！夫陰陽之消長，艸木之榮枯，固是天地之定理也，而人處其間，豈無壽夭長短之理乎哉！稟氣之清者爲賢，稟氣之濁者爲愚，而顏子具聖人之體，而未免於夭，夫子發天喪予之歎。至於吾東，栗谷先生享年四十有九，世稱東方夫子，垂教於後世，至於婦孺所共聞知者也。然則道德文章，忠孝事業，何關乎壽之脩短乎？惟我柳溪洪處士，壽僅踰甲，而其在朋友之講論，子孫之訓誡，亦不可謂之不多也。早年場屋，遠謝青雲之志，晚歲邱園，喜得素履之安。遠處江湖，常有范公之憂，貧居陋巷，不改顏氏之樂。公之平生，不可概論，而此日卽重陽前一日也。籬下黃菊，必是手種之花也。秋

露離披，誰寫典午之史乎？嗚呼！處士之於鄙生，香蘭結社之契，瓜葛通家之誼，珍重如山，堅確如石。情私痛哭，不流於人。陳箱文字收拾之責，數畝田宅生活之計，皆是病席托也。如此賤劣，恐不可承當，而豈不懂懂於心乎哉！言之未訖，有淚如泉，孤孫孀婦，左右泣血。捨此何之？素紼丹旌，一去行裝，猶有處士名不朽 嗚乎哀哉！哭之詩曰。

祭亡室【父在母喪，丁日祭文，卽小祥】

維歲次，辛未二月癸酉朔二十五日丁酉，老夫錫煥，昭告于亡室孺人全州李氏靈座之前，謹具菲薄，俾陳情禮，兼舉同居之實情。嗚乎痛哉，嗚乎痛哉！屬纊去年庚午四月十八日戌時也，痛悼忙迫，精爽飛越，無一字之誄。及其葬也，所謂共同墓之地也，情禮所到，罔知安厝之方，亦無一言永訣之文。早識文字，靡不痛迫，今日卽父在母喪十有一月練祭之丁日也。孫兒相春，告我以今日不可浪度爲言。援筆臨楮，不語淚先。嗚乎！自君之入吾家，三十二年于茲矣。孝養舅姑，敬奉君子，堂有和氣，庭無間言。內外親瘳，或五六年，或七八年。錫煥或從師友，負笈出外，屢月不返，惟君獨殫誠力，湯藥煮粥，終始不懈。及其沒也，善終三年之喪，非孝而何？往在戊辰，惟我迴甲之年也。若子若孫，設宴獻壽，夫婦同牢，壽盃相勸，膝下弄雛之戲，斑斑可愛。白首餘年，將有偕老之望，非慶而何？前室晉州鄭氏也，不幸早逝，幸有二男，元永·昊永也，撫而育之，及時婚娶，無異於己出矣。次子昊永，不幸二十七而夭，幸有二孫，其在養育之功，非慈而何？己出芝永·佑永二男也，婚娶已畢，生男生女，各安其業，非慈而何？嗚乎！晚有女息，婚嫁未畢，遽然先逝，撫育之恩，無處可憑。獨自求婚，蒙喪成禮，幸得崔郎，玉潤可愛。然回

而思之，可謂無聘母之婿郎也，情私所到，奈如之何？次幼，未知來頭之如何。嗚乎！假之以五六年之壽，則家力漸舒，而能事可畢，天耶命耶？嗚乎痛哉！顧我平生，晚年踽涼，浮在於四窮之首，琴瑟斷絃，鴻鴈失侶，獨坐窮廬，撫躬自歎。古所謂家貧思賢妻也。躬執泉麻而衣，我則奢，躬爨糟糠而食，我則珍。平時厚我如是之寬裕，及其逝也，何其棄我如蔽屣而絕我如朽索耶？未死前數年病枕，藥餌之供，靡不極力，而竟至沒效，歸之於天耶，歸之於夫耶！潛然出涕，黯然而消魂。我亦崦嵫之景，兩鬢如霜，一念如灰。在世之日，能復幾何？女婚已畢，塵債亦畢，泉臺相見之日，左提鄭氏，右挈李氏，重續人間未了之緣，未謂甚晚。回首青山，一抔春草，庶幾靈魂，何以慰我？不鄙賤誠，庶幾來饗。

祭亡室【父在母喪，大祥】

維歲次，辛未四月癸酉朔十八日庚寅，老夫錫煥，昭告于亡室孺人全州李氏靈座之前。嗚呼哀哉！今日即父在母喪十三月而祥之之制，而以其夫錫煥在世故也。爲其子者，三年乳養之恩，與天罔極，無地可報。豺獾猶知報本，烏鳥亦知反哺，人而反不如物乎！叩地之痛，不減於屬纊之日。然先王之制，禮有定限，敢不俯從乎！其日也，長幼內外，莫不痛哭盡哀，而其夫之痛淚，先於哭。與我同居三十有餘年，其於舅姑之生養喪祭，與之遵禮而終始。其於子孫之撫育婚娶，與之極力而周旋。喜怒之色，不見於面，叱吒之聲，不及於物。處於家庭，及其親戚，亦無間言，此可謂婦德之有一耶？事我如長，敬我如賓，至於衣服飲食，襤褸糟糠，躬自不厭。甘旨輕煖，歸之於我，此非家貧而妻賢者歟！貂裘屢困，鹿車相挽，偕老末年，長擬琴瑟之樂。了婚他日，以待山岳之遊矣。安知人世間有此日

耶？且年齡不及我十年，意謂君先哭我，我反哭君耶？家力漸縮，債積如山，來頭生活，渺然難測。況今靈帳在寢室之傍？衣衾枕席，舊時之樣，音貌笑語，隱若生時之樂，恍然如在，慨然如失。轉轅反側，寤寐求之，此乃事死如事生，事亡如事存之義耶？長者執燭，少者獻爵，曉頭鷄鳴，將行辭神之禮。左徹帷帳，右徹籩豆，有限之禮，無限之痛，憑誰而問乎？何其棄我如枯木，而反不念我之兒孫乎？予亦病霜秋葉，枯落無幾，使此耿耿不寐之人，能餘幾日耶？君去後，嫁女得婿，崔大鉉也，如玉潤而我獨愛之，次幼，成婚之日，當有告君之辭矣。嗚乎！我不君君，孰曰君君？言不盡而淚不盡，情有餘而哀有餘。死者無靈則已，如有靈魂，監此文而感愴焉。孫兒相春，服勤祖母喪，而亦解文字，故教而書之，跪而讀之。不鄙菲薄，庶幾來饗。

譜單文【代作】

水是一源，而尚有千流萬派之殊，木是一根，而亦有千枝萬葉之異。收宗族之支流，而歸之於祖宗之根源者，豈非修譜之大者乎？譜也者，所以尊祖敬宗，收族惇親，而譜久則必修而改焉。粵在丙戌，世譜之修，距今三十年，而至於孫錄，存沒未詳，尊祖宗惇族親之義，顧今安在哉！惟我天安氏諸派，殆遍八域，欲以大同合議，則事巨力絀，非容易可成，而自我先祖大提學公以下，更爲修譜焉，則可謂派譜，而亦可謂家乘也。幹固而枝茂，源豐而川行者，其不在於此歟！茲以宗義詢同，自今某月某日，新設刊所于某處，而別定有司，馳通于各郡僉宗座下。通到之日，卽爲合力收單，賁臨譜所，毋至臨時葛藤之地，千萬幸甚。

代人草輓章 刪

維歲次，庚午閏六月丁丑朔十三日己丑，咸平孫佛坊大田里，友生金采憲，謹拜執紼于月隱朴公靈輦之前。而痛哭曰，嗚乎！公之生於世三十七年，于茲早業，家庭屢致萬金。遠遊京洛，心懸雙闕。孝當慕親，碑閣有光。意在敦族，義庄相望。大器夙成，縱有遠大之前程矣。豈意一朝遽至於斯境耶？天胡不佑，神胡不知？慈母在堂，鶴髮翩翹。穉兒遊庭，省彩緋緇。負荷如此，重大之任，而脫之視如敝屣耶？承訃驚惶，罔知攸措。月谷之月，遽作空樑之月耶？鄙生之出入於軒屏，可謂十數年，雖曰異姓，無異兄弟。牙絃一斷，海山無際，人琴俱亡，此非虛語也。然鴻歸印雪，鳳飛遺毛，天壤懸絕，何處聆音？敢將瀆綿，痛哭數聲，山川嗚咽。平生之契，似無幽明之隔。不鄙區區之誠，庶幾來歆。

庚午六月。

成造開基祭祝文 刪

維歲次，某年某月朔某日，幼學，敢照告于土地之神。今爲壬寅生命金佑永，爰擇吉日，相土開基，卜宅于茲。皇天后土，實唯共鑑。上棟下宇，大庇風雨。左輔右翼，遠挹山川。爰居爰處，戍坐辰向，神明默佑，萬事如意。敢舉祝辭，華三箕五。熊羆八夢，鳳凰呈祥。某年某月，某日某時。如山如川，如松如栢。一門穆穆，百世綿綿。自天佑之，吉无不利。謹具酒果，用伸微誠。伏唯神靈，庶幾來歆。

庚午八月初六日。

祝中國統一國慶

春秋大統, 華夏雙節。
無思不服, 莫非爾極。
觀華祝三, 登高呼萬。
猗歟駭奔, 不勝鰲折。

卷八 附錄 一：次韻詩集

遲松原韻詩

遲松晬宴韻

遲松原韻詩

庚申九月九日，依香山白蓮庵故事，做潯陽黃花籬清遊。

【遊，秋，留，州，頭】

此日年年卜勝遊，黃花消息喜逢秋。
安貧莫道常居陋，明春何辭自擇留。
紫馬嘶風適冀野，白衣引酒自江州。
菟裘自此江湖遠，何處長安又舉頭。 遲松

遲松今擬白蓮遊，三月餘期又九秋。
同樂却忘年荒屹，惜離但願日光留。
望美孤忠依北斗，待時丕策隱南州。
壽盃更獻黃花酒，九老香山幻黑頭。 右 萬林

群賢有日卜清遊，時序江南屬季新。
酒席儻開詩軸爛，霜籬只看菊花留。
小淡淨去鳴三里，團會想應擅一州。
知是風流難盡處，主人不讓最先頭。 右 在福

每逢吉日卜清遊，春已三三九九秋。
有約黃花霜氣早，無情白髮雪痕留。
曾年假設香山社，會客無非潁水州。
一席風流歌數闕，韶齡紅面戲樓頭。 右 柳溪

九九三三卜日遊，會其老少異春秋。
園松盍盍仙禽到，門柳青青客馬留。
盃酒期花雲北洛，詩篇贈月海南州。

一場歌舞風流地，倉卒間題却讓頭。 右 竹軒

年年九老暇清遊，未了春期又是秋。
俄命伐梧琴瑟奏，故因採菊酒盃留。
酒家德澤遺千世，登座衣冠盡一州。
傾海難量如此樂，風流終日小樓頭。 右 正淑

老少同情卜日遊，送春餘約又期秋。
曾憐萍水常分合，只信雲山任去留。
徵士遺風新栗里，故人多處是并州。
適有絃歌詩興爛，不知醉帽半斜頭。 右 痴齋

老去年年益壯遊，四時第一仲陽秋。
客依籬落花牽採，主掃華堂酒熟留。
山抱仙莊園綺里，海通絕域楚吳州。
潯陽流水塵埃洗，香社蓮菴不讓頭。 雙梧齋

老境風流樂讌遊，何年此日不今秋。
纔經江草三三會，尤喜籬花九九留。
香社不空鳴而傳，醉鄉無地吸青州。
援伶定甲旗亭價，自詡窮蹤雪滿頭。 穎史

會似蘭亭柵勝遊，曾過春社又逢秋。
掃塵榻上仙應到，投轄井中客故留。
一曲清歌吟白雪，數盃醉興吸青州。
如今歎惜天時促，際髮蕭蕭九老頭。 在鬪

與君多得此時遊，始見黃花今已秋。
十分塵夢醒還在，一任仙書讀又留。
可使知音歌白雪，應隨從事飲青州。
此席風流猶未了，自來自去古江頭。 彥永

不問可知際此遊，蘭春又是菊花秋。
華堂便作忘年會，勝地尤欣竟日留。
君自安貧居陋巷，誰能定價唱涼州。
離歌一曲相分手，去路雲山水盡頭。 晚愚

黃菊佳辰白首遊，三春荏苒忽清秋。
西湖別別初筵設，一歲難難是日留。
勝事元來多赤縣，此身何處負嘉州。
兩鄉老士知誰在，定甲伶官次點頭。 小湖

一歲中分再卜遊，三三九九記春秋。
如蘭已結同人會，爲菊何辭此日留。
莫使空樽傾北海，更將懸榻下南州。
光陰不共風流在，可惜浮生易白頭。 遲松

遲松醉宴韻

戊辰閏四月二十一日廻甲

醉宴原韻

每憶青年侍兩幃，遠遊爲罪似儂稀。
古人已有傷風樹，今日難忘戲彩衣。
門外蓬桑違素志，庭前梧竹動新輝。
壽樽絲管爭相賀，自愧心中六十非。 主人 遲松 金錫煥

月榦山晴影入幃，鍾英高士到今稀。
初葦干豆超才器，先甲蓬桑設羈衣。
文焰西湖人慶賀，玉躔南極夜光輝。
蘧公愚智如同日，已悟行年七七非。 穎上老病人 金斗三

自東自北廣開幃，六一人間此日稀。
禮重賓稱王母酒，孝深兒願老萊衣。
春長壽域籌花映，自爲松節澗邊輝。
瑤海之西南極下，仙鄉宛在子真非。

獻賀高開白日幃，熱門遐福似君稀。
在堂隱隱登笳筑，處野囂囂樂布衣。
可愛槐陰庭上滿，自爲松節澗邊輝。
鶴南飛曲蘇仙後，文章亦一是而非。 右二首 小湖 李桓榮

遲松居士老書幃，招出叢中歲亦稀。
感孝心衷當倍痛，享榮膝下摠斑衣。

豈徒壽筭平生足，能使文章後日輝。
隱谷深深紫霞裡，不關塵外是而非。 石溪 金鳳海

鐵樹花前設幔幃，津津晚福似君稀。
介眉爭獻三盃酒，繞膝爛垂五色衣。
階上茁蘭含雨意，園中寸草報春輝。
主人悲痛賓朋賀，兩得人情孰是非。 忍齋 商山 金坤

正正畫屏繞繡幃，似君八字世間稀。
鷺賓鶯友歌春曲，鳳子麟孫舞彩衣。
一洞皆稱榮事足，四隣共賀德音輝。
安貧行樂今廻甲，遠避市朝無是非。 荷堂 李滋馨

早歲讀書固閉幃，文章年紀見今稀。
席前有價千金筭，天下無公一布衣。
直節孤松繁夏蔭，孝心寸草報春輝。
慎言謹行回先甲，不向時人辨是非。 鉢下 金昌璿

德門如市大開幃，今此弧辰第一稀。
賓客醉醒皆白髮，子孫起舞盡青衣。
唱歌益日東邦出，獻壽庚星南極輝。
露面綺筵多貴慶，人間不作是耶非。 悔齋 林鍾彩

南極星明海上幃，六旬有一古來稀。
揖讓樽前添壽酌，舞遊庭下戲斑衣。
鐵樹花開春已晚，玉蘭香播德初輝。
祇應此外無甘老，白首當年遠是非。 金華洙

壽星特照晚松幃，甘老精靈世所稀。
麟趾謙恭承露盞，鳳毛和樂舞斑衣。
滿心道德乾坤大，盈耳名聲日月輝。
只養平生活然氣，不關流俗是而非。 荷洞 李芳彥

和遲松原韻

月權峰隣玉女泉，夾流松老幾圍連。
盤龍根錯終穿石，巢鶴梢長遠接天。
保赤堅心能耐雪，染蒼寒色厚凝烟。
堯廡舜殿宜樑柱，同汝高人氣浩然。 戊辰至月初一日 穎上逸人 金斗三

盈科漸進在源泉，松澗交柯棗萼連。
磨琢真工登實地，栽培厚祿自仁天。
亭高剩得江湖月，山秀平鋪洞府烟。
晚翠元來殊早發，於人取譬物猶然。 蔡軒 曹秉萬

卷九 附錄 二：遲松齋講會韻

遲松齋講會韻

萬事思量揔蜃樓，當時不遇幾名流。
吟詩不覺花生吻，對鏡還羞雪滿頭。
午霽前川隨柳岸，波清上巳禊蘭洲。
一觴一咏惟吾志，莫向東風惜此遊。 遲松 金錫煥

遲晚蒼松構一樓，溪固九曲繞軒流。
年深赤甲雪容骨，獐臥青陰鶴上頭。
憂國丹忠依北斗，輔仁素性鎮南洲。
自古美風從此始，一邦文雅任清遊。 松友 金錫休

清明時節上斯樓，乍雨輕風水自流。
莫言諸客雙分手，惟願高師一點頭。
閑園恠石層層砌，遠浦孤帆漠漠洲。
春服新成樽酒熟，何難今日咏而遊。 月蕉 金箕三

薰炙幾何始上樓，居然歲月逝于流。
親朋舊號扁華額，高士寒心謾白頭。
修契依蘭同晉社，浴冠歸服又沂洲。
三春清景多今日，願使浮生故故遊。 月巖 文士玄

月坡亭後又松樓，淑氣芳緣超俗流。
詩書今世惟優手，禮義當年不讓頭。
美酒盈樽同北海，淡霞滿地是瀛洲。
鄉論如一齊齊會，祇願年年作此遊。 瑟山 李東憲

酒滿芳樽客滿樓，一觴一詠水同流。
曾能傲世多青眼，獨自憂君已白頭。
瀕上人來牽犢路，襄陽誰識臥龍洲。
爲愛遲遲含晚翠，不妨此日作遨遊。 金采憲

松翁來坐月坡樓，堪歎年華水共流。
翰墨曾經風雨夢，光陰不貸雪霜頭。
春聲先得黃鸝谷，野色平分即鷺洲。
此世絃歌猶不絕，千秋追憶武城游。 金大永

文酒相逢第一樓，滔滔濁世是清流。
蒼鱗將老龜先甲，白髮誰題鶴上頭。
樂在簞瓢居陋巷，時當冠服浴沂洲。
至今松老多康健，願使年年續此遊。 海保城山 尹相采

慰我松翁客倚樓，一棟石上傍寒流。
耆英洛社同知己，少長蘭亭不讓頭。
朝雨初暗芳草路，午風方淡綠楊洲。
滿家和氣齊花樹，豈是尋常作此遊。 金錫七

一亭扁額只餘樓，可惜人間歲月流。
蜂趁新葩歌壁角，燕尋舊主賀簷頭。
玉池洞裏文章宅，舟游沿邊漁子洲。
何幸三三占此日，詩中而樂酒中遊。 月川 李日範

澗畔松高鶴入樓，却疑鐵笛助風流。
一年第一桃花節，三月初三燕子洲。

恨未青髻能繼蹟，緣何白髮不饒頭。
爲親今日祝遐壽，喜作庭前斑雀遊。 子 金佑永

多士趨風會此樓，峨冠博帶盡清流。
三巡薄酒猶爲足，一打佳詩共讓頭。
選日薰回春上巳，臨門鶴去水西洲。
論今講古皆真率，不是東風蕩子遊。 鶴橋面上玉里 崔基弘

一大松成百尺樓，遲遲石上獨寒流。
滿枷書籍先生手，執禮冠巾弟子頭。
不畏風霜依澗畔，更尋花柳浴沂洲。
月坡亦是蘭亭事，時適暮春結社遊。 大洞面德山里 金在祿

老松遲遲海上樓，淡交如水不知流。
詩寒梅瘦來驢背，酒熟葡香點鴨頭。
誰似耆英鳴洛社，願將規禮講滄洲。
接人和氣春長在，勉使龍眠畫此遊。 金錫午

吾祖風儀鶴上樓，胡爲歲月水同流。
今日觥籌宜獻壽，遠方車駕摠迴頭。
願使耆英同洛社，誰教仙侶下瀛洲。
海棠花下兒孫樂，彩舞翩翩燕子遊。 孫 金相春

燕來時節客登樓，一帶鳴波礪畔流。
雅操可知寒歲後，感筵始勑古江頭。
非徒李杜鳴唐世，望若喬松渡漢洲。
春暖能消尺餘雪，誰知門外是楊游。 金河永

自遠衣冠滿此樓，賓筵無可不風流。
欲從琴韻同知己，却賀詩情謹稽頭。
玄燕營辰還古宅，白鷗休暇放虛洲。
停杯爲問春消息，要得湖西日日遊。 金壽永

月坡亭上又松樓，超俗何爲雜世流。
客子到來駒犖谷，先生老去鶴悲頭。
杏花院前依依屋，楊柳池塘淡淡洲。
安得清明兼上巳，年年歲歲續沂遊。 月川 退窩 金永瑞

春三此日上松樓，堪歎主翁歲月流。
高節亭亭清水面，道心戰戰仰山頭。
杏花踈雨蜂王國，芳草平烟燕子洲。
若使後生能繼蹟，相逢何處豈無遊。 光水井里 金奇範

寒食清明盡上樓，天時人事一風流。
金蘭深契同知己，玉樹清詞各讓頭。
蹇鬣停于青艸路，玄禽至自白蘋洲。
第看遲遲含晚翠，願將歲歲緒斯遊。 月川 鄭鍾南

不徒覽物上斯樓，松磴遲遲水自流。
南斗一人名下士，東風三日月初頭。
櫻花艷彩重重樹，蕉葉輕觴曲曲洲。
隱谷盤桓今栗里，請君莫惜伴春遊。 金永煥

春風吹笛月坡樓，莫使年華水共流。

穎上聞人應洗耳，世間公道不饒頭。
一門和氣花交樹，百世清名月滿洲。
玉潔無瑕蘭有臭，薰陶涵泳是清遊。 張良基

仰慕松翁上此樓，一門和氣溢如流。
花間亂酌多仙味，林外群峰點佛頭。
話謂鳳簫鳴嶰谷，已知鹿洞近滄洲。
同心修禊同聲應，不是西湖放浪遊。 月溪 尹晃錫

遽然掃洒翼然樓，飛羽觴而重巡流。
一座席三春勝事，千絲柳十里江頭。
人語斜陽門水洞，客樽是月大田洲。
箕城以北如雲會，歌鼓清音屬旧遊。 竹坡 牟昌基

冬秀夏寒第一樓，靜聽瑟瑟好風流。
高明既卜良辰下，香社大開上巳頭。
講禮論文依畫榭，看花隨柳過芳洲。
蒼顏翠色無窮樂，更屬月坡盡日遊。 柳川 牟鍾寬

昔時或上月坡樓，今對長江眼界流。
雨歇斜陽樵笛裏，鳥啼絕澗落花頭。
香醪滿酌紅生面，野色連天綠暎洲。
青衿曾下遲松膝，幸作當年此日遊。 石南 李明準

松翠遲遲掩小樓，先生晚節出凡流。
頓忘富貴求名下，自愛樵漁入念頭。
楊柳風涼迎客戶，桃花春暖訪仙洲。

山陰蘭會曾何日，天與西湖又一遊。 弦堂 尹滋善

蘭亭契事又松樓，水畔飛觴曲曲流。
草亦被留賢者彩，花何羞上老人頭。
黃鸝喚友來幽谷，白鳥尋盟下古洲。
風浴詠歸千載後，誰能賜此一優遊。 金甲永

燕來佳節客坐樓，楊柳青青水自流。
人事煖衣垂後戒，天時寒食在於頭。
金鳴律呂鶯遷谷，玉潔儀容鷺立洲。
閱盡風霜松亦老，笙歌終日鶴同遊。 金準永

西湖眉目月坡樓，惟有松翁第一流。
酒國李仙能敵手，詩中杜老敢爭頭。
尋花永日忘歸路，隨柳晴天緩下洲。 後翠 金東昕

遲松之下澗邊樓，偏愛琴書不俗流。
講會時當三吉日，詩情老去百篇頭。
花多千種無餘地，帆載雙清未係洲。
午天隨柳緣底事，爲我先生暇一遊。 月史 魯福相

瑤琴斜抱上江樓，山自峨峨水自流。
幽谷蘭非凡草伍，深園梅向百花頭。
瑞陽家在興龍里，潁上人來飲犢洲。
斯筵兼祝無疆壽，五井蓮開太乙遊。 金基炳

歲寒松老掩斯樓，石上遲遲俯碧流。

柯葉成家垂後蔭，棟樑支廈在前頭。
已能卜隱開三逕，那必尋與遍十洲。
日夜當思無忝祖，海棠花下伴春遊。 孫 金相天

羣賢同德上斯樓，觴詠之間歲月流。
南州高士無雙節，北斗文章第一頭。
梨花弄雪橫籬落，柳絮迎風拜野洲。
講筵已定今三月，更待明年此日遊。 金彥永

無地經營有美樓，莫將歲月水如流。
四時閱盡多青節，三逕盤桓已白頭。
楊柳風輕舞雩縣，桃花浪暖武陵洲。
蘭亭勝會應如此，又見西湖汗漫遊。 金康永

禿杖透林晚到樓，又兼喜友好風流。
酒寬不讓傾千斗，詩拙難爲點上頭。
趣以陶潛依古畔，心同魯質下空洲。
一團和氣春如畫，願學先生箇裡遊。 老峰 羅汝辰

月坡亭畔一層樓，始覺年萃逝者流。
客子登臨多素履，文章虛老感皤頭。
風光滿地三春景，海色連天一隊洲。
上巳清明經過後，好將詩酒作娛遊。 蓮坡 金在乙

今日從師適此樓，於風於浴向清流。
慎言莫若三緘口，爭律何如一讓頭。
三月春光黃鳥谷，一天湖色白鷗洲。 冬岩里 菊圃 李京有

講磨古道會斯樓，洙泗源深一派流。
諸子同庚皆熟面，良辰上巳適當頭。
春晴芳艸香濃地，風打楊花雪滿洲。
高節遲松齊北斗，遠方多士共追遊。 蘭圃 李東昶

山水華麗起一樓，經營是日足風流。
猗猗菴竹看淇澳，盎盎貞松秀澗頭。
已遂坡亭依北岳，新成畫閣隔南洲。
主翁德器無窮盡，滿座衆賓致勝遊。 朴成俊

光風霽月一高樓，樓下方塘靜不流。
道味深長君子表，羽儀皎潔士林頭。
賦詩聲動江南國，忠義憂深漢北洲。
嘉會非徒今日已，更將餘興願重遊。 申星宦

時適重三會此樓，鳴鑾戛玉盡賢流。
聽來鷗海春風裏，講罷麟經瑞日頭。
學院崇高同稷下，林泉瀟灑近瀛洲。
吾行不爲尋常事，只是從容就德遊。 全京垂

月明山下水明樓，講會無非樂道流。
泉壯一源充海腹，松高千尺昂雲頭。
鸞和誰到林端閣，風浴人歸野外洲。
是日所懽知者鮮，前絃後誦足清遊。 金在翊

月坡亭上又松樓，由是名聲四海流。
題詩一軸許知己，有酒三杯好會頭。

朝陽畫閣燕賀樑，暮日江村鷗下洲。
以文會友講論席，情誼淡淡敬身遊。 雲岩 鄭濟郁

東南同志喜登樓，洛邑羽觴更泛流。
細柳弄風搖水面，遲松傲雪老岩頭。
懽顏聽鳥臨幽谷，白首盟鷗蘸遠洲。
誰識蘭亭今復在，莫辭勝事久淹遊。 立菴 李星鎮

一代文章一陟樓，西湖風月醉中流。
林深綠酒對青眼，春晚紅塵頻白頭。
列坐詩豪料滕閣，優登學士訝瀛洲。
平生此會知難再，洛社耆英閱幾遊。 李永三

遲遲澗畔築松樓，灑落枕邊水自流。
最宜筆翰題青史，可惜衣冠老白頭。
喚鶴閒情將月夕，觀魚清趣下爛洲。
孔明去後新龍在，高臥艸堂誰共遊。 金明西

多士以文會一樓，情同洛社舊風流。
金蘭厚誼重生面，玉樹高風更起頭。
幽鳥遷移喬木上，游魚超出大洋洲。
講論俱是唱酬興，和氣伴春娛此遊。 素安 全良先

今年巳日強登樓，修禊合蘭元氣流。
勝錦桃花千機裏，如綿柳絮一江頭。
見君可惜凌雲賦，顧我却忘學海洲。
聞道月坡亭上樂，遲松高師伴仙遊。 朴成圭

抱道晚成松一樓，淵源深重入眞流。
時鋤藥艸芽生圃，更網桃花泛去洲。
最喜相逢論舊誼，願言此會在來頭。
佳賓賢主團圓樂，麥雨初晴借暇遊。 李鎮燧

文華近代擅名樓，一派學源長是流。
自古聰明先出首，如今講會互爭頭。
賞春適可青山界，飲潔何妨綠水洲。
聲氣相求多感慨，德門咫尺願從遊。 南浦 高光述

踏青今上太行樓，茲有飛觴泛彼流。
客會三春多熟面，主當稀壽宴開頭。
一天雨歇香花岸，十里烟晴楊柳洲。
上巳良辰古專美，遲松齋上不忘遊。 李成範

和陽吉日上高樓，渭水西回乙字流。
花落庭園輕蝶翅，松遲澗畔老龍頭。
鶴棲蒼樹文章宅，鷺渡清江客子洲。
箕北諸儒多會席，其蘭其臭付賢遊。 月亭 鄭二民

南極星光拱此樓，老萊子舞舜風流。
厚名未從三思意，遲松獨立六花頭。
諸孫獻壽呼千歲，會友以文作十洲。
此中亦有難畫處，夢隨勉菴憶昔遊。 芝隱 金錫浩

三三此日晚登樓，夕照射窓鳥語流。
葉繡花明春似畫，門深山屹地開頭。

閑依月影吟清夜，靜聽風馨卜古洲。
齋得遲松松得主，主翁趣味兩客遊。 竹史 張道植

山水虛明中有樓，威儀滿座盡清流。
高山名節須專志，巨海文章獨厭頭。
楊柳詞成黃鳥院，滄浪歌送白鷗洲。
時當上巳多祥氣，一唱一酬卜勝遊。 芝谷 金永務

問春携酒上斯樓，日色方濃瑞氣流。
少年詩賦動新說，老客風霜吟白頭。
柳烟近隔黃茅屋，花雨初晴碧澗洲。
澗畔孤松含晚翠，適來仙鶴與雲遊。 申良三

經營勝宴一高樓，興味津津意氣流。
歌舞華麗歡樂裏，酒肴浪藉醉沉頭。
咏聲不絕鳴山岳，道理無窮振海洲。
第會佳賓連座上，適當是日遂優遊。 李鍾云

期成講會卜斯樓，雅望隆隆德氣流。
松琴意抱多同志，書劔胸藏莫上頭。
白髮共悲桑海地，青雲已笑洛橋洲。
獨樂林泉誰有識，吾生此日願從遊。 芝山 李中燮

烟波江上月波樓，美盡東南非俗流。
嗜學已勞從鹿洞，舉賢應是選龍頭。
衆蘭列座香生室，五柳垂門綠映洲。
典午遺風今復續，詠觴曲水幾人遊。 芝軒 金在瑛

一生事業在書樓，爲惜塵間歲月流。
壽考喬松宜作伴，文章李杜可爭頭。
舞雩風詠今何處，曲水羽觴又波洲。
自古稀年開盛會，青衿白髮共優遊。 桂岡 金昌瑢

晉代芳名又此樓，拔蘭佳會好風流。
早年事業貽餘後，一世文章坐上頭。
縱酒鳥歡春季樹，放歌魚聽夕陽洲。
華筵須盡東南美，竟日忘歸諾諾遊。 杞泉 金禹鉉

水門內圻起高樓，一枕君山自北流。
葉帶長春青藜杖，枝因棲鶴白翁頭。
漁父荷竿松坡岸，緣木求魚漸瀝洲。
不改清陰窓下帶，詩人可愛樂成遊。 全圭相

山四面回翠隔樓，形形色色摠芳流。
可凌嚴雪蒼髯鬚，不畏大冬綠髮頭。
落落雲條高舉盖，遲遲風葉漸生洲。
許多景物畫難得，其外花程麋鹿遊。 林敦澤

日吉辰良上此樓，一場詩酒好風流。
有緒弁文曾舉目，聞風多士盡回頭。
安分甘瓢居陋巷，抱經虛老落濱洲。
淵源自在師門路，勉後方尋暇日遊。 竹坡 朴明春

芝士蘭朋會此樓，當今儒雅盛風流。
西河組帶幻塵面，北海絳帳繞案頭。

非其遯跡烟霞界，是可開襟風月洲。
花雨晴天時適好，團欒一席盡情遊。 松亭 全元叔

湖南第一起斯樓，主翁何去水空流。
諸子入門能修道，嘉賓滿座各讓頭。
杏花時適三春景，大海中通十里洲。
日吉辰良難再得，酒豪詩傑共衿遊。 林成萬

智水仁山精灑樓，日光明朗白雲流。
詩聲歷歷臨亭上，道味淡淡步沼頭。
晚翠貞松斯澗畔，盛猗棗竹彼淇洲。
新成畫閣應爲事，歌舞津津足一遊。 李玟彥

背山臨水起高樓，中有閑人超俗流。
司馬文章無敵手，臥龍籌策故潛頭。
光風霽月千年宅，叢竹芳蘭兩岸洲。
鮮楚衣冠多少會，詩論今古足清遊。 金吉鉉

暮年歸隱一孤樓，滿地松陰隔磻流。
醉臥花間春入髓，愁看鏡裏雪盈頭。
聊憶仙丁題遼柱，願令童子浴沂洲。
休暇其何三日雨，天晴又是賜真遊。 白允五

于今會席月坡樓，一人小處小風流。
尙新手澤幾諸子，可愛文名空白頭。
莫道春城花柳色，元非秋夜繡蘋洲。
大田之下遲松院，詩興陶陶暇日遊。 鄭長汝

入山抱道起松樓，數曲滄浪不俗流。
草木彩生精舍外，杏花酒熟大田頭。
功名曾謝青雲路，世事遙望白鷗洲。
麥雨初晴開勝會，圓冠方領共歡遊。 鄭正植

以文會友月坡樓，忠孝傳家禮樂流。
稀年和氣携紅袖，憶昔寒心咏白頭。
閱山屹屹登方丈，酒澤渾渾下瀛洲。
今宵醉興勉菴夢，明日更期後存遊。 白南基

南極壽星照此樓，彩衣舞袖舜風流。
金樽滿榻多青眼，玉露滋心還黑頭。
先生書籍傳千歲，獨我葉船放十洲。
却憶世情終日樂，明春此席更期遊。 後止 宋文化

喜聞此日上斯樓，學海風烟滿眼流。
彬士齊論多記蹟，後生賀意共迴頭。
早辭一世青雲梯，虛送稀年白鷺洲。
學不厭而東勉塾，友松晚節盡情遊。 張大均

景慕松翁挽上樓，翩翩濁世是清流。
諸賓齊到良辰際，佳會初開上巳頭。
憶昔簞瓢居陋巷，況今冠服浴沂洲。
非絲非竹宴酣樂，第是西湖第一遊。 金判根

東服南冠登此樓，一團和氣是同流。
胸中丘壑老青史，身上布衣歎白頭。

晉代風留松古畔，洛閩淵會太陽洲。
三三佳節非何處，莫若此筵清雅遊。 桂隱 金大甫

山下澗邊起小樓，會同賓客好風流。
西山忠節能懷志，南國文章不讓頭。
飲酒羽觴非洛邑，秉蘭除穢是瀑洲。
遲松百歲今連抱，誰識斯間君子遊。 綾岩 金正炫

地盡江南關北樓，遲松講會一風流。
靄靄烟凝楊柳際，纖纖雨滴杏花頭。
左接僧峯顏子巷，右通河海剡磻洲。
彷徨天地無何樂，偶得浮生此席遊。 裴善會

主翁清趣達松樓，偏愛遲蒼歲共流。
安貧不踏青雲路，避俗將隨白鷺洲。
蝴蝶耽香窺院裏，燕兒尋舊賀簷頭。
也應鄒魯猶餘學，優得師門此日遊。 裴良辰

遲松齋下一層樓，檻外清溪不盡流。
雨情春色開新市，春暖桃花笑上頭。
五柳清風同栗里，一竿明月伴桐洲。
酒餘病渴終難解，幸得華筵詩客遊。 裴良辰

賢士高名起一樓，文波傳世百年流。
諸友交情加酒上，先生豪氣載詩頭。
白髮藏身鄉草屋，青春參科洛城洲。
此筵勝事筆難記，歸路悠悠期又遊。 月川 崔相元

講道論情會此樓，春光忽入月坡流。
斷金宿契相知已，定甲新詩摠押頭。
先生別業遲松舍，客子回程細柳洲。
應時芳名遺百世，蘭亭勝事又今遊。 竹坡 鄭元植

鬱鬱蒼松下有樓，一源活水礪中流。
東溟可蹈魚無願，北斗聊望幾舉頭。
學進出遷黃鳥木，興來回向白鷗洲。
君山喚我春三月，芝友蘭兄是日遊。 醉石 徐建鎬

水北山南一小樓，雨餘風景眼前流。
芝蘭結契千秋節，竹松垂名百歲頭。
晚翠孤松遲澗畔，早開細柳盛江洲。
咏觴無盡支離上，爲主諸賓暇日遊。 李京仁

以文會友入斯樓，晚愛林泉檻外流。
華榻初開松舍上，仁門已闢月亭頭。
衣冠依舊槿花域，物色更新楊柳洲。
芳春勝事無違約，賢主佳賓竟日遊。 金在喆

大行之北築高樓，倏忽光陰七十流。
曾遊翰墨多名藝，隱在雲林已白頭。
訓子教孫眞聖道，樵山漁水下江洲。
月坡亭會蘭亭友，千古無如此日遊。 朴乃西

多年營作一高樓，檻外潺潺添水流。
詩律幾吟明月下，珠簾高捲白雲頭。

翰墨先時懷北闕，漁樵歸日下南洲。
彬彬佳客如斯會，若不新詩非勝遊。 裴永俊

樂山樂水翼然樓，道味悠悠歲月流。
結誼貞蘭生院裏，不凋釋栢立庭頭。
看花意氣臨松岳，聽鳥精神向柳洲。
是日衆賓須盡醉，月坡亭上足優遊。 李玟旭

先生隱跡一松樓，不染世間層浪流。
擇址爰居建金洞，忘機時下白鷗洲。
碧艸煙晴回路上，紅桃源隔大田頭。
月坡亭續蘭亭事，後日應傳此日遊。 菊圃 鄭萬林

晚愛林泉築一樓，倍生精彩滿山流。
仙緣再到桃花洞，客路四通楊柳洲。
幾多案上著青史，可惜世間空白頭。
和氣團團樽酒樂，願言頻續此時遊。 雲谷 鄭文錫

反覆留場蜃化樓，蹈東海住海波流。
偃艸風從難隱跡，叢林雨急莫回頭。
飽仁藏德龍潛澤，驚劫超塵鷺夢洲。
第看橫島合非遠，更把情懷松峴遊。 樂堂 李光昊

三月全南起高樓，每論六藝好風流。
道連一貫修身足，詩與洞庭不讓頭。
建峙老松經臘雪，大田港口接湖洲。
此會胡爲非凡事，知其所止有方遊。 晚翠 朴景來

逆旅春節適此樓，經筵章甫盡清流。
烟霞繡篆來留榻，士友論文坐點頭。
達觀何年登泰岳，仙緣今日下瀛洲。
滋蘭樹蕙荃安在，可與諸生樂且遊。 忠南黃澗郡西東里 嶺樵 宋鍾煥

適伴東君入此樓，景光泛艷滿山流。
詩中最喜舒清興，醉後相憐共白頭。
千絲碧柳先生檻，四面紅桃漁子洲。
蘭亭勝事今爲續，每擬年年暇日遊。 栢圃 鄭泰錫

濟濟衣冠上此樓，一區風物畫中流。
感人懿德題青史，動世文章許白頭。
棋局關心忘累俗，魚梁知足下長洲。
聞風多士遠方自，嗟我晚生盡趣遊。 雲坡 金鍾廈

月亭特立老松樓，因號尙遲歲月流。
寧含乳雨長春色，莫向寒江戴雪頭。
儼儀容似北山岳，行道源來東海洲。
尊門弟子心中事，效則古今供此遊。 姜麟馨

春風引路上高樓，胸復半開興自流。
酒婁巡盃常我足，詩先揮筆最善頭。
花容影鎖村三里，細雨聲長檻一洲。
如此堇讌日欲暮，鸞歌鳳舞優清遊。 芝谷 丁永宅

湖上青山山下樓，滿場詩會設風流。
客來三月鶯花節，主臥七旬鶴髮頭。

名稱當代南州士，源出先生東海洲。
唱罷畫欄塵累遠，遲松況若赤松遊。 牟營台

以文會友坐壇樓，左右花鄰前澗流。
詩酒香浮松舍下，德行多積月亭頭。
禮節變更新判國，江山不改古看洲。
暮春時景今何晚，送別遲遲竟日遊。 白坡 安相燮

忠孝傳家卜此樓，以文會友舜風流。
省意設宴皆近族，盡心修道是長頭。
金山半落青天外，林水中分萬歲洲。
論詩斯席今餘恨，後石勉菴作伴遊。 雲坡 趙琪衡

道朋義友共傾樓，誰識斯問伊洛流。
隱谷芝蘭多聞臭，詞林龍虎獨擡頭。
無雙勝會花三月，惟一名區地十洲。
未盡餘懷留後約，年年此日續清遊。 魯鎮佑

先生欲拜喜登樓，當世文行非俗流。
士友聞風多賀事，淵源彰美共回頭。
曾年步進勉庵膝，暇日舌耕東海洲。
槩舉公議從此定，更將詩酒好相遊。 後松 朴仁培

先生抱道入松樓，其奈人間歲月流。
薰子遊時相有約，桃花開處適堂頭。
招隱谷傳叢桂洞，濯纓歌和玉池洲。
詩多絕唱樽醪熟，十載江湖初一遊 梅亭 金炳亮

遲松講會月坡樓，行酒論文每序流。
少志功名趨馬上，老恰經傳望可頭。
滿砌芝蘭香播洞，護籬梅竹影棲洲。
相逢是日成春服，願與浴風連更遊。 靈光丑東里 文勤泰

花樹逢春香滿樓，講叅詩禮月波流。
志在南陽槃誓澗，道深東海達源洲。
耀人耳目垂青史，慕聖規模老白頭。
經寒栢悅遲松茂，遍額始聞願一遊。 靈光郡弘農面七谷里 金亨五 謹稿

甘老七旬穎上樓，詩壇到處管風流。
早年從事師門下，晚境晦韜岩穴頭。
肯不折腰同栗里，獨能全髮似露洲。
嗟余衰朽躬難趁，此世應稀有此遊。 羅山 安仁煥

遲遲澗畔起齋樓，和氣自生泗水流。
簣土爲山連仞勢，淵源達海沂長洲。
群賢畢至拭青眼，文物繼開新白頭。
不下金蘭沂浴列，尋芳勝日卜清遊。 月波 李機淳

先生甄坐太行樓，道德溱溱百世流。
松月相交千古表，詩書大振萬人頭。
晚娛晦跡雲林壑，早辭公車石澗洲。
門路淵源經歷史，師於東海勉菴遊。 後松 沈棋洪

清陰鬱鬱庇土樓，南北東西影滿流。
君子精神常潤色，丈夫志介最居頭。

鷗來展翼飛三逕，鳩又搏身及十洲。
苦節歲寒然後識，將令多士想今遊。 鳶山 盧奎海 謹稿

箕穎之西澗畔樓，會臨多士盡清流。
南州儒雅誰居右，東國文章自在頭。
煙柳依依鶯出谷，風蒲獵獵鷺停洲。
此心已有桑梓感，幾日躋攀與共遊。 靈光白岫面良城里 農隱 金炯善

講帳高開湖上樓，管絃何必列風流。
醒文醉樂同知己，賢主嘉賓不讓頭。
道有淵源尋泗水，僊其誕術遠瀛洲。
門生故舊如雲集，竟日松陰作勝遊。 白蓮洞 金仁善

大田里下月波樓，冠服無非講道流。
蘭亭契事已前輩，黃鶴詩篇誰上頭。
一團和氣春生席，九曲權歌水滿洲。
澗畔遲松含翠在，乎同士心盍從遊。 白蓮洞 金稅允

別區如畫畫中樓，一脈詞源不盡流。
白髮文章醒醉裡，青春才士送迎頭。
鸞高芳草蒸烟界，客渡斜陽霽月洲。
持節松翁多得格，情樽滿載許同遊。 高敞 晚松 金相洽

甲山一脈起斯樓，嘉蹟芳名百世流。
宴巨文章鄉社裡，花新隱逸老人頭。
烟晴鶴返遲松宅，地古亭臨滿月洲。
往事記來思主義，酣歌揖讓正真遊。 錦岡 金奎鉉

樓上青松松下樓，遲遲松葉帶清流。
吟鞭春樹新開裏，沽酒斜陽古渡頭。
轡杖同來芳艸岸，棹歌多在白鷗洲。
主翁詩賦誰能過，碎玉聲聲足一遊。 藥軒 魯淵鎬

次遲松齋原韻

立立青松覆古泉，子枝孫葉自相連。
鶴棲庭畔偏無俗，鹿下陰邊別有天。
沽酒斜陽紅杏里，吟鞭春水綠楊烟。
應知詩骨清於玉，何恨遲遲晚翠然。 錦岡 金奎鉉

卷十 附錄 三：遲松齋講會韻

丁丑九月二十日

遲松齋講會韻

遲遲松畔結吾廬，七十年來恐負初。
笑殺謾憂今世事，平生浪讀故人書。
悲秋白髮心何壯，失路青雲夢亦疎。
同志同聲多惠顧，黃花泛酒興有餘。 遲松 金錫煥

月坡亭外又新廬，時則三秋黃菊初。
我是難忘前後約，君惟蘊抱古今書。
無詩勝地皆非樂，有酒離筵誼不疎。
傍人豈識主翁趣，教子訓孫道自餘。 於田里 金明西

勝區肯構數間廬，額以松名愛有初。
趣得陶淵盤裡事，心深范質曉中書。
清琴每是因聽晚，景須非觸雲上疎。
第待良春三二月，莫言桃李妬芳餘。 坡平 尹滋慶 謹稿

今初此會又松廬，滿座諸賓不負初。
修禊許同三逕月，論文已足五車書。
洞烟入暮山雲纈，園菊生香岸柳疎。
第看老少長時興，東酌西飲半醉餘。 金錫休

爲惜閑龍臥草廬，已過風雨暮春初。
翻波桑海憂今世，暇日漁樵讀古書。
露濕黃花珠點綴，霜侵紅樹錦扶疎。
非徒士友爭瞻慕，樂事桃園興有餘。 金錫午

晚翠松陰一草廬，乘期來者午陽初。
豪興滔滔三酌酒，理論細細五車書。
菊秀春光花正爛，梧驚秋信葉先疎。
囂囂樂道林泉下，使此後生彩有餘。 柳川 牟鐘寬

石下松邊一草廬，厥功自在始營初。
檻前山削峰峰玉，案上卷藏句句書。
逢別隨時來遠近，講論有道共親疎。
文士彬彬同守約，前春勝事又秋餘。 瑟山 李東憲

當年肯構一茅廬，終慕何如慎厥初。
九月生香籬下菊，百年喫苦案前書。
早從門路人相識，晚卜菟裘世與疎。
不是尋常今日會，壽樽起舞樂猶餘。 子 金佑永

松三逕裏一茅廬，和氣與人自太初。
世態多違齊魯俗，禮儀尚在漢唐書。
黃花浥露虫聲濕，畫閣高風鷺語疎。
少長志同咸集席，經營此會幾年餘。 金采憲

先生高臥一茅廬，大夢遲遲日上初。
白首胸中藏寶劍，青燈夜半讀兵書。
蕭蕭落葉秋霜烈，鬱鬱寒松晚雨疎。
剩得塵晴安樂世，年年講會不窮餘。 後翠 金東昕

山水中間有一廬，主翁清味我東初。
黃花九月香浮酒，白髮七旬坐讀書。

剩得仙緣雲鶴駕，難聞俗說野人踪。
四時佳景今安在，笑指松春晚節餘。 新平后人 後止 宋文化

爲斯講會會斯廬，舊國文明見復初。
黃花泛酌陶潛酒，青簡盈床孔氏書。
衣冠須盡東南美，交結那因貧富疎。
齋畔松陰春似坐，渾然和氣一團餘。 金稅允

可容於廈不容廬，美盡東南勝會初。
洒落精神同水月，清閑身勢老琴書。
別開絺帳春風暖，深閉松門俗事疎。
講說纔休人欲散，窓前日影未多餘。 菊軒 金在瓊

靜裡先生一草廬，學問師業自今初。
養竹千年曾培土，檠燈半夜又看書。
仙緣有意山雲間，野說無情谷鳥疎。
錫我百朋留後約，黃花九月酒香餘。 竹山后人 白坡 安相燮

先生營建一松廬，南國奎星照耀初。
夢外青雲眞似夢，書中白髮又看書。
黃花樽畔秋期晚，落葉窓前月影疎。
賢主嘉賓同樂只，蘭亭春約大田餘。 菊圃 鄭萬林

大田深處起松廬，不負先生有志初。
一代風流飲以酒，百年事業老於書。
黃花發滿園容富，大稻收來野色疎。
九月無違三月約，衣冠秩秩古情餘。 雲坡 鄭文錫

亭亭獨立潤松廬，含晚翠兮不變初。
樽畔時迎朋友醉，案頭多積聖賢書。
田園偏愛黃花在，湖海相逢白髮疎。
方領圓冠登一榻，威儀復覩昔時餘。 竹坡 鄭元植

多士憂君老草廬，西風復合暮春初。
論今高致樽盈酒，鑑後清玲案貯書。
晚菊生花秋澹泊，早梧下葉雨蕭疎。
講筵此日殷懃語，爲賀芳名永有餘。 龍隱 李載烈

蘭會重新隱谷廬，初開丁丑暮春初。
堪歎吾道當八日，惟有先生講古書。
烟散平湖孤棹出，秋深窮壑萬林疎。
遲遲松樹亭亭立，白雪千霜老骨餘。 後溪 金鳳海

考盤勝地築斯廬，文物彬彬依舊初。
百世名聲垂竹帛，一生事業付詩書。
庭前寶樹能成密，澗畔長松恆不疎。
這外佳緣何以得，清風明月兩相餘。 金洪玄

山水中間卜草廬，閑雲幽鳥約同初。
聊探隱士憐苔逕，欲對前賢閱案書。
依檻松烟青霧霧，透牕梧月碧疎疎。
莫言林下孤清興，坐了春風竟日餘。 立菴 李聖珍

勝事爲開松下廬，時維晚節菊黃初。
詩醪消暢多佳興，義理講來有古書。

高風趨走青衿競，同氣逢迎白髮疎。
門路淵源真已正，佇看吾道復明餘。 松隱 尹鎔炳

秋天日暖海西廬，來此良朋不負初。
客子歡情樽有酒，主翁真計案儲書。
花開籬菊霜心禦，葉落庭梧月影疎。
未了春緣今會樂，風流筵大百觴餘。 杞泉 金會一

遲遲松畔結其廬，門下衣冠復厥初。
不隨伊呂釣耕業，每學孔顏傳授書。
菊香入戶花陰密，竹色通軒樹影疎。
世上功名如視芥，平生樂道興猶餘。 松溪 崔炳休

第一湖南始建廬，梧桐霽月菊花初。
清歌華榻秋將暮，落葉離亭日亦疎。
大志有時多醉酒，閒情無日不看書。
如雲士友元元事，滿座風流興自餘。 月川 全圭相

多士彬彬會此廬，先生道學復其初。
清秋菊露題時史，方夜松燈讀好書。
短砌春長稚竹密，半庭影散禿梧疎。
南州一片回陽線，宜咏宜觴興有餘。 雲山 金士林

鬱鬱松前最起廬，看看不變復如初。
一貫賢傳時習道，千篇詩讀可能書。
蘿分紗窓來寂寞，金風斜日已蕭疎。
今席若論於古事，英雄往跡劔歌餘。 晚翠 朴景來

主翁別館近仙廬，佳會重重樂事初。
棲息烟霞千歲癖，消磨日月一床書。
曲山文望人多仰，特地風流世正踈。
絃誦之聲繼不絕，誰知陽脈此間餘。 芝山 白南植

遲遲澗畔寄松廬，痼癖烟霞隱谷初。
率性必修君子道，居家多讀古人書。
經綸做去丹心固，義氣老來白髮踈。
佳遯百年真活計，江山詩債猶餘。 玄初 金宗洙

不遇英雄老草廬，君遊山下有人初。
黃花日暖淵明採，白髮秋涼永叔書。
一代文章無共敵，南州士望不曾踈。
虛舟滿載江南興，與下西湖樂有餘。 九曲 李敦佶

湖南獨擅此詩廬，多主風流一代初。
惟有春秋持史筆，能知今古讀奇書。
前期參會花開盛，是日更來葉落踈。
堂外物情清淑氣，川雲嶺月可晴餘。 南浦 高光述

詩會大開松下廬，東賓西友揖遊初。
青春二八做吾業，白鶴七旬偕老書。
黃菊霜晴庭面淡，碧梧月上井心踈。
好期始約丹楓節，看酒盈樽興有餘。 李載官

松戶竹扉草一廬，如雲會者送迎初。
風流盡日非歌舞，士業平生看案書。

野澗山低觀海近，梧樨桑老補籬疎。 牟鍾洙

澗畔松間一草廬，古無此禊自今初。
東壁寶藏三尺劒，西箱塵埋五車書。
酒爛菊樽秋色晚，月臨竹樹夜光疎。
斯會豈爲心外事，年年歲歲興猶餘。 李明準

松翁卜此草幽廬，九月西天野菊初。
百行能爲千歲館，白頭何瘦十年書。
別庄花石長春好，浪跡江湖暮雨疎。
一問人間多小說，北窓笑指素琴餘。 趙南衡

地接華麗卜此廬，遂功亭上舉各初。
好吟是日看佳句，詳味前年誦古書。
礪畔遲遲松守節，院中依依竹無疎。
一團和氣誰誰在，香酒勸吾醉興餘。 朴成俊

智水仁山起一廬，迎賓是日更爲初。
叙懷亭上閑吟律，修道案頭渾味書。
黃菊芬芳香有厚，青松鬱密節無疎。
人間事業耕且讀，君子遺風讀有餘。 李玟彥

湖南始設講詩廬，閑士隱倫覺夢初。
論議最超今俗語，詠歌盡是左人書。
謙恭賓客儀無忽，莊肅主翁禮不疎。
和氣溫情如此會，也應來戲更期餘。 朴璣圭

水碧山深松竹廬，更成慶宴此非初。
詩懷疊疊吟佳律，道味澹澹誦經書。
親族在隣心有樂，情朋自遠誼無疎。
庭前竇樹枝枝盛，承序奉盃禮義餘。 金錫南

先生號別又兼廬，思得始終起自初。
若歸今日等閒事，何讀後時經理書。
好友多情言早晚，高門和悅合親疎。
春論秋結應天數，壽福慶星照有餘。 姜仁行

一望西海上高廬，晚翠遲翁守厥初。
露際黃花爲欲寫，秋深白髮且看書。
年來遯跡棲雲密，老去無親把酒疎。
回思昔日蘭亭事，今古一般興有餘。 箕隱 陳東範

君遊山下一茅廬，立雪諸生講道初。
老主丹心懸日月，年來素履樂琴書。
賀詩傾郡儒林至，仙酒登盤世意疎。
隱谷烟霞精彩地，先生晚節歲寒餘。 渴龜里 止一 魯正基

歲寒然後最高廬，十丈名輝不變初。
壯跡早年遊翰墨，潛蹤休暇按詩書。
三春拜見桃花爛，九月登臨楓葉疎。 文岩 文士玄

海山一抹又匡廬，長有師門入德初。
開會欲聞多士韻，送窮幾讀古人書。
蒼葭含露沚中望，黃菊能醪石畔疎。

驚鴈聲聲無定處，幸逢佳節九秋餘。 冬岩 李京有

山深水碧一高廬，設宴迎賓反遂初。
今日浪吟諸士律，前年正讀聖人書。
遲遲澗畔松持節，倚倚庭邊竹不疎。
菊有芬芳新釀酒，爲吾頻酌醉情遊。 李鍾云

北斗文星照此廬，九秋佳約菊花初。
從今學士吟唐韻，感舊浮生惜漢書。
月色團團詩亦富，雨聲颯颯夢將疎。
南方君子知音席，分乎斜陽其臭餘。 鄭二民

箕城以北構斯廬，額揭遲松慎厥初。
娛樂潛心君子道，行居爲鑑古人書。
籬邊黃菊樽前熟，陌上紅塵世外疎。
可愛尺欄精且澳，文明來訪叙情餘。 翠亭 趙炳翁

別有洞天一草廬，九秋講會自今初。
道心能暫千年佛，性癖常開萬卷書。
樂樂紅顏同酒醉，蕭蕭白髮與霜疎。
先生號曰遲松謂，澗畔幾多聽水餘。 梅坡 金在福

星流南極結斯廬，七十文章又綠初。
老去經綸成竹帛，生來事業屬詩書。
蜂歌獻壽青衿密，蝶舞彩衣白髮疎。
此中亦有難話處，后石當時結限餘。 鶴山 金甲守

松翁遲節白雲廬，一燭復明九月初。
別業東南鄰水石，精神今古樂琴書。
黃花笑裏重陽爛，細雨聲中萬柳疎。
不老香風吹滿社，士林俊彩畫猶餘。 高敞 晚松 金相洽

欲學澗松結草廬，士林講會亦非初。
慕賢事記千年史，樂道意深萬卷書。
鬱鬱蒼蒼遲且晚，亭亭落落密如疎。
春城雖曰芳名漏，高節歲寒然後餘。 後松 朴仁培

老龍深臥碧山廬，苦海要津謝絕初。
竹風鳴瑟聽韶樂，菊露濡毫寫晉書。
交能有道朋來遠，居必擇隣德不疎。
暇以春秋君子會，講論遺蹟永年餘。 晚松 沈又澤

卷十一 附錄 四：遲松齋詩會韻

丁亥九月三十日

遲松齋詩會

遲松齋落成宴韻

遲松齋詩會

先人齋舍，蓋成於在世時，而遽泣風樹，未暇一會。茲以丁亥九月三十日，邀群賢屬小酌，聊做古人築室作詩之意，感賦一絕，仍以示群賢求和。

丹藥黃花屬暮秋，白醪青菜做清遊。
百年風樹偏多感，咏罷斯干淚不收。 佑永

棟楹窓壁幾春秋，咸集群賢暇日遊。
鳳子麟孫善繼述，後生只飲大功收。 桂庭 李璇鎬

經歲經年又到秋，好從講道願而遊。
遲松鬱鬱齋成落，莫說風塵未盡收。 李東憲

黃花九月鴈聲秋，迨慕賓朋萃會遊。
澗畔遲松依舊立，悠悠感想正難收。 後山 文勤泰

遲松齋役迄今秋，楓菊助成鎮日遊。
從古文章無寂寞，先生風致後人收。 寒泉 尹桂炳

萬木風霜搖落秋，松齋屹立客來遊。
先生去後堂而構，管領西湖景物收。 從表侄 尹滿炳

香稻黃花一色秋，爲雖倍憶舊時遊。
兄歸極樂亭猶在，灑淚龍山未易收。 從弟 錫休

敬存齋顏經幾秋，由來絃誦久無收。
曾年只恨未晉謁，記念爲翁此日遊。 宗生 雪峰 午炫

四山草木俱腓秋，晚翠松亭盍盍收。
宗老文章聞已久，行裝只恐不忝遊。 宗下生 又思 元坤

何幸宴開丁亥秋，儒林到此興難收。
斜陽謾醉黃花酒，只願詩成竟夜遊。 宗生 月培 孝煥

松齋落成際九秋，從看異卉晚時收。
系出寒門應有誼，璿源正重賀斯遊。 族下生 竹圃 潤炳

齋成問幾秋，永不頌聲收。
追遠遲松日，堪將晚翠遊。 宗下生 鴛汀 宗煥

以松題額幾經秋，切取歲寒後凋收。
今來箕閣踐真蹟，勝友如雲作巨遊。 宗下生 鐘元

葭管飛灰無射秋，松亭宴飲落成收。
未由進謁無窮恨，不愧吾行此日遊。 宗生 良窩 性立

亭亭松樹幾春秋，昔有松翁松下遊。
會事至今專擅美，後人應作畫圖收。 三從弟 錫七

松亭宴落屈情秋，健筆雄詞席上遊。
客散酒醒天已暮，淋山叢桂露初收。 四從孫 采憲

亭築居然已十秋，詞林雲集盡清遊。
酒爛却憶身先事，長使雲仍淚未收。 族弟 泰化

遲松晚翠幾千秋，翁去亭空猿鶴遊。
詩罷酒醒天欲暮，滿山楓葉雨初收。 從弟 錫午

十載經營功訖秋，一山楓菊做清遊。
隣鄉賴此多生色，下界風塵特地收。 穎下 尹道炳

一木鬱蒼獨不秋，隱然精彩古人遊。
遲松齋屹遲松翠，百世清風永未收。 心山 尹錫福

老枝經劫幾春秋，應是松翁昔日遊。
俗塵不染三間淨，檻外景光未盡收。 同人

黃花滿地白雲秋，友待重陽暇日遊。
四面星辰夜又靜，津津餘興正難收。 金甲鉉

新醪方熟菊花秋，卜屋灑然多士遊。
數間靜肅塵思遠，一境清虛世慮收。 李在玉

此齋肯構幾經秋，恨未相從暇日遊。
松老橫欄人宛在，後凋餘韻想應收。

黃菊丹楓是九秋，速賓佳日此齋遊。
構成十載今新落，紹述深功可得收。 錦城 吳昌洙

新築落成卜暮秋，黃花紅葉畫中遊。
斯間惟有壯觀景，檻外群帆散不收。 尹珏炳

建築此亭過幾秋，如今始設落成遊。
生前卒後斯文蹟，遠與百年未盡收。 松坡 韓元芳

澗畔遲松閱幾秋，歲寒羞比衆芳遊。
孤亭特尚亭亭立，箕穎風光次第收。 宗下 三省 珍坤

齋役完成丁亥秋，先生去後後生遊。
西湖眉目由於此，登則人皆景物收。 尹奇炳

先生壯蹟復今秋，文社多人賦勝遊。
陽脈曙光惟在此，塵雲淫雨一齊收。 丁承元

松老齋成適晚秋，安得此日等閒遊。
一篇遺墨看如昨，脫稿當年字字收。 吳根晃

古洞煙霞盡入秋，落成大宴滿亭遊。
壁篆額書誠有蹟，近簾勝槩幾多收。 李京有

時維九月序三秋，少長咸從此日遊。
華藻玉池松節固，後凋方識歲寒收。 月樵 金箕三

適成暇會正三秋，倍憶先生詩上遊。
前日呼松今日又，蒼陰何可一時收。 文士玄

霜葉交紅已暮秋，宴高勝地大同遊。
巨人壯蹟支離在，奇像萬千恒不收。 蓮坡 金在乙

何須盛宴晚今秋，恨未先生歲共遊。
雖然君輩欲承業，和氣津津恒不收。 崔相元

菊花時節適清秋，何幸今年此日遊。
先生才德傳餘蔭，世世遺風故不收。 冬巖 羅基東

百感於人最感秋，秋秋望美向君遊。
遊來訪主文章生，生後光焰紫不收。 牟順豐

遲遲晚翠幾春秋，應識先生陰下遊。
招於泉木傍齋立，莫使樵夫剪伐收。 林長澤

禾納牟耕覺晚秋，際茲晦日作南遊。
應識先生高尚士，山川精彩不差收。 牟營巖

松齋崢嶸楮洞秋，南通芝谷北君遊。
西湖風景知多少，詠罷斜陽半箔收。 月隱 朴成俊

詩人最是感清秋，又上斯樓作勝遊。
種松於院題松額，枝葉蒼蒼春不收。 月軒 鄭鍾甫

文風忽振士林秋，魯服鄒冠滿座遊。
騷壇變作爭雄地，白戰詩鋒勇不收。 全鍾煥

祭告落成晚菊秋, 歲邀士友上樓遊。
先生信息今何處, 回首青山漏不收。 芝湖 金而連

霜寒木落屆三秋, 幸得今年盛大遊。
扁額維新齋上揭, 誰知歲色奄然收。 冬巖 鄭奎林

伴松齋上講春秋, 今會勝於前日遊。
滿案詩書聽又覽, 先生粹面不眞收。 牟營台

共議營齋度幾秋, 感先誠意卜清遊。
高風賴此遲松大, 禮義漫漫不肯收。 竹軒 裴良珍

齋聲時適屬三秋, 滿座諸賢願此遊。
先生清趣兼詩律, 山海風煙斯盡收。 金東浩

卜築此樓度幾秋, 講會高朋偶得遊。
遲松長大村前在, 白日順風不肯收。 裴善會

新樓成宴莫如秋, 鴈叫風清盡日遊。
回看天涯多少景, 孤帆歸處落霞收。 朴福敏

菊艷楓丹正好秋, 遲松精舍幾人遊。
絃歌終日遣清興, 不覺前村烟氣收。 曹龍善

畫棟適成九月秋, 遠方來友共歡遊。
澗松盍盍黃花滿, 到此詩人興未收。 金東旭

遽然卜日際清秋，賓主東南接勝遊。
物外閒庄亭獨立，松風不盡暮烟收。 金良鉉

紫霞滿地菊花秋，勝友如雲盡日遊。
夜久月明專無夢，悠悠心事恨難收。 林川 張鉉斗

爲祝斯齋保萬秋，天晴此日足清遊。
先生逝後春過九，未就厥功有子收。 沈棋寶

時惟九月屬三秋，少長咸來足諾遊。
穢政多年無暇及，先生遺業喜今收。 任京守

瞻彼遲松萬萬秋，是翁有子卜斯遊。
生光隱谷無窮日，應見千枝萬葉收。 丁京祚

齋營人古幾春秋，繼後登臨有子遊。
積歲盡誠先意達，孝心結果以今收。 草溪 李祐萬

孝子深悲暮去秋，而今恨不早開遊。
人心每每應天理，國有建時齋有收。 朴魯洪

營築遲遲過幾秋，人和國泰卜登遊。
工成四境俱來賀，九月天高雨始收。 魯鎮佑

范澗移栽度幾秋，主翁差愛盤桓遊。
登臨猶有羹牆慕，不覺身心自斂收。 羅重煥

遲松特立幾春秋, 歲久將知鶴已遊。
蒼蒼洞口光餘有, 長播聲音以後收。 南浦 高光述

盛宴廣開西海秋, 詩人墨客共來遊。
遲松齋上風流好, 多少景光一幅收。 張圭鳳

遲松營構報清秋, 臺下招賢滿序遊。
詩賦金門千載蹟, 月開花樹萬塵收。 金澤永

遲松齋落成宴韻

萬壑風林海上秋，遲松齋下有高遊。
文章古蹟惟存額，滿洞烟霞未盡收。 金鳳鉉

先生至後閱春秋，最喜重陽卜日遊。
亭外清光今始見，白雲不散翠烟收。 金在喆

節屆重陽菊九秋，願言他日續斯遊。
此齋只恨先生去，松翠遲遲風物收。 鄭德有

先生才德達千秋，諸士勿忘此日遊。
連庭黃菊露中發，滿壑丹楓霜後收。 鄭濟善

落成宴飲際冬秋，仰賀鄉儒盡日遊。
眼外如圖多少景，奚囊箋幅正難收。 鄭尙泰

遲松亭節送春秋，多士會雲竟日遊。
賢主芳名誰不惜，相傳詩賦錦束收。 申良三

山水古風動是秋，華門士友落成遊。
百年壯德惟餘蹟，滿洞瑞光常未收。 宗下 金炳亮

築垓香蹟遺千秋，白髮憾情此日遊。
垂柳門前朝雨濕，亭松澗畔暮烟收。 鄭二民

黃花丹葉晚誇秋，爲惜良辰假此遊。

古代遺風今復續，松軒圓覺俗訛收。 林允寬

齋成其日幾春秋，回憶先生絕勝遊。
畔松之下石澗上，谷水添觴無處收。 洪南植

黃菊丹楓霜葉秋，大開宴飲落之遊。
遲遲澗畔松再鬱，春色青青恒不收。 崔炳休

宴落適丁送晚秋，今人勝事古人遊。
齋室翼然澗畔上，先生偉蹟正無收。 李孔範

功埃落成今幾秋，主翁已伴赤松遊。
思親此日君應感，況復太行雲不收。 牟汶基

暇日登樓正值秋，秋光如畫畫中遊。
軒外青松誰所種，先生手澤不曾收。 牟亮基

落成是日接清秋，使此吾生剩得遊。
滿架琴書餘手澤，嘉言永不耳邊收。 朴仁培

稽古肯堂今幾秋，想仰先生舊日遊。
昌大窮門由孝敬，齊歌所趣興難收。 李和宣

肯構肯堂營幾秋，願將稽古與同遊。
入簾蘿月詩懷潤，滿地松風俗態收。 金鍾廈

文名傳賜復千秋，與子應期赤壁遊。

故情恨嘆無尋處，松下山亭影不收。 朴文八

時適良辰九月秋，吾生盡賀落成遊。
登樓豈不羹牆慕，只恨詞源學問收。 張貴孫

營築斯亭有幾秋，落成今日一期遊。
晝宵仰慕先生德，樓上松風故不收。 朴良春

適丁九月菊黃秋，祝賀落成好共遊。
若使先生生在世，泮泮談笑永無收。 李昌彥

亭子落成際晚秋，黃花白酒作清遊。
却憶先生當日事，萬事懷抱摠難收。 李啓淳

黃菊丹楓適九秋，遲松齋上幾人遊。
風流詩酒吾能樂，更見榮華尚未收。 金鳳煥

新齋落成際九秋，好將今日晚成遊。
詩成酒滿胸衿潤，亭外風光未盡收。 林成云

時維九月立功秋，才子佳人得一遊。
把酒倚松因古事，相傳言語竟無收。 趙炳翁

肯構堂下獻功秋，滿座諸人憶昔遊。
雅契相傳詩一篇，高山流水景難收。 金周鉉

遲松春好菊花秋，爭把青黃卜日遊。

回頭追憶先生蹟，書案不曾筆硯收。 李載官

隱谷名亭閱幾秋，二難相接咏觴遊。
湖山自此增輝彩，十里烟霞未盡收。 張文相

卜築松齋問幾秋，後人俾作落成遊。
詩如山堆樽如海，一咏一觴興未收。 魯福相

遲松義氣凜爭秋，齋一成芳追慕遊。
賢孫振振能承美，千載芳名應不收。 魯吉龍

一年精爽在三秋，正適風騷得意遊。
院裏猶存松與菊，斯人去後有肯收。 丁永浩

佳辰盛會屬三秋，光霽高亭大一遊。
頽案惟多平素記，湖南勝槩入詩收。 洪基淳

遲松特立節春秋，鳴世文章南國遊。
獨守歲寒千古節，凜乎烈烈象芳收。 金正淑

年來年去幾春秋，子子孫孫開此遊。
遲松亭上悽然坐，諸友詩歌不肯收。 金彥永

盈門多士義爭秋，更續前賢講道遊。
如今回憶先生像，月出愴溟雨色收。 李東昶

是日正當丁亥秋，東南盡美樂而遊。

谷隱先生爲隱谷，祥雲瑞日不差收。 金永業

老松長翠不知秋，今見黃花夢覺遊。
地隔仙鄉應有道，紛紜俗說忽然收。 金熙達

天氣澄清序屬秋，少長咸集作優遊。
黃菊丹楓時正好，流觴詩幅故無收。 李永彩

時屬黃花九月秋，滿堂和氣客清遊。
如今追憶先生事，懷緒萬端亦未收。 韓泰圭

是日落成適值秋，相逢意氣一期遊。
滿座高朋詩書講，道源深深正不收。 申明雨

此齋營築問幾秋，遠近會賓盡美遊。
肖子賢孫猶振振，詩文遺蹟豈能收。 張洪烈

四時第一重陽秋，營落松亭多士遊。
世世華名無不振，深深難事盡爲收。 李炳碩

名傳死後幾千秋，隣接遲松白鶴遊。
一詠一歌鳴岳席，終日論情興未收。 李奉準

高節秀標經幾秋，閒情雅趣作清遊。
灑然一屋依山築，詩禮遺風賴不收。 尹厚重

齋與遲松共幾秋，落成此日賦優遊。

煙霞的歷先生後，萬像森羅不盡收。 張京植

遲松高號亘千秋，幸使騷人暇日遊。
唐李宋蘇千載後，遺風餘韻不曾收。 李允煥

築圃黃禾已盡秋，遲松齋下士林遊。
天翁亦慰先生志，日朗氣清雲露收。 丁又岩

勝宴開於晚菊秋，彬彬多士會同遊。
人雖古矣齋新生，澗畔風聲永不收。 李允明

滿庭楓菊告清秋，幸上斯樓作優遊。
追憶先生人已遠，西湖風景有誰收。 鄭尙俊

朱門甲第四時秋，不妨先生暮此遊。
詩書一曲歌佳聲，玉笛醉興禮義收。 林朱澤

和氣爲春義氣秋，一鄉士友願從遊。
由子傳孫無盡蹟，與天地固不差收。 李成初

名亭飲樂屬清秋，南國衣冠秩秩遊。
松茂竹苞登善頌，烟雲不暇此中收。 崔炳述

新築告成正是秋，登臨怱怱憶前遊。
風濤儒雅今何處，霽月空樑夢不收。 晚坡 沈琯澤

楓菊滿庭是九秋，古人亭上今人遊。

先生去後許多景，詩手何人要有收。 金載鳳

一上高樓感古秋，先生已去後生遊。
只有澗松含晚翠，陶陶詩興與誰收。 明巖 申用官

手種青松閱幾秋，主翁當日任遨遊。
田園荒穢人無到，更有賢仍也肯收。 南阜 李起泰

時維九月序三秋，南國衣冠暇日遊。
會事大同詩酒足，朝來不覺夕陽收。 魯文相

孤鶩落霞滕閣秋，仙禽明月赤江遊。
千年傾耳廖無聞，文雅風濤此地收。 綱齋 魯玟杓

一代文章名萬秋，別開精舍接君遊。
入門先仰高飛鳳，卓越風濤是薛收。 菊軒 金在瓊

明窓淨室月清秋，文士彬彬盡夏遊。
小松擬作支天柱，昂彼雲間翠不收。 金在翊

遲松齋落適斯秋，此地吾生作勝遊。
那將今日文章手，一軸詩中萬像收。 薰川 李弘雨

新齋幽敞落成秋，美盡東南竟日遊。
紫陽源脉餘於此，道說支離異說收。 全京守

松風梧月滿窓秋，白髮青衿共會遊。

試飲香醪多別味，知應籬下菊英收。 金永務

萬山草木皆入秋，遲松獨青鶴仙遊。
庭前竇樹青青又，塵世亂邦古風收。 金炳德

松齋營築幾年秋，恨未當年飲落遊。
送迎長老天應感，日暖如春雲靄收。 李東郁

黃花紅葉是清秋，會此高齋作勝遊。
第看案上書多少，尙不先生手澤收。 金喜永

先生高蹟遺千秋，吟餘風月後人遊。
江山依舊人不在，悵悵悲懷淚不收。 申鉉秉

瑞城築閣誦春秋，滿座儒林結誼遊。
詩酒不知今日樂，先生高蹟萬年收。 安相燮

落成此日際三秋，四面多士大勝遊。
先生淑德於斯在，蘭郁芝芳香不收。 朴乃玉

師門記念晚今秋，鄉士愛深樂此遊。
祝賀奉安多感古，遲松遺訓筆難收。 金永燮

江山淑氣入於秋，白髮青衿共樂遊。
翠兮松耶遲遲節，冬令雖寒不可收。 鄭文錫

公像在中永萬秋，後生頌德滿場遊。

葉丹古洞黃花老，風靜清天淫雨收。 沈棋珍

獵獵西風是晚秋，遲松齋上客來遊。
溪山淑氣勝何處，無限景光未盡收。 裴在浩

落晏盛開稻熟秋，樂聞隱谷一天遊。
遲松已古松猶存，晚達後生文種收。 李瑛憲

遲松齋屹不知秋，客帶春光滿座遊。
翁化飛仙歲緣數，箇中風景善人收。 後正 宋貞植

海山楓菊老重秋，晚酌新亭續舊遊。
礪畔寒松今鬱翠，風光留興後人收。 文在南

卜築一堂經幾秋，今爲諸士一吟遊。
如此勝筵難再得，守寒壯蹟有誰收。 芝永

聖學遺風度幾秋，於今將爲偷閒遊。
斯門忽憶先生事，天地暝暝月色收。 羅州郡文平面學橋里 心溟 趙誠台

春事勤勞必有秋，士家若是不虛遊。
至今追筭遲松額，但恨成功未盡收。 月也面月岳里 東萊人 樂菴 鄭元謨

遲松營構報情秋，坵下招賢滿序遊。
詩賦金門千載績，月開花樹萬塵收。 新光水井 金澤永

호남한국학 자료총서 8

지 송 사 고

인쇄 2023년 9월 11일
발행 2023년 9월 22일

발행인 천득염
발행처 (재)한국학호남진흥원
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52번길 53-27, 4층
전화 062-603-9600 팩스 062-941-6705
홈페이지 <http://hiks.or.kr>

교점 권수용(한국학호남진흥원 책임연구위원)

편집제작 도서출판 사람들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23번길 3-1
전화 062-227-7820 팩스 062-227-7823

<비매품>

ISBN 979-11-90608-68-8(93060)

본 도서는 2023년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으며,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습니다.

